

제43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시 : 2016년 1월 29일(금요일)

장소 : 연세대학교 외솔관 110호(제1발표장), 106호(제2발표장)

주제 : 국어 문법 연구의 현황과 전망

주최 : 한말연구학회

개회식(제1 발표장)		사회: 최영미(경동대)	
10:10 ~ 10:30	등록 및 접수		
10:30	개회 및 이동		
제1부	<제1 분과> 자유발표	<제2 분과> 자유발표	
	제1 발표장	제2 발표장	사회: 전정미(상명대)
	사회: 서은아(상명대)		
10:40 ~ 11:10	의문문과 양태 '-을지'와 '-다고'류를 중심으로- 명정희(서강대)	모바일 텍스트에 사용된 지역어의 양상과 기능 박선우,유현지,이수미(계명대)	최영미(경동대)
11:10 ~ 11:40	<대한매일신보> 논설에 나타난 어찌말 매인이름씨 연구 '-양', '뒸', '테(체)'를 중심으로- 최대희(제주대)	/ㄴ르/ 연쇄의 변이형을 통해 본 언어 의식의 일면 안병섭(고려대)	김연희(대진대)
점심 : 11:40~13:10			
제2부	특 강	제1 발표장	사회: 허윤희(건국대)
13:10 ~ 14:00	언어관의 양상과 조어론 연구 동향 하치근(동아대)		
휴식 : 14:00~14:10			
제3부	<제3 분과> 주제발표 : 국어 문법 연구의 현황과 전망	제1 발표장	사회: 허재영(단국대)
14:10 ~ 14:20	학회장 인사말 조일규(평택대)		
14:20 ~ 15:00	문법에서의 환유 박진호(서울대)	김용경(경동대)	
15:00 ~ 15:40	규범적 관점의 문법 연구와 쟁점 정희창(성균관대)	박동근(대진대)	
15:40 ~ 16:20	중세국어 문법 연구의 현황과 전망 김유범(고려대)	김양진(경희대)	
휴식 : 16:20~16:30			
제4부	<제4 분과> 자유발표	<제5 분과> 자유발표	
	제1 발표장	제2 발표장	사회: 김정호(춘천교대)
	사회: 박석준(배재대)		
16:30 ~ 17:00	한국어교육 능력검정시험 문항 분석 장준영(건국대)	'형식적 인용구조'를 기반으로 한 도움토씨 '-이란'의 문 법화 과정 고찰-20세기 초중반까지의 문헌을 중심으로- 윤혜영(한라대)	김병건(건국대)
17:00 ~ 17:30	통일성과 응집성 관련 성취 기준에 대한 재검토 주세형(서강대)	관형사와 접두사 경계의 모호성에 대한 연구-일 음절 한자어를 대상으로- 정수현(건국대)	안신혜(건국대)
17:30 ~ 18:00	국어교과서에서 매체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신호철(청주대)	어문 규정의 어원 설명 검토 이동석(한국교원대)	조태린(대구대)
< 폐회 및 임시총회 >			

한 말 연 구 학 회

차 례

【제1부 제1 분과 발표】

명정희(서강대)	의문문과 양태 -‘-을지’와 ‘-다고’류를 중심으로-	1
박은정(고려대)	토론	17
최대희(제주대)	<대한매일신보> 논설에 나타난 어찌말 매인이름씨 연구 -‘양’, ‘덧’, ‘테(체)’를 중심으로-	19
김건희(서원대)	토론	31

【제1부 제2 분과 발표】

박선우(계명대)	모바일 텍스트에 사용된 지역어의 양상과 기능	33
유현지, 이수미(계명대)	토론	52
최영미(경동대)	/ㄴ ㄹ/ 변이형을 통해 본 언어의식의 일면	54
안병섭(고려대)	토론	62

【제2부 특 강】

하지근(동아대)	언어관의 양상과 조어론 연구 동향	63
----------	--------------------	----

【제3부 제3 분과 주제발표】

박진호(서울대)	문법에서의 환유	66
김용경(경동대)	토론	77
정희창(성균관대)	규범적 관점의 문법 연구와 쟁점	78
박동근(대진대)	토론	91
김유범(고려대)	중세국어 문법 연구의 현황과 전망	93
김양진(경희대)	토론	103

【제4부 제4 분과 발표】

장준영(건국대)	한국어교육 능력검정시험 문항 분석	104
정대현(협성대)	토론	116
주세형(서강대)	통일성과 응집성 관련 성취 기준에 대한 재검토	117
오현아(강원대)	토론	141
신호철(청주대)	국어교과서에서 매체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144
박보현(목원대)	토론	157

【제4부 제5 분과 발표】

윤혜영(한라대)	‘형식적 인용구조’를 기반으로 한 도움토씨 ‘-이란’의 문법화 과정 고찰 -20세기 초중반까지의 문헌을 중심으로-	159
김병건(건국대)	토론	172
정수현(건국대)	관형사와 접두사 경계의 모호성에 대한 연구 -일 음절 한자어를 대상으로-	173
안신혜(건국대)	토론	185
이동석(한국교원대)	어문 규정의 어원 설명 검토	187
조태린(대구대)	토론	203

제1부 <제1 분과 발표>

의문문과 양태

- '-을지'와 '-다고'류를 중심으로 -

명정희(서강대)

1. 서론
2. 의문문과 양태
 - 2.1. 의문의 의미와 의문법
 - 2.2. 의문문의 양태 의미
3. '-을지'의 의미
4. '-다고'류의 의미
5. 결론

1. 서론

한국어의 의문문은 문장 유형(sentence type)의 하나로 주로 의문법 어미에 의해 실현된다. 의문문은 의문법 어미 외에 평서법 어미에 의해서도 맥락적 의미와 수행 억양에 따라 실현될 수 있다. 의문법 어미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형태들은 연구자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의문문의 하위 유형도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의문문의 종류 중 확인의문문, 자문 등으로 분류되어 오던 것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을지'와 '-다고'류는 의문법 어미가 아니던 것이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예들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들 어미가 일반적인 의문법 어미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인식 양태와 증거성의 측면에서 어떤 의미적 특성이 포착되는지 논의하는 것이다.

국어의 경우 종결어미에 의해 문장종결법¹⁾과 상대높임법이라는 문법 범주가 실현된다.²⁾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들을 논의할 때에는 화자의 태도나 목적 등의 의미 범주도 필수적으로 함께 논의되기 마련이다. 문장 내용 즉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개념적 범주를 '양태(modality)'로 볼 때 의문문을 통해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 상태를 나타내는 인식양태와 정보의 출처가 나타나기도 한다.³⁾ 따라서 의문어미 전체를 양태 범주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인식 양태나 증거성을 표현하는 의문 종결어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둘의 연관성을 논의할 수 있다. 다음은 질문의 효과를 가진 문장들이 인식 양태 및 증거성을 나타내는 예들이다.

- (1) 가. 저에게 그만한 돈이 있을지?
 - 나. 영수가 드디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 다. 담배를 다시는 안 핀다면서?
 - 라. 한겨울에 바다에 놀러간다니? (표준국어대사전)

1) 이 글에서 문장종결법이란 기존 논의에서 문체법이나 의향법으로도 불리는 문법 범주를 가리킨다.
2) 한편 문장의 종결 양식을 통해 화자의 판단, 의지나 감정을 서술하는 범주로 서법이 실현된다고 보기도 한다(김민수 1960). 이는 말할이의 들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향을 나타내는 범주로 의향법이라고도 한다(허용 1995: 522).
3) 양태는 '사건에 대한 화자의 정신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문법 범주'라고 정의되기도 하고(장경희 1985: 11) 김지은(1998)에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을 양태라고 하였다. 양태의 정의 및 범위와 정보의 출처를 나타내는 증거성에 대한 기존 연구는 2장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1가~라)는 차례로 ‘-을지’와 ‘-다고, -다면서, -다니’가 의문문에서 사용된 예이다.⁴⁾ 먼저 (1가)는 화자가 청자에게 명제 내용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의문문이고 (1나~라)는 청자에게 명제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의문문들이다. 화자가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며 물어보고 있으므로 위의 어미들은 모두 의문문에 사용된 것이다. 한편 (1가)는 ‘추측 판단’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인식 양태와 관련되고 (1나~라)도 ‘확실성 판단’을 나타내 인식 양태와 관련된다. 나아가 (1나~라)는 화자가 명제 내용을 타자에게서 전해들은 정보라는 것도 동시에 나타난다.

그렇다면 (1가~라)에 쓰인 종결어미들은 의문법을 나타내는 의문법 종결어미들과 동일한 층위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지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문법 종결어미로 분류될 수 없다면 어떠한 의미적 특성에 의해 의문문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의문문이 가지는 ‘의문’의 본질적인 의미와 의문법 종결어미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논의할 것이다. 그 후 의문문과 인식 양태의 의미적 상관성은 무엇인지 논의한다. 또한 ‘-다고’류의 의미 특성을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증거성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본다. 3장에서는 ‘-을지’가 의문법 종결어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의문문에서 드러나는 인식 양태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4장에서는 ‘-다고’류에 대해서 3장과 같이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을지’와 ‘-다고’류 어미들의 의미·통사적 특징들에 대해 깊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의문문에서 인식 양태와 증거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2. 의문문과 양태

2.1. 의문의 의미와 의문법

의문법은 문장 유형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인 문장종결법의 하나로 분류된다. 문장종결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의들에서 다양한 술어들로 정의 내려 왔다. 서법이나 양태 의미로 설명한 견해와 듣는 이(청자)와 화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의한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김민수(1969), 서정수(1996) 등이 있다. 김민수(1969: 155-158)에서는 문장의 종결 양식으로서 화자의 판단 의지나 감정을 서술하는 범주로 보아 직설법 안에 의문문을 포함시켰다. 서정수(1996: 298-305)에서도 서법은 ‘말할이가 문장의 내용에 대해 가지는 정신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고 종결어미가 담당하는 문말 서법 안에 행위적 서법의 하나로 의문법을 분류하였다. 임동훈(2011: 330-332)에서도 종결어미가 나타내는 문형이 서법(mood) 범주에 포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의미상 평서적인 것과 대립적인 측면을 표시하고 분포상 필수성과 상호 배타성을 띠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에 말을 맞추고 청자가 정보 제공자가 되는 의문문은 서실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청자에 대한 태도를 고려한 것으로 문제법(이희승 1949, 고영근 1976), 의향법(허웅 1969), 의향서법(남기심 2001) 등이 있다. 말할이의 들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향을 나타내는 범주가 의향법이라 하고 들을이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물음법으로 분류하였다. 나아가 윤석민(2000)에서는 명제가 담화 상황에서 수행하는 화행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며 언표수반 행위 중 일부가 문법 범주화한 것이 문장종결법이라고 하였다. 이종희(2004)에서는 말하는이가 듣는이에 대해서 가지는 객관적인 태도(요구의 여부)와 말하는이가 명제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나타난 것을 문장종결법이라고 보았다. 이 글에서도 기존 견해를 이어 말하는이가 듣는이에 대해 가지는 요구사항이나 심리적 태도가 종결어미로 나타나 특정 문법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문장종결법이라 보고 의미 범주와 구분되는 문법범주 명칭으로 사용한다. 또한 문장종결법을 분류할 때는 종결어미가 가지는 형식적인 부분과 의미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종희 2004: 42). 의문법으로 분

4) 이들은 기존의 논의에서 의문어미로 기술되기도 하고 ‘-을지’는 특히 동사구 보문 구성으로 기술되기도 했다(장경희 1985, 서정목 1994, 하치근 2006, 이금희 2014 등 참조). 또한 ‘-다면서’는 기존 논의에서 양태적 의미를 표현하는 종결어미로 기술되어 왔다(장경희 1985, 박재연 1999, 2004 등).

류할 수 있는 기준은 크게 의미적 기준과 형식적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2) 가. 의문의 기능을 가진 종결어미가 사용되어야 한다.

나. 이 종결어미가 상대높임법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높임, 중간, 안높임의 세 화계에 두루 나타나야 한다(남기심 2001: 387, 387).

다. 의문문을 표현하는 간접 인용절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남기심 1971).

라.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구어체에서는 의문문에 적합한 문말 억양을 띄고 문어체에서는 물음표를 쓰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종희 2004: 42).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기준 외에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이 성립하는가를 또 다른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의문문이라는 문장의 종류를 하위로 나눌 때 의문문의 내용에 따라 나뉜 것 외엔 불과하다. 의문문이 수사의문문, 확인의문문, 반복의문문으로 나뉘질 수 있는 것처럼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으로 나뉘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문법이라는 문장종결법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특정 의문문의 종류가 성립되는가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설명의문문이나 선정의문문 등이 실현되는 데 제약이 따른다면 보편적인 의문법 어미와 다른 특징을 지닌 것으로 구분할 수는 있다.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기준 중 첫번째 기준은 의미적 기준에 해당한다. '의문'의 기능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의문'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을지'류와 '-다고'류의 어미들이 의문문의 의미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살펴봐야 한다. '의문'의 의미는 크게 '질문'과 '의문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의문법 어미가 사용된 의문문을 예로 들어 의미를 확인하면 아래와 같다.

(3) 가. 여기가 네 집이니?

나. 저 분이 누구냐?

다. 그는 또 어디 {가는가/ 갈까}?

라. 그 사람이 의사지? (서정수 1986:122-123)

(3가, 나)는 화자가 청자에게 묻는 내용에 대해 대답해주기를 요구하는 질문이다. (3다)는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기보다는 화자 자신의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3라)는 화자가 (3가, 나)처럼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는 질문이긴 하지만 명제에 대해 이미 화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정수(1986)에서는 (3라)의 예문이 '이미 알고 있음'이라는 심리적 태도를 잘 표시하며 확인의 기능을 지닌다고 보았다. (3라)의 '확인'의 기능은 크게 보면 청자에게 어떠한 반응이나 정보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3가, 나)와 같다. 따라서 의문의 의미는 크게 질문과 자문으로 나눌 수 있다. 박종갑(1987:26)에서도 의문의 본질적인 의미를 '질문'과 '의문제기'로 나누었다. 질문이란 화자가 청자에게 언어적 반응을 요구하는 언어 행위라고 하였고 의문제기는 화자가 정보의 결여를 표현하는 언어 행위라고 하였다.⁵⁾ 이 글에서는 의문의 행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화자와 그에 대해 대답하는 청자를 상정하므로 의문의 의미를 정리할 때도 청자의 대답을 함께 분류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고영근(1976)에서 장면 특성을 청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상관적 장면과 단독적 장면으로 나눈 것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이 글에서도 이 술어를 쓰지만 단독적 장면의 범

5) 고유한 높임의 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을까, -는가, -냐'와 같은 어미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서정목(1979)에서는 의문의 1차적 기능은 화자가 모르는 사실을 청자에게 묻는 행위로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고 2차적 기능은 화자 자신을 청자로 삼아 회의를 나타내는 자문이라고 하였다. 자문이라는 용어는 허용(1975), 서정목(1979), 이성구(1983) 등에서 제시되었고 간접의문, 재귀의문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위를 좀 더 넓게 보고자 한다. 즉 단독적 장면은 청자를 아예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청자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구체적인 청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상관적 장면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하는 질문은 두 가지로 세분화될 수 있다. 청자에게 언어적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와 언어적 반응 외에 맥락에 적절한 비언어적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화자는 청자에게 특정 내용에 대한 사실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고 명제에 대한 추측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정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다.⁶⁾ 청자는 이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하게 된다. 한편 후자의 경우 화자는 의문문을 통해 화자에게 비언어적 반응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예를 들어 수사의문문 등이 이러한 의문문에 해당한다. 청자는 이에 대해 주로 동의나 명령에 대한 복종과 같은 비언어적 행위를 하게 된다. 청자의 구체적인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 경우인 단독적 장면에서는 화자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의문을 던지는 경우이거나 자신의 무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청자가 존재하더라도 특정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문을 자문으로 분류한다. 이때 청자가 있다면, 그들은 대답을 요구받지 않고 의문을 던진 이에게 적절한 제스처 또는 반응으로 응답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종류를 예문과 함께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 의문의 의미

장면 특성	상관적 장면		단독적 장면
	질문 ①	질문 ②	자문
화자	화자가 청자에게 특정 정보를 요구	화자가 청자에게 특정 정보 외에 맥락에 적절한 비언어적 반응을 요구	화자가 자기 자신에게 의문을 던지거나, 자신의 무지(정보의 결여)를 표현
청자	대답 ①	대답②	응답 (단순 반응, 제스처)
	청자는 화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실 정보, 추측 판단, 의향, 정보 확인 등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제시	청자는 맥락에 따라 수반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보임 예: '동의, 명령에 대한 복종' 등	청자는 특정 대답이나 반응을 필수적으로 요구받지 않고, 맥락에 적절한 제스처 또는 반응으로 응답할 수 있음
예	Q: 밥 먹었어? A: 네 Q: 아이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할지요? A: 아마 햄버거를 좋아할 거예요. Q: 내가 방해된 것은 아니지? A: 응, 방해 안 돼.	Q:[꾸중하는 상황] 너 계속 이렇게 행동 할래? A: 죄송합니다. Q:창문 좀 닫아줄래? A:[창문을 닫음]	Q: 내가 어제 왜 그렇게 말했는지? (A)

이 글에서는 특정 종결어미가 위의 질문①, ②와 자문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낸다면 의문법의 의미적 기준을 만족한다고 본다. '-을지'류는 질문①로도 사용되고 자문으로도 사용된다. 또한 '-다고'류는 어미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질문①에 해당한다. 청자에게 어떤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여 질문①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특정 대답보다는 비언어적 반응이나 행동을 요구하여

6) 고유한 높임의 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을까, -는가, -나'와 같은 어미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서정목(1979)에서는 의문의 1차적 기능은 화자가 모르는 사실을 청자에게 묻는 행위로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고 2차적 기능은 화자 자신을 청자로 삼아 회의를 나타내는 자문이라고 하였다. 자문이라는 용어는 허용(1975), 서정목(1979), 이성구(1983) 등에서 제시되었고 간접의문, 재귀의문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질문②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다고’류는 자문의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각 어미들의 자세한 의미 특성 및 차이는 3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위에서는 의문법 종결어미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으로 ‘의문’의 의미 측면을 논의하였다. 아래 세 가지 기준들은 모두 형태 통사론적 기준들이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의문법 어미로는 널리 알려진 대로 합쇼체의 ‘-습니까’, 하오체의 ‘-오’, 하계체의 ‘-나, -은가’, 해라체의 ‘-냐, -니’가 있다. 하지만 종결어미가 아니던 형태가 반말체의 종결어미로 변하면서 의문문에만 쓰이는 경우에는 위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 (4) 가. 그 집 요새 형편이 퍽 좋아졌다면서(요)? 맞아요?
나. 노력을 했는데도 실패했다고(요)? 정말요?
다. 그 사람이 요즘 자주 안 온다니(요)? 오늘도 왔어요.⁷⁾

(4가, 나)의 ‘-다면서, -다고’는 확인의문문에서 주로 쓰이는 종결어미로 분류되기도 했다(이금희 2014: 65). 위의 문장들에서 종결어미들은 의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높임, 안높임의 화계에 두루 쓰일 수 있다. 또한 물음표가 쓰이거나 구어체에서는 상항의 문말 억양을 지닌다. 하지만 간접인용문에서 모든 예문이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 (5) 가. ??영희가 그 집 요새 형편이 퍽 좋아졌냐고 물어봤다.
나. ??철수가 노력을 했는데도 실패했냐고 물어봤다.
다. ??철수가 그 사람이 요즘 자주 안 오냐고 물어봤다.

(5)의 문장들은 (4)를 간접인용한 문장으로 ‘묻다’ 서술어와 쓰였을 때 자연스럽게 않다. (4가)의 정확한 의미가 (5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4가)에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이 듣거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믿기지 못할 때 주로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물어본다. 따라서 간접인용 동사로 순수 화행동사인 ‘물어보다’보다 ‘확인하다’등이 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4나, 다)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영희가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하다’라는 명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따라서 위의 문장들은 간접 인용절에서는 의문법으로 실현되지 않아 일반적인 의문 종결어미와 다르다. (4)에서 ‘-다고, -다니, -다면서’는 의문문을 형성하지만 전형적인 의문 종결법 어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3장에서 개별 어미들을 다룰 때 일반 의문법 어미들과 보이는 차이점을 주목하여 기술하고 이들이 지니는 양태적 의미를 상세히 살피고자 한다.

2.2. 의문문과 양태

종결어미는 주로 화자가 청자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태도와 관련된다.⁸⁾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지닌 종결어미들은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등을 나타낸다. 또한 종결어미는 각 어미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징에 따라 상대높임법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종결어미는 말하는 이가 명제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태도도 나타낸다.

화자의 명제(proposition)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⁹⁾는 선어말어미, 종결어미, 우연적

7) ‘-다니’ 뒤에 ‘요’가 통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입춘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춥다니?’와 같은 경우는 뒤에 ‘요’가 결합하면 어색하다.

8) 이는 의항법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언표내적효력을 수반하는 문장종결법을 나타낸다.

9) 양태(modality)는 전통적으로 ‘문장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Jespersen 1924: 313)’,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나 명제가 기술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Lyons 1977)’로 정의된다.

구성 등, 다양한 통사 범주에서 나타난다.¹⁰⁾ 양태는 기존 논의에서 서법(mood)과 혼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한편, 종결어미로 표현되는 것은 서법어미로, 양태를 나타내는 어미는 양태어미로 분류되기도 한다(장경희 1995). 서정수(1986)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서술 구절에 속하는 문법적 요소들에 의하여 말할이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방식이 서법이라고 하였다. 이때 청자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는 문말 서법이라고 하며 문장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선행 문말 서법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기존 논의에서는 양태와 서법이 동일한 층위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선어말어미든 종결어미든 상관없이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시한다면 양태를 나타내는 양태소로 분류한다. 종결어미에서의 양태는 모든 종결어미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종결어미들에서 실현된다. 따라서 종결어미를 양태 체계 안에서 하위분류할 수는 없지만 몇몇 종결어미들이 가지는 양태적 특성을 논의할 수는 있다. 기존 논의에서 양태를 표시하는 종결어미로 주로 ‘-구나, -구먼, -군, 거든, -네, -지’ 등을 다루었다. 이 글에서는 반말체 종결어미인 ‘-을지’와 ‘-다고’류도 양태를 나타낸다고 보며 각각 인식양태와 증거성의 측면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는 명제의 진리치(the truth of propositions)의 가능성(possibility), 필연성(necessity)과 관련된다(Lyons 1977: 793). 즉 화자의 태도는 명제가 기술하는 정보의 진리치와 관련되며 확실성 판단을 대상으로 한다. 정보의 진리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확신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그 개념은 더 하위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인식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따라 정도성을 나눌 수 있다.¹¹⁾ 양태를 나타내는 특정 요소들에서는 명제에 대한 확실성(certainty) 정도에 따라 차이가 드러난다. 가령 이 글의 연구 대상인 ‘-을지’의 경우 확실성 정도가 낮고 ‘-다고’류의 경우 확실성 정도가 높다. 증거성(evidentiality)이란 명제의 내용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입수되었는가에 대해 표현하는 문법범주이다. 즉 증거성 표지들은 정보의 출처를 나타낸다. 증거성을 인식양태의 하위범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 두 범주 사이에는 특히 인식론적 차원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¹²⁾ 화자가 명제의 진리치에 대해 가지는 확신성이 ‘추리된 것’이거나 여러 가지 감각 정보에 근거한 확신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거성의 고유한 의미 영역은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과 구분되므로 이 글에서는 이 둘을 구분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이 두 범주가 어떻게 교섭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집중하겠다.¹³⁾

양태는 보통 의문문에서 나타날 때 양태 담지자가 전환되어 나타난다. 평서문에서는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지만 의문문에서는 청자의 태도로 전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겠-’이 쓰인 평서문인 ‘지금쯤 부산에 비가 오겠다’에서는 화자의 추측이 드러나고 의문문인 ‘지금쯤 부산에 비가 오

10) 장경희(1995)에서 양태란 명제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라고 보았다. 문법 범주의 양태를 나타내는 양태소들에는 선어말어미인 ‘-더-, -겠-’ 등을 설정하였고 종결형 어미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박재연(2006)에서도 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문법화된 형태로 표현된 것을 양태소로 보았다. 임동훈(2008)은 명제의 사실성과 실현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표현된 개념적 범주를 양태로 보았다. 이러한 개념적 범주인 양태가 굴절형태로 실현되면서 화행과 관련되거나 필수성을 동반하는 경우를 ‘서법’으로 간주하고 굴절형태로 실현되어도 화행과 무관하고 필수성을 동반하지 않으면 문법적 양태라고 보았다.

11) 강소영(2001: 112)에서는 ‘가능-개연-당연-확연’의 개념을 설정하였고 박재연(2006: 81)은 ‘가능성 판단-개연성 판단-확실성 판단’을 설정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박재연(2006)에서는 인식 양태를 보다 넓게 이해하여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였다.

가.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확실성 판단, 개연성 판단, 가능성 판단

나. 정보의 획득 방법: 지각, 추론, 전언(hearsay)

다. 정보의 내면화 정도: 이미 앎, 새로 앎

라. 청자 지식에 대한 가정: 기지가정, 미지가정

12) 박재연(2006)에서는 인식 양태의 의미를 넓게 이해하여 정보의 획득 방법도 인식 양태에 포함시켰다. 이 글에서는 이를 증거성으로 분리하여 논의한다. 한편 Palmer(1986)에서는 인식 양태를 판단과 증거성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지만 Palmer(2001)에서는 명제 양태를 인식 양태와 증거 양태로 나누어서 증거 양태를 인식 양태와 구별하고 있다.

13) 유형론적 관점에서 인식양태의 의미성분 없이 증거성의 의미성분만 갖는 문법요소도 존재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범주는 별개의 범주로 인정하는 것이 낫다(박진호 2011: 4).

겠니?’에서는 청자의 추측을 묻게 된다. 의문형 종결어미를 통해서 청자의 추측 판단을 요구하는 인식양태의 의미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가. 새로 태어날 아가는 예쁠까?

나. 철수가 지금쯤 영희에게 고백을 했을까?

‘-을까’에 대해서는 ‘말할이의 추정(김하수 1979)’, ‘화자 추측 판단(이성구 1983)’, ‘불확실한 사태에 대한 추측(서정목 1987: 83)’ 등의 의미 기능이 제안되어 왔다. 박재연(2005)에서는 ‘-을까’가 의문어미로서 화자의 무지를 표현하는 것이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한편 박재연(2006:213)에서는 ‘-을까’가 청자의 ‘개연성 판단’을 묻는 용법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도 위의 예들을 자문에서 사용되는 것과 구분하여 청자를 상정할 경우에는, 화자의 판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구체적인 청자를 상정하고 발화하는 질문의 경우에는 ‘청자’의 추측을 요구함으로써 인식 양태가 드러난다.¹⁴⁾ 이 글의 연구 대상인 ‘-을지, -다고, -다면서, -다니’도 ‘청자의 추측’을 묻는 용법을 가진다.¹⁵⁾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을지’와 ‘-다고’류에 대한 장을 나누어 살펴보겠다. 이들의 양태, 증거성의 의미가 의문문의 의미와 어떤 상관성을 지니는지 검토하고 일반적인 의문법 종결어미와 비교하여 같은 층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도 논의할 것이다.

3. ‘-을지’의 의미

‘-을지’는 ‘-은지’와 같이 원래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 구성이던 것이 의문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쓰이게 된 것이다.¹⁶⁾ 이 두 어미는 반말체 종결어미로 의문문에서만 사용된다. ‘2.1.’에서 의문법 종결어미로 분류할 수 있는 의미적 기준과 형식적 기준을 살펴본 바 있다. 형식적 기준으로는 상대높임법이 실현되는지와 간접 인용절에서 의문법 어미가 실현되는가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다. 아래에서 ‘-을지’가 사용된 예문들을 살펴보자.

(7) 가. 철수가 어떤 음악을 좋아할지?

가. 영수가 철수가 어떤 음악을 좋아할지 물어봤다.

가. 영수가 철수가 어떤 음악을 좋아할 것 같냐고 물어봤다.

나. 학생들이 지금쯤 도착했는지요?

나. 영수 어머니가 선생님께 학생들이 지금쯤 도착했는지 물어봤다.

나. 영수 어머니가 선생님께 학생들이 지금쯤 도착했겠냐고 물어봤다.

14) 반말체 종결어미가 의문문에 사용되는 경우 양태적 의미가 화자에서 청자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는 보통 평서문에서 ‘이미 앓(장경희 1985)’의 양태를 나타낸다. 이는 의문문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영수는 참 좋은 아이지.

나. 이거 너가 한 거 맞지?

위의 예문에서 (가)는 화자가 이미 명제에 대해 알고 있어 확인하는 경우이고 (나) 역시 ‘이미 앓’의 양태가 드러난다. 이때도 화자가 명제(이것은 너가 한 것이다)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거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음의 의미가 드러난다. 이에 대해 박재연(2006:205~207)에서는 ‘-지’가 쓰인 의문문에서는 양태 담지자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화자의 ‘이미 앓’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15) ‘-다고’류는 박재연(2006) 등에서 인식 양태 종결어미로 설명되기도 하였다.

16) ‘-은지’와 ‘-을지’의 문법 범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의 선행 논의가 있다.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의 구성으로 분석한 서정목(1994), 하치근(2006)이 있으며 ‘-은지’를 ‘-은가’와 동질적으로 파악하여 간접 의문 형식이라고 본 이영민(1995) 등이 있다. 한편 국어사적인 측면에서는 정재영(1996), 김혜영(2006), 이지영(2008), 정주연(2011) 등에서 ‘-은지’의 기원을 주로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상 ‘-은지, -을지’의 문법적 성격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하지는 않는다. 다만 내포 의문어미로 쓰이는 ‘-은지’와 ‘-을지’는 종결 위치에서 쓰이며 문말에서도 의문의 기능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았다.

앞의 예문에서 ‘-을지’는 (가)에서는 해체로 사용되고 (나)에서는 ‘요’가 통합하여 해요체로 사용되었다. 반말체 종결어미에 ‘요’가 통합하여 높임법이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 가”)는 (가)를 간접 인용한 문장으로 ‘ 물어보다’라는 상위문 서술어가 온다. 간접 인용될 때에는 ‘-을지’가 그대로 내포문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간접의문어미와 인용 보문자인 ‘-냐고’의 형식으로 바뀌 쓸 수도 있다. (나)도 간접 인용하면 (나’, 나”)처럼 나타낼 수 있다. 의문법을 표현하는 간접 인용절에서 쓰일 때는 ‘-을 것 같-’이라는 우연적 구성이나 ‘-겠-’이 통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는 ‘-을지’가 청자에게 추측을 요구하는 의미를 지니므로 간접 인용될 때에도 추측의 표현들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을지’의 의미가 의문문의 의미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을지’가 지니는 양태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8) 가. A: 통신사를 바꿔서 써도 괜찮을지요?

B: 네, 아마 괜찮을 거예요.

나. A: 철수가 무슨 선물을 좋아할지?

B: 글썸, 향수를 좋아할 거 같아.

(9) 가. 저이에게 그만한 돈이 있을지?

나. 내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을지’는 (8)처럼 구체적인 청자를 상징하는 상관적 장면에서 청자에게 특정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8가)는 화자가 청자에게 통신사를 바꿔서 써도 괜찮은가에 대해 청자에게 추측해 볼 것을 요구한다. (8나)도 철수가 무슨 선물을 좋아하는가에 대해 청자가 추측해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각의 대답 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자는 명제에 대해 추측한 내용을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¹⁷⁾ (8가)A는 ‘-을지’ 대신 ‘-을까요’도 쓸 수 있다. (8나)A도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과 의문 종결어미 ‘-니’가 연결된 ‘-겠니?’로 물어볼 수도 있다.

한편 ‘-을지’는 (9)처럼 구체적 청자를 상징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자문하는 용법도 있다. 이 경우에는 화자가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되므로 자기 자신이 명제에 대해 추측하게 된다. 이처럼 ‘-을지’는 ‘2.1.’에서 살펴 본 의문의 기능에 의하면 ‘질문 ①’과 ‘자문’의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어 의문문의 의미적 기준을 충족한다. 또한 위에서 살펴봤듯이 ‘-을지’는 청자의 추측 판단이라는 인식 양태를 나타낸다. ‘-을지’가 나타나는 의문문의 특징을 더 살펴볼 때, 이들은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 모두에 나타날 수 있다.

(10) 가. 철수가 이 선물을 좋아할지?

나. 이 선생님은 어떤 책을 선택했는지요?

다. ??영수가 부산에 왜 갔는지요?

라. ??다른 책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그 책을 선택했는지요?

17) ‘-을지’처럼 종결어미가 의문문에서만 사용되고 청자의 추측을 요구하는 어미로는 ‘-을라고’도 있다.

가. A: 설마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라고? B: 글썸, 모르지.

나. A: 설마 영희가 그 일을 할라고? B: 아마 할 거야.

다. 설마 그 밥을 다 먹을라고?

위에서 (가, 나)는 청자의 추측을 요구하는 인식양태가 드러난다. 하지만 (다)는 ‘-을지’와 달리 청자의 의도를 물어보는 경우이다. ‘-을라고’는 ‘-을지’와 달리 말하는 이가 명제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화용론적인 맥락이나 감정양태 측면에서 따로 논의될 수도 있다. 이런 어미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10가)는 판정의문문이고 (10나)는 설명의문문이다.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에서 모두 화자가 청자에게 명제의 내용에 대한 추측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의문사 ‘왜’가 쓰인 설명의문문인 (10다, 라)는 어색하다. 이는 ‘-을지’가 설명의문문으로 쓰일 때 모든 의문사와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을지’ 개별 어미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을지’는 청자의 추측을 요구하고 자문으로도 쓰인다는 측면에서 의문법 종결어미 ‘-을까’와 유사하다. 다만 ‘-을까’와 구체적인 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을까’는 ‘내가 내일 너한테 갈까?’처럼 화자의 행위에 대한 청자의 의향을 물어보기도 한다(서정목 1987: 83). 그러나 ‘-을지’는 ‘*내가 내일 너한테 갈지?’로 쓰일 수 없다. 즉, ‘-을지’에서는 명제 내용에 대한 청자의 의향, 의도를 묻는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을지’는 의문법 종결어미의 의미적 기준과 형식적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일반적인 의문법 종결어미와 같은 층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때 ‘-을지’에는 ‘질문’과 ‘자문’의 의미 외에도 ‘청자의 추측’, ‘개연성, 가능성 판단’을 묻는 인식 양태가 드러난다고 정리할 수 있다.

4. ‘-다고, -다면서, -다니’의 의미

이 장에서는 ‘-다고’와 같은 인용 구성의 융합 형태들이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다고’는 상위문 서술어가 생략된 채로 사용되던 것이 굳어진 것이고 ‘-다면서, -다니’는 ‘-고 하-’가 삭감되며 융합된 후 후행절이 생략된 형태로 쓰이던 것이다(이금희 2006 등). 여전히 인용문 구성으로 사용되는 예들도 쓰이지만 이때의 의미와 종결어미에서의 의미와 기능이 다르다. 이 글에서는 의문문을 형성하는 종결어미로서의 쓰임만을 대상으로 한다. ‘-을지’와 마찬가지로 ‘-다고’류 어미들이 의문법 어미로 분류될 수 있는가 살펴보기 위해 높임법 실현 여부와 간접 인용문을 만들 때의 양상을 보겠다.

(11) 가. 영희가 결혼한다고(요)?

가’. ??영희가 결혼하냐고 물어봤다.

나. 어제 선을 봤다면서(요)?

나’. ??영희가 어제 선을 봤냐고 물어봤다.

다. (요리를 못하는 영수를 보며) 요리 잘 한다면서?

다’. ??영희가 영수에게 요리를 잘 하냐고 물어봤다.

라. 할머니께서 아프시다니(요)?

라’. ??영희가 할머니께서 아프시냐고 물어봤다.

(11가, 나, 다, 라)처럼 ‘-다고, -다면서, -다니’는 ‘요’가 통합하며 높임법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의문문을 간접 인용절로 나타낼 때는 의미가 달라진다. (11가~라)가 상승조의 의문문 역양으로 실현되며 화자의 무지와 함께 의문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순수하게 특정 정보에 대한 내용을 청자에게 요구하는 의문법 어미인 ‘-냐, -니’ 등과는 다르다. ‘-다고’는 기존 논의에서 다시 되묻는 질문 형식으로 반복질문, 받음 질문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이익섭 외 1999, 전해영 1996 등). (11가)처럼 ‘들은 내용에 대해 의구심이 들거나 믿을 수 없어 확인하는 경우에 사용된다(이금희 2014: 76). 따라서 (11가’)처럼 일반적인 의문문으로 인용되면 의미가 달라진다. ‘-다면서’는 (11나)처럼 단

순히 청자에게 명제의 사실성을 확인할 때 쓰이기도 하고 (11다)처럼 화자가 알고 있던 사실과 반대의 상황을 보며 다시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때 쓰이기도 한다.¹⁸⁾ 이 둘 역시 (11나', 다')의 단순 사실을 물어보는 의문문으로 인용될 수 없다. 상위문의 술어가 '물어보다' 이외에 '어제 선을 봤는지 확인했다'의 '확인하다'나 '요리를 잘 하는 것이 맞는지 따졌다'같이 부정적 의미의 술어가 와야 적절하다. (11라)의 '-다니'도 명제에 대해 화자가 믿을 수 없을 때, 청자에게 다시 확인하기 위해 쓰인다. 따라서 위의 예문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의문 형식으로 간접 인용되기 힘들다. 이런 특징들은 '-다고'류가 일반적인 의문법 종결어미들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위의 예문에서 '-다고'류 어미들이 지닌 의문의 의미를 살펴보자. '-다고, -다면서, -다니'는 구체적인 청자를 상정하는 경우에 청자에게 명제 사실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한다. 주로 기존 논의에서 이들을 확인 의문문으로 분리한 이유이다. 화자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 청자에게 자신의 무지(정보 없음)를 드러내고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므로 이는 의문의 본질적인 기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미적 기준을 따지자면 여전히, 2장에서 살펴 본 질문①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들 어미들은 3장에서 살펴 본 '-을지'와 마찬가지로 인식양태를 나타낸다. 청자에게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측면이 같기 때문이다. (11가)는 청자에게 '영희가 결혼하다'라는 내용에 대해 확실성 판단을 요구한다. (11나)도 청자에게 어제 선을 본 것에 대한 확실성 여부에 대해 답해주시기를 요구하고 있다. (11다, 11라)도 청자에게 명제 내용에 대한 확실성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을지'가 나타내는 '청자의 개연성 판단'의 의미와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확실성 정도'에 있어서 변별된다. '-을지'는 청자에게 '가능성'이나 '개연성 판단'을 요구하지만 '-다고'류는 청자에게 사실에 대한 확실성 여부를 물어보고 있으므로 '확실성'과 연결된다. 이러한 확실성 정도의 차이가 드러나는 이유는 '-다고'류에 나타나는 증거성과 관련된다.

'-다고'류의 어미들은 정보의 획득 방법으로 전언을 표현한다.¹⁹⁾ 이미 청자에게서 들은 정보로 인해 특정 사실에 대해 알거나 믿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청자에게 확실성 여부만을 묻게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이 정보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라고 보아 인식 양태와 구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2) 가. A: 내일까지 일을 끝내.

B: 내일까지 일을 {끝내라고요?, *끝내라면서? 끝내라니요?} (전언, 청자)

나. A: 너 들었어? 영희가 하와이로 신혼 여행 {갔다면서?, *갔다고?, *갔다니?} (전언, 제3자)

B: 응, 나도 들었어. 하와이로 신혼 여행 간대.

다. A: 나 이제 회사 그만 둘거야.

B: 회사를 {그만두다니?, 그만둔다고?, *그만둔다면서?} (전언, 청자)

(12가)는 B가 A의 말을 듣고 질문하는 경우로 '-다고, -다니'만 되고 '-다면서'는 올 수 없다. (12나)는 A가 다른 제 3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와서 청자에게 말 하는 경우이다. 이때 명제의 정보의 근원이 제3자인 경우에는 '-다면서'만 올 수 있다. (12다)도 B가 말하는 명제 정보의 출처가 청자인 경우다. 이 경우에도 '-다면서'는 올 수 없다.²⁰⁾ (12)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고, -다면서, -다니'

18) 김홍범(1987)에서는 '-다면서, -다고, -다니'의 의미를 분류하면서 '-다면서'를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누었다. 첫째 '다면서 1'은 말할이가 제삼자에게 들은 발화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고자 물을 때 쓰이고 '-다면서 2'는 제삼자나 들을 이의 발화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표현하는 따짐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쓰인다고 하였다. (11나)와 (11다)가 각각 '-다면서 1'과 '-다면서 2'의 의미에 대응된다.

19) 박재연(2006: 239)에서도 '-다나, -다면서'류 어미들이 정보의 획득 방법(전언)을 표현하므로 인식 양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를 통해 명제의 정보의 출처가 표시되며 이는 전언의 증거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금희(2014)에서도 자세히 밝혔듯이 이 어미들 사이의 차이는 전달 받은 사람이 청자인지 그 외의 제3자인지에 있다. 하지만 ‘-다고’류 어미들은 ‘전언’에 의한 증거성만 표현하고 ‘감각정보나 추론, 추리’에 의한 증거성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추리, 전언’등의 증거성을 모두 표현하는 ‘-구나’와 달리 증거성의 내용이 특정 영역으로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증거성의 제약과 관련하여 ‘-다니’가 감탄문으로 실현될 때와 비교가 된다. ‘-다니’가 감탄문에서 쓰일 때는 아래와 같이 감각 정보 등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13) 가. 겨울에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다니!(시각)
 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답다니!(청각)
 다. 냄새가 이렇게 고약하다니!(후각)
 라.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니!(미각)
 마. 촉감이 이렇게나 부드럽다니!(촉각)
 바. (반성해 본 후) 아까 내가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다니!(내성)
 사. (길이 젖은 것을 보고) 밤새 비가 내렸다니!(추리)
 아. A: 철수도 결혼했더라. B: 철수도 결혼했다니!(전언)

위처럼 ‘-다니’가 감탄문에서 쓰일 때는 정보의 출처에 제약이 없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의문문에서는 전언을 통한 증거성만 표현한다. 개별 어미별로도 문장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증거성 제약이 다를 수 있음을 뜻한다.

정리하면, ‘-다고’류는 청자의 명제에 대한 확실성 판단을 요구하는 인식 양태가 주요한 의미 기능 중 하나이다. 또한 화자가 명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로를 나타내는 증거성도 함께 나타난다. 이들은 종결어미로서 높임법이 ‘요’에 의해 실현되지만 다른 의문법 어미들과 달리 의문법 어미가 실현된 간접인용절에 실현되지 못한다. 이를 보았을 때 ‘-다고’류는 의문법의 의미적 기준만 충족시키므로 일반적인 의문법 어미와 동일한 층위에서 논의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의문문을 형성하기는 하지만 의문법 종결어미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상대방 또는 제3자가 한 말을 듣고 알게 된 정보임을 표시하므로 이는 화자에게 명제 내용이 새로 알게된 사실일 수 있으며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님을 뜻한다. 따라서 화자는 확신할 수 없는 지식에 대해서 청자에게 확실성을 요구하는 양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증거성과 인식 양태의 의미가 ‘-다고’류들이 질문의 의미 기능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다고’류가 나타낼 수 있는 의문문의 종류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다. 일반적인 의문법 종결어미로 분류되지 않는 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의문문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 (14) 가. *은아가 {왜, 어떻게, 언제} 서울에 올라왔다면서?
 나. *은아가 서울에 올라왔다면서, 안 올라왔다면서?
 다. 영이가 온다면서?

- (15) 가. 영이가 {왜, 어떻게, 언제} 울었다고?
 나. 영이가 울었다고, 안 울었다고?
 다. 영이가 울었다고?

20) ‘회사를 그만둔다면?’가 성립하는 맥락은 B가 제3자에게 A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말하는 경우이다. 그런 맥락이 설정되면 ‘-다면’도 사용될 수 있지만 B가 명제 내용을 발화 현장에서 청자에게 방금 들은 것이라면 ‘-다면’을 사용할 수 없다.

(16) 가. 영이는 {왜, 어떻게, 언제} 학교에 왔다니?

나. 영이가 학교에 왔다니, 안 왔다니?

다. 영이가 학교에 왔다니?

(14)의 예문은 상항 억양이 수반되고 확인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다면서’의 용법이 설명의문문이나 선택의문문에서는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²¹⁾ (14가)는 의문사 ‘왜, 어떻게, 언제’를 포함한 의문문이다. 설명의문문이 성립한다면 이는 화자가 의문사로 표현된 미지항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정보를 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다면서’는 여전히 (14다)처럼 판정의문문에만 쓰이며 청자에게 확실성 판단을 요구한다. 반면, (15)와 (16)의 (가, 나)에서는 ‘-다고, -다니’ 모두 의문사와 통합하여 쓰일 수 있고 선택의문문에서도 쓰인다. 이는 ‘-다면서’가 ‘-다고, -다니’와 비교하여 청자에게 확인하고 싶은 정보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차이이다. ‘-다고, -다니’는 청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의 양이 더 많을 때 쓰이기 때문에 미지항으로 표현되는 의문사의 정보들을 물어볼 수 있다. 반면에 ‘다면서’는 명제 내용의 사실성 여부만을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판정의문문에서만 쓰이는 어미로 그 기능이 제한된다.

이 장에서는 2장에서 정리한 의문문의 의미 특성과 양태 의미를 바탕으로 ‘-다고, -다면서, -다니’의 의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모두 증거성의 의미와 함께 청자에게 명제의 확실성 판단을 요구하는 인식 양태 의미를 지닌다. 다른 의문법 어미들은 의문법 어미의 자격을 지니고 있으며 화자의 무지를 바탕으로 의문의 의미가 나타난다. 반면 ‘-다고, -다면서, -다니’는 화자가 전언에 의해 새롭게 획득한 정보를 드러내며, 그렇게 획득한 정보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확실성 판단을 청자에게 요구하면서 의문의 의미가 드러난다.

5. 결론

이 글은 의문문에 나타나는 ‘-을지’와 ‘-다고’류를 대상으로 이들이 의문법 어미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의문문의 의미와 인식 양태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이들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2장에서는 의문의 본질적인 의미 기능을 화자와 청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화자가 청자에게 특정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추측 판단이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의문의 본질적인 기능인 질문에 속한다. 의문법 어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의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적 기준 외에 높임법 실현 여부나 의문을 나타내는 간접인용절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의문문에서 실현되는 인식 양태는 평서문에서와 달리 화자에서 청자로 양태 담지자가 전환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을지’와 ‘-다고’류에서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에서 ‘-을지’와 ‘-다고’류 어미들의 문법적, 의미적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을지’는 의문문에서만 실현되는 반말체 어미에 속하며 ‘요’와 통합하여 높임법을 나타낸다. 이는 간접인용절로 내포될 때에 의문어미가 쓰이고 상위문에도 의문 술어가 통합된다. 또한 화자가 모르는 내용에 대한 특정 정보를 청자에게 요구하므로 의문의 의미적 기준도 충족한다. 이런 측면에서 ‘-을지’는 의문법 종결어미로 분류할 수 있다. ‘-을지’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청자에게 개연성, 가능성 판단’을 요구하여 인식 양태를 나타낸다. 한편 ‘-다고’류 어미들은 특정 정보를 청자에게 요구

21) 박재연(2005:111)에서는 ‘-다면서’가 설명의문문이나 선택의문문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이는 ‘-다면서’가 기본적으로 화자의 무지가 아닌 화자의 앎을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전언’에 의한 정보를 표현하기 때문에 화자의 지식 체계에 자리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청자가’ 그 정보에 대해 알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정보 전달력은 더욱 미약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화자의 무지가 아닌 앎을 표현하기 때문에 ‘-다면서’는 의문문으로 볼 수 없고 유사의문문으로 분류하였다. 유사의문문으로 분류한 것은 본고에서 의문법 어미가 아닌 형태들이 의문문에서 실현되는 경우로 본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다는 측면에서 의문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의문문을 간접 인용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 의문법 종결어미로 보기 어렵게 한다. ‘-다고’류는 화자가 청자나 제3자에게서 들은 것을 바탕으로 정보를 입수했다는 증거성 의미가 핵심적 의미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이 들은 정보를 확신할 수 없을 때 명제의 확실성 판단을 청자에게 요구한다. 여기에서 인식 양태 역시 드러난다. 이러한 증거성과 인식 양태가 핵심 의미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의문문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나 미흡한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다고’류 어미들을 의문법 종결어미로 보지 않았는데, 이들이 의문문을 실현할 때 나타나는 의문의 의미(질문)와 인식 양태 및 증거성과의 의미 관계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하나의 어미가 두 가지 기능을 다 지니는 것인지, 인식 양태 의미로 인하여 질문의 기능이 발생하는 것인지는 더 깊이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의문법 종결어미로 분류한 ‘-을지’도 특정 종류의 의문문(설명어문문)에서 보이는 제약현상의 원인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현상이 다른 의문법 어미들과 달리 분포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파악했지만, 설명어문문과 판정어문문에 두루 실현되는 어미와 특정 의문문으로만 실현되는 어미들 사이의 차이는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부족한 내용은 후고를 통해 보완하겠다.

■ 참고 문헌

- 고영근(1976), 현대 국어의 문체법에 대한 연구, 서법 체계, 《어학연구》 12(1), 서울대 어학연구소, 17-53.
- 고영근(1986), 서법과 양태의 상관 관계,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고영근(1995)에 실림), 247-263.
- 고영근(1995), 《단어 문장 텍스트》, 한국문화사.
- 고영근(2004),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 권재일(2002), 한국어 의문문의 실현 방법과 그 언어유형론적 특성, 《한글》 257, 한글학회, 167-200.
- 강소영(2001), 《명사구 보문 구성의 문법화 연구: '보문화소#보문명사+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건희(2015), 어미의 문법 기술 확장: 문장 확대 구성의 어말어미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66, 한국어학회, 1-47.
- 김민수(1960), 《국어 문법론 연구》, 통문관.
-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 용언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 김진웅(2012), 한국어 증거성의 체계, 《한국어 의미학》 39, 한국어의미학회, 101-124.
- 김하수(1979), '-르까'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4,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55-77.
- 김혜영(2006), 후기 근대국어 의문법의 변천 연구, 《후기 근대국어 통사의 연구》, 역락.
- 김홍범(1987), '-다면서, -다고, -다니'의 구조와 의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12,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71-91.
- 남기심(1971), 인용문의 구조와 성격, 《동방학지》 12, 연세대 동방학 연구소, 223-234.
- 남기심(2001),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 목정수(2014), 《한국어, 그 인칭의 비밀》, 태학사.
- 박종갑(1987), 《국어 의문문의 의미기능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종갑(2012), 국어 의문문의 화용론적 중의성 해소 방법에 대한 연구, 《우리말연구》 31, 우리말학회, 143-163.
- 박재연(1999),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34, 국어학회, 199-225.
- 박재연(2004),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연(2005),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어학 연구》 41(1), 한국언어학회, 101-118.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 박재연(2008), -던가, -더라 의문문의 특성에 대한 연구, 《국어학》 53, 국어학회, 199-227.
- 박진호(2011),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 사회》 15, 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 1-25.
- 서정목(1979), 경남방언의 의문법에 대하여, 《언어》 4(2), 한국언어학회, 115-142.
- 서정목(1987),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사.
- 서정목(1994), 내포 의문 보문자 -(으)ㄴ+가의 확립, 《국어 통사 구조 연구》 I, 서강대학교 출판부, 208-250.
- 서정수(1986), 국어의 서법, 《국어생활》, 국립국어원, 116-130.
- 서정수(1996), 《수정증보 국어문법》, 한양대 출판원.
- 송재목(2009), 인식양태와 증거성, 《한국어학》 44, 한국어학회, 43-53.

- 윤석민(2000), 《현대국어 문장종결법 연구》, 집문당.
- 윤석민(2010), 문장종결법 재고: 문장종결법의 범주적 특성과 종류, 《한국어학》 46, 한국어학회, 47-80.
- 이금희(2006), 인용문 형식의 문법화, 《국어학》 48, 국어학회, 233-258.
- 이금희(2014), 확인 의문법 종결어미 '-다면서, -다고, -다지'의 활용적 조건과 의미, 《어문연구》 4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9-86.
- 이성구(1983), 국어 의문의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연구회 논문집》 1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88.
- 이승녕(1961),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 이영민(1995), 내포문 의문 어미 '-다지'에 대한 고찰, 《서강어문》 11, 서강어문학회, 61-84.
- 이유기(2001),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문장종결형식의 연구》, 역락.
- 이익섭 외(1999),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종희(2004), 《국어 종결어미의 의미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지영(2008), -은지와 -을지의 통시적 변화, 《국어학》 53, 국어학회, 113-140.
- 이현희(1982), 국어 의문법에 대한 통사적 연구, 《국어연구》 52,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이희승(1949), 《초급 국어문법》, 박문서관.
-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211-249.
- 임동훈(2011), 한국어의 문장 유형과 용법, 《국어학》 60, 국어학회, 323-359.
- 임홍빈(1988), '무슨'과 '어떤' 의문에 대하여: 의문의 통사론과 의미론을 중심으로, 《말》 13.[임홍빈(1998)에 실림, 131-234]
-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III: 어휘범주의 통사와 의미》, 태학사.
- 장경희(1982), 국어 의문법의 긍정과 부정, 《국어학》 11, 국어학회, 89-115.
-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 장경희(1995), 국어의 양태 범주의 설정과 그 체계, 《언어》 20(3), 한국언어학회, 191-205.
- 장영준(2000), 한국어의 두 가지 의문문과 존재양화 해석, 《한국어학》 11, 한국어학회, 293-324.
- 정재영(1996), 《의존명사 'ㄷ'의 문법화》, 태학사.
- 정주연(2011), 《의문어미 '-다가', '-다지'의 통시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 전혜영(1996), '-다고' 반복 질문의 화용적 기능, 《
- 정혜선(2014), 양태 어미의 사적 변화: '-네, -다지', 《서정목 선생 정년 기념 논총》, 역락, 167-204.
- 하치근(2006), '지' 짜임월의 문법화 과정 연구, 《우리말 연구》 18, 우리말글학회, 27-55.
- 한동완(1984), 《현대국어 시제의 체계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형태론》, 샘문화사.
- 허웅(1983), 《국어학》, 샘문화사.
-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Aikhenvald, A. Y.(2004), *Evidenti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ybee, Joan.(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John Benjamins.
- Jespersen, Ott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Allen and Unwin.
- Kim, Nam-Kil(2000), *Evidential Strategies in Korean Conversations: An Analysis of Interactional and Conversational Narrative Functions*.

Lyons, John.(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yons, John.(1977), *Semantics* Volume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lmer, F. R.(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lmer, F. R.(2001),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토 론

“의문문과 양태 -‘-을지’와 ‘-다고’류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박은정(고려대)

인식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신뢰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문문과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의문문’이란 기본적으로 명제 내용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박재연(2005) 등 의문문의 양태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얼마 되지 않기에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가 더 필요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을지’와 ‘-다고’가 종결형으로 쓰일 때 보이는 기능에 주목하여 의문법 어미가 될 수 있는가 여부를 검토하고, 각각의 양태적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여 분류의 근거로 삼고자 한 데 의의가 있다. 통상 형태통사적 기준 또는 의미적 기준 하나로 어미를 분류하려는 논의들이 대부분이었기에 형태통사적 기준과 의미적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어미의 유형을 분류하려고 시도한 것은 발표자의 독창적 시각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이었다. 하지만 두 방향의 연구 흐름이 중첩된다보면 문장종결법(또는 서법) 논의에 대해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지 양태 논의에 대해 기여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좀 더 세심한 관찰과 해석을 요하기도 한다. 양태에 대한 논의는 평소 토론자도 흥미로워하는 내용이며, 함께 공부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토론보다는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 위주로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제목과 연구의 목적

주제목을 ‘의문문과 양태’라고만 기술하면 문종결법과 양태의 모든 내용이 범위에 해당되므로 이 글의 목적을 일부라도 제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¹⁾ 이 연구는 의문법 어미의 판정 여부와 개별 어미들의 양태적 특성(증거성 포함)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그 중 더 본질적으로 발표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① 의문문과 인식 양태의 관련성을 바탕에 두고 이들 어미의 의미 기능을 다루면서, ② ‘증거성’을 통하여 ‘-을지’와 구분되는 ‘-다고’의 의미 특성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있는 듯하다. 결국 이 연구에 있어 중요 키워드는 ‘인식 양태’, ‘증거성’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2. 의문법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

‘-을지’는 의문법 어미로, ‘-다고’는 의문법 어미로 보지 않는 이유로 남기심(1971, 2001)과 이종희(2004)의 의문법 판단의 기준을 들고 있는데 의미와 관련된 측면은 풍부한 예문과 설명을 제시한 반면 형태통사적 기준을 그렇지 않은 듯하다. ‘-다고’가 의문 어미가 되지 못하는 핵심적 이유는 간접 의문절을 성립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몇 가지 추가적 근거가 더 필요해 보인다.

3. 인식 양태와 증거성에 대한 문제

3.1. ‘을지’, ‘다고’류의 양태성을 문법 범주로서의 양태성으로 보고 있는지 여부

여기서 기존 논의라고 지칭한 최근 양태에 관한 논의는 양태를 문법범주로 보고 문법형태소이거나 문법형태소화하는 단위들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때 양태를 문법 범주로 보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추측, 의무, 당위 등 양태의 하위 분류에 따라 문법적 특성을 달리하기 때

1) 예를 들어 “통사의미적 특성에 의한 간접 의문문 어미의 범주화- ‘을지’와 ‘다고’류의 양태성과 증거성을 중심으로” 또는 “서법과 양태적 특성에 의한 간접 의문문 어미의 범주화-‘을지’와 ‘다고’류를 중심으로”

문(어느 정도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형식이 달리 선택됨)이다. ‘은지’, ‘다고’가 문법범주로서의 양태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양태 어미들과 같은 문법적 특성이 있어야 하는 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

3.2. 인식 양태와 증거성의 경계에 관하여

‘-을지’와 ‘-다고’의 의미 차이는 해당 연구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증거성’의 유무와 관련되며, 이는 각 어미의 본래의 쓰임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증거성’의 경우, 인식 양태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되 별도의 독립된 의미 범주로 인정하여 다루지기도 한다.²⁾ 그러므로 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식 양태와 증거성 간의 경계와 관련하여 더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듯하다. 이 연구에서 의문문에 사용되는 ‘-다고’와 ‘-을지’의 문법적 지위를 다르게 설정한 이상, 이 둘 간의 차이점은 곧 의문법 어미의 설정과 관련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3.3. ‘다고’의 양태의미 해석 문제

‘명제에 대한 확실성 판단을 요구하는 인식 양태’라는 해석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판단의 요구가 과연 인식양태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다고’류 의문문은 화자가 명제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기에 의문문을 통해 확실한 판단을 얻고자 해서 쓰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고’류 의문문의 양태성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어떤 분석을 했는지, 그보다 발전된 발표자의 해석은 무엇인지가 잘 구별되지 않고 있어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발표자가 사용한 ‘확실성’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개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누구의 개념을 따른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3.4. 결론의 남은 문제 관련

발표자는 결론에서 의문의 의미(질문)와 인식 양태 및 증거성과의 의미 관계에 대해 더 깊은 논의, 하나의 어미가 두 가지 기능을 다 지니는 것인지, 인식 양태 의미로 인하여 질문의 기능이 발생하는 것인지, 의문법 종결어미로 분류한 ‘-을지’도 특정 종류의 의문문(설명어문)에서 보이는 제약 현상의 원인 설명 등을 남은 문제로 제시하였다. 어차피 두 어미의 유형(범주)도 의문법 어미가 아닌 것과 의문법 어미로 구별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을지’ 또는 ‘다고’류 한 영역에만 집중해서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은 어떨까요?

4. 기타

- 내용 구성상 본문 중 2.2.의 양태 전반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소개한 내용은 이 글의 주요 목적이 아님에도 상당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문도 이 글의 논지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을까’이어서 ‘다고’와 ‘을지’에 관한 논지를 흐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 (의문사와 같이 쓰이지 않는 경우에) ‘-을지’는 청자에게 전면적인 정보 또는 의사를 요구하는 반면, ‘-다고’는 청자에게 화자가 제시하는 정보에 대한 확인 또는 수정을 요구한다. 예문 (8가) 통신사를 바꿔서 써도 괜찮을지요? / (11가) 영희가 결혼한다고(요)?의 차이는 ‘-을지’와 ‘-다고’의 의문문으로서의 화용상의 의미 이전의, 본래의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의 예문에서 ‘-을지’와 ‘-다고’를 본래의 연결어미로 두고 술어를 복원하면 이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을지’의 경우는 확실성의 판단에 관련된 ‘모르겠다’와 같은 서술어가, ‘-다고’의 경우는 정보를 출처와 관련된 ‘듣다’와 같은 서술어가 복원된다. (8) 가. 통신사를 바꿔서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다. / (11) 가. 영희가 결혼한다고 들었다.

<대한매일신보> 논설에 나타난 어찌말 매인이름씨 연구 - ‘양’, ‘دت’, ‘테(체)’를 중심으로 -

최 대 희(제주대)

< 차 례 >

1. 머리말
2. ‘양, द, 테(체)’의 형태론적 특성
3. ‘양, द, 테(체)’의 통어론적 특성
4.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는 20세기 초기에 발간된 <대한매일신보> 논설에 나타난 어찌말 매인이름씨 ‘양, द, 테(체)’를 대상으로 형태·통어론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본 연구는 먼저 매인이름씨 ‘양, द, 테(체)’를 대상으로 한다.²⁾ ‘양, द, 테(체)’는 현대국어에서 선행 수식어로 매김마디를 취하고, 주로 어찌말로 기능하며, 의미적으로 유사하게 쓰이고 있는 경우도 있는 매인이름씨이다.

(1) 그는 떡 검손한 [양, द, 체] 행동하지만 사실은 교만한 성격의 소유자다

(1)은 현대국어 ‘양, द, 체’의 예문이다. ‘양, द, 체’는 월에서 선행 수식어로 매김마디를 취하고 있고, 선행 풀이사와 통합하여 어찌말로 기능하면서, 의미적으로도 ‘거짓으로 꾸며져 있음’ 정도로 해석이 되어, 비교적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 일차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슷한 특성을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차이점을 밝히는 것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이들 매인이름씨의 형태·통어적 특성을 통해 이러한 점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20세기 초기 문헌인 <대한매일신보> 논설 878개를 대상으로 한다.³⁾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발간되어 1910년까지 발행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국어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20세기 초기의 어찌말 매인이름씨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연구 결과적으로 성과는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대한매일신보>를 대상으로 하였다. 20세기 초기는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온 시기로 근대국어의 혼적과 현대국어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볼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대한매일신보> 논설에서 ‘양, द, 테(체)’의 예문을 추출하였고, 다음으로 추출한 예문은 형태적 결합 관계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정리한 예문은 논문 지면 관계상 모두 수록할 수 없어서 내용 전개에 적절한 예문을 5~10개씩 다시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⁴⁾

1) 최현배(1937, 1955)에서는 어찌씨 같은 안응근이름씨라 하였고, 허웅(1995)에서는 ‘양, द, 체’를 어찌씨 같은 매인이름씨라 하였으며, 고영근(1970)에서는 부사성 의존명사라 하였다. 여기에서는 ‘양, द, 테(체)’가 주로 월에서 어찌말로 기능하기 때문에 어찌말 매인이름씨라고 칭한 것이며, 어찌말은 방편말, 위치말, 견준말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사용할 것임을 밝혀 둔다.

2) ‘테(체)’라고 표기한 것은 본 문헌에 보이는 주 형태가 ‘테’로 되어 있고, 현대국어에서의 형태가 ‘체’이기 때문에 ‘테(체)’라고 표기하였다.

3)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탁 등이 영국인 베델(Bethell)과 합작하여 1904년 7월18일 창간하여 1910년 8월 29일 폐간된 신문으로 국권회복을 위한 언론 구국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첫째, 매편이름씨 ‘양, 듯, (테)체’의 형태론적 특성을 파악한다. 여기에서는 각 매편이름씨에 결합하는 후행요소를 확인하고, 결합 양상을 통해 각 매편이름씨의 차이점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공시적 연구이지만, 변천의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전의 시기와 현대국어와의 결합 양상의 차이도 비교해 볼 것이다.⁵⁾

둘째, 매편이름씨 ‘양, 듯, 테(체)’의 통어론적 특성을 파악한다. 여기에서는 ‘양, 듯, 테(체)’의 선행요소와의 통합 제약을 살펴보고, 통어적 관계의 후행 풀이말 제약도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 매편이름씨의 통합 양상의 차이와 이전 시기, 현대국어와의 차이도 비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매편이름씨 구성이 전체 월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지도 파악할 것이다.

2. ‘양, 듯, 테(체)’의 형태론적 특성

2장에서는 매편이름씨 ‘양, 듯, 테(체)’의 형태론적 특성을 논의한다. 형태론적 특성은 매편이름씨 ‘양, 듯, 테(체)’에 후행하는 결합 요소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대체로 이름씨는 후행요소로 뿌리, 토씨, 파생가지 등이 결합하기도 하고, 후행 요소가 영형태소이기도 하는데, ‘양, 듯, 테(체)’에서도 이름씨와 같은 결합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우선 ‘양’의 경우를 살펴보면, ‘양’은 부림자리토씨, 방편자리토씨, 잡음씨 등과 결합하고, 도움토씨, 파생가지, 영형태소와 결합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 (2) ㄱ. 초췌 일본 정부로서 요구하는 양을 비이며 (1904.8.9.)
 ㄴ. 만일 사신보로 말흘진디 변변치 못 햏야 무식흔 양으로 돌닐 지경이면 (1904.10.6)
 즈긔의 군스흔 수효를 감햏던지 전수히 업흔 양으로 말햏흔 (1904.10.24)
 장리지스가 다만 일아전쟁에 달닌 양으로 말들은 하되 (1904.11.4)
 쯤립성명흔 바를 엇지 흘 수 업시 파악된 양으로 아라사외게 햏햏야 (1904.12.2)
 일본 군사흔 모도 이러흔 양으로 말햏고 (1904.12.8)
 엇지 흘 수 업시 햏락흔 양으로 설명햏엇스즉 (1904.12.9)
 구라파의 햏위가 대단히 올치 아니흔 양으로 말햏엇스나 (1904.12.10.)
 집짚 치지도외햏고 아니햏흔 양으로 말햏야 (1904.12.23)
 들니흔 소리흔 도모지 업흔 양으로 햏엇흔지라 (1904.12.26)
 외국스름들과 선교스름 햏룡햏흔 양으로 (1905.1.30)
 파괴를 쯤장햏흔 자흔 다시 건축홀 양으로 파괴햏기를 브라노라 (1908.2.16)
 국민신보에 기지햏기를 본보가 햏과햏 양으로 햏부로 말올 햏엇스니 (1908.8.16)
 ㄷ. 어느뻘이던지 독승홀 양이면 큰 힘을 디려야홀 터인디 (1904.8.11)

(2ㄱ)은 부림자리토씨 ‘-을’이 결합한 예이고, (2ㄴ)은 방편자리토씨 ‘-으로’가 결합한 예이며, (2ㄷ)은 잡음씨 ‘-이’와 결합한 예이다. 예문을 보면, ‘양으로’의 형태가 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예문은 소수에 불과하였다.⁶⁾ 본 문헌에서는 도움토씨가 결합된 예는 보이지 않는다. 중세, 근대, 현대국어에는 도움토씨가 결합된 예가 보인다. 또한, 후행요소로 ‘햏다’가 결합된 예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전 시기나 현대국어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쓰이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⁷⁾ ‘햏다’는 ‘양, 듯, 테(체)’에 모두 결합하는데, 근대뿐만 아니라 현대국어에서도 결합한

4) 본 연구에서는 최대희(2015)의 체재와 연구 방법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됨을 밝혀 둔다.

5) 중세, 근대의 예문은 최대희(2015)를 인용하고, 현대국어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인용하였다.

6) ‘양’은 14개의 예문을 추출하였는데, ‘양을’ 1개, ‘양으로’ 12개, ‘양이면’ 1개였다.

7) ‘햏다’가 결합한 예이다. (ㄱ)은 15세기, (ㄴ)은 17세기, (ㄷ)은 현대국어이다.

ㄱ. 거슬췌 양햏흔 難이어나 (월석9:54)

웃사름 두고 더은 양햏야 (석보9:14)

ㄴ. 므슴 햏라 말 한 양햏리오 (박통상:65)

ㄷ. 그는 이미 집에 간 양햏다

다.8)

최대희(2015)에서 제시한 15세기, 17세기, 현대국어의 ‘양’을 인용하여 후행 요소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가. 히디논 얌이 드론 불 곧거든 (월석8:6)

네 죽사릿 바르래 잇논 얌이오 (월석1:17)

제 흘 얌으로 하게 허라 (석보6:27)

菩薩 道理行 허시는 얌도 보며 (석보13:14)

웃사름 두고 더은 얌허야 (석보9:14)

나. 니르시는 얌이 그러도 흘 듯하면 (첩해초6:23)

우연히 집 종 놓이 혼 관둔논 얌을 보고 무려 7로디 (동신열4:41)그

의심도 업술 얌으로 지간을 미덧습닝이다 (첩해초9:6)

太守 | 今度 슈고허신 얌은 朝廷의도 즈셔히 (첩해초8:32)

大君씩서 날러 왔다 허고 振舞 흘 얌도 잇는가 (첩해초8:10)

어리로운 아희들의 썩노는 얌과 놀래 뵈은 모로거니와 (첩해초6:8)

여러 번 비를 마즈면 다 들뜰 얌이로다 (박통중:25)

이 가음열면 아히 허건 얌 한다 허느니라 (박통중:41)

너희 손 도윈 얌 말고 (노걸상:38)

다. 그는 감기라도 걸린 얌 심하게 기침을 토해 낸다. (표준)

나는 한없는 길을 걷는 나그네인 얌 다시 붓을 든다. (표준)

친구의 잠을 방해하지 얌을 얌으로 발끝으로 걸어 나갔다. (표준)

고시를 볼 얌이면 각오를 단단히 해라. (표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얌하며 시치미를 뚝 떴다. (표준)

(3가)은 15세기의 예이고, (3나)은 17세기의 예이며, (3다)은 현대국어의 예이다. 15세기 국어에서는 17세기와 큰 차이가 없이 자리토씨, 도움토씨, 잡음씨, 하다, 영형태소 등이 결합한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는 영형태소의 결합이 대체로 많고, 방편자리토씨와 잡음씨가 소수만 결합하고 있다. <대한매일신보>에서와 비슷한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의 결합 제약은 현대국어로 우수록 커지고 있는데,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국어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시기가 20세기 초나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였을 것이라고 추론해 본다.

다음으로 ‘덧’의 경우를 살펴보면, ‘덧’은 ‘도움토씨, 파생가지(-이), 영형태소, 허다, 십다’와 결합하고 있다.⁹⁾

(4) 가. 이제 이르켜 말허는 것도 온당치 아니 흘 덧도 허며 (1904.10.15)

즉 청국의 정권을 요구할 덧도 허며 (1904.10.19)

아병이 돌출허야 나올 덧도 허며 (1904.11.11)

나. 몇백년 몇천년을 살아서 조손의 계교를 흘 덧시 허논디 (1908.7.10)

한국에서는 저의가 데일인 덧이 허야 (1905.2.29.)

썸인지 칭시인지 분간치 못허여 자몽허는 덧시 다시 누어 (1907.12.28)

선칭의 말을 덧지 못하면 석돌이나 된 덧이 알며 (1910.7.14)

다. 그러도 반디들이 좀 잇슬 덧 우리가 전일에 국채문제의 시작될 쎄에 (1905.2.3)

증화의 말을 엇어 드른 덧 말레이 사름이 복음을 엇어 드른 덧 (1908.5.19)

8) 김건희(2010)에서는 ‘의존명사+하다’에 대하여 ‘조사 개입’, ‘단독형 가능’, ‘격조사 결합’이라는 세 개의 통사적 결합 관계를 기준으로 논의한 결과 ‘의존명사+하다’는 ‘의존명사’, ‘하다’로 각각 분리되는 별개의 단위임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매인이름씨+하다’를 하나의 단위인 매인풀이씨로 다루지 않고, 각각 분리된 별개의 단위로 다루고 있어서, 매인이름씨+파생가지(하다)의 결합으로 파악하였다.

9) ‘덧도’ 6개, ‘덧이’ 22개, ‘덧’ 15개, ‘덧십다’ 2개, ‘덧허다’ 200개 이상이 추출되었다.

- 풍운이 나는 듯 홍수가 쓸는 듯 벽력이 뒤놓는 듯 (1909.5.28)
 지금에 일본 어민들이 죠슈 밀 듯 런속부절 드러와서 (1909.11.14)
- ㄹ. 농민이 아니면 상민 될 듯하며 (1909.1.19)
 싹 날 제논 비록 적은 듯하나 (1909.1.27)
 그 학칭의 일이 잘못된거시 업다할 수 업슬 듯함으로 (1910.2.3)
 우리의 쇼견에는 이 다음에도 그럴 듯십지 아니하며 (1905.2.2)
 일본일이 우리 나라에서 될 듯시버도 오래도록 되지 못하리라 (1907.8.11)

(4ㄱ)은 도움토씨 ‘-도’가 결합한 예인데, ‘-도’가 결합한 예는 풀이말로 ‘하다’가 오고 있다. (4ㄴ)은 파생가지 ‘-이’가 결합한 예이며, (4ㄷ)은 영형태소인 예이다. ‘듯’은 ‘듯이’의 줄인 형태이다. (4ㄹ)은 ‘하다’와 ‘십다’가 결합한 예인데, ‘하다’와 ‘십다’가 결합한 경우는 서로 의미의 차이가 없다.¹⁰⁾

15세기, 17-18세기, 현대국어의 ‘듯’의 후행요소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 ㄱ. 서르 셋근 듯 疑心^ㄷ외도다 (능엄2:98)
 文章이 짜흠 쓰론 드시 업도다 (두시24:58)
 제모맷 고기를 바혀 내논 드시 너겨 하며 (월석9:29)
 前生엿 이리 어제 본 듯하야 (석보6:9)
 피릿 소릴 든논 듯하더니라 (두시6:41)
 잇는 듯호디 (능엄9:30)
- ㄴ. 미흔 믹은 손가락 아리 츠즈면 인논 듯 업논 듯하고 (마경상19)
 우리의 뜻으로 보텔 바논 이실 듯 아니하건마논 (첩해초1:7)
 이 굿 가져온 물이 녹논 드시 재고 (박통중:8)
 비록 굿바 고로운 듯하나 (경민중:11)
 三綱이 짜히 쓴 듯하고 (여훈상:46)
 그 근본을 칭각하면 잇는 듯도 하고 업논 듯도 하고 그러흔 듯도 하고 (속명의록연해2:25)
- ㄷ. 아기는 아버지를 빼다 박은 듯이 닳았다. (표준)
 꼬마는 잘 모르겠다는 듯 눈만 꺾벽이고 있었다. (표준)
 비가 온 듯(도) 하다. (표준)
 평일이라 결혼식에 하객이 많지 않을 듯싶다. (표준)

(5ㄱ)은 15세기의 예이고, (5ㄴ)은 17~18세기의 예이며, (5ㄷ)은 현대국어의 예이다. 15세기부터 현대국어까지 ‘듯’에 후행하는 요소의 결합 제약은 거의 변화 없이 전개되었다.

다음으로 ‘테(체)’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6) ㄱ. 국민이 되어 국스를 알은 테도 아니하고 (1909.12.8)
 더 목석긋흔 인물들이 극히 완명하여 드른 테도 아니하니 (1909.12.17)
 무슴 새말이 잇스들 누가 이거슬 본 테나 하리오 (1908.12.19.)
- ㄴ. 강신이 진동하야도 드른 체 마논 체 본 체 아니본 체 평안흔 (1907.7.26)
 드러오면 어린 테 고온 테 려녀인 테 아첨하논 쇼첩이라 (1907.10.17)
- ㄷ. 비록 당장에는 조흔 체하나 (1904.9.10)
 청일과 아일간 전칭의 총소리도 귀먹은 테하여 보지 아니하고 (1908.1.28)
 쏘흔 엇지 구변 도흔 테하랴 흠이리오 (1908.3.21)

(6ㄱ)은 도움토씨 ‘-도, -나’가 결합한 예이고, (6ㄴ)은 후행요소가 영형태소인 예이며, (6ㄷ)은 ‘하다’가 결합된 예

10)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듯하다’와 ‘듯싶다’는 서로 같다는 것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다.¹¹⁾

‘테(체)’는 15세기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고 16세기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매인이름씨이다.¹²⁾ 17세기 국어에서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근대와 현대국어에서 ‘테(체)’의 후행요소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ㄱ. 바다셔 홀 테도 업스니 어므리 커나 나 흐는 대로 흐소 (첩해초:7:7)

順承 흐는 테로 흐나 안흐로 원망하며 (여훈상:15)

거죽 패흔 테로 하고 가거든 (연병:9)

귀먹은 테흐논 이 (역어상:29)

法度 | 이시니 뒤보라 가는 테 훈가지로 나오면 (박통중:18)

거리예 가 보피로운 테 말고 7장 用心 하여 (박통중:25)

ㄴ. 보고도 못 본 체 판전을 부리다 (표준)

모르는 체를 하며 고개를 돌리다 (표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는 왜 하니? (표준)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표준)

못 이기는 체하고 받다 (표준)

그녀는 모르면서 아는 체하다가 망신만 당했다. (표준)

(7ㄱ)은 17세기 국어의 예이며, (7ㄴ)은 현대국어의 예이다. 결합 양상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특이하게 17세기에는 본 문헌에서 나타나지 않은 ‘-로’와 결합 양상이 보이며, 현대국어에서는 부림자리토씨 ‘-를’과 결합한 양상도 나타난다.

지금까지 논의한 ‘양, 듯, 테(체)’의 형태론적 특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대한매일신보>의 ‘양, 듯, 테(체)’의 형태론적 특성

매인이름씨 형태론적 제약	양	듯	테(체)
자리토씨	양을, 양으로	X	X
도움토씨	(양도)	듯도	테도, 테나
잡음씨	양이면	X	X
영형태소	(양)	듯	테, 체
파생가지/매인풀이씨	(양하다)	듯이, 듯하다/듯십다	테하다

※ ()는 20세기 초 문헌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형태임.

3. ‘양, 듯, 테(체)’의 통어론적 특성

3장에서 ‘양, 듯, 테(체)’의 통어론적 특성을 확인한다. 통어론적 특성은 ‘양, 듯, 테(체)’의 선행요소와의 통합 제약을 확인하고, 통어적 관계의 후행 풀이말 제약도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 매인이름씨의 통합 양상의 차이점을 확인할 것이며, 이전의 시기, 현대국어와의 차이점도 비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매인이름씨 구성이 전체 월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파악할 것이다.

3.1. 선행어 제약

11) ‘테도’는 7개, ‘테나’는 1개, ‘테로’는 ‘테’는 14개, ‘테하다’는

12) 公孫弘이 뵈로 니블을 하야 검박흔 테하거늘 (소학6:128)

선행어 제약에서는 수식어 제약, 풀이씨의 제약, 매김법의 제약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수식어 제약은 ‘양, 듯, 테(체)’가 어떠한 선행 요소의 수식을 받는지 확인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름씨를 수식하는 선행 요소는 ‘임자씨, 임자씨+토씨(-의), 매김씨, 매김마디’가 있는데, 매인이름씨는 각각의 매인이름씨에 따라 수식하는 선행 요소의 제약이 있다. 다음으로 풀이씨 제약은 ‘양, 듯, 테(체)’를 수식하는 선행풀이씨의 씨범주를 확인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김법 제약은 매김법 ‘-ㄴ/-ㄹ’과의 결합 제약을 확인해 볼 것이다.

① ‘양’

‘양’은 선행어 제약에 있어서,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선행 수식어의 제약이 두드러지지만, 선행 풀이씨 제약과 매김법 제약은 큰 차이는 없다.

- (8) ㄱ. 초초 일본 정부로서 요구하는 양을 비이며 (1904.8.9.)
 - 증립성명헌 바를 엇지 할 수 업시 파악된 양으로 아라사에게 향하야 (1904.12.2)
 - 외국스름들과 선교스름 희롱하는 양으로 (1905.1.30)
 - 엇지 할 수 업시 허락한 양으로 설명하였슨즉 (1904.12.9)
- ㄴ. 만일 사신보로 말할진디 변변치 못 하야 무식한 양으로 돌닐 지경이면 (1904.10.6)
 - 즈기의 군스름 수효를 감하던지 전수히 업는 양으로 말하논 (1904.10.24.)
 - 일본 군사는 모도 이러한 양으로 말하고 (1904.12.8)
 - 들니는 소리는 도모지 업는 양으로 하였는지라 (1904.12.26)
- ㄷ. 파괴를 주장하는 자는 다시 건축할 양으로 파괴하기를 바라노라 (1908.2.16)
 - 어느편이던지 독승할 양이면 큰 힘을 되려야 할 터인디 (1904.8.11)

(8)은 ‘양’이 나타나는 구성의 예인데, 먼저 수식어 제약을 보면 다른 수식어는 선행되지 않고, 매김마디만 통합되고 있다. 이전의 시기에는 매김마디 이외에 ‘임자씨, 임자씨+이, 임자씨+이’ 등도 결합하였다.¹³⁾ 이러한 점은 ‘양’의 선행 수식어가 이전 시기보다 제한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선행 풀이씨를 확인해 보면, (8ㄱ,ㄴ)은 움직 씨, (8ㄴ)은 그림씨가 통합하고 있는 예이다. 본 문헌에서는 잡음씨가 선행하는 예를 찾지 못하였다. 이것은 20세기 초 국어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본 문헌의 문체상의 특징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전 시기의 문헌과 현대 국어에서는 잡음씨가 통합된 예가 보이기 때문이다.¹⁴⁾ 선행 풀이씨의 제약에서 특이한 점은 (8ㄷ)의 매인이름씨 구성인데, 이 구성은 ‘의향, 의도’의 의미를 가지는 예로, 선행 풀이씨로 움직씨만을 취하고 있다. ‘의향, 의도’는 [+동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매김법은 제약 없이 ‘-ㄴ, -ㄹ’이 모두 통합되는데, 의미에 따라 제약이 있다. 하나는 (8ㄱ,ㄴ)과 같이 [‘-ㄴ, -ㄹ’ # 양+영형태소, ‘-으로’]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8ㄷ)과 같이 [‘-ㄹ’ # 양으로, 양이면]의 경우인데, 전자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거나 어떤 행동을 짐짓 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후자는 ‘의향’이나 ‘의도’의 의미를 갖는다.¹⁵⁾ 문법화의 원리에서 단일방향성 가설을 보면, 의미는 ‘구체적>추상적’으로

13) ㄱ은 15세기의 예이고, ㄴ은 17세기의 예인데, 임자씨, 임자씨+토씨(이), 임자씨+토씨(이), 매김마디가 선행하고 있다.

ㄱ. 가시 양 무르시고 (월석7:5)
 琰魔法王이 罪인 야오로 詳考하야 (석보9:38)
 ㄴ. 스지 툰 신선 양으로 민근 (박통상:4)

14) 나는 한없는 길을 걷는 나그네인 양 다시 붓을 든다. (표준)

15) <표준국어대사전>의 ‘양’의 의미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어미 ‘-은’, ‘-는’ 뒤에 쓰여))어떤 모양을 하고 있거나 어떤 행동을 짐짓 취함을 나타내는 말.
 열이 빠진 양 구경하다/너를 좋아하는 양 친절을 베풀고 있으나 그게 다 속셈이 있어서야./그는 감기라도 걸린 양 심하게 기침을 토해 낸다./나는 한없는 길을 걷는 나그네인 양 다시 붓을 든다. <<이승녕, 대학가의 파수병>>
 「2」((어미 ‘-을’ 뒤에 ‘양으로’, ‘양이면’ 꼴로 쓰여))‘의향’이나 ‘의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

변화된다.¹⁶⁾ 이 원리를 ‘양’의 통합체에 적용해 보면, 전자보다는 후자의 의미가 더 추상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후자가 문법화가 좀 더 진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양’에 결합하고 있는 후행요소 ‘-으로, -이면’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으로’가 양자에 모두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후행요소 ‘-으로, -이면’보다는 매김법 ‘-ㄴ, -ㄹ’의 의미 특성과 관련이 더 있어 보인다. 허웅(1975)에서는 ‘-ㄹ’이 ‘-ㄴ’보다 통합 제약이 자유롭다고 하였고, 안주호(1997)에서는 ‘-ㄹ’의 의미 특성이 ‘-ㄴ’보다는 문법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고 하였다.¹⁷⁾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시간 관념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ㄹ’이 매인이름와의 관계에서 좀 더 자유롭게 통합하고, 통합의 빈도 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의 통합체로 인식되면서, 문법 관념을 획득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듯’

‘듯’은 선행어 제약에 있어서, 이전 시기나 현대국어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¹⁸⁾

- (9) 가. 꿈인지 심시인지 분간치 못하여 자몽흔 듯시 다시 누어 (1907.12.28)
 대왕의 훈계를 드른 듯이 하여 (1909.2.25)
 이제 손을 목거 노흔 듯이 안젓슬지언뎡 (1910.4.29)
 나. 큰스업이나 혼 듯이 양양즈득힐 썬이로다 (1909.8.7)
 우리의 쇼견에는 이 다음에도 그럴 듯 십지 아니하며 (1905.2.2)
 한국에서는 저의가 데일인 듯이 하여 (1905.2.29.)
 이 일을 다힐 듯이 하다가 그 일을 일우지 못흔 경우에는 (1909.7.11)
 다. 이왕 습관은 칼노 변힌 듯이 쓴혀 브리고 (1909.3.11.)
 그런 말은 외양으로는 그럴 듯도 하지마는 (1905.1.13)
 그러도 반디들이 좀 잇슬 듯 우리가 전일에 국채문제의 시작될 때에 (1905.2.3)
 네 가지는 비록 쇼쇼흔 듯도 하고 우활흔 듯도 하나 (1909.1.14.)

(9)는 ‘듯’이 나타나는 구성의 예인데, 먼저 수식어 제약을 보면 다른 수식어는 선행되지 않고, 매김마디만 통합되고 있다. 다음으로 선행 풀이씨의 통합 제약을 (9나)을 통해 확인해 보면, 움직씨, 그림씨, 잡음씨가 모두 선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매김법도 제약 없이 ‘-ㄴ, -ㄹ’이 모두 통합되는데, 이 경우 의미는 매김법 ‘-ㄴ, -ㄹ’과는 상관없이 매인이름씨 ‘듯’이 지닌 의미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의미를 보면, ‘-ㄴ, -ㄹ 듯(이)’일 경

그는 친구들의 잠을 방해하지 않을 양으로 조심조심 발끝으로 걸어 나갔다./고시를 볼 양이면 각오를 단단히 해라./그렇게 간단히 일을 처리할 양이면 내가 하지 왜 자네에게 맡겼겠나?

16) Bybee, Perkins & Pagliuca(1994)의 단일방향성 원리를 보면, 의미는 구체적에서 추상적으로, 음운은 자립적에서 의존적으로, 범주는 어휘적에서 문법적으로 변화 방향이 일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17) 허웅(1975)에서는 ‘-을’은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은 일, 방금 일어난 일, 장차 일어날 일, 또는 추측하는 일을 나타내는 매김법 씨끝인데, 특정한 시간 관념을 드러내지 않을 때도 이 씨끝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은’은 시간 관념을 반드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통합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을’은 시간 관념이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통합 제약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주호(1997:294)는 통사적 구성에서 보문소 ‘-는/-ㄴ/ㄹ’ 등이 결합되어 문법화가 진전되는데, 이 중에서 보문소 ‘-ㄹ’을 취할 때 자주 문법화가 진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문소 ‘-는/ㄴ’을 취하여 문법화한 것 중에는, 종결어미로 된 ‘-는걸’과 연결어미로 되어 상황을 나타내는 ‘-은즉, -은바, -은데’ 그리고 근거를 나타내는 ‘-오리만큼’ 등이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ㄹ’을 취하여 문법화된 것, 또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다. 완전히 문법화한 형태 중에서 종결어미로 된 ‘-ㄹ께’의 구성과, 선언어미인 ‘-ㄹ테’는 이 보문소 ‘-ㄹ’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접어 구성 중에서도 ‘-ㄹ’ 뿐이다. ‘-ㄹ 지경이다, ㄹ 터이다, ㄹ 성싶다’ 등이 있다. 이렇게 보문소 ‘-ㄹ’을 취하는 경우 문법화가 진전되는 것은 보문소 ‘-ㄹ’의 의미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보문소 ‘-ㄹ’이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추정’이나 ‘화자의 의지나 의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8) 본문의 예문 (5)를 통해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에는 ‘짐작’이나 ‘추측’을 뜻하고, ‘-ㄴ 듯 만 듯, ㄹ 듯 말 듯’일 경우에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함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ㄴ, -ㄹ’이 선행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인 이름씨 ‘듯’이 의미를 결정하는 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⁹⁾

③ ‘테(체)’

‘테(체)’는 선행어 제약에 있어서, 이전 시기나 현대국어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²⁰⁾

- (10) ㄱ. 국민이 되어 국수를 알은 테도 아니^ㄴ고 (1909.12.8)
 무슴 새말이 잇슨들 누가 이거슬 본 테나 ^ㄴ리오 (1908.12.19)
 강신이 진동^ㄴ야도 드른 체 만는 체 본 체 아니본 체 평안^ㄴ호 (1907.7.26)
 드려오면 어린 테 고온 테 렐녀인테 아^ㄴ침^ㄴ호는 쇼첩이라 (1907.10.17)
 ㄴ. 조본가들이 태반이나 새스업에 디^ㄴ호여 귀가 먹은 테 눈이 어둔 테 ^ㄴ호여 (1909.4.8)
 아모 학교에 몇^ㄴ돌 몇^ㄴ날 돈니는 테^ㄴ고 (1907.10.17)
 필연 귀를 가리우고 못 드른 테 홀지라 (1909.1.7)
 비록 당장에는 조흔 체^ㄴ나 히흔 생각은 잠간 동안에 도로 잇슬 듯 ^ㄴ호도다 (1904.9.10)
 여호^ㄴ긔치 아리^ㄴ짜온 테^ㄴ호는 그디의 무리로 (1908.1.30)
 오늘날에 호번 노례인 테 ^ㄴ호며 (1909.2.12)
 의젓이 조기가 경세^ㄴ종인 테 ^ㄴ호여 (1909.4.25)

(10)은 ‘테(체)’가 나타나는 구성의 예인데, 먼저 수식어 제약을 보면 ‘양’, ‘듯’과 같이 다른 수식어는 선행되지 않고, 매김마디만 통합되고 있다. 다음으로 선행 풀이씨의 통합 제약을 (10ㄴ)을 통해 확인해 보면, 움직씨, 그림씨, 잡음씨가 모두 선행하고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김법 제약을 보면 매김법은 ‘-ㄹ’은 선행하지 않고, ‘-ㄴ’만 선행하고 있다. ‘-ㄴ’만 선행하는 이유는 ‘테(체)’가 가진 의미와 관련이 있다. ‘체’의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매인 이름씨 ‘척’과 동일하게 ‘그럴 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으로, <연세한국어사전>에서도 ‘그럴 듯하게 거짓으로 꾸미는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체’의 의미는 시간 관념으로 [-미정, -추정]이기 때문에 매김법 ‘-ㄹ’이 가진 [+미정, +추정]과 상충되게 된다. 그러므로 ‘-ㄴ’만 선행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¹⁾

3.2. 후행 풀이말 제약과 월에서의 기능

‘양, 듯, 테(체) 구성’은 월에서 주로 어찌말로 기능한다. 여기에서 ‘양, 듯, 테(체) 구성’이란 [매김말(임자씨, 매김씨, 매김마디, 임자씨+의) # 매인 이름씨+후행요소]로 되어 있는 형식을 말한다. 3.2에서는 각 매인 이름씨의 후행 풀이말 제약을 확인하고, 각 매인 이름씨 구성의 월에서의 기능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① ‘양’

‘양’ 구성을 보면, ‘양’ 구성은 월에서 주로 어찌말로 기능하고 있는데, 부림말과 풀이말로 기능하는 경우도 한

19) 안효경(2001:155)에서는 ‘듯’에 ‘하다’가 결합한 ‘듯하다’ 구성에는 [-사실성]인 ‘추정’의 의미가 들어 있어, 대부분의 경우 유사한 의미를 가진 구성인 ‘것 같다’로 의 대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듯’이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에는 ‘추정’의 의미 외에 ‘가식’이나 ‘비유’의 의미가 나타나는데, ‘듯’에 ‘하다’가 결합할 경우에는 이러한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 본문의 예문 (7)를 통해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 안효경(2001:153)에서도 ‘체’와 의미가 동일한 ‘척’에 대해 ‘척’이 가지고 있는 ‘의도적인 가식’의 의미가 ‘-ㄹ’이 지닌 ‘미정’의 의미와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내포문의 내용이 진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ㄹ’이 결합되면 내포문의 내용이 진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씩 나타났다.²²⁾

- (11) 가. 초초 일본 정부로서 요구하는 양을 뵈이며 (1904.8.9.)
- 나. 조국의 군수는 수효를 감하던지 전수히 업는 양으로 말하느 (1904.10.24)
- 장리지스가 다만 일대전쟁에 달닌 양으로 말들은 하되 (1904.11.4)
- 중립성명헌 바를 엿지 홀 수 업시 파악된 양으로 아라사의게 향하야 (1904.12.2)
- 일본 군사는 모도 이리흔 양으로 말하고 (1904.12.8)
- 엇지 홀 수 업시 허락흔 양으로 설명하엿스즉 (1904.12.9)
- 들니는 소리는 도모지 업는 양으로 하엿는지라 (1904.12.26)
- 파괴를 주장하느 자는 다시 건축홀 양으로 파괴하기를 바라노라 (1908.2.16)
- 국민신보에 그지하기를 본보가 사과흔 양으로 함부로 말을 하엿스니 (1908.8.16)
- 다. 어느편이던지 독승홀 양이면 큰 힘을 디려야홀 터인디 (1904.8.11)

(11가)은 부림자리토씨 ‘-을’과 결합하여 부림말로 기능하는 경우로, 후행 풀이말로로는 남음씨 ‘뵈다’가 통합하였고, (11나)은 방편자리토씨 ‘-으로’가 결합하여 어찌말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로, 후행풀이말로 움직씨만 통합하였다. ‘양’에 ‘-으로’가 결합하면,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거나 어떤 행동을 짐짓 취한다는 의미’와 ‘의향, 의도’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는 [+동작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후행 풀이말로 움직씨만 통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²³⁾ (11다)은 ‘이다’와 결합하여 풀이말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② ‘듯’

‘듯’ 구성을 보면, ‘듯’ 구성은 월에서 주로 어찌말로 기능하고 있는데, 풀이말로 기능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 (12) 가. 괴이흔 보화 | 나 본 듯이 흐느니 (1910.6.21)
- 선칭의 말을 듯지 못하면 석돌이나 된 듯이 알며 (1910.7.14)
- 지갈을 먹인 드시 두 입살을 뽕삿도 못하느니 (1908.3.1)
- 홍상 엄흔 스승을 디흔 드시 극진히 공경하느 바 지어 (1908.3.3)
- 인민들이 술취하드시 꿈꾸는 드시 그 쇼를 다 잡으며 (1908.4.5)
- 혹세무민하던 거시 봄눈 슬 듯 업서져서 (1908.9.26)
- 그 의기가 산도 뛰여 넘을 듯 바다도 뛰여 건널 듯하다가 (1907.12.31)
- 이제 손을 목거노흔 듯이 안춧슬지연뎡 (1910.4.29.)
- 이거슬 민원하여 밋춘 듯 침흔 듯 여러 의론이 분분하도다 (1909.3.16)
- 나. 이제 이르켜 말하느 것도 온당치 아니 홀 듯도 하며 (1904.10.15)
- 즉 청국의 정권을 요구홀 듯도 하며 (1904.10.19)
- 아병이 돌출하야 나올 듯도 하며 (1904.11.11)

22) 최대회(2015)를 확인해 보면, 15세기, 17세기에 ‘양’은 임자말, 부림말, 어찌말, 풀이말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현대국어에 와서는 어찌말과 풀이말로 기능하는 경우만 보인다.

23) 김건희(2010)에서는 의존명사 ‘양’의 의미 기능을 제시하였는데,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기본의미기능	[의도/의향] 선행	[가식] 선행
격조사(양으로)	[의도/의향]	[의도/의향]	[가식]
하다(양하다)	[가식]	[가식]	[가식]
양(단독형)	[의도/의향], [가식]	[가식]	[가식]

의존명사 ‘양’은 양태를 나타내는 의미 기능의 핵심 부분으로 단독으로 쓰일 때 [의도/의향], [가식]의 의미 기능이 미분화된 상태로 있지만, ‘하다’, ‘-으로’와 같은 통사적 표지로 그 의미를 분화시키고 있으며,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가진 표현을 선행시킨 결과 [가식]이 의존명사 ‘양’의 중심적인 양태 의미임을 밝히고 있다.

- 그런말은 외양으로는 그럴 듯도 하지마는 (1905.1.13.)
- ㄷ. 일일신문통신원이 일본반디당을 비양식이는 듯한 이상 보고를 론급출진디 (1904.8.4)
 피차 자웅을 겨르기 전에 다 피하엿슬 듯한디 (1904.8.11)
 우리의 보는 바에도 대단히 어려울 듯하고 (1904.8.11)
 조국의 손아귀에 잡아 너흐려 흠인 듯하나 (1904.8.13)
 하늘을 우러러보미 일월이 새로이 광명한 듯하며 (1909.1.1)
 우리의 쇼견에는 이 다음에도 그럴 듯십지 아니하며 (1905.2.2)
 일본일이 우리 나라에서 될 듯시버도 오래도록 되지 못하리라 (1907.8.11)

(12ㄱ)은 ‘듯’에 파생까지 ‘이’가 결합한 ‘듯이’와 ‘듯이’의 준말인 ‘듯’이 어찌말로 기능하는 경우로, 후행 풀이말로 는 주로 움직씨가 통합하고, 그림씨가 통합한 예도 1개 나타났다.²⁴⁾ 후행 풀이말로 그림씨가 통합하는 것은 ‘양’과는 다르다. 이러한 통어적 제약 관계의 차이가 의미의 차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12ㄴ)은 ‘듯’에 도움토씨 ‘-도’가 결합하여 어찌말로 기능하는 경우로 후행 풀이말로 ‘하다’만 결합하고 있다. (12ㄷ)은 ‘듯’에 ‘하다’와 ‘십다’가 바로 결합한 경우로 풀이말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이다.

③ 테(체)

‘테(체)’ 구성을 보면, ‘테(체)’ 구성도 월에서 주로 어찌말로 기능하고 있는데, 풀이말로 기능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 (13) ㄱ. 무슴 새말이 잇스든 누가 이거슬 본 테나 허리오 (1908.12.19.)
 더 슈전로들은 드른 테도 아니하고 (1908.11.20)
 신문의 직칙을 슝으며 산밖기 풍진을 알은 테도 아니하는 (1909.2.2)
 어제 우리 한국 사름들은 드른 테도 아니하고 (1910.10.28)
- ㄴ. 드러오면 어린 테 고온 테 렐녀인테 아첨하는 쇼첩이라 (1907.10.17)
 나는 귀먹고 눈감고 드른 테 본테 아니힘이 올타하고 (1907.12.22)
- ㄷ. 덕국이 썩아셔가도 모르는 테하는 거시 (1909.7.31)
 제군이 일향 귀를 막고 듯지 못하는 테하미 (1909.10.14)
 지금 한국 안에 거쥿 이국심을 품은 테하는 자ㅣ 잇셔서 (1909.10.24)
 우리는 그 마귀의 횡동을 보미 춤어 모르는 테하기 어려움으로 (1910.3.30)
 더 탁지부에서는 듯고도 듯지 못하는 테하는지 우리는 알수 업거니와 (1910.5.1)

(13ㄱ)은 ‘테(체)’에 도움토씨 ‘-나, -만’가 결합한 경우로 어찌말로 기능하는 경우로, ‘하다’와 ‘아니하다’가 후행 하고, (13ㄴ)은 ‘테(체)’가 후행 결합 요소 없이 어찌말로 기능하는 경우로, 후행하는 풀이말은 움직씨가 결합하고 있으며, (13ㄷ)은 ‘테(체)’에 ‘하다’가 바로 결합하여 풀이말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양, 듯, 테(체)’의 통어론적 특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4) 현대국어에도 후행 풀이말로 그림씨가 통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아기는 아버지를 빠다 박은 듯이 났았다.
 세상이 벌집을 쑤서 놓은 듯이 소란하다.

<표2> <대한매일신보>의 ‘양, 듯, 테(체)’의 통어론적 특성

매인이름씨		양	듯	테(체)
통어론적 제약				
선행어 제약	선행 수식어	매김마디	매김마디	매김마디
	선행풀이씨	① 매김법(-ㄴ, -ㄹ)#양+영형태소, ‘-으로’ → 움직씨, 그림씨 ② ‘매김법(-ㄹ)#양으로(이면)’ → 움직씨만 선행	움직씨, 그림씨, 잡음씨	움직씨, 그림씨, 잡음씨
	매김법	-ㄴ, -ㄹ 가능	-ㄴ, -ㄹ 가능	-ㄴ만 가능
후행 풀이말 제약과 후행 월에서의 기능	후행 풀이말 제약	① 양을 - 남움직씨 ② 양으로 - 움직씨 ③ 양-이다	① 듯(이) - 움직씨, 그림씨 ② 듯도 - 헐다 ③ 듯-헐다, 듯-쉽다	① 테너(만) - 헐다, 아니헐다 ② 테(체)# - 움직씨 ③ 테-헐다
	월에서의 기능	부림말, 어찌말, 풀이말	어찌말, 풀이말	어찌말, 풀이말

4. 맺음말

지금까지 20세기 초기에 발간된 <대한매일신보> 논설에 나타난 어찌말 매인이름씨 ‘양, 듯, 테(체)’를 대상으로 형태·통어론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형태론적 특성을 보면, ‘양’은 ‘듯, 테(체)’와 비교하여 결합 제약이 크지 않았다. ‘양, 듯, 테(체)’는 도움토씨, 영형태소, ‘헐다’와 결합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고, 자리토씨 결합에서 ‘양’은 결합하지만, ‘듯, 테(체)’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통어론적 특성을 보면, ‘양, 듯, 테(체)’는 <표2>에서 확인하였듯이, 선행풀이씨 제약, 매김법 제약, 후행 풀이말 제약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통어론적 특성의 차이는 각 매인이름씨가 가진 의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각 매인이름씨의 의미 특성과 관련된 연구는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다.

■ 참고 문헌

- 고영근(1970), 현대국어 준자립형식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9-1, 서울대어학연구소, 17-56쪽.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 권재일(1987), 의존구문의 역사성 - 통사론에서 형태론으로, 『말』 12, 연세대한국어학당, 5-24쪽.
김건희(2010), “의존명사+‘하다’”에서 의존명사 자리 찾기, 『형태론』12-1, 형태론학회, 49-73쪽.
안정아(2007), 현대국어 의존명사의 의미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안효경(2001), 『현대국어 의존명사 연구』, 도서출판 역락.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2006), 『연세 한국어 사전』, 두산동아.
왕문용(1988), 『근대국어 의존명사 연구』, 도서출판 한샘.
유창돈(1964), 『이조어 사전』, 연세대 출판부.
이주행(2009), 『한국어 의존명사 연구』, 한국문화사.
전정례(1991), 중세국어 명사구 내포문에서의 ‘-오-’의 기능과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호완(1987), 『후기 중세어 의존명사 연구』, 학문사.
최대희(2013), ‘-오-’의 실현과 의존명사 명사성과의 상관성 연구 -15세기 문헌을 대상으로-, 『한말연구』 32, 한말연구학회, 363-392쪽.
최대희(2014), 매인이름씨 ‘것, 줄, 바’의 형태·통어·의미적 특성 연구, 『국제어문』60, 국제어문학회, 185-213쪽.
최대희(2015), 17세기 매인이름씨 ‘양, 적(제)’ 연구 『한말연구』 38, 197-217쪽.
최현배(1937, 1955),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허 응(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허 응(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17세기 국어사전』, 태학사.
Bybee, Perkins & Pagliuca(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토 론

“<대한매일신보> 논설에 나타난 어찌말 매인이름씨 연구 -‘양’, ‘덧’, ‘테(체)’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건희(서원대)

이 논문은 20세기 초에 발간된 특정 자료에 나타난 어찌말 매인이름씨를 대상으로 그 형태,통어론적 특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매인이름씨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에 대한 자세한 분포적 특성을 검토하여 어찌말 매인이름씨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어학 연구에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20세기 초’ 시기의 문헌을 대상으로 좋은 연구를 계속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논문에 대해 토론자가 몇 가지 논의 및 보충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덧’의 의미

(4) 예문을 토대로 ‘덧하다’와 ‘덧스럽다’ 두 단어가 의미 차이가 없다고 제시하셨는데(모두 ‘추정’을 나타냄) 이는 ‘덧’이라는 의존명사가 의미 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가정한 논지에 잘 부합합니다. 그러나 이후 ‘덧’이 부사절을 이끌 때의 의미에 대해(안효경(2001)의 인용 부분(각주 21)) ‘가식, 비유’를 더 언급하시면서 “‘덧’에 ‘하다’가 결합할 경우에는 ‘추정’만 나타나지 ‘가식, 비유’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용하셨습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덧’의 ‘비유’의 의미는 논문에서 다른 매김법과 함께 나타나지 않고 선행 어간에 직접 결합될 때 나타나는 의미로 곧 의존명사가 아니라 어미일 때 주로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할리우드 영화가 사용하는 덧(추정)

대부분의 할리우드 영화가 사용하덧(이) (비유)

이처럼 ‘덧’의 ‘비유’, ‘가식’ 등의 의미는 ‘추정’의 의미보다 문법화가 더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의미이므로(의존명사의 어미화) 본고에서 다루는, ‘추정’의 의미와 구분해서 다뤄야 할 것입니다.

논문 일부에서는 ‘15세기, 17세기, 20세기 초, 현대국어’의 매인이름씨를 비교하는 통시적 연구 방법도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의미와 용법의 ‘덧’을 문법화 관점에서 다루는 것도 제안합니다.

<2> ‘-르’의 자유로운 통합 제약

p.8에서 ‘-르’이 시간 관념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통합 제약이 자유롭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르’이 시간 관념을 나타내지 않을 때가 있으나 ‘예쁜 사람’과 같이 품사 부류와의 제약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의향, 의도’의 의미와 통합 제약

(8) 예시에서는 ‘의향, 의도’가 [+동작성]을 가져 선행 풀이씨로 움직씨만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11) 예시에서는 ‘의향, 의도’가 [+동작성]을 가져 후행 풀이씨로 움직씨만 통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향, 의도’의 의미를 가지는 문법소의 통합 제약은 선행 요소(선행하는 용언의 품사)만 제약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설명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행 풀이씨의 통합 제약으로까지 확대한 설명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선행 풀이씨 예외 : 인간본연의 조건인 양으로 [-동작성]

후행 풀이씨 예외 : 집에 빨리 갈 양으로 잠자코 있었다. [-동작성]

<4> 기타

예문 분석 : (13ㄱ) 예문들이나 (13ㄴ) 두 번째 예문은 어찌말이 아니라 부림말로 생각됩니다.

<표2> '후행 월에서의 기능'이라고 제시한 부분도 있는데 '월에서의 기능'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5> 추후 자료 보충이 필요한 부분

- '<대한매일신보> 논설'이라는 하나의 문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목도 '<대한매일신보> 논설에 나타난...' 이므로 '양, 듯, 테' 말고도 다른 어찌말 매인이름씨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그 목록(어찌말 매인이름씨) 정도는 언급해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 <표1>에서 '()는 20세기 초 문헌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형태임'으로 제시했는데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실제 예시를 찾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p.7에서 '이전 시기의 문헌과 현대국어에서 잡음씨가 통합한 예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전 시기의 문헌' 자료는 예시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1부 <제2 분과 발표>

모바일 텍스트에 사용된 지역어의 양상과 기능

박선우, 유현지, 이수미 (계명대학교)

1. 머리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페이스북(facebook.com), 카카오토리(www.kakao.com/story), 인스타그램(instagram.com), 트위터(twitter.com) 등 Social Network Service(이하 SNS) 활동이 대부분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SNS 게시글과 댓글에서 지역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음성언어에서 지역어는 자연스럽게 사용되지만, 문자언어에서는 지역어의 사용빈도가 낮은 편이다. 음성언어와 달리 문자언어에서는 지역어의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억양, 강세, 고저 등의 운율적 자질이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텍스트에 사용된 지역어는 음성언어에 사용된 지역어와 달리 특수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목적은 SNS의 텍스트들에서 관찰되는 지역어의 역할과 기능을 밝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이후 SNS의 텍스트는 모바일 기기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NS의 모바일 텍스트를 중심으로 문자언어에 사용된 지역어의 사용 빈도, 대상, 기능에 대해 분석하였다.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작성되는 SNS 텍스트에서 지역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모바일 텍스트 속 세대 간, 성별 간 지역어의 사용 양상과 변이형의 확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텍스트에 사용된 지역어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방법은 SNS 매체에 공개된 지역어 모바일 텍스트를 직접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영남권(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어가 포함된 20대 페이스북 운영자의 게시글과 댓글(reply) 100건을 수집하여 텍스트의 내용과 길이, SNS 모바일 텍스트에서 자주 관찰되는 특징적인 표기법인 이모티콘, 문장 부호, 두문자어를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방법은 지역어가 포함된 모바일 텍스트가 사용된 맥락과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페이스북의 게시글과 댓글을 묶어서 단일한 담화의 단위로 설정하고, 이러한 담화의 단위 안에서 지역어와 관련된 요소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검토하였다. 특히 음성언어의 경우 지역어에 대한 남녀의 인식과 사용 양상이 다르다는 기존의 연구(이정민 1981, 이익섭, 강옥미 1998 등)를 고려하여 양적 분석에서는 남녀의 지역어 텍스트를 나누어 비교하였다. 또한 지역어 사용의 연결망을 통하여 남녀 혼성 집단과 여성으로만 구성된 집단의 차이도 비교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후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지역어와 인터넷의 텍스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성별 차이가 지역어와 인터넷 텍스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SNS 모바일 텍스트의 수집과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페이스북의 댓글에 포함된 지역어의 변이형들을 문법적으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대화 상대와 모바일 텍스트의 특징을 중심으로 지역어가 포함된 모바일 텍스트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분석의 범위를 페이스북의 담화 단위로 확대하여 지역어에 사용된 댓글의 기능을 분석하고 여성, 남성, 남녀의 담화 안에서 지역어나 비속어가 나타나는 비율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론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모바일 텍스트를 대상으로 지역어를 역할과 기능, 성별에 따른 사용 양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 가운데 모바일 텍스트의 지역어를 다루지 않았으나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논의들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표준어에 대비되는 하위 방언으로서 지역어의 역할과 기능(이길재 2007), 지역어의 인식과 사용에 대한 남녀 성별의 차이(이정민 1981, 강옥미 1998, 이익섭 2001), 인터넷 및 모바일 텍스트에서 관찰되는 남녀 성별의 차이(Herring 2003, 이주희.박선우 2012, 박선우.홍정의.박진아 2015), 인터넷 매체에 사용된 지역어에 성격(이정복 2006, 이정복 2007)에 대한 연구들을 요약하여 소개하겠다.

2.1. 비표준적 지역어의 기능

모바일 텍스트나 SNS와 관련된 연구는 아니지만 이길재(2007)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규범으로서 표준어와 대비되는 지역어를 사용하는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였다. 전북대학교 학생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사용되는 지역어의 변이형들을 음운론적 변이, 문법론적 변이, 어휘론적 변이, 화용 표지로 분류하고 지역어를 사용하는 원인을 ‘동질감, 유대감, 친근감 확보의 수단, 차별화의 수단, 준거집단과 동일화, 정서 표현, 말장난’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어를 통하여 사용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표현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활용한다고 보았다.

2.2. 인터넷 텍스트와 성별 차이

이정복(2006)과 이정복(2007)에서는 SNS와 성격이 유사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지역어를 분석하였다.¹⁾ 이정복(2006)에서는 대구 지역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인터넷 통신 언어 자료를 통하여 지역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 방언이 어떠한 조건과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사용의 동기 및 효과가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지역어 사용이 화자의 성별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역어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그 원인은 일상생활에서도 남학생들이 지역어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인터넷 매체에도 적용된 결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의 다소 특이한 결과는 전반적인 성별 분석결과와 달리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남학생보다 지역어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정복(2007)에서는 경남 하동 출신 초등학교 동기동창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개인 블로그의 게시판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지역어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지역어의 사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비율을 기준으로 남성들이 지역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43% 더 높았다. 또한 지역어와 표준어에 대한 태도, 카페와 블로그의 지역어 사용비율, 지역어 사용의 세부적인 양상 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남성들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성들보다 지역어를 자주 사용한다고 해석하였다. 공개된 블로그와 비공개 커뮤니티인 인터넷 카페를 구분하여 댓글

1) 박선우.홍정의.박진아(2015)에서는 ‘페이스북’의 댓글을 분석하면서 지역어의 목록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래 지역어의 분석을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찰된 지역어형들을 나열하였을 뿐 지역어 사용의 구체적인 양상과 경향은 논의하지 못하였다.

에 지역어가 사용된 비율을 분석한 결과 남녀 사이의 격차는 카페에서 30% 정도 더 벌어졌다. 이러한 격차가 나타난 까닭은 비회원에게도 공개되는 블로그에 여성들이 지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었다. 위의 두 연구에서는 인터넷 매체에 지역어를 사용하는 동기를 ‘표현’(생생한 입말로 표현하기), ‘오락’(재미있게 표현하기), ‘유대 강화’(친밀하게 표현하기), ‘심리적 해방’(해방감을 느끼면서 표현하기)’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한국어와 관련된 연구는 아니지만 Herring(2003)에서도 인터넷 매체의 문자언어를 살펴보면 남녀 성별 차이가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녀의 주장에 의하면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더라도 ‘다변성(talkativeness), 강한 주장, 불미스런 언어, 예의, 이모티콘’ 등을 통하여 남성이 작성한 글인지, 여성이 작성한 글인지 추측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SNS 매체가 활성화되기 이전의 모바일 텍스트인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주희·박선우 2012).

2.3. 지역어와 성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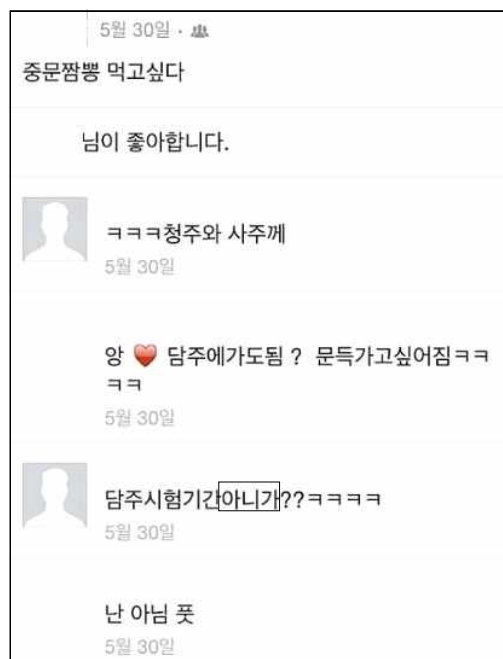
음성언어의 경우, 성별은 표준어와 지역어에 대한 인식과 사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전통적으로 사회언어학에서는 성별과 지역어 혹은 표준어의 사용양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향이 지적되어 왔다(이익섭 2001:116-125). 첫째,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표준형(standard variant)을 선호한다. Fischer, Trudgill, Wolfram, Sankoff 등의 학자들이 주로 서구 사회의 언어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들은 표준어가 가진 위세와 권위를 누리기 위하여 남성들에 비하여 표준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둘째, 남성들은 지역어를 남성다움의 지표로 이해하며 여성들에 비하여 지역어를 더 많이 고수한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지역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하며 여성들과 반대로 지역어의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셋째, 사회계층상 하위 노동자 계층은 중산층에 비하여 지역어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러한 차이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Trudgill 1972). 남성은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 모두 지역어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서 계층 사이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여성의 경우 하위 노동자층의 지역어 선호 비율이 중산층보다 훨씬 높았다.

국내의 경우 이정민(1981)와 강옥미(1998)에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정민(1981)에서는 자신이 구사하는 지역어와 타지역 방언에 대한 남녀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남성은 자기 지역 방언에 대하여 ‘씩씩하다, 믿음직스럽다’ 등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여성은 ‘무뚝뚝하다, 듣기 싫다, 촌스럽다’ 등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강옥미(1998) 역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남 지역 대학생의 지역어와 표준어 수용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정민과 마찬가지로 남학생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지역어에 대하여 ‘정겹다’ 등의 호의적인 답변을 한 반면, 여학생들은 ‘듣기 싫다, 촌스럽다’ 등의 부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남학생들보다 훨씬 높았다. 요컨대 지역어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음성언어의 경우 남녀 성별에 따라 지역어의 사용과 인식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성별의 차이와 경향이 문자언어에서도 유지된다면 모바일 텍스트에서 관찰되는 지역어의 사용 양상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모바일 텍스트에서 관찰된 지역어의 사용 양상과 성별 경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3. 모바일 텍스트의 지역어 변이 양상

3.1. SNS 모바일 텍스트의 수집 및 분석 방법

모바일 텍스트에 사용된 지역어의 양상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SNS 매체인 ‘페이스북’의 댓글을 대상으로 삼았다. 국내에서 ‘페이스북’의 댓글이 컴퓨터로 입력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로 작성된다.²⁾ 페이스북의 댓글은 작성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관찰할 수 있으며, 작성자의 성별이나 연령, 거주지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연구자들과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들의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을 조사하였다. 페이스북의 게시물과 댓글을 그림 파일로 저장하고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은 텍스트로 저장하여 분석하였다.



<그림-1> ‘페이스북’의 게시물과 댓글 (개인정보는 삭제)

댓글은 작성자의 성별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수집하였다. 남성의 댓글 55건, 여성의 댓글 45건, 총 100건의 댓글을 수집하였다. 철자법이나 격식에 대한 제한이 없는 SNS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어를 사용하는 빈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일정한 분량을 기준으로 지역어를 사용하는 빈도를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10대부터 40대까지 남녀 각각 200건씩 총 400건의 페이스북 댓글을 분석한 박선우·홍정의·박진아(2015:102-103)에 의하면 남성 댓글에서는 27개, 여성 댓글에서는 19개 어절의 지역어 변이형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과 연령대가 동일한 20대의 댓글 100건(남성 50건, 여성 50건)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9개의 지역어 변이형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음성언어의 경우

2) 박선우·한재영·이지현(2015)에 의하면 10~40대 연령층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매체에 글을 작성할 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다는 응답률은 89.2%였으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응답률은 10.2%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20대에서 PC로 댓글을 작성한다는 비율은 6.7%로서 전체 평균비율보다 낮은 편이었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지역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SNS의 텍스트에도 적용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20대의 경우 성별의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집된 댓글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는 각각의 댓글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여 건단위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그림-1>에서는 “아니가”라는 지역어 변이형이 포함된 “담주 시험기간아니가??ㅋㅋㅋㅋ”가 한 건의 댓글로서 분석의 단위가 된다. 이러한 단위로 문법적으로는 어떠한 성격의 지역어 변이형이 사용되었는지 분석하고, 모바일 텍스트의 특징적 표기법인 이모티콘, 자음으로만 표기되는 두문자어(ㅋㅋㅋ), 문장부호(??)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도 함께 측정하였다. 둘째는 타임라인의 게시물과 댓글을 한 편의 담화 단위로 묶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그림-1>에서는 “중문짬뽕 먹고싶다”라는 게시글과 이에 대한 4건의 댓글이 달려 있는데, 담화 단위는 게시글과 댓글 5건을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담화 단위에서는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여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의 내용과 기능을 분석하고, 다른 댓글에 지역어 변이형이나 비속어들이 ‘공기’(共起)하는 비율도 측정하였다.

3.2. 문법적 분석

페이스북의 댓글에서 수집한 지역어 변이형들을 문법적 기준에 따라 표준어와 비교하고 분류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음성언어의 지역어 변이형을 분석한 이길재(2007)에 따라 지역어가 포함된 글을 ‘음운적 변이, 문법적 변이, 어휘, 화용 표지’로 분류하고 남녀 성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다양한 지역어의 변이형들을 사용하였으며, 표준어와 비교하였을 때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모두 다른 경우(남성 5개, 여성 7개)에만 여성들의 지역어 변이형이 보다 다양하였다.

(1) 음운적 변이 (체언, 체언+조사)

가. 남성 (10개)

거는(거기는), 내(나), 낸중에(나중에), 니(네), 등킨도나쓰(던킨도넛), 사바리(사발), 어데(어디),
옴마야(엄마야), 함(한번)

나. 여성 (3개)

내(나), 니(네), 함(한번)

(2) 음운적 변이 (용언 어간)

가. 남성 (9개)

깡가도(끼워줘), 땡기는거(다니는거), 모디겠지(모이겠지), 묵노(먹나), 묵어레이(먹어라),
묵으러(먹으러), 오나(와라), 온나(와라), 카네(하네)

나. 여성 (8개)

간다카고(간다하고), 무거랑(먹어라), 무러(먹으러), 묵고(먹고), 배터져부러(배터져 버려라),
온나(와라), 이칸다(이런다), 한다이가(하잖아)

체언의 음운적 변이는 남성 10개, 여성 3개의 지역어 변이형에서 관찰되었다. ‘거기, 나, 너’ 등

주로 대명사의 변이형들이 많았으며, 여성의 댓글보다는 남성의 댓글에서 다양한 변이형들이 관찰되었다. 용언 어간의 음운적 변이는 남성 10개, 여성 9개로서 체언보다 훨씬 다양한 편이었으며, 성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동사 ‘먹다’와 ‘오다’의 변이형이 많았는데, 변이의 성격상 표준어형과 비교하여 ‘묵다’(먹다)처럼 모음만 다른 경우와 ‘온나’(와라)나 ‘댕기다’(다니다)처럼 자음이 첨가된 변이형들이 관찰되었다.

(3) 문법적 변이 (어미, 조사)

가. 남성 (46개)

가겠나(가겠냐), 고맙데이(고맙다), 나오나(나오냐), 나온나(나와라), 다니나(다니냐), 온나(와라), 머싯노(머싯네), 먹었나(먹었냐), 먹었노(먹었냐), 모르노(모르냐), 묵노(먹냐), 묵어레이(먹어라), 뭐꼬(뭐냐), 일하노(일하냐), 뭐시여(뭐냐), 싶노(싶네), 봤는교(봤습니까), 부럽노(부럽네), 섭하노(섭하네), 생일이가(생일이냐), 섭하노(섭섭하네), 싶나(싶냐), 아니었나(아니었냐), 아니제(아니지), 안받노(안받네), 앓겠나(앓겠냐), 어떻노(어떠냐), 언제가노(언제가냐), 없제(없지), 오나(와라), 오이소(오세요), 온나(와라), -이가(-이냐), 잘잇나(잘잇냐), 줄꺼여(줄꺼냐), 찍었나(찍었냐), 추카한데이(축하한다), 축하한다이(축하한다), -카네(-하네), 통하노(통하네), 하노(하냐), 한다이(하잖아), 할만하나(할만하냐), 했나(했냐), 현아가(현아냐), 형아가(형이냐)

나. 여성 (24개)

가나(가냐), 가진다매(가진다며), 나왔노(나왔냐), 먹나(먹냐), 먹었나(먹었냐), 보소(봐라), 보이나(보이냐), 봅세다(봅시다), 부리제(부리지), 사나(사냐), 싶제(싶지), 아니가(아니냐), 어울리구마잉(어울리네), 없나(없냐), 없제(없지), 옛나(옛냐), 오소(오세요), 온나(와라), 이마이(이만큼), -이가(-이냐), 있는교(있습니까), 잘했노(잘했네), 하는디(하는데), 했는디(했는데)

용언의 어미와 조사에서 관찰되는 문법적 변이는 70개로서 전체 129개의 지역어 변이형 가운데 절반 이상(54.26%)을 차지하였다. 남성의 댓글에서 관찰되는 변이형들(46개)이 여성 변이형(24개)의 2배 정도 많았다. 따라서 20대의 모바일 텍스트에서 관찰되는 지역어는 절반 이상이 어미의 변동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해라체 의문형 종결어미 ‘-냐’가 영남방언의 특성에 따라 설명의문문에서는 ‘-고’와 ‘-노’로 판정의문문에서는 ‘-가’와 ‘-나’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4) ‘격조사’가 생략된 댓글

가. 일본가서나뭇가지꺼어온나 (일본에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와라)

나. 클라스보이나 (클라스간 보이냐?)

다. 흥길동 이마이 커버렸니 (흥길동의 이만큼 커 버렸니?)

라. 니 댓글 못찾겠다 (네 댓글을 못 찾겠다.)

대부분 용언 어미의 변이형들이었으며 조사의 변이형은 보조사 ‘만큼’의 변이형 ‘이마이’(이만큼)가 유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모바일 텍스트에서 지역어의 영향을 받는 조사의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조사의 생략이 잘 일어나는 구어(口語)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4)와 같이 모바일 텍스트에서는 격조사가 빈번하게 생략되어 변이를 일으킬 조사가 사라지므로 조사의 변이를 관찰하기 어려운 편이다. 반면 어미나 선어말어미는 생략될 수 없으며

로 다양한 지역어 변이형으로 실현되었다.

(5) 음운/문법적 변이: 어간+어미

가. 남성 (5개)

깡가도(끼워줘), 맞춰가(맞춰서), 말해도(말해줘), 머고(뭐냐), 이래(이렇게)

나. 여성 (7개)

갑나나(가냐), 개아나(괜찮아), 기엣노(귀엽냐), 머라했노(뭐라했어), 부러(버러라), 왜래(왜이렇게), 이칸다(이렇게 한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과 함께 변동된 어형들도 12개가 관찰되었다. 다른 유형의 변이형과 달리 여성의 댓글에서 남성보다 많은 7가지 변이형들이 관찰되었다.

(6) 어휘 변이 (어휘)

가. 남성 (8개)

겁나(매우), 까리하제(멋지지), 뒤졌나(죽었냐), 디비(누워), 올려 싸노(올리고 그래), 우애(어떻게), 우째(어떻게), 튀지고(죽고)

나. 여성 (5개)

가스나(계집아이), 워메(어머나), 머시기(무엇), 쫄매낫노(작네), 쫄맨한기(조그마한 것이)

(7) 화용 표지 (독립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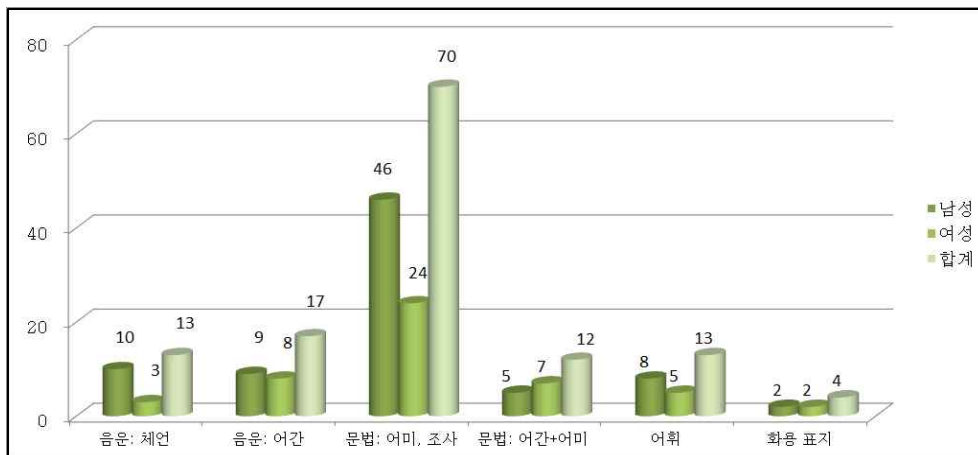
가. 남성 (2개)

마(이눔아), 점마(저 놈)

나. 여성 (2개)

그램마(그래임마), 마(이눔아)

음운적 변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휘와 화용 표지의 변이형들은 용언 어미의 변이형들에 비하여 훨씬 적은 편이었다. 화용 표지의 4가지 변이형은 모두 ‘눔+아’의 변이형 ‘-마’가 포함된 형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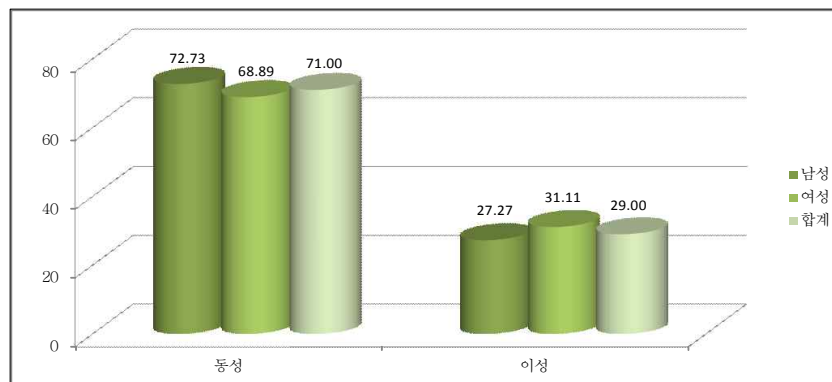
<도표-1> '페이스북'(www.facebook.com)의 게시물과 댓글 (작성자 관련 정보는 삭제)

페이스북의 댓글에서 관찰되는 지역어의 변이형들을 문법적으로 분석한 결과, 총 129개의 변이형 가운데 70가지 변이형이 관찰되는 어미의 변동이 가장 다양하였다. 어미의 변이형은 54.26%를 차지하였으며, 어간과 어미가 함께 변동되는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63.56%까지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댓글에서 다양한 변이형들이 관찰되었다.

4.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의 계량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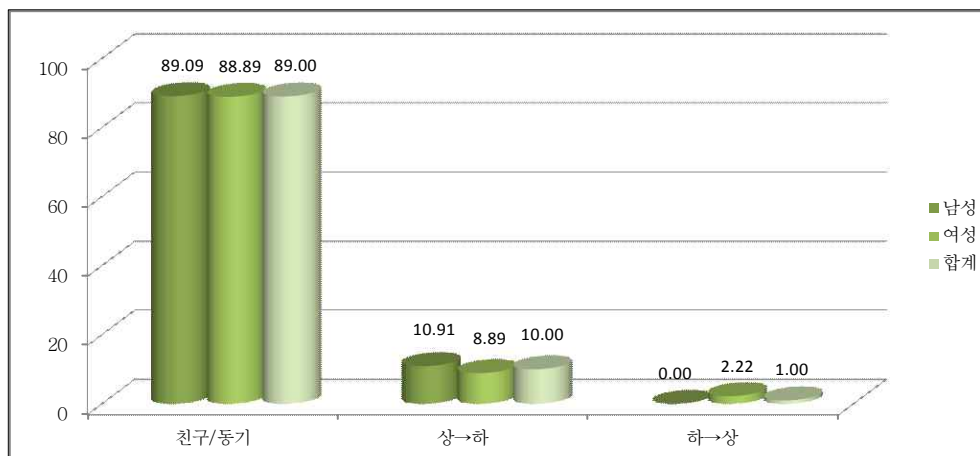
4.1. 대화 상대와의 관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어가 포함된 텍스트는 ‘댓글’과 ‘답화’(게시물+댓글)의 두 가지 단위로 분석하였다. 우선 댓글 작성자와 독자의 성별 및 상하 관계를 분석하여 대화 상대와 지역어의 기능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도표-2>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의 대화 상대 (성별 구분, 단위: %)

성별을 기준으로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의 대화 상대를 살펴보니, 동성 사이(남성→남성, 여성→여성)의 대화와 이성 사이(남성→여성, 여성→남성)의 대화가 7대 3 정도의 비율이었다. 댓글에 지역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70% 정도는 동성 간에 주고받은 대화라고 예측할 수 있다. 남성들 사이의 대화(72.73%)가 여성들의 대화(68.89%)보다 높았으나, 차이는 미세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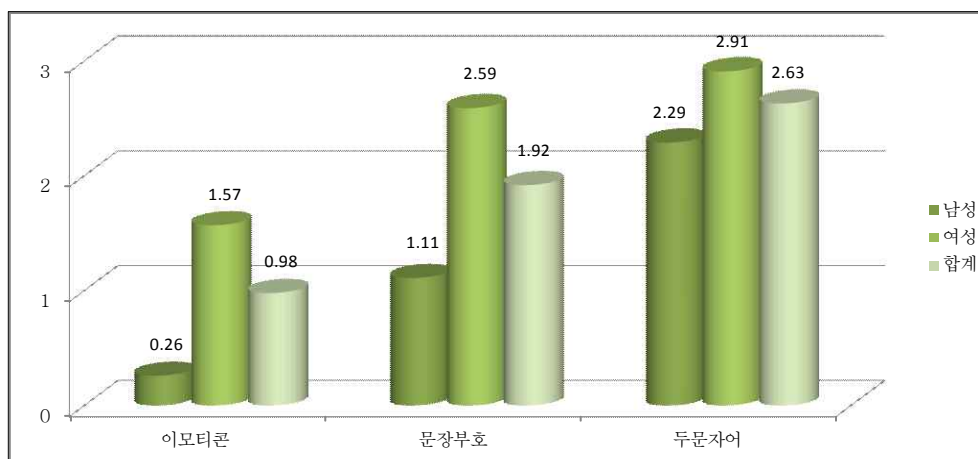


<도표-3>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의 대화상대 (상하 구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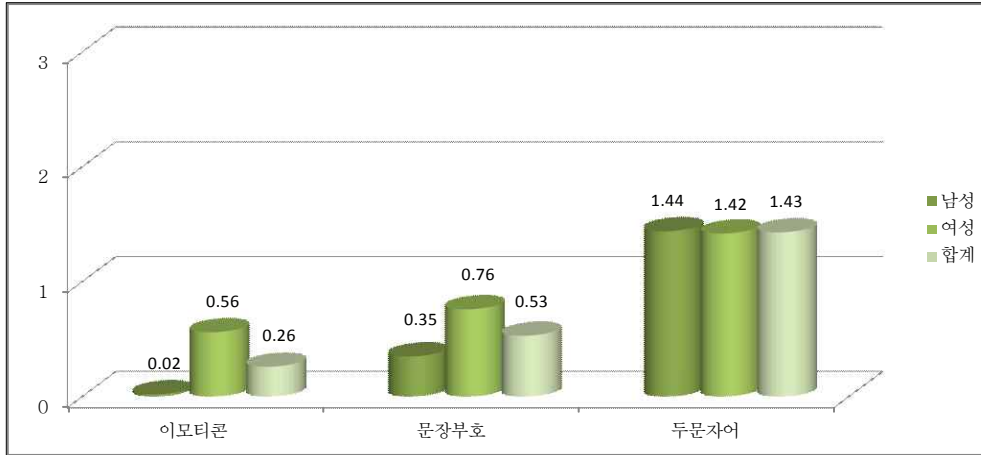
상하 관계를 기준으로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의 대화 상대를 분석한 결과 친구나 학교 동기와 같은 수평적 관계의 대화가 90% 정도를 차지하였다. 형, 오빠, 언니, 누나, 선배들이 동생이나 후배들에게 작성한 글(상→하)은 10%이었으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쓴 댓글(하→상)은 여동생이 오빠에게 작성한 한 건의 글밖에 없었다. 따라서 댓글에 지역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대부분 90% 정도는 친구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라고 예측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요컨대 대화 상대를 분석한 결과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은 동성의 친구에게 작성한 텍스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셈이며, 20대 연령층은 모바일 텍스트에서 대화 상대와의 친소, 상하 관계에 따라 '부호 전환'(code switching) 혹은 '부호 혼용'(code mixing)의 전략으로서 지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4.2. 모바일 텍스트의 특징적 표기법

일반적인 문자언어와 달리 모바일 텍스트에서는 언어규범으로부터 벗어난 표기들이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박선우·홍정의·박진아(2015)에 의하면 페이스북 댓글에서 이모티콘(ㅠㅠ, ^^), 두문자어(ㅋㅋ, ㅎㅎ, ㄱ스), 문장부호(??, !!, ~~), 줄임말(쌍수, 친추), 특이한 어미(가고시팟, 귀여웁) 등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모바일 텍스트의 특징적 표기법 가운데 이모티콘, 두문자어, 문장부호가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에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문자 단위로 측정해 보고, 지역어가 포함되지 않은 모바일 텍스트와 비교해 보았다. 지역어가 포함되지 않은 비교 대상 자료는 박선우·홍정의·박진아(2015)의 원시데이터(raw data) 가운데 일부이다. 박선우·홍정의·박진아(2015)에서는 10대부터 40대까지 세대별로 남녀 50건씩 페이스북의 댓글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20대로부터 수집된 100건의 댓글 가운데 지역어가 포함되지 않은 84건(남성 38건, 여성 46건)을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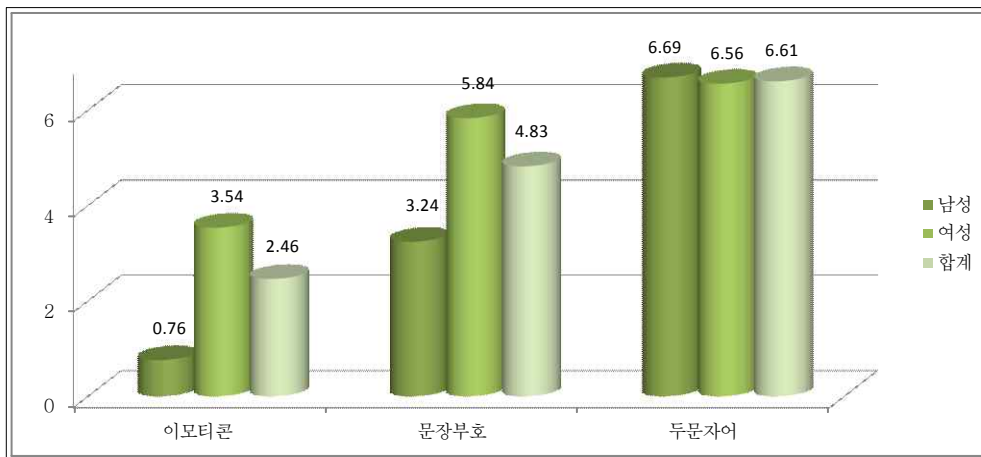
<도표-4> 지역어가 포함되지 않은 댓글의 특징적 표기법 (성별, 단위: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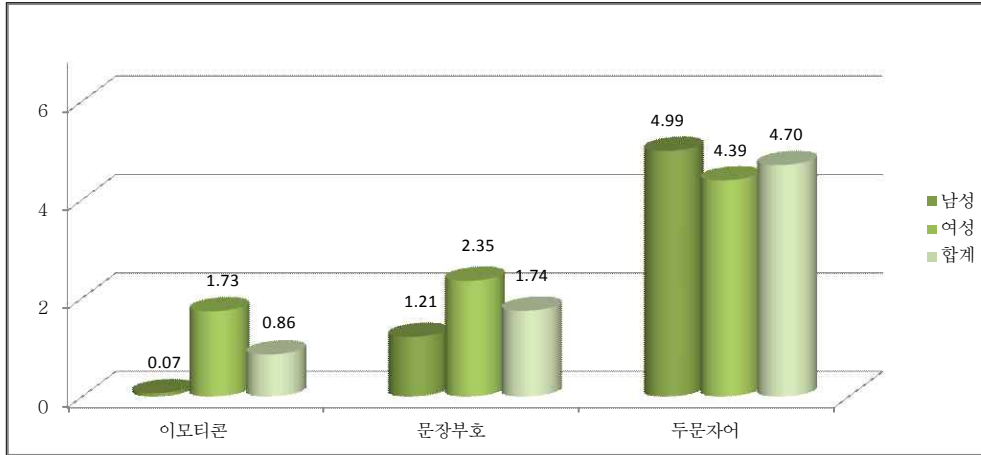
<도표-5>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의 특징적 표기법 (성별, 단위: 문자)

<도표-4>와 <도표-5>를 비교해 보면 ‘이모티콘<문장부호<두문자어’의 순서로 분량이 늘어나는 추세는 비슷하지만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에서는 세 가지 표기법 모두 1/3 정도로 줄어들고, 남녀 사이의 차이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표기법들은 댓글의 길이에 비례하여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실제로 지역어가 포함되지 않은 <도표-4>는 평균 39.79바이트, 지역어가 포함된 <도표-5>는 평균 30.40바이트의 댓글들로부터 측정되었다. 따라서 긴 댓글을 분석한 <도표-4>의 표기법도 그 길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댓글의 비대칭적 길이에 의한 분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별 댓글의 평균 길이를 기준으로 세 가지 표기법이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다시 비교해 보았다.



<도표-6> 지역어가 포함되지 않은 댓글의 특징적 표기법 (성별, 단위: %)



<도표-7>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의 특징적 표기법 (성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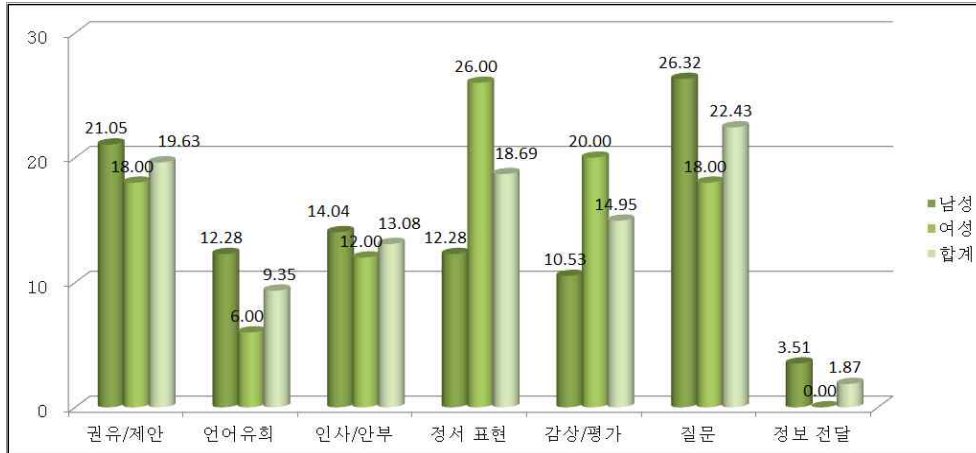
비율을 기준으로 환산된 <도표-6>과 <도표-7>을 통하여 지역어가 없는 댓글과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을 비교한 결과는 환산 이전의 분석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모티콘<문장부호<두문자어’의 순서로 분량이 늘어나는 것은 추세가 동일하며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에서는 세 가지 표기법의 분량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이모티콘, 문장부호, 두문자어는 작성자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사교적 기능이 강한 표기법인데,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이 그렇지 않은 댓글보다 사교적 기능이 약하므로 이러한 표기법들이 누그러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도표-5/7>의 댓글에 포함된 지역어의 변이형들이 이모티콘, 문장부호, 두문자어의 사교적 기능을 이미 담당하고 있으므로 특징적인 표기법을 줄여서 사용했다는 해석이다. 지역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친근감과 정서를 이미 표현하였으므로 기능이 중복되는 특징적 표기법을 줄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들의 내용과 기능들을 살펴보면 둘째 해석이 적절하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댓글에 포함된 지역어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5. 지역어의 기능

5.1. 지역어가 포함된 모바일 텍스트의 내용과 기능

이길재(2007), 이정복(2006), 이정복(2007)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어의 기능을 직접 논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어가 사용된 댓글을 중심으로 지역어가 사용된 의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댓글에 사용된 지역어의 변이형들을 살펴보면 단어와 기능이 1:1로 대응되지도 않고 지역어가 반영된 형태소가 담화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지역어가 반영된 단어나 형태소가 아니라 담화 내에서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의 내용과 기능을 성별에 따라 분류하였다.



<도표-8> 지역어가 포함된 텍스트의 내용과 기능 (성별, 단위: %)

위의 도표는 담화 단위 안에서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이 갖는 내용과 기능을 분석한 결과이다. SNS라는 매체의 특성상 정보의 전달(1.87%)보다는 사교적 목적과 관련된 정서의 표현이나 게시물에 대한 공감과 감상을 표현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영남방언의 의문형 종결어미가 사용된 질문(22.43%)들이 상당히 많았으나 정확한 정보를 요청하기보다는 제안을 하거나 안부를 묻는 사적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8) 지역어가 포함된 텍스트의 내용/기능별 분류 사례

가. 권유/제안

같은부산인데 함 봐야 하지 않겠나
 꺾밥도 못 먹으면서 일하노 집어치워라

나. 언어 유희

거는 등킨도 나쓰 없제? ㅋㅋㅋㅋㅋㅋ
 니가 소박하게 오른손 가진다매 소박이년아ㅎ

다. 정서 표현

쉽하노 연락한통 없네
 내는 의지박약이다...ㅠㅠㅠㅠ 흐영영 ㅌㅌㅌㅌㅌㅌ 바닥까는거아니가

라. 감상/평가

개쩜다아니가 ㅌㅌㅌㅌ 강멋있다 ㅌㅌㅌㅌ
 시박것이 어디 사진을 올려싸노

마. 질문

뒷산텐트에 혼자 또 떨고싶나 ㅋㅋㅋ
 뭐시여 요게 ㅋㅋㅋㅋ

사. 정보 전달

내 마산임

지역어가 포함된 텍스트의 기능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동질감과 유대감의 표현, 정서 표현, 언어유희’ 등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나 남녀 성별로는 그 비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여성은 자신의 감정

과 느낌을 표현(26%)하고 게시물과 댓글에 대한 감상을 전달(20%)하는 텍스트가 가장 많았다. 반면, 남성들은 질문(26.32%), 권유.제안(21.05%)과 관련된 텍스트에 지역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결론적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지역어로 대화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반면, 남성들은 권유, 제안, 질문 등의 일상적인 대화에 지역어를 반영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어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댓글의 기능과도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5.2. 지역어 대화 상대에 대한 연결망 분석

지역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하는 상대는 대부분 동성 친구이며, 지역어가 포함된 글은 사교적 기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어는 ‘친밀함’(intimacy)의 표지로 사용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텍스트의 분석과 별도로 지역어를 사용하는 상대와 친소관계를 비교하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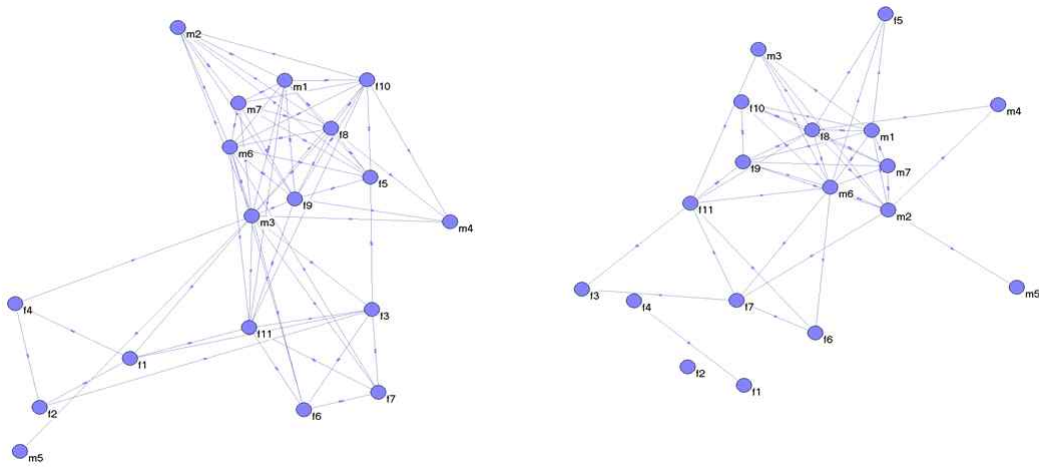
2. 위의 표현들을 참고하여 아래의 명단에 포함된 지인들에게 지역어 표현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표시해 주세요. 본인의 칸에는 표기하지 마세요.

대화 상대	성별	성명	상하(上下) 관계			친소(親疏) 관계			텍스트 대화시 지역어 표현 사용 경험			모바일 텍스트 대화 빈도			
			선배	후배	동기	가까움	아는 사이	잘 모름	자주 사용	사용 경험 있음	사용 경험 없음	메신저나 댓글로 대화한 적이 없음	자주 대화함	가끔 연락함	사적으로 연락하지 않음
남	M1		✓				✓				✓				✓
여	F1														
여	F2				✓		✓			✓				✓	
여	F3		✓								✓				✓
여	F4				✓		✓			✓					✓
여	F5				✓	✓			✓				✓		
여	F6				✓		✓			✓					✓
여	F7		✓				✓			✓				✓	
여	F8				✓		✓			✓					✓
여	F9				✓	✓			✓				✓		
여	F10				✓		✓			✓				✓	
여	F11				✓		✓			✓					✓
여	F12				✓	✓			✓				✓		
여	F13				✓	✓			✓				✓		
여	F14				✓		✓			✓					✓

응답자 정보: 성명: F1, 출생연도: 1995년, 성별 남()/여(✓), 학번: 12(),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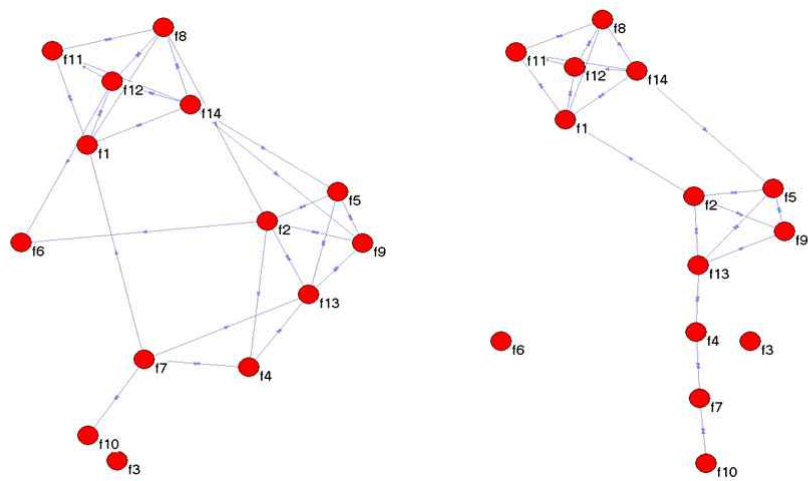
<그림-2> ‘지역어’ 대화 상대와 친소관계에 대한 설문 (성명은 F1, M1으로 대체)

계명대학교 국어교육과 전공 강의를 수강하는 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설문결과에 대한 연결망 분석을 시도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두 집단은 성별 구성에 차이가 있었다. 한 쪽은 남성과 여성이 섞인 집단(남성 7명, 여성 11명)인 반면, 다른 쪽은 거의 여성으로만 구성된 집단(남성 1명, 여성 14명)이었다. 먼저 남성과 여성이 섞인 집단에서 가까운 상대와 지역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상대를 기준으로 각각 연결망을 그려 보니, 연결망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연결망에 차이가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친소관계와 상관없이 지역어를 사용하는 상대가 상당히 많은 남성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3> ‘남녀 혼성 집단’의 친구 연결망(왼쪽)과 지역어 연결망(오른쪽)

반면 여성으로만 구성된 집단에서는 친한 친구의 연결망과 지역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상대의 연결망이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연결망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지역어를 사용하는 상대와 친한 친구가 동일한 대상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SNS의 모바일 텍스트에서도 친한 친구끼리 서로 지역어 표현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남성들은 경우는 상대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지역어로 자주 대화하는 구성원들이 있었다.



<그림-4> ‘여성 집단’의 친구 연결망(왼쪽)과 지역어 연결망(오른쪽)

5.3. 지역어 및 비속어의 공기 관계와 성별 미러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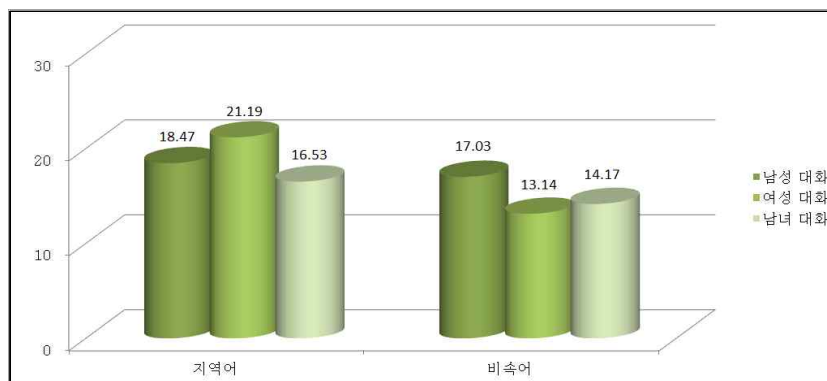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게시물과 댓글로 구성된 담화 단위에서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해 보았다. 담화의 단위는 게시물과 여러 건의 텍스트로 구성된다.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을 수집하면서 살펴본 결과, <그림-2>와 ‘언제가노’란 방언형이 포함된 담화에는 다른 댓글에서도 지역어

(공군이재)가 나타나거나 비속어(c8넘아)가 관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5> 지역어와 비속어가 포함된 답화(게시물+댓글) (개인정보는 삭제)

하나의 답화 안에서 지역어와 비속어가 공기하는 비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체 댓글 가운데 지역어나 비속어가 포함된 댓글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10건의 텍스트로 구성된 답화에 지역어나 비속어가 포함된 댓글 2건이 관찰될 경우 20%로 환산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페이스북의 답화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텍스트의 작성자와 대화 상대만 고려하지 않고, 전체 답화를 남성들 사이의 답화, 여성들 사이의 답화, 남녀가 함께 참여한 답화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도표-9> 답화(게시물+댓글)에서 지역어와 비속어가 포함된 텍스트의 비율 (단위: %)

먼저 답화 안에서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이 나타나는 비율을 측정한 결과 예상과 달리 여성들끼리의 답화에서 그 비율(21.19%)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남성들끼리의 답화(18.47%)와 비교하였을 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남성들은 지역어를 선호하고 여성들은 표준어를 선호한다는 일반적인 논의와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이러한 효과는 아마도 상대방의 대화 방식을 따라하면서 대화를 진행하는 여성들의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대화시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하여 상대의 표정과 말투를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미

러링'(mirroring)이라고 부른다.³⁾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지역어를 덜 사용하지만 미러링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상대방이 지역어를 사용할 경우 자신의 상대의 방식에 따라 지역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남성들은 자신이 소속된 지역이나 학교에 대한 유대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지역어를 사용하므로 대화 상대의 말투와 상관없이 지역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담화 안에서 비속어가 포함된 댓글이 나타나는 비율을 측정한 결과 예상대로 남성들끼리의 담화에서 그 비율(17.03%)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모바일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미러링의 효과와 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게시글+댓글'로 구성된 타임라인의 담화 단위로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미러링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아래의 텍스트는 미러링을 분석한 사례로서 '아람'이란 이름을 가진 운영자의 페이스북에 '아라미' 혹은 '다라미'와 같은 비표준적 음소표기나 '5959, 9595'와 같은 특이한 표현을 댓글 작성자들이 반복적으로 따라하는 것을 보여준다.

(9) 담화(게시글+댓글)에서 나타나는 미러링 사례

게시글: ○○○님이 프로필 사진을 변경했습니다.



여1: 언니꺼여웁♡♡♡

여2: 5959

↳본인(여성): 9595

여3: 아라미 보고싶당ㅠㅠ 가까이 있어도 먼 당신-ㅋㅋㅋ

여4: 어머 아라미다♡

남1: 다라미다

남2: 올 아라미ㅎ

여5: 어머 아라미언니당 헿

여6: 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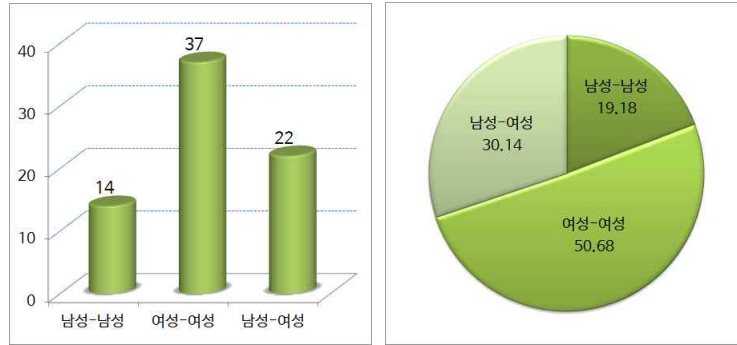
여7: 아람이 여전히 이쁘군☺

남3: 안녕!

여8: 동안 동안~ㅋ

'남성-남성, 여성-여성, 남성-여성' 세 집단으로 나누어 미러링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100개의 담화 세트에서 총 73번의 미러링이 관찰되었다. 이 가운데 '여성-여성' 사이의 미러링은 37번(50.68%), '남성-남성' 사이의 미러링은 14번(19.18%), '남성-여성' 사이의 미러링은 22번(30.14%) 관찰되었다.

3) 김지현 기자. “女 이모티콘 감정 표현, 男 사투리로 유대감 강화.” 『주간동아』 통권 989호(2015.5.27), 28-29.



<도표-10> 미러링의 횟수(왼쪽)와 비율(가운데, 단위: %)

‘여성-여성’의 경우 동일한 표현에 대한 미러링의 평균 횟수도 가장 높았다. 아래의 도표는 ‘아라미’나 ‘5959’와 같이 특이한 표현이 평균적으로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여성들 사이의 담화에서는 미러링 표현이 평균 1.42번 반복되었지만 남성들 사이의 담화에서는 각각의 14개의 미러링 표현들은 각각 1번씩만 반복되었다.



<도표-11> 동일한 표현에 대한 평균 미러링의 횟수

결론적으로 미러링의 횟수와 비율을 고려해 본다면, 여성들 사이의 온라인 담화에서는 누군가 지역어를 사용할 경우 다른 이들이 반복적으로 미러링할 가능성이 남성들 사이의 대화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도 남성들의 지역어 사용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끼리의 담화에서 지역어의 공기 빈도가 높은 까닭은 미러링을 즐겨 사용하는 여성들의 담화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6. 맺음말

모바일 텍스트에 사용된 지역어의 양상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대가 작성한 ‘페이스북’의 댓글을 수집하여 분석해 보았다. 작성자의 성별에 따라 남성의 댓글 55건, 여성의 댓글 45건, 총 100건의 댓글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댓글은 각각의 댓글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댓글이 포함된 담화 단위에서는 지역어와 비속어가 포함된 댓글이 나타나는 비율을 측정하였다. 댓글과 담화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페이스북의 댓글에서 관찰되는 지역어의 변이형들을 관찰한 결과 표준어와 비교하여 용언

어미의 변이가 절반 이상(54.26%)을 차지하였다. 특히 의문형 종결어미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체언이나 용언 어간, 어휘, 화용 표지 등의 변이는 적은 편이었다. 둘째, 댓글의 대화 상대를 조사한 결과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은 대부분 동성의 친구에게 작성한 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청년층이 지역어를 대화 상대의 성별과 상하 관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셋째 모바일 텍스트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모티콘, 문장부호, 두문자어의 분량이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에서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모티콘, 문장부호, 두문자어는 주로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이러한 사교적 기능이 지역어의 쓰임과 중복되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댓글은 '권유/제안, 질문'과 관련된 텍스트가 가장 많았으나, 여성들의 댓글은 정서를 표현하고, 게시물에 대한 감상과 평가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여성들은 자신의 지역어로 대화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반면, 남성들은 권유, 제안, 질문 등의 일상적인 대화에 지역어를 반영하였다. 다섯째, 지역어가 포함된 담화 안에 비속어와 지역어를 포함한 텍스트가 나타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예상과 달리 남성들끼리의 대화보다 여성들끼리의 대화에서 지역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사회언어학적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지역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페이스북에서 여성들끼리만 댓글을 달며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들도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상대방의 대화 방식을 모방하는 '미러링'의 효과가 여성들의 대화에 나타나는 결과이었다.

■ 참고 문헌

- 강옥미(1998), 전남지역 대학생의 표준어 수용태도, 「숙명어문논집」 창간호, 21-44.
- 박선우, 한재영, 이지현(2005), 한국어 모바일 텍스트에 대한 인식과 태도, 「어문론집」 62, 61-103.
- 박선우·홍정의·박진아(2015), SNS 모바일 텍스트의 언어학적 양상: 성별과 연령의 차이를 중심으로, 「현대문법연구」 82, 95-121.
- 이익섭(1994/2001), 『사회언어학』(개정판), 민음사.
- 이길재(2007), 비표준 규범의 수용 양상과 사회적 의미: 전북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60, 83-112.
- 이정민(1981), 한국어 표준어 및 방언들 사이의 상호 접촉과 태도, 「한글」 173.174, 559-584.
- 이정복(2007), 인터넷 통신 언어에서 보이는 방언 사용의 성별 차이, 「어문학」 97, 63-96.
- 이정복(2009), 『인터넷 통신 언어의 확산과 한국어 연구의 확대』, 소통.
- 이주희·박선우(2012), 한국어 문자메시지의 표기와 특성: 20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8.1, 131-161.
- Herring, C. Susan. 2003. Gender and Power in Online Communication, In J. Holmes and M. Meyerhoff (eds). *The Handbook of Language and Gender*, 202-228,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Tannen, Deborah. 1991. *You Just Don't Understand*, William Morrow. (정명진 옮김. 2001. 『남자를 토라지게 하는 말, 여자를 화나게 하는 말』 한언)

■ 토 론

“모바일 텍스트에 사용된 지역어의 양상과 기능”에 대한 토론문

최영미(경동대)

이 연구의 목적은 20대가 작성한 ‘페이스북’의 댓글(100건)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모바일 텍스트에 사용된 지역어의 양상과 기능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흥미로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 ㄱ. 문법적 분석 결과, 지역어의 변이형은 용언 어미의 변이가 절반 이상(54.26%)을 차지하고 남성의 댓글에서 다양한 변이형들이 관찰된다.
- ㄴ. 대화 상대에 따른 지역어 사용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은 대부분 동성의 친구에게 작성한 글이며, 20대 청년층은 지역어를 대화 상대의 성별과 상하 관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ㄷ. 이모티콘, 문장부호, 두문자어의 분량이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에서 줄어든다. 그 이유는 이모티콘, 문장부호, 두문자어의 사교적 기능이 지역어의 쓰임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 ㄹ. 댓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성들은 자신의 지역어로 대화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반면, 남성들은 권유, 제안, 질문 등의 일상적인 대화에 지역어를 반영한다.
- ㅁ. 지역어가 포함된 담화 안에 비속어와 지역어를 포함한 텍스트가 나타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성들끼리의 대화보다 여성들끼리의 대화에서 지역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대화 방식을 모방하는 ‘미러링’의 효과가 여성들끼리의 대화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성별에 따른 지역어 사용 양상을 파악하여 모바일 텍스트에서 지역어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토론자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드는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연구 방법에 대해서

- 1.1. 이 연구는 모바일 텍스트 속에서 세대 간 지역어의 사용 양상과 변이형의 확대는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말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지역어의 사용 양상과 변이형의 확대에 대해 추후 더 기술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작성되는 SNS 텍스트에서 지역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모바일 텍스트 속 세대 간, 성별 간 지역어의 사용 양상과 변이형의 확대에 대해 살펴보았다.(머리말에서, 밑줄은 필자)

- 1.2. 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 통계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4.1. 대화 상대와의 분석에서 “남성들 사이의 대화(72.73%)가 여성들의 대화(68.89%)보다 높았으나, 차이는 미세한 수준이었다.” (밑줄은 필자)
- 4.2. 비율을 기준으로 환산된 <도표-6>과 <도표-7>을 통하여 지역어가 없는 댓글과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을 비교한 결과는 환산 이전의 분석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밑줄은 필자)
- 5.1. 지역어가 포함된 텍스트의 기능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동질감과 유대감의 표현, 정서 표현, 언어유희’ 등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나 남녀 성별로는 그 비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밑줄은 필자)

1.3. 이 연구에서 사용한 모바일 댓글 중에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에서 여성의 댓글이 남녀 간 차이를 기술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적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집된 댓글 총 100건	ㄱ. 지역어가 포함되지 않은 댓글(84건)	남성 댓글 : 38건
		여성 댓글 : 46건
	ㄴ.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16건)	남성 댓글 : 17건
		여성 댓글 : 1건

뿐만 아니라 지역어가 포함되지 않은 댓글(39.79바이트)과 지역어가 포함된 댓글(30.40바이트)의 비대칭적 길이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정규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규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1)에서 제시한 자료 중에 ‘거는(거(거기)+는), 함(한번, 줄임)’은 지역어의 변이형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는’에서 ‘거’는 ‘거기’의 구어형으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함’은 형태가 줄어진 예로 ‘한번’을 지역어로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 <표-9>에서 남성끼리 대화보다 여성끼리 대화에서 지역어 사용이 높게 나온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9)에서 미러링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토론자 생각으로는 지역어의 미러링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동시에 지역어의 미러링은 어떻게 실현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지역어 보존과 위상 정립을 위한 노력의 관점에서 모바일에서 지역어 사용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좋은 논문을 읽을 기회를 준 발표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서론

이 연구에서는, 주로 /ㄴㄹ/ 연쇄 환경에서 서로 다른 음운 문법이 적용된 변이형을 중심으로 언어 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공시 음운론 연구는 규칙적이고 생산적인 음운 과정을 주로 다루어 왔다. 이에 따라 공시 음운론은 투명하고 음운론적으로 동기화된 음운 규칙들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공시대조차도 언어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공시대와 통시대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점으로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이 변화의 과정을 소홀히 한 채 변화의 결과에만 주목한 과도한 공시론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현대국어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언어 집단이 세분화되면서 집단 간의 언어 접촉은 과거에 비해 더욱 빈번해지고 그 양상은 다면화되었다. 그 결과 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발음의 변이형들이 나타났으며, 이들 변이형은 경쟁을 통해 소멸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개신자로서의 역할을 획득하여 언어 변화를 주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이형 가운데 일부는 음운론적으로 불투명하여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언어학은 구체적인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그 체계와 구조, 기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왔다. 이것은 언어에 대한 공시적 접근이든 통시적 접근이든 다르지 않다. 문제는 언어 변화의 양상은 포착이 가능하지만 그 변화를 발생시킨 요인을 직접 관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언어의 다양한 양상들이나 언어 변화 과정을 통해 그 요인을 논리적으로 추정해 낼 수밖에 없었다.

국어 음운론 연구는 그간 동화를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동화의 경우는 동화의 결과보다 조음동작이 편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생리적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동화 현상의 기제로 조음의 경제성이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동일한 환경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되는 방향으로의 동화는 이런 현상이 단순히 조음기간의 생리적 관점으로만 해석될 수 없을 때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한자어 내부의 /ㄴㄹ/의 유음화 및 비음화, 합성어의 /ㄴ/ 첨가 현상의 적용과 미적용 등이다. 이것들은 규칙의 비정연성으로 인해 수의적인 것으로, 때로는 언어적 일탈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ㄴ/ 첨가 현상의 경우는 화자별, 어휘별로 현상의 적용과 미적용의 규칙성을 포착하기 어려울 만큼 혼란하여 더 이상 /ㄴ/ 첨가를 음운규칙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음운론적으로 불투명한 예들의 경우는 언어 내적 접근보다 언어 외적 접근이 더 설득력을 가질 때가 있다. 가령 ‘ㄴㄹ’ 연쇄에서 겪는 유음화와 비음화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현상이 다른 동화 현상과 다른 점은 표면 음성 제약을 어기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 규칙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음운 규칙이란 동일한 입력형에 동일한 출력형이 나올 때를 말한다. 그런데 ‘ㄴㄹ’ 연쇄가 보여주는 현상들은 동일한 환경에 대해 두 가지 출력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유음화나 비음화는 분명 동화 과정이지만 동일한 환경에서 선택 가능한 두 가지 규칙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생리적 원인이기보다 심리적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ㄴㄹ 연쇄가 보여주는 현상의 과정이나 결과는 동화이지만 그 선택의 기제는 심리적이라는 점이다.

사실 변이형의 출현은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사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점도 반영된 측면이 있다. 형태 내부보다는 형태 경계에서 변이형들이 많은데, 형태 경계에서 다양한

변이형들이 존재하는 것을 생리적인 접근이나 음운론적인 접근으로는 많은 변이형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설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변이형들의 존재는 언어 구조나 체계에서 비롯된 언어 내적 요인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화자의 언어 의식, 언어 접촉이나 언어 집단과의 관련성과 같은 언어 외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 변화와 언어 변이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변화는 대개 변이의 발생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언어 변화, 특히 현대국어라는 공시태 안에서 진행되는 언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국어의 변이형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변이형의 출현 양상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ㄴㄹ 연쇄에서 일어나는 변이형을 중심으로 변이형 발생의 한 원인을 언어 외적 요인에서 찾아보고자 시도되었다.

2. 문제 제기

음운론 내의 오래된 물음 가운데 하나인, ‘음운론’의 두 가지 실현형 [으물론]과 [으문논]을 선택하는 기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으로 문제제기를 시작하고 싶다. 그리고 이 물음에는 노년층은 주로 [으물론]으로 실현하는 비율이 높는데 왜 젊은층은 [으문논]으로 실현하는 비율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물음도 포함된다.⁴⁾ 그것이 규칙의 선택 또는 선호라면 왜 젊은층에서는 비음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진다.

주지하다시피 국어에는 발음에서 ‘ㄴㄹ’이나 ‘ㄹㄴ’ 연쇄가 올 수 없다는 표면음성제약이 있다. 만약 두 환경이 오면 어떤 식으로든 음운 변동이 발생한다.

(1) 불능[불릉], 칼날[칼랄], 겨울날[겨울랄], 물놀이[물로리]

(2) 가. 권력[꺄력], 난로[날로], 분리[불리], 언론[얼론]
나. 결단력[결단녁], 생산량[생산냥], 의견란[의견난]

(1)은 /ㄴㄹ/ 환경에서 순행적 유음화가 적용된 예로, 거의 예외가 없고 그 환경 또한 단어 내부 및 구 구성에도 적용될 만큼 절대적이다. 그러나 /ㄹㄴ/ 환경인 (2)의 경우는 (2가)와 (2나)처럼 두 가지 상반된 실현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음운론적 요인 외에도 형태 결합이라는 형태음운론적 설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3)의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형태 내부(3가)인가 형태 경계(3나)인가에 따라서 규칙 선택의 방향은 확연해진다.

(3) 가. 이원-론[이원논], 동원-령[동원녕], 횡단-로[횡단노]
나. 벽-난로[벽날로], 산란-기[살란기], 권력-가[꺄력가]

‘음운론’의 발음형 선택 문제는, (2)와 (3)의 예를 근거로 이것을 단일어로 인식하느냐 합성어로 인식하느냐의 차이로 지금까지 설명해 왔다. ‘음운론’을 단일어로 인식하면 [으물론]으로 실현시키고 합성어로 인식하면 [으문논]으로 실현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가 김태경(2000)이다. 김태경(2000:230~232)에서는 ‘음운론’ 류의 두 가지 실현 양상은 그 형태 경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 여부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음운론’을 합성어로 인식하여 그 사이의 형태 경계를 분명히 하려는 화자는 [으문논]으로 발음하는 한편, ‘음운론’을 단일어로 인식하는 화자는 [으물론]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한 가지 의문이 가지지 않는다. 형태 경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음운 규칙 선택의 문제가 이처럼 체계적인 관련성을

4) 연구자마다 구체적인 논지는 다르지만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가진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다.

김선철(2003)의 「표준발음실태조사Ⅱ」에 따르면 어휘별로 동일 환경에서 유음화 우세, 비음화 우세, 유음화와 비음화가 유사한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4) 형태 내부에서

가. 비음화가 우세한 경우 : 선릉, 박인로, 온랭, 춘란, 단량, 헌릉 등

나. 유음화와 비음화의 선호도가 유사한 경우 : 단리, 반라, 친로파 등

(5) 형태 경계에서 유음화와 비음화가 유사한 예 : 광안리, 신선로

(4)에서처럼 한자어 내부 환경이라 하더라도 어휘에 따라서 유음화와 비음화의 선호도가 다를 수 있고, (5)에서처럼 형태 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음화와 비음화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날 수 있다. (4)와 (5)는 화자 특성이나 어휘 특성이 깊게 관여하는 경우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두 특성에 따라 달리 발음형을 선택하는 동인으로 형태 경계의 유무가 설명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가령 ‘광안리’, ‘신선-로’를 유음화로 발음하는 화자는 형태 경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광안리’의 경우 유음화를, ‘노근리’의 경우 ‘비음화’를 선택하는 화자들은 단어에 따라서 형태 경계의 인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음운론]이라 발음했던 화자들이 이 단어의 형태가 합성어인 것을 인식하면 [오문논]으로 발음을 수정하는가?

이처럼 /ㄴㄹ/ 연쇄는 형태 경계라는 형태음운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이형 실현의 규칙성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⁵⁾ /ㄴㄹ/ 연쇄형의 발음에 대한 연구들에서 밝힌 바대로 가장 분명한 경향성은 젊은 세대에서는 비음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노년 세대에서는 유음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⁶⁾ 세대라는 요인과 변이형 간에는 모종의 언어 의식이 작용하였을 텐데, 그 언어 의식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진다. 3장에서 변이형 발생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세대 차이에 따른 언어 의식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3. 변이형 발생의 방향성과 심리적 실재

2장에서 의문을 가진 설명 방식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이근영(2005)에서 수집한 언어 자료들과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근영(2005)에 따르면 조사된 /ㄴㄹ/ 연쇄를 한자어 내부에 가진 모든 어휘 항목에서 [ㄴㄴ]의 변이형을 발견할 수 있다.⁷⁾ 그 항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5) 물론 어휘의 변화 과정을 보면 두 형태 결합형이 시간이 지나면서 형태 결합을 인식하기 어려운 단일어의 형태로 재구조화되는 예가 많다. 가령 ‘샷월세’가 ‘사글세’로, ‘집+옹’이 ‘지붕’, ‘묻+엄’이 ‘무덤’, ‘놀+음’이 ‘노름’, ‘놀+애’가 ‘노래’로의 변화 등이 그 증거가 된다. 하지만 형태 경계의 유무에 따라 ‘음운론’의 발음형을 선택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일반적인 재구조화 과정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설명에 의하면 비음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젊은 세대는 노년 세대보다 형태 경계를 분명히 인식한다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형태경계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되는 방향성과 반대된다.

6) 이진호(1998)에서는 젊은층일수록, 그리고 근래에 만들어진 단어일수록 비음화의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배주채(2003)에서도 유음화가 고형이고 비음화가 신형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이동석(2005)에서는 유음화는 소멸되었거나 소멸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새로 출현한 ㄴㄹ 환경은 형태론적인 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선철(2006:105~106)에서는 ‘ㄴㄹ’ 연쇄의 발음에 대해 한자어 21개, 외래어 4개의 단어를 조사하였는데, 이 가운데 사회 언어학적으로 변이를 보이는 경우는 ‘신선로’ 단 하나의 경우로 보았다 전체적으로는 ‘ㄴㄴ>ㄴㄹ>ㄴㄹ’순이며, 성별의 경우 경향성은 보이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하였다. 성별 요인보다 더욱 뚜렷한 차이는 연령 요인으로, 20대로 갈수록 ‘ㄴㄴ>ㄴㄹ’, 60대로 갈수록 ‘ㄴㄹ>ㄴㄴ’으로 수렴한다. 이러한 경향은 ‘신선로’ 한 단어에 국한되어 있어 그 수가 충분하지 않다.

7) 김선철(2003)의 조사에서도 [ㄴㄴ] 발음형이 모든 어휘 항목에서 조사되었다.

(6) 이근영(2005)에서 조사한 어휘 항목

신라, 완료, 반려자, 천리, 원리, 논리적, 찬란, 산란, 단로, 난로, 한라산, 문란, 신랑, 곤란, 관람, 근력, 천륜, 신림동, 곤로, 순리, 언론, 산릉, 원룸, 단련, 재분류, 전라도, 본론, 연륜, 진료, 인류

이 어휘들은 하나의 형태 경계를 두기 어렵다. 그러므로 화자들이 /ㄴㄹ/을 [ㄴㄴ]로 발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단어 내부에서 형태 경계 인식을 느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⁸⁾

이번에는 김선철(2003)에서 조사한 동일 유형의 형태 결합을 가진 단어 셋을 비교하여 변이형의 실현 양상을 비교해 보자.

(7) 동일 유형의 형태 결합에 실현된 변이형의 실현 양상(%)

	ㄴㄴ	ㄹㄹ	ㄴㄹ
노근리	79.43	15.71	4.57
광안리	49.43	48.00	1.71
현리	33.14	68.14	3.71

(7)은 'X-리(里)'형의 지명에 대한 발음 실현 양상인데 세 단어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노근리'의 경우는 비음화가 우세하고, '광안리'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유사하며, '현리'는 유음화가 우세하다. 동일 유형의 형태 결합을 가진 단어들에 따라서도 유음화와 비음화의 선호도가 다르다. 그러므로 이들 단어형에 대한 유음화와 비음화의 선택이 형태 경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설명은 논리적이지 않다. 형태 경계에 대한 인식이 발음의 선호도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형태 경계 인식의 차이를 비음화나 유음화를 선택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에 그 관련성이 만족스럽지 않다.

한편 '노근리'의 경우 비음화가 실현된 [노근니]가 우세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배주채(2004), 오새내(2006)에서 관찰된다. '노근리'가 언론을 통해서 언중들에게 최근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유음화형이 고행, 비음화형이 신형이라는 것이다. 이근영(2005)에서는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래 유음화가 실현되던 발음들이 형태소를 고정화하려는 노력에 의해 비음화된 형태로 실현되면서 두 가지의 발음형이 나타나게 되었고, /ㄴㄹ/에서 관찰되는 오늘날의 양상은 발음형이 가능한 과도기적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세대별로 발음에 관여된 의식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근영(2005)에서는 발음 중심의 언어에서 쓰기 중심의 언어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의 차이로 본 것이다. 즉 비음화 선택은 형태소에 대한 강한 인식이 중심이 되는 발음 행위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경기도 포천의 한 지명 '선단리'에 대해 지역 토박이들은 [선달리]로 발음하고 외지인은 [선단니]로 발음하는 사례를 들었다. 동시대에 두 발음형이 가능하지만, '선달리'는 이전 세대의 발음 의식이 투영된 발음이고, '선단니'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의 발음 의식이 투영된 발음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유음화와 비음화의 선택 문제를 세대 간에 달리 가진 언어 의식의 차이로 본 이근영(2005)의 설명 방식에 동의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ㄴㄹ/ 연쇄형에서 비음화가 선택되는 심리적 기제를 선행 형태(음절)을 유지하려는 발음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자 한다.

김선철(2003)의 조사를 보면, /ㄴㄹ/ 연쇄에 나타나는 변이형은 주로 세 가지로, [ㄹㄹ][ㄴㄴ][ㄴ

8) '논리적, 한라산, 신림동, 재분류, 전라도' 등은 '논리-적, 한라-산, 신림-동, 재-분류, 전라-도' 등으로 형태 경계를 지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논리, 한라, 신림, 분류, 전라' 내부에 형태 경계를 가지지 않는다.

리]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그동안의 국어 음운론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ㄹㄹ], [ㄴㄴ]의 선호도였다.

국어에는 /ㄴ/과 /ㄹ/은 어떤 순서로든 연쇄할 수 없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연쇄를 갖는 단어를 발음할 때는 표면음성제약이 적용되어 모종의 음운 현상을 겪게 된다. 그 모종의 음운 현상이 적용된 결과가 [ㄴㄴ]과 [ㄹㄹ]이다. 김선철(2003)에서도 모든 어휘 항목에서 [ㄴㄹ] 변이형이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음형은 우리말의 표면구조제약상 자연발화에서 나타날 수 없는 철자식 발음으로 여겨져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ㄴㄹ/ 연쇄에서 비정형적으로 나타나는 발음형들에 대한 해답을 마련할 열쇠는 유음화나 비음화가 적용된 두 발음 변이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되지 않은 또 하나의 변이형인 [ㄴㄹ]에 있을 수 있다.

철자식 발음이란 철자로 써 있는 대로 발음하려는 노력, 즉 발음을 철자에 접근시키려는 데서 생기는, 현실음과는 거리가 있는 발음 현상을 말한다(이현복 1977:174). 형태음운론적 규칙 또는 동화작용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발음하는 것도 철자 발음의 결과이다. 특히 글을 읽을 때 현실 발음과는 달리 철자대로 소리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잘못된 철자식 발음은 아동이나 청소년 연령대에서 관찰되는데, 철자식 발음은 읽기 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시각적으로 먼저 접촉하는 선행 형태의 음절 구조를 정확하게 유지하여 읽으려는 데서 비롯된다. 읽기 능력이 높아지는 십대 초반이나 늦으면 십대 중반에 대부분 교정이 된다. 간혹 빈도가 낮은 단어들의 경우 잘못된 철자식 발음형이 20대까지 교정되지 못하고 유지되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다. 그런데 근래에는 대학생 연령대에서도 ‘분리, 전력’처럼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철자식 발음으로 실현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다.⁹⁾

철자식 발음의 예로 흔히 드는 것이 자음군을 가진 음절의 발음이다. ‘삶’을 발음할 때 우리말에 ‘종성에는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다’는 절대적인 표면음성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성에서 ‘ㄹ’과 ‘ㅁ’을 모두 의식하여 발음하려는 보니 철자식 발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ㄹㅎ’ 연쇄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이 관찰된다. ‘결혼’의 경우 일반적인 발음형은 [겨론]이거나 이음절에 기식의 흔적이 남은 [kj.rhon]이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특히 읽기 발화에서 [결혼]으로 단어 형태의 음절 구조를 정확하게 지키며 읽는 경우가 잦다.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유형도 읽기 능력이나 형태 의식이 부족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서 관찰된다.

(10) 가. 밭다→밭브다, 삶다→살므다

나. 월요일[일료일], 금요일[금노일], 일요일[일료일]

이처럼 형태와 발음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나타나는 철자식 발음의 주요 경향은 음절 단위로 분절하여 읽는 방식이다. 읽기의 습득 과정을 알게 되면 아동기에 이러한 잘못된 철자식 발음이 가능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아동들은 언어 발달 과정에서 철자식 발음과 적형의 발음형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종의 문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철자식 발음형에서 적형의 발음형으로 수정해 나간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철자식 발음은 그들이 형태와 발음이 불일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한편 그들이 형태 중심의 발음을 우선하려는 의식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적형의 발음형으로 교정되지 않을 경우 그들의 머릿속에 저장된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철자 오류에서도 나타난다.

9) 예문 (6)은 20대 대학생 200명의 발음을 조사한 것이다. 형태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비음화 비율이 높은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반려자(29.5%), 근력(20.5%), 천륜(15%), 신님동(9%), 곤노(44%), 산능(74.5%), 단련(9.5%), 재분류(21%), 본론(10%), 연륜(13.5%), 진료(12.5%), 인류(10%) 등이다.

(11) 이파리(이파리), 넓따란(넙따란), 붙이다(부치다), 웃읍다(우습다), 반듯이(반드시), 사랑이(사랑니)

위의 예들은 원형을 밝혀 적으려는 의식에서 비롯된 오류이다. 발음과 형태가 어긋난 단어들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형태 결합 전의 원형을 확실히 밝혀 적으려는 의식으로 인해 위와 같은 오류를 발생시킨 것이다. 이것은 철자상의 문제이지만 아동들이 철자상의 형태 그대로 읽으려는 철자식 발음의 오류와 그 궤를 같이 한다. 그런데 아동기의 잘못된 철자식 발음이 교정되지 않은 채 성인기를 맞이하면, 그리고 그러한 화자들이 다수가 되면 그 발음형은 언중들에게서 허용적인 발음변이형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휘들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면 기존에 없던 언어 의식으로 자리잡게 된다.

지금까지 심리적 증거로써 선행 형태를 유지하려는 발음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몇 예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ㄹ/을 말음으로 가진 어간의 활용 양상도 현대국어의 음운 과정에서 형태 의식이 강화되는 증거로 보고자 한다. 현대국어에서 /ㄹ/ 말음을 가진 용언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12) 가. 알다, 알고, 알지, 알아, 아느냐, 아는, 아시는, 알지
나. 울다, 울고, 울지, 울어, 우느냐, 우는, 우시는, 울지

(12)에서 /ㄹ/을 말음으로 가진 용언의 어간이 /ㄴ,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들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활용형은 일반적인 /ㄹ/ 탈락 현상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ㄹ/ 탈락 현상과 그 양상에서 차이가 있다.¹⁰⁾

(13) 가. 따님, 소나무, 드나들다
나. 무더위, 기다랗다, 여닫다, 다달이
다. 부삽, 마소, 겨우살이
라. 바느질, 이부자리, 우짚다

일반적인 /ㄹ/ 탈락은 후행 형태가 /ㄴ, ㄷ, ㅅ, ㅈ/일 때 가능하다. 그런데 ‘ㄹ’을 말음으로 가진 어간은 활용 과정에서 /ㄴ, ㅅ/ 외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ㄴ,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어간 말음 ‘ㄹ’이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현대 국어 초기에는 중부 방언에서 어간 말음 ‘ㄹ’의 탈락이 어미의 ‘ㄴ’ 앞 외에 ‘ㅈ’ 앞에서도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14) 가. 아다말다(알다마다)
나. 아지는(알지는) 못하리라, 우지(울지) 마라

물론 (14)의 예는 변이형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활용형을 관찰하기 어렵지만, /ㄷ, ㅈ/ 앞에서 /ㄹ/이 탈락한 활용형이 고령층에서 간혹 관찰된다. 이것은 현대 국어에서 /ㄹ/을 가진 말음으로 가진 용언의 활용 양상에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 예 또한 그 양상만 놓고 보았을 때 선행 형태를 유지하려는 의식이 강화된 증거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현대국어에서 /ㄹ/ 복구형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선행 형태를 유지하려는 의식의 증거가 된다.¹¹⁾

10) 물론 합성어의 /ㄹ/ 탈락은 역사적인 것이며, 용언 활용에서의 /ㄹ/ 탈락은 공시적인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 (15) 가. 부나비>불나비, 하느쇼>하늘쇼
 나. 길둥글다, 므들다>물들다
 다. 므샤마귀>물샤마귀, 부삽>불삽
 라. 주줄이>줄줄이, 솔짓

/ㄴㄹ/ 연쇄에서 비음화가 적용된 발음형들이 젊은 세대에서, 근래에 형성된 단어들에서 높게 선호된다는 사실은 규칙의 변화가 아니라 비음화 변이형의 확산 과정, 본질적으로는 그러한 비음화 변이형을 발생시킨 언어 의식이 확산되는 과정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언어 변이는 언어 습득과 언어 접촉의 결과이며, 그 결과에 대해 언어 집단이 공유한 지식이다. 그러나 언어 변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변이의 양상에 주목할 뿐 언어 변이의 출현 과정을 설명하려는 관심은 드물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 국어 시기에서 선행 형태를 중시한 발음형이 점차 우세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현대 국어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현상과 언어 외적인 증거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후, 보다 다양한 환경의 변이형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선행 형태의 음절 구조를 보존하려는 언어 의식이 비단 'ㄴㄹ'연쇄 뿐만 아니라 다른 음운론적 환경으로 그 범위를 넓히면서 강화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4. 결론 (생략)

11) 기세관(1992)는 현대 국어에서 /ㄹ/ 탈락이 적용되지 않은 예들을 규칙의 소멸로 보았으나 이동석(2005)에서는 더 나아가 /ㄹ/ 복구형이 출현한 것으로 보았다.

■ 참고 문헌

- 기세관(1992) 『국어 단어형성에서의 /ㄹ/ 탈락과 /ㄴ/ 첨가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흥문관.
- 김선철(2003) 『표준 발음 실태 조사Ⅱ』, 국립국어원
- 김선철(2006) 「중국어의 음운론적 변이양상」 경진문화사.
-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송정은(1995) 「중학생 발음 오류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옥선(2000) 「초등학생 발음 오류 현상의 분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새내(2004) 「20세기 서울지역어 형성의 사회언어학적 변인: 인구이동과 언어접촉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1,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55~176면.
- 오새내(2006) 「현대 국어의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윤경희(2009)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수의적 음운변동 현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이근영(2005) 「‘/ㄴ/의 /ㄹ/ 되기’ 발음 실태 연구:표준 발음법과 언어 현실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16, 한말연구학회, 159-172면.
- 이동석(2005) 『국어 음운 현상의 공시성과 통시성』, 한국문화사.
- 이인섭(1982) 「한국 아동의 언어 발달 연구」 고려대학 박사학위논문.
- 이재서(1988) 「언어 습득에 관한 신경학적 연구」 한남대 박사학위논문.
- 이종희(2003) 「초등학생의 국어 표준발음 오류 실태 조사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이진호(2002) 「국어 유음화에 대한 종합적 고찰」, 『국어학』 31, 국어학회, 81~120면.
- 이진호(2005) 「‘/ㄴ/의 /ㄹ/ 되기’ 발음 실태 연구: 표준 발음법과 언어 현실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16, 한말연구학회, 159~173면.
- 이현복(1977) 「서울말과 표준말의 음성학적 비교 연구」, 『언어학』 2, 한국언어학회, 167~184면.
- 전병철(1998) 「언어 실현에 미치는 의식적 발화의 한계 연구」, 『언어학연구』 2, 한국중원언어학회, 219-242면.
- 정영호(2010) 「발음 및 표기 오류의 음운 교육적 접근」, 『우리말 글』 48, 우리말글학회, 1-27면.
- 황경수(2010) 「한국어 발음 표기의 오류 실태:표준발음법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2, 한국국어교육학회, 535~558면.
- Milroy, James, *Linguistic Variation and Change*, Blackwell, 1992: 정영인 외 옮김, 『언어 변이와 변화』, 태학사, 1998.

▣ 토 론

“변이형을 통해 본 언어의식의 일면”에 대한 토론문

김연희(대진대)

※ 별 지

제2부 <특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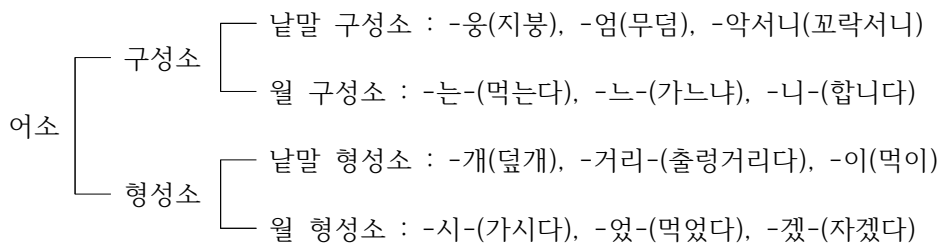
언어관의 양상과 조어론 연구 동향

하치근 (동아대 명예교수)

I. 언어관의 양상

- ‘해방’, ‘독립’이 아니라 ‘광복’이다.
 - 진태하, 「조선일보」(2015.9.8.) -
- ‘한자’와 ‘한글’을 손잡게 하자!
 - 박형달, 「교수신문」(2015.7.6.) -
- 한자 지식이 과학 창의력 이끈다.
 - 전광진, 「조선일보」(2014.11.5.) -
- 영어 공용화 파워
 - 송의달, 「조선일보」(2015.12.9.) -
- 중국식 한자 교육 더 미루면
 - 조병수, 「조선일보」(2015.12.24.) -

II. 조어론에 있어서 구성소와 형성소



(고영근, 1993:358)

지금까지 조어법에서 구성소와 형성소의 개념은 최현배(1961), 허웅(1983), 김계곤(1996), 고영근(1993), 송철의(1992), 조일규(2011), 하치근(2010) 등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 논의 내용들은 주로 우리말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고영근(2015)은 민족어 속의 한자어의 본질과 형성 방식을 더 분명하게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시아 언어문화 연대의 한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여 우리말과 한자말을 중심으로 한 이원적인 입장에서 구성소와 형성소의 구실을 논의했다. 여기서는 이 논의의 타당성 여부를 기존 논의와 비교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논의 사항

<논의 대상 논문>

고영근, 한글 308호(2015), “한자어 형성에 있어서의 구성소와 형성소”

[논의 1] (고영근, 2015 : 17~19)

- (1) ㄱ. ① 인간, 인류, 인정 ㄴ. 단어 구성소
 ② 위인, 거인, 살인 ㄴ. 단어 형성소
 ㄴ. 한국인, 외국인, 예술인 - 단어 형성소

- 동일한 어형인 ‘인’을 분포 위치에 따라 구성소와 형성소로 달리 설정하였다.

- (2) ㄱ. 알뜰하다, 아름답다, 따뜻하다 - 단어 구성소
 ㄴ. 알뜰주부, 알뜰저축, 알뜰폰 - 단어 형성소

구성소는 간접적,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띠고 있고
형성소는 직접적,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띠고 있다.

- ‘알뜰’은 불구뿌리이지 구성소가 아님.
그러므로 (2, ㄴ)은 합성어이지 파생어가 아님.

[논의 2] (고영근, 2015 : 20)

- (1) ㄱ. 무(無)

‘무’는 명사와 결합하면 상태동사(SV)로 전성한다.

무 + 관심(N) → 무관심하다(SV)

한자어 접두사 ‘무’가 어근의 품사를 바꾸고 있으니 그 기능이 통사적이고 동시에 형성소의 기능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영근, 2015 : 20)

- ㄴ. 불(不)

‘친절’은 상태성 명사인데 ‘不’이 붙으면 상태동사로 전성한다.(고영근, 2015 : 21)

불 + 친절(SN) → 불친절하다(SV)

[논의 3] (고영근, 2015 : 21)

몰(沒)상식하다, 몰(沒)인정하다.
접두사 ‘몰(沒)’이 명사를 상태동사화 하는 기능을 띠고 있으므로 준접두사이다.

[논의 4] (고영근, 2015 : 22~23)

- ㄱ. 국제연합
- ㄴ. 국제 연합

만약 언어 대중들에게 ‘국제’와 ‘연합’의 두 형성소가 합쳐서 한 단어로 인식된다면 ‘ㄱ’과 같이 붙여 써야 하고, 두 단어의 단순한 병치로 본다면 ‘ㄴ’과 같이 띄어 써야 할 것이다. ‘국제’를 관형사로 보는 편에 서지만 명사로 보든, 형성소로 보든 그것은 상관없고 언어 대중의 어감 내지 직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논의 5] (고영근, 2015 : 23)

고사숙어

- (1) 오월 동주(吳越同舟) 백년 하청(百年河淸)

밑줄 친 말이 사전에 실려 있으므로 형성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성어이다.

- (2) 여필종부(女必從夫) 앙천이타(仰天而唾)

밑줄 친 ‘여’와 ‘앙천’만 사전에 실려 있으므로 형성소와 구성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성어이다.

- (3) 약육강식(弱肉強食) 와신상담(臥薪嘗膽)

성어를 이루는 요소들이 모두 사전에 실려 있지 않으므로 구성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짐.

■ 참고 문헌

고영근(1993), 우리말의 총체적 서술과 문법 체계, 일지사.
 _____(2015), “한자어 형성에 있어서의 구성소와 형성소”, 한글 308호, 한글학회.
 김계곤(1996),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 박이정.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태학사.
 이규호(1975), 말의 힘, 제일출판사.
 조일규(2011), 파생법의 변천, 역락.
 최현배(1961), 우리말본, 정음사.
 하치근(2010), 우리말 파생형태론, 도서출판 경진.
 허웅(1983), 국어학 -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제3부 <제3 분과 주제발표>

문법에서의 환유

박진호(서울대)

1. 예비적 논의

1.1. 比喩의 기본 개념

元觀念(tenor): 話者が本來 나타내고자 하는 概念

補助觀念(vehicle): 話者が 元觀念을 나타내기 爲해 利用하는 手段

隱喩(metaphor)

元觀念과 補助觀念이 類似性(similarity)을 지님.

元觀念과 補助觀念은 서로 다른 領域에 속함.

大蓋 元觀念보다 補助觀念이 더 具體的이고 理解하기 쉬움.

(1) 退勤 後 집에 가면 오늘도 나의 天使가 웃으며 나를 맞이한다.

換喩(metonymy, 轉喩)

元觀念과 補助觀念이 隣接性(contiguity)을 지님.

元觀念과 補助觀念이 같은 領域에 속함.

대개 元觀念보다 補助觀念이 더 두드러짐.

(2) 너, 저기서 담배 피우고 있는 바바리코트 누군지 아니?

提喩(synecdoche)

元觀念과 補助觀念이 全體-部分 關係임.

換喩의 下位類型으로 보는 것이 一般的임.

(3) 10年만에 母校에 가 보니 낯선 얼굴들뿐이었다.

(4) 펜은 총칼보다 强하다.

1.2. 換喩에 對한 認知的 理解

現代 認知言語學에서는, 比喩(特히 隱喩)가 日常生活에서 흔히 使用될 뿐 아니라, 言語的 次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人間이 世界를 理解하고 概念化하는 認知的/概念的 次元에서 作動한다고 主張함. 그래서 概念的 隱喩(conceptual metaphor)라 부름. 卽 隱喩는 人間の 認知 體系 全般에 깊이 浸透해 있고 人間の 思考 全般을 支配하는 原理라고 主張.

隱喩뿐 아니라 換喩도 人間の 認知 體系 全般에 깊이 浸透해 있음. 그래서 概念的 換喩(conceptual metonymy)라는 용어도 사용됨.

人間은 日常的으로 換喩的으로 思考하고 言語表現도 換喩的으로 함.

(5) A: 지금 몇 시예요?

B: 5시 반이에요. (사실은 5시 29분)

(6) 철수는 천만원을 들여서 집의 인테리어를 바꿨다.

(사실은 철수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인부들이 했음.)

(7) 연필이 부러졌다. (사실은 연필심이 부러졌음.)

(8) 머리가 길다. (사실 긴 것은 머리털.)

이런 현상은 오래 전부터 'loose talk'이라 불려 왔음.

너무 正確하게 말하려 하기보다는 의사소통에 큰 지장이 없다면 대충 말하는 것.

1.3. 換喩를 왜 使用하는가

① 正確하게 말하려면 精神的 費用이 많이 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正確하게 말할 必要가 없기 때문에 換喩를 使用함.

예컨대 지금 몇 時냐고 묻는 사람은 대개 대략의 시간만 알면 되는 것이지, 5時 29分인지 30分인지 31分인지까지 正確하게 알고 싶은 경우는 별로 없음. 따라서 5時 29分이거나 5時 31分이더라도 5時半이라고 答할 수 있는 것.

② 正確하게 말하면 오히려 失禮가 될 수 있기 때문에 換喩를 使用함. (婉曲語法, 恭遜性)

(9) 가슴 - 乳房

(10) 거시기 - 性器

(11) 世上을 떠나다, 돌아가시다, 永遠히 잠들다 - 죽다

1.4. 換喩의 종류

1.4.1. 指示的/名詞的 換喩와 述語的 換喩

指示的/名詞的 換喩: A라는 對象을 가리키는 데에 B라는 對象을 가리키는 表現을 使用하는 것.

(12) 저기 바바리코트 누군지 아니?

述語的 換喩: A라는 行爲/屬性을 나타내는 데에 B라는 行爲/屬性을 나타내는 表現을 使用하는 것.

(13) 千萬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바꿨다. (사실은 인부를 시켜서 했음.)

(14) A: 너 언제 머리 깎았니? B: 어제 깎았어. (사실은 理髮師가 깎았음.)

1.4.2. 語彙的 換喩와 文法的 換喩

語彙的 換喩: 語彙(單語) 次元에서 일어나는 換喩.

지금까지 論議된 大部分의 例는 語彙的 換喩

文法的 換喩: 文法 次元에서 일어나는 換喩

어떤 意味를 나타내려면 본래는 이리이러하게 말해야 正確한/透明한 表現인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길고 번거로우므로, 그보다 簡潔한 表現을 代身 使用하는 것.

높은 頻度로 使用되다 보면 그 意味를 나타내는 表現으로서 그 簡潔한 表現이 慣習化/定着되게 됨.

(15)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다

正確히 말하자면 '이발소에 가서 이발사로 하여금 자신의 머리를 깎게 하다'라고 使動 表現을 使用해야 하나,

서비스업의 발달에 따라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킨 경우, 시킨 사람이 그 일을 直接 한 것처럼 表現하는 일이 점차 일반화된 것.

(16) 천만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바꾸다

1.5. 換喩의 言語間 差異

隱喩와 換喩 모두 人間の 認知 體系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認知言語學의 主張이 相當 部分 妥當하기는 하나, 그 主張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概念的 隱喩, 概念的 換喩 表現은 모든 言語에 普遍的으로 存在한다는 結論에 이르게 될 것이다.

認知, 概念體系는 人類 普遍的인 것이므로, 勿論 모든 言語에 普遍的인 換喩도 있겠지만

特定 言語에만 存在하는 換喩도 있고

特定 換喩 表現의 慣習化/定着 程度는 言語에 따라 差異가 있다.

文法的 換喩의 境遇 特히 그러함.

어떤 言語를 배울 때, 그 言語에서 어떤 換喩가 活潑한지, 어떤 換喩가 不可能한지 알아둘 必要가 있음.

2. 유형 불일치(type mismatch)와 관련된 환유

2.1.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례

함수 중에는 인자(argument)로 정수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실수를 요구하는 것도 있음.
정수를 요구하는 함수의 인자로 실수가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7) $y = \text{sqrt}(x)$;
 $z = \text{permutation}(x, y)$;

위와 같은 경우에 변수 x 의 값이 9라면, 변수 y 의 값은 (x 의 제곱근이므로) 3이 되어
2개의 정수를 요구하는 permutation 함수에 2개의 정수가 인자로 입력되므로 아무 문제가 없음.

반면에 x 의 값이 5라면 y 의 값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실수가 됨.

정수를 요구하는 permutation 함수에 실수가 인자로 입력되는 type mismatch가 발생할 때, 이를
처리하는 방식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다름.

type에 대해 엄격한 언어는 그런 경우 error를 발생시킴.

type에 대해 관대한 언어는 implicit type shifting(casting)이 일어남.

즉 실수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정수로 바꿈.

후자의 경우, 정수(원관념. 예: 2)를 요구하는 문맥/환경에 실수(보조관념. 예: 2.236)가 사용되었는
데, 이 둘은 인접 관계에 있으므로, 일종의 환유로 볼 수 있다.

변수 y 에 explicit type shifting이라는 조작을 가하여 permutation 함수에 집어넣는 것이 가장 고
지식한 표현 방법일 터이나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므로, 간편함/경제성을 위해 원관념과 인접관계에 있는 보조관념을 대신
사용하는 것.

2.2. 가산(count)-비가산(mass) 구분과 관련된 환유

영어의 모든 명사들은 가산명사인지 비가산명사인지 구분되어 있음.

양쪽으로 다 쓰이는 명사도 있기는 함.

비가산명사는 관사 'a/an'을 취할 수 없고, 가산명사는 단수일 때 무관사로 쓰일 수 없음.

'apple'은 기본적으로 가산명사임.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옷에 사과파이가 묻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음.

(18) You have apple on your shirt. (Michaelis 2005: 52)

온전한 사과를 가산명사 'apple'로 가리키면 되지만

옷에 묻은 사과는 비가산명사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이 적합함.

그래서 본래는 가산명사인 'apple'를 마치 비가산명사인 것처럼 (무관사로) 쓴 것임.

'apple'의 가산명사 용법과 비가산명사 용법은 인접 관계에 있으므로, 일종의 환유로 볼 수 있음.

2.3. 개체(individual)-유형(type) 구분과 관련된 환유

많은 언어에서 명사는 하나의 개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개체들의 집합, 즉 유형을 가리킬 수도 있
음.

(19) 고양이가 없어졌다. (자기 집에서 기르던 특정 고양이 개체를 지시)

(20)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한다. (고양이 유형을 지시)

명사가 현장지시사의 수식을 받으면 대개 개체만 가리킬 수 있음.

(21) 이 고양이는 철수한테 받은 거다.

그런데 현장지시사+명사가 유형을 가리킬 때도 있음.

(22) 이 치마는 지금 매장에 재고가 몇 개밖에 없어서 본사에 주문해야 돼요.

‘이 치마와 같은 유형(의 치마)’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고지식한 표현일 텐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번거로우므로, 간략하게 ‘이 치마’라고 한 것임.

‘이 치마’라고 말할 때 진짜 실물 치마를 가리키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카탈로그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말한 것이라면,

표상(representation)으로 실물을 지시하는 환유가 (개체-유형 환유와) 겹쳐 있는 것이 됨.

2.4. 사물(entity)-행위(action) 구분과 관련된 환유

‘start’, ‘finish’ 등의 相 동사는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대개 동사구)을 목적어로 취해야 함.

그런데 간혹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일이 있음.

(23) John started a new book.

(24) John started reading/writing a new book.

(25) He finished a book.

이것은 ‘start’, ‘finish’ 뒤에 와야 할 動詞를 省略한 換喩 表現으로 볼 수 있다.

冊을 가지고 할 수 있는 典型的인 行爲는 읽기와 쓰기이므로, 省略해도 文脈으로부터 復元 可能.

韓國語도 (영어만큼 활발하지는 않은 듯하나) 可能함.

(26) 그는 다음 週부터 새 作品을 始作할 豫定이다.

(27) 이 論文 來日까지 끝내야 돼.

中國語는 이런 換喩가 比較적 어려운 듯.

(28) 他开始了一个新作品。

(29) *他结束了那个作品。

2.5. 동사의 상 부류(aspectual class)와 관련된 환유

본래 순간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에는 진행상 표지(영어의 ‘be -ing’, 한국어의 ‘-고 있-’)가 붙을 수 없음.

(30) *He is killing Mary.

가능하다 해도, 그 경우에는 진행상이라는 본래 의미가 아니라 반복을 나타내게 됨.

(31) 불빛이 반짝이고 있다.

그런데 간혹 순간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에 진행상 표지가 붙는 일이 있음.

(32) He is dying now.

(33) The train is arriving.

(34)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35) 그는 죽어가고/*죽고 있다.

이때 동사는,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본래 동사가 나타내는 순간적인 사건에 이르기 이전의 예비 과정을 나타냄.

(35’) (죽음을 향해) 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34’) 열차가 (도착을 향해) 역에 접근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동사의 의미에 환유가 일어난 것: 결과 도달 - 결과를 향한 예비 과정

中國語는 불가능한 듯.

(36) *火车正在到站。

2.6. 결과 함축과 관련된 환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과거/완료로 사용했을 때 그 목적이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함축의 강도는 언어에 따라 다름.

영어는 강한 편이고, 한국어·일본어·중국어는 약한 편임.

(37) *I burned it, but it didn't burn.

(38) 옷을 불 속에 던져 태웠지만 그 옷은 (불연 소재로 되어 있어서) 타지 않았다.

(39) *I boiled the water, but it didn't boil.

(40) 물을 끓였지만, (가스 불이 약해서 그런지) 도통 끓지 않았다.

하나의 동사가 “결과 달성”,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2개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경우도 있음.

(41) 3시간 동안 끈질기게 說得한(try to persuade) 끝에, 마침내 說得했다(persuade).

(42) 3시간 동안 끈질기게 찾은(search) 끝에, 마침내 찾았다(find).

두 意味 中, 結果까지 包含한 意味가 本來의 意味하고 하면, 結果를 除外한 意味는 이로부터 換喩/ 제유에 의해 形成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이 환유에는 제약이 있음. 非意圖性を 나타내는 表現이 添加되면 受容성이 많이 떨어짐(佐藤琢三 2005).

(43) a. あの人を殺したけれど、死ななかった。 <37.5>

a'. 그 사람을 죽였지만, 죽지 않았다.

b. 銃の扱いを誤ってあの人を殺したけれど、死ななかった。 <15.9>

b'. 총을 잘못 다루어서 그 사람을 죽였지만, 죽지 않았다.

(44) a. 糸を切ったけれど、切れなかった。 <50.5>

a'. 실을 끊었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b. 手を滑らせて糸を切ったけれど、切れなかった。 <24.5>

b'. 손이 미끄러져서 실을 끊었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45) a. じゅうたんを燃やしたけれど、燃えなかった。 <58.1>

a'. 양탄자를 태웠지만, 타지 않았다.

b. 寝煙草で知らぬ間にじゅうたんを燃やしたけれど、燃えなかった。 <21.1>

b'. 잠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모르는 사이에 양탄자를 태웠지만, 타지 않았다.

하나의 動詞가 나타내는 事件은 대개 다음과 같은 一連의 過程임.

①行爲者の 意圖 → ②意圖에 따른 行爲 → ③行爲의 結果

여기서 ③을 떼어내고 ①~②만 나타내는 換喩가 可能함.

그런데 非意圖性を 나타내는 表現을 添加하면, 이로 인해 ①이 떨어져나감.

여기서 다시 ③까지 떼어내면, ②밖에 안 남게 되므로 남은 부분이 너무 적어서 곤란함.

그래서 非意圖性이 있을 때에는 結果를 除外하는 換喩가 어려워지는 것임.

結果를 떼어내는 換喩는 英語에 비해 한국어·일본어·중국어가 훨씬 활발함.

3. 동사와 구문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환유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에서 흔히 말하듯이, 동사의 속성과 구문이 요구하는 속성 사이에 mismatch가 있을 수 있음.

그런 경우 동사는 구문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본래적 속성과 좀 다른 속성을 갖게 됨.

동사의 본래적 속성을 엄격하게 유지하면서 말하려면 표현이 너무 장황해지기 때문에

간결하게 말하기 위해, 서로 딱 맞지는 않지만, 동사를 구문에 끼워넣어 쓰는 것.

그런 mismatch를 허용하는 정도/범위는 언어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이 점에서 영어는 한국어보다 훨씬 관대함.

창조적 환유(creative metonymy)도 가능하고,
이것이 언중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어 관습화되면 dead metonymy가 됨.

3.1. 만들기 구문

본래는 만들기 동사(creation verb)가 아닌데 만들기 동사처럼 쓸 수 있는 현상이 있음.

- (46) 산에 터널을 뚫다 =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다
- (47) 커피를 끓이다 = 물을 끓여서 커피를 만들다
- (48) 빵을 굽다 = 밀가루를 구워서 빵을 만들다
- (49) 논문집을 엮다 = 논문들을 엮어서 논문집을 만들다
- (50) 스웨터를 뜨다 = 실을 떠서 스웨터를 만들다

오른쪽처럼 말하는 것이 正確한/透明한/고지식한 表現인데
'만들다'는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그 意味를 推測할 수 있으므로 省略하고
그 자리에, 만들기 爲한 手段이 되는 行爲를 나타내는 動詞를 가져오는 것.
이들 동사의 본래적 용법의 목적어는 affected object인데
만들기 용법의 목적어는 effected object가 됨.
英語도 이 換喩가 활발함.

- (51) bake bread/cake, boil tea/coffee

프랑스어는 英語에 比해 이 換喩가 활발하지 않음.

中國語도 可能.

- (52) 挖土/挖洞, 挖战壕, 织毛线/织毛衣, 砌砖/砌房子, 编竹条/编竹筐

英語에서 'make one's way V-ing'라고 表現해야 할 것을 簡潔하게 'V one's way'라고 表現하는
換喩가 發達했음.

- (53) Frank dug his way out of the prison.

- (54) Frank found his way to New York.

이 역시 본래 만들기 동사가 아닌 것을 만들기 동사처럼 사용하는 환유.

'V one's way'라는 定해진 形式이 重要함. 위의 두 文章 모두 移動을 含义하나, 형식을 조금만 바
꾸면 移動을 含义하지 않음.

- (55) Frank dug his escape route out of prison.

- (56) Frank found a way to New York.

영어 방언에 따라 수단 해석과 방식 해석 둘 다 허용하는 방언도 있고, 수단 해석만 허용하는 방언
도 있음.

- (57) Sam joked his way into the meeting. (手段 또는 方式으로 解釋 可能.)

- (58) He belched his way out of the restaurant. (手段 또는 方式으로 解釋 可能.)

- (59) The novice skier walked her way down the ski slope. (방식으로도만 해석)

3.2. 채우기/치우기 구문

locative alternation이라 불리는 유명한 교체 현상이 있음.

- (60) He loaded hay into the truck.

- (61) He loaded the truck with hay.

'load, spray' 등의 동사는 [V THEME 장소-P LOCATION] 구문뿐 아니라 [V LOCATION with
THEME] 구문에도 쓰일 수 있음.

후자의 구문에는 “충만한, 가득함”이라는 의미 자질이 더 있음.

전자가 본래적 용법이고, 후자는 환유적 용법이라 할 수 있음.

즉 'fill LOCATION by Ving THEME 장소-P LOCATION'이라고 말하는 것이 고지식한 표현인데, 채우기 동사 'fill'을 생략하고 V를 main verb로 삼아 구문을 단순화한 것.

즉 본래는 채우기 동사가 아닌 것을 채우기 동사처럼 사용하는 것.

한국어에도 이와 비슷한 구문 교체 현상이 있음.

- (62) 대합실에 사람들이 붐빈다.
- (63) 대합실이 사람들로 붐빈다.
- (64) Bees are swarming in the garden.
- (65) The garden swarms with bees.

채우기 동사의 방향성 반의어로서 치우기 동사도 비슷한 패턴을 보임.

- (66) He wiped the dirt from dishes.
- (67) He wiped the dishes of dirt.
- (68) 책상의 먼지를 닦다 : 책상을 닦다
- (69) 상 위의 접시들을 치우다 : 상을 치우다

'wipe' 등의 동사는 [V THEME from LOCATION] 구문뿐 아니라 [V LOCATION of THEME] 구문에도 쓰일 수 있음.

전자가 본래적 용법이고, 후자는 환유적 용법이라 할 수 있음.

즉 'empty/clear LOCATION by Ving THEME from LOCATION'이라고 말하는 것이 고지식한 표현인데,

'empty, clear' 등의 치우기 동사를 생략하고 V를 main verb로 삼아 구문을 단순화한 것.

'채우다', '치우다'처럼 LOCATION을 목적어로 취하는 것이 본래적 용법인 동사들은 환유의 방향이 반대인 듯.

- (70) 술잔에 술을 채우다 : 술잔을 (술로) 채우다
- (71)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비우다 : 쓰레기통을 비우다

즉, 오른쪽처럼 말하는 것(채우기, 치우기 구문)이 본래적 용법인데, caused motion verb 용법을 파생 용법으로 가지게 된 듯.

위의 타동사들에 대응하는 자동사의 쓰임을 보면 오른쪽(채우기, 치우기) 용법이 본래적인 것임을 추측할 수 있음.

- (72) 술잔에 술이 차다 : 술잔이 (술로) 차다
- (73)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비다 : 쓰레기통이 비다

3.3. 이동 구문

英語는, 본래 移動 動詞가 아닌 것을, 移動 構文에 쓰는 일이 흔히 있음.

- (74) The fly buzzed into the room.
- (75) The bottle floated into the cave.
- (76) The pencil rolled off the table.
- (77) The bullet whistled past me.

이 역시 환유로 볼 수 있음.

[이동동사 P LOCATION by Ving]이라고 말하는 것이 고지식한 표현인데

- (78) The fly went into the room buzzing.
- (79) The bottle entered the cave floating.

이동동사를 생략하고 V를 main verb로 삼아 구문을 단순화한 것.

韓國語는 이 換喩가 不可能함. ‘가다’, ‘오다’ 等の 移動 動詞가 있어야 함.

- (80) *瓶은 洞窟로 咚咚 뒸다. / 瓶은 咚咚 떠서 洞窟로 들어갔다.
- (81) 鉛筆이 테이블에서 굴렀다. (테이블 밖으로 떨어졌다는 意味는 안 됨.)
- (82) 鉛筆이 테이블에서 굴러 떨어졌다.
- (83) *銃알이 내 옆으로 피용 했다. / 銃알이 피용 하고 내 옆을 지나갔다.

中國語도 不可能: 趋向补语가 있어야 移動을 나타낼 수 있음.

- (84) 瓶子漂进了洞里.
- (85) 铅笔从桌子上滚落下来.
- (86) 子弹嗖的一声从我身旁飞过.

3.4. 상태 변화(change of state) 구문

영어에서 caused change of state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문은 이른바 5형식 구문임.

- (87) He made me sad.

이 구문의 main verb 자리에는 본래적인 5형식 동사뿐 아니라 매우 많은 동사들이 올 수 있음.

- (88) I blew the candle off. = I put the candle off by blowing.
- (89) He hammered the metal flat. = He made the metal flat by hammering.
- (90) He sneezed the napkin off the table. = He made the napkin go off the table by sneezing.
- (91) Mary kissed John unconscious. = Mary made John unconscious by kissing.

이 역시 환유로 볼 수 있음.

즉 오른쪽처럼 사역 구문을 사용하여 말하는 것이 고지식한 표현인데, 사역동사를 생략하고 수단을 나타내는 V를 main verb로 삼아 구문을 단순화한 것.

재귀 사역 구문에서도 평행한 환유가 가능함.

- (92) She shouted herself hoarse. = She made herself hoarse by shouting.
- (93) He talked himself blue in the face. = He made himself blue in the face by talking.

동사가 본래 5형식 동사가 아니어서 5형식 구문에 어울리지 않더라도, 구문의 요구에 억지로 맞춰 끼워넣은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

한국어에서는 그런 식으로 동사를 구문의 요구에 맞춰 끼워넣는 것이 훨씬 어려움.

결과 상태를 ‘-게/도록’ 부사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목적어/주어 결과-게/도록 V]처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는 하나의 절로 compact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움.

- (94) 그는 쇧덩이를 망치로 납작하게 두들겼다. = 그는 쇧덩이를 두들겨서 납작하게 만들었다.
- (95) 그는 목이 쉬도록 외쳤다.
- (96) 매리는 존이 얼이 빠지도록 키스를 했다.
- (97) 그는 얼굴이 퍼렇게 질리도록 지껄여댔다.
- (98) *그는 냅킨을 테이블 밖으로 재채기했다.

中國語는 ‘他動詞+結果補語+目的語’ 構文이 活潑하나, 이는 動詞의 本來의 用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換喩로 보기는 어려운 듯.

- (99) 我吹灭了蜡烛.
- (100) 她把嗓子喊哑了.

4. 목적어/주어와 관련된 환유

4.1. 목적어

다른 언어에서는 목적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중국어에서는 목적어로 표현하는 일이 많음. 즉 중국어의 목적어는 타 언어에 비해 범위가 넓음. 동작의 대상이 아닌 것을 동작의 대상인 것처럼 표현한다는 점에서 환유로 볼 수 있음.

(101) 坐(在)前面后面

(102) 睡长凳/酒店(里)/公园(里)/那家酒店最好的房间

‘坐在~’, ‘睡在~’와 같이 場所 名詞 앞에 前置詞 ‘在’를 쓰는 것이 透明的 表現法인데, ‘在’ 없이 場所 名詞를 目的語로 삼을 수 있음.

중국어 빈어의 범위가 넓기는 하나, 無制限的으로 可能的 것은 아님.

그리고 이러한 擴張 目的語 構文에 對한 中國人의 判斷은 個人差, 地域差가 있는 듯.

(103) 吃食堂/*饭馆/*餐厅 = 去食堂/饭馆/餐厅吃饭

(104) 小王经常吃这家餐馆。

(105) 小王经常在/到这家餐馆吃饭。

(106) 吃大碗 = 用大碗吃饭

(107) *吃筷子 = 用筷子吃饭 cf. ‘写毛笔’는 可能的 듯.

(108) 小王刚死了父亲。 cf. 철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109) 小王的父亲刚死了。

(110) 小王发生了一个事情。 cf. 철수는 사정이 생겼다.

(111) 跟X有关 : 有关X

(112) 对X关心 : 关心X

<중국어 빈어의 분류 1>

受事宾语

動作의 결과: 写诗 打毛衣 照相 创纪录

動作의 도구: 跳绳 照X光 写毛笔 洗冷水

動作의 방식: 存定期 邮快件 寄挂号 唱高音

動作의 피동주: 审稿子 带学徒 看朋友 打乒乓

動作의 원인: 躲雨 避乱 担心出事 抓痒痒

動作의 목적: 躲清静 救急 看病 学裁缝

動作의 처소: 写黑板 过大桥 逛公园

動作의 대상: 尊敬老师 教育孩子 团结同学

담당하는 역할: 踢前锋 唱老旦 打后卫 跑第三棒

施事宾语

前面来了一个人。

村子里死了两头牛。

门外跪着一条狗。

这个礼堂能坐两千人。

一锅饭可以吃十个人。

中性宾语 : 受事, 施事 以外の 것. 或은 어느 쪽인지 判定하기 어려운 것

学校的周围是新建的住宅区 (是의 宾语)

词典像一块厚厚的砖头 (像의 宾语)

餐厅里有不小空位 (有의 宾语)

他成了远近闻名的电脑迷 (成的 宾语)
新来的老师姓陈 (姓의 宾语)

<Ren Zhang (2005)의 중국어 빈어 분류>

结果：挖洞，挖战壕

目的：挖金子，挖红薯，逼租，考研究生

施事：台上坐着主席团。对面跑来了一头牛。

equative：我踢中锋。

位置：睡小床，起五更，吃食堂

工具：抽鞭子，抽烟斗，救济了大量药品

方式：唱A调，存活期，写仿宋体

理由：愁经费问题，愁婚姻大事

同族目的語：唱歌，吹气，跌跟头，吵架

<任鷹(2007)에 제시된 특이한 빈어의 사례들>

供用句：一锅饭吃十个人。一瓶水喝三个人。

一张床睡两个孩子。一个房间住六名学生。

存在句：门口站着一个姑娘。床上躺着生病的孩子。

屋里坐着两位老人。地上站着服务员。

打球，打奥运会；打主力；打表演赛，打比赛；打球赛，打世界超级明星赛，打一场决定中国队命运的奥运会决赛；打世界冠军；打北京市队，打日本队，打美国队，打古巴队，打联邦德国队

吃饭，吃食堂，吃小灶，吃大碗，吃环境，吃父母，吃气氛

唱歌，唱歌厅，唱美声，唱专业，唱主角，唱独唱，唱情绪

跳舞，跳晚会，跳晚场，跳专业团，跳“天鹅湖”，跳配角，跳心情

写字，写毛笔，写临摹，写行书，写小楷，写练习本，写感觉

Hopper and Thompson (1980)에 제시된 변수들에 따라 의미상의 타동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정도가 높은 경우에만 목적어로 표현하고

낮은 경우에는 전치사/사격 등을 사용한 구문을 사용하는 언어들이 많이 있음.

이런 언어들에 비하면 한국어·영어·중국어는 목적어의 범위가 넓은 편임.

4.2. 주어

어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하면, 한국어의 경우 주어의 범위가 넓은 편임.

(113) 나 추워. / 이 방은 추워.

(114) I'm cold. / *This room is cold. / It's cold in this room.

(115) 나 지루해. / 이 책 지루해.

(116) I'm bored/*boring. / This book is boring/*bored.

한국어의 이중주어문도 일종의 환유로 볼 수 있음.

(117) 철수의 눈이 크다.

(118) 철수는 눈이 크다.

‘크다’는 1자리 술어이므로 ‘철수의 눈이’처럼 1개의 논항을 취하는 것이 본래적 용법임.

‘눈’의 소유주인 ‘철수’는 주어 명사구 내에서 ‘눈’의 수식어로 표현되는 것이 고지식한 표현이나, 유정성·화제성 등에서 ‘눈’보다 ‘철수’가 더 높으므로, 전체 문장의 주어로 인상된 것.

주어 부각형 언어(subject-prominent language)에 비해 주제 부각형 언어(topic-prominent language)는 주어/주제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생각됨.

5. 기타

5.1. 所有 構文에서의 所有物 省略

英語, 中國語, 日本語에서는 所有 構文에서 所有物을 省略할 수 있음.

文脈上 所有物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

(119) John's (book)

(120) 张三的(书)

(121) 私の(本)

中國語의 境遇, 所有 構文이 아닌 '的' 構文에서도 '的' 뒤의 中心語를 省略할 수 있다.

(122) 開車的(人)

(123) 小宝写的(字)

韓國語는 이런 構文에서의 中心語 省略이 不可能함.

5.2. 인칭대명사

英語에서는 2人稱 代名詞 'you'로써 不特定 人物을 가리키거나 1人稱 代名詞 'I'를 代身하는 일이 있음.

(124) When you go there in Autumn, you can see many red or yellow maple leaves.

中國語에서도 '你'가 '我'를 意味할 때가 있음.

(125) 这孩子什么都会, 就是不会系鞋带。每次穿及鞋带的鞋时, 他总是拿着鞋走过来, 靠在你的怀里让你替他系, 身子还软软地贴着你, 穿好一只脚又伸出另一只脚。

韓國語에는 2人稱 代名詞의 이러한 擴張 用法이 없다.

韓國語는 3人稱, 2人稱 代名詞의 使用이 相當히 萎縮되어 있는 편.

6. 어휘적 환유, 문법적 환유와 담화·화용론적 환유의 trade-off 관계

지금까지 문법적 환유를 살펴보았는데, 한국어에 비해 영어에서 더 활발한 편임.

어휘적 환유도 한국어보다 영어가 활발함.

작가-작품 환유

(126) read/play Shakespeare, listen/play Beethoven

수도-정부 환유

(127) Moscow agreed to Washington's decision.

(128) 이번 措置에 對한 平壤의 反應을 銳意注視하고 있다.

반면에 주어·목적어 등의 주요 논항을 생략하는 것은 영어보다 한국어가 훨씬 더 자유로움.

韓國人은 話者와 聽者가 共有하는 知識과 脈絡에 많이 依存해서 말함.

뻔히 알 수 있는 것은 果敢하게 省略함.

話用上의 換喩라 할 수 있을 듯.

共有 知識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理解하기 어려움.

英語 話者는 聽者가 뻔히 알 수 있는 것도 省略하지 않고 말하는 傾向이 있음.

共有 知識이 없는 사람이 들어도 理解하기 쉬움.

英語는 低脈絡 意思疏通, 韓國語는 高脈絡 意思疏通의 傾向性이 있음.

환유는 간편하게 말하기 위해 정확성을 희생시키는 장치.

한국어는 어휘·문법적 환유의 빈곤을 담화·화용상의 환유의 풍부함으로 보완하는 셈.

■ 토 론

“문법에서의 환유”에 대한 토론문

김용경(경동대)

이 논문은 비유적 표현에 해당하는 ‘은유’, ‘환유’, ‘제유’에 대한 기본 개념 간의 차이를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유의 종류, 환유의 다양한 유형 등에서 나타나는 언어 간 차이를 제시하고 있어 매우 유용하고 흥미 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인지언어학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전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원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1) 이 연구의 핵심은 문법 층위에서 나타나는 환유적 표현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1에서 ‘환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인접성을 지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은유’ 또는 ‘제유’의 개념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인접성’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제시했으면 합니다. ‘인접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환유적 표현’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2) 1.3에서 ‘환유’를 사용하는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뒤의 여러 가지 환유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는 ‘환유’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단순·명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김정일(2005:4, 「환유에 대하여」)에서 ‘본질상 환유는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 이전에 익숙해졌던 것들, 신화화되었었던 고정관념들을 버리고 디테일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환유’는 같은 영역에 속하는 ‘보조관념’을 부각시켜 제시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거하여 중요한 속성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성이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3) 언어 간 환유의 적용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언어유형론적으로 보다 정밀하게 제시해 준다면 연구의 효용성이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4.1에서 ‘다른 언어에서는 목적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중국어에서는 목적어로 표현하는 일이 많음. 즉 중국어의 목적어는 타 언어에 비해 범위가 넓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어의 언어 구조의 특징이나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다른 언어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이해가 훨씬 빠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규범적 관점의 문법 연구와 쟁점*

정희창(성균관대)

1.

본 연구의 목적은 국어의 문법 가운데 규범적인 관점에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들을 제기하고 연구사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데 있다. 규범적인 문법을 논의하는 것은 국어 능력을 구성하는 문법 능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문법의 내용적인 변화와 더불어 외연이 확장되는 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규범적인 문법의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 국어사전, 매체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소통되고 SNS를 통한 소통 과정에서도 글쓰기와 말하기의 규범을 비롯한 폭넓은 국어 지식이 활용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최근에 학교 문법을 포함한 규범적인 문법의 위치가 이전과는 달리 자리매김되고 문법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전까지 교과용 도서의 형식으로 원칙과 약간의 예시로 제시되어 실체를 확정하기 어려웠던 규범 문법이 규범적인 국어사전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정보에 대한 해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 특히 ‘규범 사전’은 지속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내용 보완을 통해 언어 현실을 기준으로 문법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동안 규범적인 문법에 대해서는 ‘처방적인’ 관점에서 수용할 뿐, 문법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규범적인 문법을 담고 있는 학교 문법, 어문 규범, 규범 사전 가운데 최근에 새롭게 제시되었거나 기존의 내용 가운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을 쟁점별로 다시 논의하는 것은 규범 문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줄 뿐 아니라 기술 문법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문법의 발전 과정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규범 문법’은 다음과 같은 형태에서 제시된 문법 체계를 가리킨다. 이는 현재 주로 규범 문법, 학교 문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다.²⁾

- (1) 가.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2002, 2012
- 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 2008
- 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1988

먼저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는 문법을 공식적으로 학습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규범 문법의 준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검인정 이전의 교과서인 교육인적자원부(2002)는 현재도 학교 문법을 해석하는 준거로 작용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등 언어생활의 기준이 되는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문법에 관련된 기술 내용 또한 학교 문법서와 더불어 문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³⁾ 이러한 규범 사전은 현재에도 문법 관련 내용이 보완되고 있

* 본 발표문의 일부 내용은 2014년 겨울 우리말학회 전국 학술 대회(2014. 2. 10.)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1) 이는 규범적인 문법 지식은 ‘대입 수능, 교원임용고사, 한국어능력시험, 공무원 시험’ 등에서 평가되고 최근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문법과 관련된 지식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또한 규범 문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이 널리 활용되는 것도 문법 지식의 확장과 공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규범 문법’은 학교 문법, 표준 사전, 어문 규범에서 공통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 문법의 정의와 내용에 대한 논의는 이선웅(2014), 정희창(201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3) 현실적으로 학교 문법서와 표준 사전, 어문 규범에서 일치하는 내용이 규범 문법(=학교 문법)으로 다루어지

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고정된 내용을 갖추고 있는 나머지 둘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은 성문화된 체제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고정되어 있으며 교육적, 행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인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 ㄱ. 규범 문법에서 쟁점이 된 내용은 무엇인가?
- ㄴ. 규범 문법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ㄷ. 기존 논의의 한계는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가?

2.

규범 문법은 학교 문법을 담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문법 교과서는 원칙적인 관점과 교육적인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의 판단은 규범 사전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작은아버지’의 ‘작은’을 접두사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사전을 통해 판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규범 사전은 규범 문법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아래는 규범 사전에서 제시되어 있는 ‘한번’이다. 이 뜻풀이에는 문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 단어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의미와 용법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 (3) 한번 1. 「명사」((주로 ‘한번은’ 꼴로 쓰여))지난 어느 때나 기회.
 ¶ 한번은 그런 일도 있었지
- 2. 「부사」「1」((주로 ‘-어 보다’ 구성과 함께 쓰여))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 ¶ 한번 해 보다/한번 먹어 보다/제가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사’의 쓰임은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이전의 국어사전에서는 명사로 쓰이는 경우만 올라 있었다.

- (4) 한번 「명」기회 있는 어떤 때. ㄴ~ 놀러 가마 《금성 국어대사전》

문제는 새롭게 확장된 ‘한번’을 한 단어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새롭게 단어로 인정한 ‘시도’를 나타내는 ‘한번’과 단어가 아닌 ‘횟수’를 나타내는 ‘한 번’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 (5) ㄱ. 한번/한 번 먹어 봐서 어떻게 맛을 알아? 한번/한 번 더 먹어 봐.
- ㄴ. 아무리 바빠도 동창회에 한번은/한 번은 가 봐야지.
- ㄷ. 그 사람 다시 한번/한 번 만나 볼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도의 ‘한번’과 횟수의 ‘한 번’을 의미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전에서 주로 ‘-어 보다’의 형식으로 쓰인다고 한 것도 ‘한 번’ 또한 그렇게 쓰이므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직관의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문법적인 표현으로 변별해서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규범적인 문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인 문법과 달리 규범적인 문법에서는 확정하기 어려운 문법적 사실이라도 규범의 관점에서 한 가지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⁴⁾

- (6) 그동안 「명사」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만큼의 시간적 길이. 또는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 동안. ¶ 그동안 안녕하셨어요?/그동안 연락이 없어 궁금했습니다.
.....

‘그동안’은 사전에서 한 단어로 올라 있다. 그런데 사전 뜻풀이에 따르면 앞에 존재하는 시간적인 사태를 지시해야 한다. 이는 ‘동생은 밥을 지었다. 그동안 나는 방을 치웠다’와 같이 ‘그’의 지시성이 분명한 경우에 유효하다. 그렇지만 예문으로 제시한 ‘그동안 안녕하셨어요?’는 특별한 시간을 지시한다기보다는 관용적인 인사말로 굳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직관으로는 지시성이 드러나는 경우는 한 단어가 아닌 듯하고 지시성이 없는 경우가 한 단어처럼 느껴진다. 이는 ‘그’의 지시성이 두드러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려는 문법적 직관과 그것의 문법적 기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비롯한다. ‘그동안’을 한 단어로 인식하는 직관을 문법 기술이 가능한 방식으로 명확하게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 (7) ㄱ. 부딪다 「동사」무엇과 무엇이 힘 있게 마주 닿거나 마주 대다. 또는 닿거나 대게 하다. ¶ 뱃전에 부딪는 잔물결 소리/바위에 도끼날 부딪는 소리와 함께 불이 번쩍 났다.
ㄴ. 부딪히다 「동사」‘부딪다’의 피동사. ¶ 파도가 뱃전에 부딪히다/배가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았다./지나가는 행인에게 부딪혀 뒤로 넘어졌다. ¶ 아이는 한눈을 팔다가 선생님과 부딪혔다. ¶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서로 정면으로 부딪힌 차들이 크게 부서졌다.
ㄷ. 부딪치다 「동사」‘부딪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파도가 바위에 부딪쳤다./모퉁이를 돌다가 팔이 다른 사람에게 부딪쳤다. ¶ 한눈을 팔다가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쳤다
ㄹ. 부딪치이다 「동사」‘부딪치다’의 피동사.

‘부딪다, 부딪히다, 부딪치다, 부딪치이다’는 “큰사전”에서부터 나타나서 ‘한글 맞춤법’과 사전에 반영되어 있다. ‘부딪-’을 어근으로 피동 접미사, 강조 접미사가 결합한 것이 ‘부딪히다, 부딪치다’이고 ‘부딪치-’를 어근으로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것이 ‘부딪치이다’이다.

이러한 기술의 문제는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부딪다’와 ‘부딪치다’가 어근과 파생어의 관계가 아니며 피동사 ‘부딪히다’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⁵⁾ 특히 ‘부딪치이다’는 ‘부딪다:부딪히다=부딪치다:X’와 같은 공식을 통해 만들어진 사전에만 존재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체계를 중시하는 규범적인 관점이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8) 존재사(存在詞)「명사」『언어』존재의 뜻을 나타내는 품사.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이를 독립된 품사로 인정하지 않고 동사나 형용사에 분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있다’는 존재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동사에, 소유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형용사에 분속한다. ‘없다’, ‘계시다’ 따위가 있다.

4) 최근에 학교 문법에서 ‘서술격조사’로 다루던 ‘이-’를 ‘이다’의 어간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다분히 중립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지만 규범적인 관점에 충실한 태도라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술적인 관점이라면 최근에 논의되는 ‘의존 형용사’가 더 가까울 듯하고 규범적인 관점이라면 ‘주격, 목적격, 보격’과 평행하게 ‘서술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기술하려는 ‘서술격조사’가 좀 더 분명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5) 장윤희(2005), 정희창(2011)을 참조할 수 있다.

문법의 관점에 따라 ‘있다, 없다’ 등을 ‘존재사’로 분류하는 일이 있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규범 사전에서는 위처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법에서 아직 논의가 완결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전은 문제의 세부 내용을 보여 주는 데 적합하지만 논점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어학에서 논란 중인 문제의 이론적 논의와 같은 것은 국어사전에서 제 공하지 않는다.

3.

규범 문법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규범적인 강제력이 강한 것이 ‘어문 규범’이다. 어문 규범의 목적은 문법을 기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문법적인 기술이 담겨 있는 것은 표기를 규정하거나 표준어를 선정하고 있는 기준이나 근거로 문법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법은 전면적인 문법 기술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관성 있는 관점이 제시되지 않거나 성 문화된 체제라는 고정된 형식 때문에 언어 현실과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한글 맞춤법 제35항에서는 ‘되-’에 ‘-어’가 연결되어 줄어들면 ‘돼-’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⁶⁾

(9) 제35항 [붙임2] ‘되-’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냈’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예: 되어/돼 되었다/됐다 ……

그렇지만 ‘되--+어’가 ‘돼’로 줄어드는 과정을 음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시적으로 ‘되[뒤]--+어[어]→돼[뒤]’의 과정이므로 ‘어’의 탈락이 일어날 뿐이다.

‘돼-’의 표기는 역사적으로 ‘되-’에 ‘-아’가 결합한 ‘되--+아’가 통시적인 변화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활용의 패러다임이 ‘되--+아’에서 ‘되--+어’로 교체되면서 표기 결과인 ‘돼’만 남게 되었다.⁷⁾

(10) 되--+어(← 되--+아) → 돼

이는 ‘돼’와 ‘되’가 모두 이중 모음을 가진 [뒤]가 되면서 ‘되--+어’의 결과물인 ‘뒤’와 ‘돼’의 음가가 동일해지고 그에 따라 이전의 표기인 ‘돼’의 형성 과정을 ‘되--+어’로 인식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돼-’는 공시적인 문법의 결과가 아니라 역사적인 표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공시적인 관점과 역사적인 관점이 뒤섞여 있다는 점에서 ‘푸-’의 활용도 ‘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1)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 나면 벗어 나는 대로 적는다.

……

4. 어간의 끝 ‘ㄴ, 一’가 줄어질 적

푸다: 퍼, 뿔다

6) 이 장의 내용은 정희창(2010L)에서 자세하게 논의된 바 있다.

7) 연결 어미 ‘-아’를 ‘-어’로 대체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규정을 말한다.

‘푸--+어’의 결합이 ‘퍼’가 되는 과정을 공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가 탈락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또한 ‘푸-’가 이전에 ‘프-’였다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프-’에 ‘-어’가 결합한 활용형이 ‘퍼’인데, 이 활용형 ‘퍼’는 ‘프-’가 ‘푸-’로 어간이 변한 다음에도 여전히 남아 규범에서 ‘푸--+어→퍼’와 같은 과정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통시적인 활용형과 활용의 과정이 뒤섞이면서 공시적인 활용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12) ㄱ. 붓--+어지다 = 부서지다
 ㄴ. 부수--+어지다 =*부쉽지다

‘부서지다’와 ‘부쉽지다’도 비슷한 경우이다. 이들이 언어 현실에서 혼란스러운 것은 공시적인 관점과 통시적인 관점이 뒤섞인 형태로 표기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직관에 따르면 ‘부수다’에 ‘-어지다’가 붙은 ‘부쉽지다’를 예측할 수 있지만 이는 규범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서지다’는 ‘부수다’가 만들어지기 전에 생긴 말로 그 전에 쓰이던 ‘붓-’에 ‘-어지다’가 붙어서 된 말이기 때문이다. ‘부서뜨리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역사적인 형태를 규범적으로 해석한 사례로 규범의 표기가 지닌 역사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13) ㄱ. 곧 놀라운 광경이 보여질/보일 것입니다.
 ㄴ. 이 책은 200년 전에 쓰여졌다/쓰였다.

‘보여지다’와 ‘쓰여지다’는 ‘보이다’와 ‘쓰이다’에 ‘-어지다’가 붙은 말이다. ‘보이다’와 ‘쓰이다’는 ‘보다’와 ‘쓰다’의 피동사이다. ‘보여지다’와 ‘쓰여지다’가 비규범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피동사에 역시 피동을 나타내는 ‘-어지다’가 결합하지 않는 문법적 제약을 설정할 수도 있고 ‘보여지다’, ‘쓰여지다’가 비표준어라고 할 수도 있다. 전자에 따르면 피동사에 ‘-어지다’를 붙여 이중으로 피동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후자에 따르면 그 결과가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흔히 이중 피동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기술이 문법적인 것인지, 규범적인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규범적인 관점에서 용언이 활용할 때 특정 어미의 결합이 제약이 되는 몇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 (14) ㄱ. 데리다: 데리러, 데리고, ?데리니, ?데리며
 ㄴ. *가아/가, *가았다/갔다, 개어/개, 개었다/갯다
 ㄷ. 말다: 말고, 말아라/마라, 말아/마
 ㄹ. 만들다/만들, 울다/울, 만들므로/*만드므로
 ㅁ. 머무르다/머물다: 머무르고/머물고, 머물러/머물어

(14ㄱ)은 용언의 어간이 일부 어미와의 결합형과만 쓰이는 경우이다. ‘데리다’는 ‘데리러, 데리고, 데려’로 주로 쓰이고 ‘더불다’는 ‘더불어’로 쓰인다. ‘가로다’, ‘달다’ 등도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제약은 용언 어간의 특성과 관계 없이 비교적 폭넓게 나타난다. (14ㄴ)은 동일한 모음이 탈락하는 음운 현상이다. ‘가--+아’의 경우에는 ‘*가아’는 불가능하고 ‘가’로만 실현된다. 이에 비해 ‘개--+어’는 ‘개어’와 ‘개’가 모두 가능하다.⁸⁾

8) 한글 맞춤법 제34 항에서는 ‘가아→가’의 경우에는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가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고 설명하고 ‘개어→개어/개’의 경우에는 ‘ㅐ, ㅑ’ 뒤에 ‘-어’가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고 설명함으로써 둘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는 말은 필수적으로 음운의 탈락이 일어난다는 의미이고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는 음운의 탈락이 수의적이라는 의미이다.

(14ㄷ)은 본말의 활용형이 비표준어가 되는 경우이다. 이 또한 규범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그러한 형태가 제약을 받는 구조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글 맞춤법 제18항에 제시되어 있는 ‘말아라→마라’, ‘말아→마’는 어떠한 원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말아라’가 비표준어이고 ‘마라’가 표준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⁹⁾ (10ㄷ)은 명사형 어미 ‘-(으)ㄷ’이 결합하는 경우인데 ‘만들다’의 명사형은 ‘만듬’이 아니라 ‘만듦’이다. 그렇다고 ‘만들다’처럼 ‘ㄷ’ 받침을 가진 말이 명사형이 될 때 반드시 ‘ㄷ’이 남아야 하는 원리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만듦’이 되는 것은 ‘만듬’이 표준어이기 때문이다.¹⁰⁾ ‘만들-’에 ‘-므로’가 결합할 경우 직관으로는 ‘만드므로’인지, ‘만들므로’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만들면, 만들며’처럼 ‘-으면, -으며’가 연결되는 경우 ‘ㄷ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만들--+므로’는 ‘만들므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문법의 규칙이라고 할 수는 없다.

(14ㄹ)은 용언의 준말이 모음 어미와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고 알려진 현상이다. 준말의 활용에 제약을 받는 용언으로는 ‘머무르다/머물다, 서두르다/서둘다, 서투르다/서툴다, 가지다/갓다, 건드리다/건들다, 디디다/딛다’ 등이 있다. 그런데 이처럼 용언의 준말 활용이 제한이 되는 현상을 “표준어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15) 제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ㄱ은 본말이며 ㄴ은 준말임.)

ㄱ	ㄴ	비 고
머무르다	머물다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음.
서두르다	서둘다	
서투르다	서툴다	

이는 ‘비고’의 내용이 ‘머물--+어’의 결합을 제한하는 구조적인 제약이 아니라 ‘머물어, 서둘어, 서툴어’가 ‘머물러, 서둘러, 서툴러’와 비교할 때 비표준어라는 의미라는 뜻이다. 현재의 언어 현실에서 ‘머물어, 서툴어’가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을 보면, 준말의 활용과 관련된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규범적으로 이들을 비표준어로 처리한 것은 ‘가지다’의 준말 ‘갓다’가 모음 어미와 연결된 ‘*갓아, *갓으면, *갓으며 ……’로 잘 쓰이지 않듯이 그러한 형태가 널리 쓰이지 않는다는 비표준어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규범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딤말의 어간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모음 어미의 연결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건드리다’의 준말인 ‘건들다’는 ‘*건들어, *건들었다’와 같이 활용하지 않는다. 다만 ‘건드니’는 ‘건들--+니’와 같이 분석하여 모음 어미가 아닌 자음 어미가 연결된 것으로 해석한다. ‘ㄷ’받침을 가진 어간은 모두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본딤말의 어간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모음 어미의 연결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으르다’의 준말인 ‘개르다’는 ‘꺄러, 꺄렀다’가 가능하다. 물론 자음 어미가 연결되는 ‘개르니, 개르고’도 가능하다.

9) 최근에 국립국어원에서 ‘말아/마, 말아요/마요, 말아라/마라’, ‘노랑네/노라네’ 모두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함으로써 ‘말아, 말아라’ ‘노랑네’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이러한 문제가 문법이 아니라 표준어의 문제라는 뜻이다. (국립국어원, ‘2015년 표준어 추가 발표, 보도 자료’, 2015. 12. 14.)

10) ‘만듬’과 ‘만듦’은 휴지 앞에서 모두 [만듬]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연결되는 ‘이 나무로는 의자를 □□이 좋겠다’와 같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표준어는 [만드미]가 아닌 [만듦미]이므로 ‘만듦’으로 적는다. 휴지 앞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이와 평행하게 해석하면 ‘만듦’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 (16) ㄱ. ‘건들다’류: 모든 ‘ㄹ’받침을 가진 어간으로 ‘건드니, 건드는, 건들고, 건들며…’로 활용한다.
 예) 건들다(건드리다), 굴다(구르다), 까불다(까부르다), 깨뜯다(깨뜨리다), 꺼들다(꺼두르다), 뒤까불다(뒤까부르다), 들까불다(들까부르다), 머물다(머무르다), 서들다(서두르다), 서툴다(서투르다), 썰다(썰리다), 쓸까슬다(쓸까스르다), 일다(이르다)
- ㄴ. ‘자그맣다’류: ‘ㅎ’받침을 가진 어간으로 ‘자그매, 자그마니, 자그맣소’로 활용한다.
 예) 곱달다(곱다랴다), 기다말다(기다마하다), 기다달다(기다랴다), 아무렇다(아무러하다), 아스랄다(아스라하다), 자그말다(자그마하다), 잘달다(잘다랴다), 조그말다(조그마하다), 커달다(커다랴다)
- ㄷ. ‘마지않다’류: ‘마지아니하다’에서 준 말. ‘마지않아, 마지않으니, 마지않소’로 활용한다.
 예) 마지않다(마지아니하다), 얼토당토않다(얼토당토아니하다)
- ㄹ. 나머지: 자음 어미의 연결만 가능.
 예) 가직다(가직하다), 갖다(가지다), 내달다(내디디다), 뉘웃다(뉘우치다), 문다(무느다), 밋다(미치다), 부를다(부르트다), 붓다(부수다), 빅다(비기다), 잡숫다(잡수시다), 지정닷다(지정다지다), 훗다(훗하다), 흠다(흔하다)

아래의 경우 또한 규범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 (17) ㄱ. 노랑-+-아→노래, 파랑-+-아→파래
 ㄴ. 누렁-+-어→누레, 퍼렁-+-어→퍼레
 ㄷ. 저렁-+-어→저래, 그렁-+-어→그래
 ㄹ. 노랑-+-네→노랑네/노라네, 파랑-+-네→파랑네/파라네

‘노랑-/누렁-’은 모음 조화에 따라 활용한다는 “표준어 모음(1990)”의 설명에 따라 ‘노래, 누레’가 규범적인 활용형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공시적으로 모음 조화의 적용과 같은 문법적인 규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이와 달리 역사적인 소급형이 ‘노라ㅎ-’, ‘누러ㅎ-’라는 점을 들어 ‘노래, 누레’가 옳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또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공시적으로는 표준 발음이 [노래], [누레]인지 여부가 직접적인 기준일 수밖에 없다.¹¹⁾

의문형 어미 ‘-니/-으니’도 규범적인 기준에 따라 활용형이 결정된다.

- (18) ㄱ. -니「어미」(‘(이)다’의 어간이나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물음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냐’에 비하여 좀 더 친밀하고 부드럽게 이르는 느낌을 준다. ♣ 아버님은 어디 갔다 오시니?/너는 밥을 먹었니?
 ㄴ. -으니「어미」(‘(르)을 제외한 받침 있는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물음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으냐’에 비하여 좀 더 친밀하고 부드럽게 이르는 느낌을 준다.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으니?/책이 그렇게 많으니?

위의 설명에 따르면 형용사일 때는 ‘너도 가을이 좋니?/좋으니?’가 모두 가능하다. 그렇지만 동사일 때는 ‘너도 밥을 먹니?’는 가능하지만 ‘너도 밥을 먹으니?’는 불가능하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아

11) 국립국어원(2000)에 따르면 서울 방언에서 ‘누레지다’는 “nu:rEjida, nurejida, nurejɔt'a”로 실현된다. 이에 따르면 ‘누레’보다는 ‘누레’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노랑네/노라네’를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처럼 ‘노래/누래’도 모두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래와 같다.

(19)

동사	받침 없음	-니	철수가 빨리 달리니?(←달리--+니)
	받침 있음		철수가 책을 읽니?(←읽--+니)
형용사	받침 없음		꽃이 예쁘니?(←예쁘--+니)
	받침 있음	-니/-으니	너도 좋니/좋으니?(←좋--+니/좋--+으니)

형용사의 경우 ‘좋니/좋으니?’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좋니?’를 널리 쓴다는 사실에, 역사적인 사실까지 고려한 것이다. ‘-니’는 역사적으로는 ‘*-늑니>*-늑>-니’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늑니’는 앞에 ‘으’가 나타나지 않는다. ‘먹니?’는 가능하지만 ‘먹으니?’가 불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늑니’는 처음에는 동사와만 결합하다가 형용사까지 영역이 확대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받침의 유무와 관계없이 연결되던 ‘-니’가 받침이 있을 때는 ‘-으니’가 연결되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국어사전에서 ‘미우니?’만 인정했던 것도 여기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 규정 제26항에서는 ‘이에요/이에요’를 복수 표준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요/이에요’에서 ‘이-’는 서술격 조사이다. 그러므로 명사 다음에 연결될 때는 ‘이에요’가 온전하게 나타난다. 받침이 없을 경우에는 ‘예요’로 축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 ㄱ. 연필이에요 → *연필예요

ㄴ. 지우개이에요 → 지우개예요

그런데 (20ㄴ)에서 ‘이에요’는 ‘이’와 ‘에’가 축약되어 ‘예요’가 될 수 있지만 ‘이’가 탈락하여 ‘에요’가 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21) ㄱ. 밖에 누구예요?

ㄴ. 밖에 누구예요?

언어 현실에서는 [누구예요]가 [누구예요] 못지 않게 널리 쓰이고 있다. 더욱이 서술격 조사 ‘이’는 받침 없는 체언 다음에서 탈락하는 것이 가능하다.(이 동물이 소이다/소다)

그렇지만 이때는 축약이 일어나는 것으로 기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요’와 복수 표준어로 제시된 ‘이에요’의 경우, ‘누구이에요’에서 ‘누구예요’로 축약이 일어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누구어요’로 탈락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요/이에요’가 복수 표준어라는 것은 규범적인 해석 또한 평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¹²⁾

3.

규범 문법에서 국어의 활용은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현상이라고 정의된다.¹³⁾

12) ‘그것은 지우개이었다’에서 ‘이었다→였다’가 되는 것처럼 ‘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연결될 때는 탈락보다는 축약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13) 이러한 기술은 일반적인 논의와 거의 유사하다. 예를 들어 송철의(1995:274)에서는 활용을 ‘어간에 어미가 결합되어 활용형을 형성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는데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22) ㄱ. 어간에 여러 어미가 결합하는 현상(교육인적자원부 2002 ㄱ)

- ㄴ. 용언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변하는 말이 붙어 문장의 성격을 바꿈. 또는 그런 일. 국어에서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의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붙는 형태를 이르는데, 이로써 시제·서법 따위를 나타낸다.(표준국어대사전, 2008)

활용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모두 ‘어간’과 ‘어미’의 개념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어간’을 용언의 활용과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기술하고 있다.

(23) ㄱ.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천재교육, 2012)

- ㄴ. 용언이 문장에서 사용될 때 나타나는 여러 형태에서 형태가 고정된 부분.(지학사, 2012)
- ㄷ. 용언이 문장에서 쓰일 때 고정된 부분.(교육인적자원부 2002 ㄱ)

즉 활용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것이고 그때 형태가 고정되거나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부분은 ‘어미’가 된다. 그런데 형태가 ‘고정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형태가 고정되었다는 것은 아래와 같이 한 가지 형태만이 쓰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4) ㄱ. 잡-고, 잡-아, 잡-으니, 잡-는 ……

- ㄴ. 벗-고, 벗-어, 벗-으니, 벗-는 ……

ㄷ. 가-고, 가(←가-아), 가니(←가-으니), 가-는 ……

그런데 (24)에서 형태가 고정되는 것은 표기를 기준으로 할 때다. 발음을 기준으로 하면 어간과 어미는 변화가 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명시하지 않고 정의하는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즉 표기는 한 가지이지만 실제로 실현되는 형태는 한 가지가 아니므로 변하지 않거나 고정된 부분이 어간이라는 정의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규범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먼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것이 활용이고, 활용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라면 ‘변한다’의 기준이 필요하다. 예들 들어 ‘가-니, 가-고, 가-며’에서 변하지 않은 부분은 ‘가-’이고 변하는 부분은 ‘-니, -고, -며’라면 ‘가-니’에서 ‘-니’는 무엇이 변한 것인가? 변했다는 것은 변화의 전후가 존재한다는 말인데 도대체 변하기 전은 무엇이고 변한 후에는 무엇일까?

학교 문법에서 체언과 조사의 결합과 어간과 어미의 결합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 다루어진다. 어미와 조사는 둘 다 비자립적인 존재이므로 단독으로 분리가 되기 어려운 존재이다. 조사와 어미의 가장 큰 차이는 상대적인 분리 가능성이다. 조사와 어미는 비자립적이라는 면에서는 마찬가지로지만 조사는 체언이 독립적이므로 어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분리성이 있다. 즉 ‘밥-을, 밥-이’에서 ‘을, 이’는 비자립적이지만 ‘밥’은 자립적이다. “무엇을 먹어?”라는 물음에 “밥”이라는 대답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어간과 어미는 개념적으로 독립적일 뿐이지 실제로 어간과 어미가 분리되어 자립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다. 한국어 화자 누구도 ‘가-’와 ‘-고’를 독립적으로 사용해 본 경험은 없다. 이는 어간과 어미가 분리되기 어려운 하나의 단위라는 전제를 담고 있다. ‘가-고’를 ‘가-’, ‘-고’로 분석하는 것은 개념적인 것이지 경험적인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어미의 지위는 조사와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문법에서 조사를 단어로 취급하는 것은 조사의 분리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어미를 단어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어미의 분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고, 가니, 가며’에는 하나의 단위라는 전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단위라면 어미가 변화한다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가고’가 ‘가니’가 되고 ‘가니’가 ‘가고’가 되는 것은 변화 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 논리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어간과 어미의 정의, 활용의 정의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여기에는 어미의 문법적 지위와 어간과 어미를 하나의 단위로 다루는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규범 문법에서는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은 고정되고 어미가 교체되며, 어미는 모든 어간에 공통되는 형식으로 결합한다고 전제한다.¹⁴⁾ 따라서 어간이 변화하거나 어미가 예외적인 형태로 결합하는 경우에는 불규칙 활용이 된다. 아래와 같은 ‘-거라’ 불규칙도 이러한 정의에 따른 것이다.

(25) ㄱ. 가거라, 자거라, 있거라

ㄴ. 오너라

그렇지만 ‘-거라’ 불규칙과 같이 특정한 용언의 명령형 어미로 ‘-거라’가 선택되는 것을 불규칙으로 기술해야 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것이 불규칙이라면 서술격 조사와 ‘아니-’ 다음에 ‘-어요’ 대신에 ‘-에요’가 결합하는 현상도 불규칙이라고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미가 변화하는 경우는 어미의 결합 제약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 방법일 가능성이 높다.¹⁵⁾ (한수정 2014:19)

어간을 어미가 결합하는 부분으로 정의하는 것과 관련하여 규범 문법에서는 어간에 결합하는 어미를 ‘파생 접사’에 상대되는 ‘굴절 접사’로 파악하여 ‘접사’라는 공통 분모로 묶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26)

치-	숫-	-다
파생 접사	어근	굴절 접사

 (교육인적자원부 2002 ㄱ:83)

그런데 어미를 굴절 접사로 파악하는 것은 ‘어간’의 개념이 유효한 이상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굴절 접사를 설정한 것은 ‘숫-’이 어근이므로 ‘-다’를 어미라고 하면 어근에 어미가 결합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석은 다분히 일차원적이다. 어미 ‘-다’는 어근 ‘숫-’에 결합한 것이 아니라 어간 ‘치숫-’에 결합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기술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27)

치-	숫-	-다
파생 접사	어근	굴절 접사
어간		어미

어미를 굴절 접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법 기술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 현재의 규범 문법에서 ‘먹다, 먹보’의 ‘먹-’을 각각 ‘어간’, ‘어근’으로 이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개념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이는 마치 ‘문장’과 ‘절’의 관계에서 안기지 않은 ‘단문’을 ‘절’이라고 하지 않고 안긴 단문

14) 한글 맞춤법 제18항의 해설에서 그러한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15) 최근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더 이상 ‘거라 불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거라’ 항목의 뜻풀이를 통해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결합하는 어간의 제약이 없으며 ‘-어라’보다 예스러운 의미가 있다고 내용을 변경하였다. (국립국어원 사전 3/4분기 수정 2014. 11. 10.) 이러한 변화는 《표준국어대사전》이 현재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규범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에 대해 ‘절’을 사용하는 태도와 비슷하다. 따라서 동일한 형태소이지만 단어 형성 과정에서는 ‘어근’이고 온전한 단어로 사용될 때는 ‘어간’이라는 학교 문법의 구분은 유효하며 어근을 위해 어미를 굴절 접사로 대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활용과 단어 형성을 구분하는 데에는 ‘어간’과 ‘어근’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¹⁶⁾

5.

16) 사전 표제어로 제시된 ‘먹다’의 ‘먹-’은 어근인가, 어간인가 하는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규범적으로는 어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표제어 ‘먹다’는 자음 어미와 결합한 형태를 대표한다. 활용형으로 ‘먹어, 먹으니’만을 제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의 ‘먹다’에서는 어간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참고 문헌

- 고영근(1983), 「국어문법의 연구」, 탑출판사.
- 고영근(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교육인적자원부(2002ㄱ),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2ㄴ), 「문법(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 구본관(2008), 맞춤법 교육 내용 연구 「국어교육」(국어교육학회) 127. 195~232.
- 국립국어연구원(2000ㄱ) 《표준국어대사전》편찬 지침 I. II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2000ㄴ)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 II,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원(2005ㄱ), 「한국어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 국립국어원(2005ㄴ), 「한국어문법2」. 커뮤니케이션북스
- 국어연구소(1988), 「한글 맞춤법 해설」. 서울: 국어연구소.
- 권재일(2000), 한국어 교육을 위한 표준 문법의 개발 방향, 새국어생활 10-2.
- 김 현(2003), 음운 규칙과 형태음운규칙의 구분에 대하여, 국어교육12
- 김광해 외(2000), 「국어지식 탐구」, 박이정.
- 김영희(2005), 「한국어 통사현상의 의의」, 역락.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 형성과 단어 구조 연구」. 서울: 태학사.
- 남기심(2001),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 남기심(편)(1993), 「국어 조사의 용법」, 서광학술자료사.
- 남기심·고영근(1985/1993),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 민현식(1999), 「국어 문법 연구」, 역락.
- 배주채(1996), 「국어 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 송철의(1995), 곡용과 활용의 불규칙에 대하여, 「진단학보」(진단학회) 80. 273~16.
- 송철의(1996), 형태론과 음운론, 「국어학」(국어학회) 35. 8~16.
- 시정곤(2006), 「현대국어 통사론의 연구」, 월인.
- 안병희(1988), 한글 맞춤법의 역사, 「국어생활」(국어연구소) 13. 국어연구소. 8~16.
- 유현경 외(2011), 「한국어 통사론의 현상과 이론」, 태학사.
- 윤석민(2000), 「현대국어의 문장 종결법 연구」, 집문당.
- 이관규(2002), 「학교문법론(개정판)」, 월인.
- 이선웅(2006), 제7차 교육과정의 문법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검토, 「어문연구」(한국어문교육연구회) 131, 447~472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이선웅(2014),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총론, 「국어학」(국어학회) 69. 167-205.
- 이익섭(1992), 「국어 표기법 연구」. 서울대출판부
- 이익섭·임흥빈(1992), 「국어 문법론 연구」. 학연사
- 이익섭·채 완(1999),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진호(2012),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아카넷.
- 이진호(2015), ‘불규칙’의 개념과 용법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학연구」 제36. 457-476.
- 이혁화(2002), 교체에 대하여, 「형태론」(형태론학회) 4-1, 249~277
- 이현희(1989), 한글의 운용과 한글 맞춤법 「문학과 사회」(문학과지성사) 제2권 2호. 776-790.
- 이현희(1993), 한글 맞춤법의 성립 과정 「주시경학보」(주시경연구소) 12. 174~184.

- 이홍식(2000),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월인.
- 이희승·안병희(1989), 「한글 맞춤법 강의」. 서울: 신구문화사.
- 임동훈(2000), 「한국어 어미 ‘-시-’의 문법」. 태학사.
- 임동훈(2006), 현대 국어 경어법의 체계, 「국어학」(국어학회) 47. 287~319.
-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장윤희(2005), 현대 국어 문법 요소와 통시적 정보, 「국어학」(국어학회) 45. 313~336.
- 정희창(2000),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된 어문 규범의 원리와 실제, 「새국어생활」(국립국어연구원) 10권 1호. 41~54.
- 정희창(2010ㄱ), 규범, 사전, 문법의 관계와 내용 구성, 「한국어학」(한국어학회) 47. 235~260.
- 정희창(2010ㄴ), 돼-’표기의 역사적 해석, 「한국어학」(한국어학회) 49. 389~403.
- 정희창(2011ㄱ), 한글 맞춤법의 ‘역사적 표기법’과 교육 내용 구성, 「문법교육」(한국문법교육학회) 14. 99~122.
- 정희창(2011ㄴ), ‘부딪치다’와 ‘부딪히다’의 표기와 문법, 「대동문화연구」(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75. 479~496.
- 정희창(2013), 국어 표기법의 문법적 해석, 「반교어문연구」(반교어문학회) 34. 35~50.
- 정희창(2014), 국어 문법론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국어학」(국어학회) 69. 233~254.
- 최현배(196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최형용(2002), 어근과 어기에 대하여, 「형태론」 4-2.
- 최호철 외(2009), 「국어 문법 교과서 연구」, 제이앤씨.
- 한수정(2014), 「불규칙 활용의 활용형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 허 웅(1983), 「국어학」, 샘문화사.
- 허 웅(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 허 웅(2000), 「20세기 우리말 형태론」, 샘문화사.

■ 토론

“규범적 관점의 문법 연구와 쟁점”에 대한 토론문

박동근(대진대)

본 연구는 한국어의 규범 문법을 이루는 세 축으로 고등학교 문법, 표준국어대사전, 어문규범을 들고 이를 통해 규범 문법의 쟁점과 한계 및 대안을 통찰력 있게 분석·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문제 제기와 다양하고 흥미로운 해석에 대부분 동감하는 바이나 혹시 다른 해석의 가능한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연구는 논의를 위해 규범 문법 간의 차이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세 규범이 갖는 태생적인 기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학교 문법서가 원리 교육을 목표로하는 원론서라면 ‘어문 규범’은 대중을 대상으로 표준적인 언어 사용의 지침을 제시하는 선언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되어/돼’, ‘푸어/퍼’ 같은 설명에서 통시적 사실을 건너 뛴 조문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어문 규범으로서 수용 가능한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21)에서 ‘이예요’는 ‘이’와 ‘에’가 축약되어 ‘예요’가 될 수 있지만 ‘이’가 탈락하여 ‘에요’가 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 | | |
|--------|---|----------------|
| 누구-이예요 | - | 누구예요 (축약) |
| | - | 누구에요 (탈락) → 축약 |
| 누구-이어요 | - | 누구여요 (축약) |
| | - | *누구어요 (탈락) |

그런데 복수표준어인 ‘어요’의 경우 ‘누구어요’와 같은 탈락이 일어나지 않으며, ‘이예요/이어요’가 복수 표준어라는 점에서 규범적인 해석 또한 평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누구예요’도 **축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이다/소다’와 같이 ‘이’ 탈락이 언어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규범적 평행성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어 경험상 다음과 같은 과정이 사실에 더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 | | | | | |
|--------|---|--------|---|------|
| 누구-이예요 | → | 누구예요 | → | 누구어요 |
| (축약) | | (단모음화) | | |

셋째, 어미를 굴곡접사로 파악하는 것은 ‘어간’의 개념이 유효한 상황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시한 것도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 (1)

치-	-	솟-	-
파생 접사	어간	어근	어미

-다	-
굴절 접사	어미

그런데 ‘굴곡접사’를 폐지한 (1)과 같은 구조를 고려하면 접사에 대한 규범 문법의 기존 해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과 같은 발표자의 해석에 따른다면 ‘반짝거리다’는 (2)와 같은 기존의 구조 분석에서 (3)과 같은 구조로 재해석됩니다.

- (2)

반짝-	-	거리-	-	다-
어근	파생접사	어간	어미	어미

- (3)

[반짝-	-대-]	-	다-
어근	파생접사	어간	어미

굴곡접사	어미
------	----

그러나 (3)과 같이 분석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반짝대다’의 어형성 과정이 ‘어간’인 ‘반짝대-’에 어미 ‘-다’가 결합했다고 보기보다는 ‘반짝’에 ‘대다’가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 (4)

[반짝]	#	[-대-	-다]
어근		파생접사	어미

그렇다면 다시 (4)와 같이 발표자께서 별로 만족해 해 하지 않으실 것 같지 않은 구조가 그려집니다. 이에 토론자는 형태소 단위로 규정되어 있는 접사 범주를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어떤지 발표자의 견해를 구합니다.

- (4)

[반짝]	#	[-대 - 다]
		어간 + 어미

어근	파생접사
----	------

덧붙여, ‘보여지다’와 같은 이중 피동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술하는 하는 것이 문법적인 것인지 규범적인 것인지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법적이나 규범적인 문제가 아니라 좋거나 나쁨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머리말

이전 시대 국어에 대한 회고적 연구 및 이후 시대 국어에 대한 전망적 연구가 모두 중세국어를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은 국어 연구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세국어가 지니는 이러한 특수성은 또한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중세국어를 통해 알고 있게 된 사실들을 간과할 수 없도록 만든다.

특히 중세국어의 문법을 연구해 온 경험은 우리가 언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객관적인 안목을 갖도록 해 주었다. 또한 우리에게 중세국어의 구조주의 언어학의 유용한 방법론들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해 준 소중한 언어 자산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해 주었다. 중세국어를 연구하며 우리는 언어 연구의 묘미를 맛보았고 이를 통해 국어 연구가 체계적인 학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본고는 이러한 중세국어 문법 연구를 대상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전망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세국어 연구의 역사가 약 100년 가까이 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이전의 연구들을 되돌아보고 보다 발전된 연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작업은 국어 문법 연구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 보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다.

2. 중세국어 문법 연구의 쟁점과 성과

2.1. 연구 쟁점의 개관

1920년대 일본인 학자들의 한글 고전 주석에서부터 시작된 중세국어 문법 연구는 어느덧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고전에 등장하는 어구들에 대한 어학적 이해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문법 설명을 필요로 했는데, 이러한 필요가 중세국어의 문법 체계를 세우고 이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도록 하는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게 하였다.¹⁾

그동안 중세국어 문법 연구의 쟁점은 시대별로 당시 언어학의 흐름과 국내의 학문적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그 중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주요 쟁점으로서 학자들 사이에 진지하고도 치열한 논의가 펼쳐져 온 것으로 언급해 볼 수 있겠다.

- (1) ㄱ. 선어말어미 ‘-술-’
 ㄴ. 선어말어미 ‘-오-’
 ㄷ. 선어말어미 ‘-으시-’
 ㄹ. 의문법 어말어미 ‘-잇가, -잇고’, 보조사 ‘-가, -고’

(1ㄱ)은 그 기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화계 체계, 문법범주, 통합순서 등의 변동 및 융합형 어미의 형성, 이형태와 그 변화, 화용론적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²⁾ 이 중 중세국어의 문

1) 중세국어 문법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고영근(2010:51-55) 참조.

법과 관련해서는 그 기능에 대해 주체겸양설(안병희)과 객체존대설(허웅)이 대립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주체의 ‘겸양’인지 객체에 대한 ‘존대’(혹은 ‘높임’)인지를 논하는 것은 마치 시소에서 어느 한 쪽이 내려간 것인지 올라간 것인지를 따지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³⁾

(1ㄴ)은 이른바 인칭대상활용설(허웅)과 의도법설(이승녕)로 대표되는 뜨거운 논쟁을 통해 쟁점화된 주제이다. 종결형과 연결형, 명사형과 관형사형과 같은 문장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선어말어미뿐 만 아니라 ‘-오디, -오려, -옴’ 등 일련의 어말어미들까지 포함해 그 기능과 변화 양상 등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주제와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⁴⁾

(1ㄷ)은 그 기능과 관련해 주체높임을 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형태가 ‘샤’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그것의 이형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먼저 ‘-시~샤-’와 같이 이 두 형태를 이형태 관계로 파악해 전자는 자음 어미 앞에서, 후자는 모음 어미 앞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 있다.⁵⁾ 또 다른 입장은 ‘샤’를 ‘시’와 ‘아’의 축약형으로 보고 주체높임을 나타내는 형태는 ‘시’이며 ‘아’는 그 뒤에 나타나는 어미들의 이형태 첫 부분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⁶⁾ 두 입장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데,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의 제시가 과제로 남아 있다.⁷⁾

(1ㄹ)은 이른바 ‘가’형과 ‘고’형 형태의 이형태교체와 관련해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이다. 두 형태의 선택이 문장에서 의문사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를 ‘통사론적으로 조건된 교체’라는 입장(김유범)에 대해, 이러한 유형의 교체란 인정할 수 없으며 이 둘은 각기 다른 형태소라고 주장하는 입장(고영근)이 맞았다. 이후 교체의 유형과 관련해 ‘통사론적 교체’의 인정 여부를 두고 일련의 논의들이 이어졌는데,⁸⁾ 일반언어학의 형태론 이론과 관련해 앞으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⁹⁾

이 밖에도 중세국어 문법 연구와 관련해 논쟁을 불러일으킨 여러 주제들이 있으나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음이 아쉽다. 다음 절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중세국어 문법 연구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2. 연구 성과의 회고

중세국어가 국어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처럼 국어사 연구에서도 중세국어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다는 것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중세국어 연구의 성과는

2) 선어말어미 ‘-술-’의 연구 성과와 쟁점에 대해서는 김현주(2014) 참조.

3) 한편, 고영근(2010)에서는 ‘높임법’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이희승(1949)의 ‘공대법’이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또한 선어말어미 ‘-시-’와 ‘-습-’에 대해 각각 ‘주체높임법’과 ‘객체높임법’ 대신 ‘존경법’과 ‘겸손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4) 선어말어미 ‘-오-’에 대한 최근의 연구사적 논의인 석주연(2014)에서는 [1] 일원적 접근 대 다원적 접근, [2] 1인칭과 화자, [3] 일반언어학적 타당성 및 언어유형론적 증거, [4] 명사구 보문과 관계절에서의 ‘-오-’와 같이 그 쟁점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 바 있다.

5) 이러한 입장은 허웅(1958)을 시작으로 안병희(1963), 허웅(1975), 고영근(1987, 1997, 2010)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6) 이러한 입장은 임흥빈(1980), 김종규(1986, 1989), 김석득(1992), 임동훈(1994), 이정복(1996), 이승재(2000), 김유범(2001ㄴ, 2008ㄱ), 정수현(2013)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7) 전자는 ‘-샤-’ 뒤의 모음 형태가 제로화된다는 점을, 후자는 ‘샤’로의 축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박재연(2010), 이홍식(2012), 이선웅(2012), 이진호(2015) 등의 논의가 그 예이다.

9) 최근 이지영(2016)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통사론적 조건에 관한 논란은 문법사 연구의 결과가 이론 내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학계의 논쟁을 가져 온 보기 드문 예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어 문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그 깊이를 더하는 데 공헌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 몇몇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중세국어 문법 연구의 성과를 간략히 회고해 보고자 한다.¹⁰⁾

이제까지의 중세국어 문법 연구의 성과들 중 국어 문법 연구에서 필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 추려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ㄱ. 관형격조사 ‘-스’, ‘-이/의’에 대한 연구

- ㄴ. 선어말어미 ‘-거-’, ‘-어-’에 대한 연구¹¹⁾
- ㄷ. 이완합성어와 긴밀합성어에 대한 연구
- ㄹ. 어말어미 ‘-ㄴ다마다’에 대한 연구
- ㅁ. 형용사의 동사성에 대한 연구

(2ㄱ)의 경우 중세국어에서 두 유형의 관형격조사 ‘-스’와 ‘-이/의’의 쓰임에 대해 전자는 무정 체언이나 존칭의 유정 체언에, 후자는 평칭의 유정 체언에 결합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안병희 1968)이다. 이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¹²⁾ 이 두 유형의 관형격조사의 쓰임에 대해 대체적인 경향을 제시한 점, 그리고 그것이 ‘존칭’ 대 ‘평칭’, ‘무정’ 대 ‘유정’이라는 국어 화자들이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범주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 성과로 생각된다.

(2ㄴ)과 관련해서는 선어말어미 ‘-거-’와 ‘-어-’의 교체 조건을 타동성(transitivity) 여부에 두어 설명한 견해(고영근 1980)가 주목된다. 그동안 이들 선어말어미의 기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분분했는데,¹³⁾ 그 기능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해당 형태들의 교체 조건을 밝힌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된다. 이 견해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과¹⁴⁾ 더불어 언어유형론적으로 타동성에 의한 이형태교체의 양상들을 살펴 이러한 교체가 언어학적으로 일반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2ㄷ)은 중세국어 합성어에 대한 음운론적 관찰을 통해 얻은 성과로서 합성어를 이루는 직접성분(IC) 간의 긴밀성을 고려하여 ‘이완합성어’와 ‘긴밀합성어’라는 두 유형의 합성어를 구분하는 견해(이

10) 그동안의 중세국어 문법 연구의 성과는 중세국어 문법서인 이승녕(1961/81), 허웅(1975), 최범훈(1980), 고영근(1987/1997/2010), 안병희·이광호(1990), 조세용(1994), 김동소(2002), 강규선·황경수(2003) 등에 집약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본고에서는 개별 주제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1) 여기에는 선어말어미 ‘-거-’와 ‘-어-’는 물론 이와 관련된 어말어미들, 즉 ‘-거늘’과 ‘-어늘’, ‘-거든’과 ‘-어든’ 등의 논의가 함께 포함된다.

12) 이승녕(1981)은 『월인석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짙지만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불경언해에서는 그런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는 사용 빈도가 높은 어사에는 ‘-스’이, 빈도가 낮은 추상적이고 어려운 철학적 용어에는 ‘-이, -의’가 붙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13) 기존 연구들에서는 “강조, 과거, 완료, 확정법(기정법), 강조-영탄법, 대상성, 확인법, 장면 상징, 기준 시점 관여성” 등 다양한 기능들이 제시되었다. 선어말어미 ‘-거-’의 연구 성과와 쟁점에 대해서는 이병기(2014) 참조.

14) 자동사 구문임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활용형에 타동사 표지 ‘어’가 나타나는 예들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먼저 고영근(2010:47)에서 설명한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자.

(3) 구루미 비취여늘 (용비어천가, 42장)

그러나 동작주 ‘하늘ㅎ’을 설정하면 이 구문이 타동사 구문으로 해석되고 타동사 표지를 취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구문을 능격문이라고 한다. 현대국어에도 ‘아기의 울음이 그쳤다’와 같이 이런 구성이 나타나는 일이 없지 않으나 중세국어와 같이 활용형에 타동사 표지가 나타나는 일은 없다.

동사의 능격성에 기댄 이와 같은 설명이 과연 피동사 ‘물이다’에 타동사 표지 ‘어’가 나타난 다음의 예문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산형 갔다가 범 물여늘 가 자보려 하니 (삼강행실도·초간 효자:32a)

물웃 비얌 물여늘 비야미라 니르디 아니호고 (구급방언해 하:73b)

현희 1991)이다. 이처럼 ‘이완(弛緩)’과 ‘긴밀(緊密)’이라는 개념으로 합성어를 바라봄으로써 ‘굴가마괴’와 ‘굴아마괴’처럼 동일한 합성어에서 음운 현상 적용의 차이를 보이는 예들에 대한 적절한 형태론적 설명이 가능해진다. 실제 자료에 나타나는 합성어들의 출현 시기와 두 유형의 합성어로의 구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두 개 이상의 음운 현상이 나타날 때 음운 현상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은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2ㄷ)의 경우 중세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연결어미 ‘-ㄴ다마다’의 정확한 의미와 그 기원적인 형태론적 구성을 밝힌 견해(김유범 2001ㄱ, 2003ㄱ)이다. 아직까지도 고어사전 및 중세국어 문법서들에서 “~하자마자”의 의미로 풀이되어 있는 ‘-ㄴ다마다’에 대해 이것이 사용된 문헌들의 모든 예들을 한문 원문과 비교·검토하고 관련 이본들의 대응 예들까지 살펴봄으로써 중세국어 공시적으로 가능한 연구 방법론을 모두 사용했다. 또한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15세기 이전 차차표기 자료에 대한 고찰을 통해 ‘-ㄴ다마다’ 속의 ‘다’가 시간성 의존명사라는 사실을 논증했다. 비록 이 논의는 하나의 중세국어 어미 형태에 대한 천착에 불과하지만 중세국어 문법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과 언어 연구에서 통시적 연구가 지닌 가치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ㄹ)은 중세국어 형용사가 지닌 동사성을 체계적으로 살핀 견해(이영경 2003ㄱㄴ)이다. 중세국어 형용사들이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ㄴ-’와, “의도”의 ‘-고져, -과려, -오려’ 등의 연결어미 및 명령형 어미와 결합하거나 ‘말다, 가다’와 같은 보조 동사와 연결 구성을 이루는 점, 그리고 ‘漸漸, 나날, 절로, 도로, 곧’ 등 주로 동사를 수식하는 양태 부사와 함께 쓰여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국어의 용언들이 동사와 형용사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고 중세국어 당시에 형용사가 상당히 동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언급된 내용 외에 중세국어 문법에 대한 여러 연구 성과들을 언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하지 못한 부분들은 새로이 보완할 것을 계획하며 앞으로의 중세국어 문법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지 장을 달리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3. 중세국어 문법 연구의 방향 모색

3.1. 음운론적 기반과 문법 연구

중세국어 문법을 다룬 저서들을 보면 대부분 중세국어의 음운론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문법이 형태론과 통사론을 다룬다고 볼 때 음운론을 함께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듯이 보이지만, 음운론이 문법론과 맺고 있는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조치가 현명한 일임을 깨닫게 된다. 특히 중세국어 문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전술된 음운론의 내용이 후술된 문법론과 적절한 연계성을 맺지 못하는 경우이다. 특히 기술 대상 언어의 음운 체계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일관된 적용의 실패는 문법론의 내용을 그릇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 (3) ㄱ. 구조언어학이나 생성음운론에 기울어진 사람들은 어간의 기본형태를 ‘짓-’으로 잡아 그것이 자음어미 앞에서 ‘짓-’으로 바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현대국어문법의 처리에 따라 ‘ㅅ’ 불규칙활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 (중략) … 구조언어학이나 생성음운론에 기울어진 사람들은 어간의 기본형태를 ‘덜-’으로 잡고 자음어미 앞에서 ‘덜-’으로 바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ㅂ’

15) 중세국어 합성어의 긴밀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음운론적 고찰은 이진호(2003) 참조.

가 ‘ㅃ’로 교체되는 것을 현대국어문법의 처리에 맞추어 ‘ㅃ’불규칙활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고영근 2010:129-131)

- ㄴ. 중세국어 시기에 ‘ㄷ-’, ‘ㅈ-’의 기본형을 모음 어미 앞의 형태를 취해 ‘ㄷ-’, ‘ㅈ-’으로 하고 현대국어 시기에는 그 기본형을 자음 어미 앞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두 시기 국어의 음소 체계 차이에 따른 교체 양상의 상이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사용해 어간의 기본형을 설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진호 1999:372)

(3ㄴ)은 (3ㄱ)과 같은 방식의 문법 기술이 지닌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중세국어 음운 체계에 /ㅃ/과 /ㄷ/을 인정하는 기존 연구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3ㄱ)의 입장에서¹⁶⁾ 정작 용언 어간의 기본형태는 /ㅃ/과 /ㄷ/을 가진 형태로 잡는 것은 음운론과 문법론의 내용이 연계성을 지니지 못하는 모순된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 중세국어 음운 체계에 /ㅃ/과 /ㄷ/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어의 기본형태에서 이들 음운이 필수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하므로 이를 반영해 문법 내용을 기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 밖에도 ‘ㄱ’과 관련이 있는 형태소가 관여하는 ‘놀애(←놀개), 알어늘(←알거늘), ㄷ외오(←ㄷ외고)’ 등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앗을(←아스울), 붓아(←부스아), 글어(←그르어)’와 같은 경우들도 후두유성음 ‘ㅇ’이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 역시 중세국어 음운론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문법 내용을 단순하게 기술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후두유성음 ‘ㅇ’이 ‘ㄱ’의 약화로 인해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음운론적 설명은 ‘ㄱ’ 형태와 관계없는 조사나 어미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후두유성음 ‘ㅇ’에 대해 충분한 형태음운론적 설명이 가능해야 합리적인 문법 내용의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연구자들 사이에는 문법 연구와 음운 연구가 별개인 것으로 생각하는 통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학의 각 영역들은 나름대로의 독자성도 지니고 있지만, 언어를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역 간의 긴밀한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김유범 2012). 중세국어 문법 연구도 중세국어 음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려가 동반될 때 보다 설득력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역시 자명한 사실이다.

3.2. 통시적 정보와 문법 연구

중세국어 문법 연구가 기본적으로 공시론적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연구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다음은 중세국어 문법 연구에서 공시론적 관점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 (4) 지나간 시대의 문법구조를 밝히는 데 있어서 우리는 흔히 앞뒤 시기의 문법사적 흐름과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태도를 지니게 된다. 문법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태도를 지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특정 시기의 문법구조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문법사적 사고에 크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한 시대의 문법의 공시태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공시적 문법규칙과 통시적인 문법규칙이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통시적 문법규칙이 공시적인 문법규칙에 우선해서도 안 된다. 적어도 중세국어의 공시문법을 엮는 마당에 있어서는 공시적 문법규칙의 탐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올바르게 확립되어 있어야만 통시문법도 합리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영근 2010:55)

16) 만약 /ㅃ/과 /ㄷ/을 중세국어의 음운으로 보지 않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어디에선가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했다.

(4)에서 언급한 대로 특정 시대의 언어를 연구함에 있어 그 공시대를 밝히고 공시적인 문법규칙을 찾는 일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공시적 관점만의 강조는 특정 시대의 언어가 지니고 있는 참다운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가령 현대국어에 대한 연구를 공시적 관점에서만 진행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5) ㄱ. 반의관계에 놓인 단어들의 이해

: ‘공식’과 ‘비공식’, ‘다정하다’와 ‘비정하다’, ‘싸다’와 ‘비싸다’

ㄴ. ‘옛’이 들어간 합성어들의 이해

: 귀엣말, 눈엣가시, 몸엣것, 소금엣밥, 옷엣니, 웃음엣소리, 한솔엣밥

(5ㄱ)은 현대국어에서 반의관계에 놓인 단어들이 어떠한 형태론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공시적 관점으로만 주어진 예들을 관찰해 보면 짝을 이룬 두 단어들이 반의관계를 이루게 되는 요인은 ‘비공식’, ‘비정하다’, ‘비싸다’의 어두 음절에 있는 ‘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이때의 ‘비’는 한자형태소 ‘비(非)’라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5ㄴ)은 공통적으로 ‘옛’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는 현대국어 합성어들의 예이다. ‘옛’의 앞뒤 요소들이 명사라는 점, 이른바 합성어 표지 ‘ㅅ’이 들어 있다는 점, 그리고 ‘옛’의 의미가 대략 ‘~에 있는’ 정도로서 여기에 부사격조사 ‘-에’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관찰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들 합성어들이 [[NP₁에]+ㅅ+[NP₂]]의 구조를 가지며 이 경우 합성어 표지 ‘ㅅ’은 [NP₁에]라는 특이한 선행 요소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¹⁷⁾

철저히 공시적인 관점으로 일관한 이와 같은 설명은 사실상 (5)의 예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것은 (5ㄱ)에서 ‘비싸다’는 중세국어 ‘빔싸다’로부터 왔으며, (5ㄴ)에서 ‘옛’은 부사격조사 ‘-에’ 뒤에 관형격조사 ‘-ㅅ’이 결합할 수 있었던 이전 시대의 통사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사실이 (5)의 예들을 이해할 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⁸⁾

이처럼 공시적 관점만을 고려하는 입장은 어느 한 시대의 공시적 언어 모습을 피상적으로 기술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모습의 소이연이나 본질에 대해서는 결코 제대로 언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중세국어 문법 연구에서도 공시대에 대한 철저한 바탕 위에 통사적 정보를 십분 활용한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중세국어 이전 시기의 국어사 자료에 대한 연구 성과는 중세국어 문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¹⁹⁾ 보다 진전된 중세국어 문법 연구는 이러한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초심으로 돌아가 중세국어 자료 하나하나에 대한 매우 꼼꼼하고 철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²⁰⁾

3.3. 언어유형론과 문법 연구

어떤 언어에서 기술된 문법적 사실이 구체적인 실현 양상에서는 개별성을 보이지만, 근본적인 작동 원리와 원인을 공유하며 다른 언어들에서도 나타난다면 그 기술된 내용은 일반성을 지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언어학의 중요한 흐름인 언어유형론이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17) 물론 이러한 이해와는 달리 ‘옛’ 전체를 또 다른 합성어 표지로 간주해 이들 합성어의 구조를 [[NP₁]+옛+[NP₂]]로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8) (5ㄴ)의 합성어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유범(2011) 참조.

19) 이승재(2000), 김유범(2001ㄱ), 박진호(2003) 등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 준다.

20) 김유범(2005ㄱ), 장윤희(2015) 등에서는 중세국어 자료들에 나타나는 개별적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꼼꼼한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동안의 중세국어 문법 연구는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언어 내적 질서를 기술하는 데 힘을 쏟아 왔다. 이러한 연구는 중세국어의 특수성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을 통해 여러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었는데, 반면 그것이 얼마나 일반성을 지닌 성과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큰 시각에서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 중세국어 문법을 대상으로 한 언어유형론적 연구가 바로 이러한 점을 보완해 줄 수는 있는 방법론으로 보인다. 다음의 연구들은 최근의 흐름을 반영해 언어유형론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중세국어 문법을 연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6) ㄱ.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관계절의 몇 문제(문숙영 2012)
 - ㄴ. 중세국어에서 형용사와 결합하는 ‘-어 잇-’의 상적 의미(박진호 2006)
 - ㄷ.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박진호 2007)
 - ㄹ. 중세국어 관형사형의 ‘-오-’와 고대 한어(漢語) ‘所’와의 상관성 연구(석주연 2015)

(6ㄱ)에서는 중세국어의 기형적 명사문을, (6ㄴ)에서는 중세국어 형용사에 ‘-어 잇-’이 결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적 의미의 일시성과 항구성의 대립을, (6ㄷ)에서는 내포 의문절에 쓰이는 중세국어 의문사 ‘아모’의 용법을, (6ㄹ)에서는 관형사절에 나타나는 중세국어 선어말어미 ‘-오-’가 고대 한어의 허사 ‘所’와 상관성을 보인다는 점을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논의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중세국어에서 특수하게 보이는 현상들을 다른 언어들에서도 찾음으로써 문법 기술 내용에 일반성을 갖추려고 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유형론은 관련 주제에 따라 다양한 언어 자료들을 다룬다. 그러다보니 개별 언어가 지닌 전체적인 모습보다는 부분적인 모습에 천착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이전 시대 역사비교언어학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이른바 ‘원자론적(atomistic) 태도’가 언어유형론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 언어의 특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이 얼마나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가장 가까운 예로 누군가 국어의 예를 언어유형론적 논의에 사용했을 때 그것이 왜 꼭되거나 객관성을 지니지 못한 방식으로 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들이 앞으로 언어유형론에 기대 중세국어 문법 연구에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4. 맺음말

학문의 역사에서 100년이란 시간은 그리 길다고 얘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중세국어라는 특정 시대의 국어를 꾸준히 연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피와 땀을 쏟아 연구해 온 중세국어 연구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지닌 저력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실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끝으로 학문이 개인의 욕심이나 사사로운 감정의 차원을 넘어 순수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건강함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²¹⁾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중세국어 문법 연구가 국어 문법 연구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끈기 있고 유능한 젊은 학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그 연구의 깊이를 더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

21) 이런 차원에서 두 학자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 고매한 인격을 갖춘 원로 학자답지 못한 태도를 보여준 고영근(2011)의 내용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학문은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리이고 그 논의는 어디까지나 학문적인 내용으로만 이루어져야 함은 학문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일 것이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비판적인 논의를 펼쳤다고 하여 자신이 만든 학술지에 사사로운 감정으로 쓰인 글을 게재하는 것은 학술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후대에까지 자신의 치부를 전하는 현명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 과연 자신에 대한 비판이 스스로 말한 대로 ‘상도(常道)를 지키지 못한 궤변’인지는 우리의 후학들이 판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

■ 참고 문헌

- 강규선·황경수(2003), 『중세국어문법론』, 청운.
- 고영근(1980), 중세어의 어미활용에 나타나는 ‘거/어’의 교체에 대하여, 『국어학』 9, 국어학회, 55-99쪽.
- 고영근(1987/199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집문당.
- 고영근(1997), 중세어 높임의 어미 ‘시’와 ‘오’계 어미의 형태론, 『한국어문학론고』(최태영 외), 태학사.
- 고영근(2005), 형태소의 교체와 형태론의 범위 -형태음운론적 교체를 중심으로-, 『국어학』 46, 국어학회, 19-51쪽.
- 고영근(2010), 『표준 중세국어문법론』(제3판), 집문당.
- 고영근(2011), 비판과 답변의 윤리, 『형태론』 13-2, 363-373쪽.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고은숙(2011), 『국어 의문법 어미의 역사적 변천』, 한국문화사.
- 구본관(1996), 중세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1 -중세국어-』, 국립국어연구원, 56-113쪽.
- 김동소(2002), 『중세 한국어 개설』, 한국문화사.
-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 탑출판사.
- 김양진·김유범(2001), 중세국어 ‘이어기, 그어기, 더어기’에 대하여, 『진단학보』 92호, 진단학회, 269-291쪽.
- 김유범(2001ㄱ), 시간성 의존명사 ‘다’를 찾아서, 『형태론』 3-2, 209-229쪽.
- 김유범(2001ㄴ),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와 구결자 ‘ㅅ’의 독법에 대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 이광호교수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565-585쪽.
- 김유범(2002), 설음.치음과 15세기 국어 선어말어미 {-술-}의 이형태교체, 『이중언어학』 20, 이중언어학회, 25-43쪽.
- 김유범(2003ㄱ), 중세국어 ‘-ㄴ다마다’에 대하여, 『새얼어문논집』 15, 새얼어문학회, 263-290쪽.
- 김유범(2003ㄴ),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와 문법화, 『어문논집』 48, 민족어문학회, 39-64쪽.
- 김유범(2005ㄱ), 중세국어 ‘-받-/~왈(월)-’의 형태론과 음운론, 『한국어학』 26, 한국어학회, 25-65쪽.
- 김유범(2005ㄴ), 중세국어 ‘-거지이다’, ‘-거지라’에 대하여, 『새얼어문논집』 17, 새얼어문학회, 285-298쪽.
- 김유범(2006), 형용사 ‘지다’의 형성과 역문법화, 『우리말연구』 18, 우리말학회, 123-141쪽.
- 김유범(2007ㄱ), 문헌어의 음성적 구현을 위한 연구(1) -15세기 문헌자료 언해본 『훈민정음』의 ‘어제서문’을 대상으로-, 『한국어학』 34, 한국어학회, 169-207쪽.
- 김유범(2007ㄴ), 15세기 문헌자료의 특수 분절 표기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연구, 『한말연구』 20, 한말연구학회, 73-99쪽.
- 김유범(2007ㄷ), 『중세국어 문법형태소의 형태론과 음운론』, 월인.
- 김유범(2007ㄹ), 『국어 문법형태소의 역사적 이해』, 박이정.
- 김유범(2008ㄱ), 이형태교체의 조건과 중세국어 이형태교체의 몇 문제,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학회, 201-222쪽.
- 김유범(2008ㄴ), On Syntactically Conditioned Allomorph.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월례발표회 발표문.
- 김유범(2011), 통사성과 합성어의 유형 변화,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119-143쪽.
- 김유범(2012), 고대국어 문법 연구의 회고, 『한국어학』 55, 한국어학회, 41-64쪽.

- 김종규(1986), 중세국어 활용에 나타난 모음충돌 회피현상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1, 서울대국어국문학과, 251-270쪽.
- 김종규(1989), 중세국어 모음의 연결제약과 음운현상, 『國語研究』 90, 국어연구회 90.
- 김현주(2010), 국어 대우법 어미의 형태화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2014), 선어말어미 {-습-}의 연구 성과와 쟁점, 『국어사 연구』 19, 국어사학회, 65-99쪽.
- 문숙영(2012),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관계절의 몇 문제, 『개신어문연구』 35, 개신어문학회, 31-68쪽.
- 박재연(2010), 이형태 교체와 관련한 몇 문제, 『국어학』 58, 국어학회, 129-155쪽.
- 박진호(2003), 중세국어의 부사 파생 접미사 ‘-더/려/다/라’에 대하여, 『형태론』 5-1, 23-30쪽.
- 박진호(2006), 중세국어에서 형용사와 결합하는 ‘-어 잇-’의 상적 의미,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223-238쪽.
- 박진호(2007),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국어학』 50, 국어학회, 115-147쪽.
- 석주연(2014), 선어말어미 ‘-오-’의 연구 성과와 쟁점, 『국어사 연구』 19, 국어사학회, 7-29쪽.
- 석주연(2015), 중세 국어 관형사형의 ‘-오-’와 고대 한어(漢語) ‘所’와의 상관성 연구 -유형론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국어사 연구』 20, 국어사학회, 371-396쪽.
- 안병희(1963), 「즈가」語放, 『국어국문학』 26, 국어국문학회, 201-209쪽.
- 안병희(1968), 중세국어의 속격어미 ‘-스’에 대하여, 『이승녕박사송수기념논총』, 을유문화사. 안병희(1992:47-56)에 재록.
- 안병희(1992), 『국어사 연구』, 문학과지성사.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광호(2015), 『중세국어 문법용어사전』, 역락.
- 이병기(2014), 선어말어미 {-거-}의 연구 성과와 쟁점, 『국어사 연구』 19, 국어사학회, 31-63쪽.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이승녕(1961/81),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 이승재(2000), 존경법 선어말어미 ‘-ㅁ/=[시]-’의 형태음소론적 연구, 『진단학보』 90, 진단학회, 215-237쪽.
- 이승희(2009), 중세국어 ‘NP1앳 NP2’ 구성의 의미 유형에 대한 고찰, 『국어학』 54, 국어학회, 197-223쪽.
- 이승희(2014), 선어말어미 ‘-뫋-’의 연구사와 쟁점, 『국어사 연구』 19, 국어사학회, 101-121쪽.
- 이영경(2003a), 중세국어 형용사 구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영경(2003b), 중세국어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에 관하여, 『형태론』 5-2, 형태론, 273-295쪽.
- 이영경(2007b), 『중세국어 형용사 구문 연구』, 태학사.
- 이정복(1996), 고려가요에 쓰인 형태소 ‘-시-’의 재해석, 『관악어문연구』 21, 관악어문연구회, 267-297쪽.
- 이지영(2016), 한국어 문법사 연구의 현재와 미래, 한국언어학회 창립 4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문.
- 이진호(1999), 중세국어 어간말 유성마찰음의 설정 여부, 『형태론』 1-2, 형태론, 371-376쪽.
- 이진호(2003), 음운론적 시각에서 본 중세국어 합성어의 긴밀성, 『진단학보』 95, 진단학회, 201-228쪽.
- 이진호(2015), 형태소의 교체 조건, 『형태론』 17-1, 형태론, 169-183쪽.
- 이현희(1991), 중세국어의 합성어와 음운론적인 정보, 『석정이승욱선생회갑기념논총』, 서강대 국문과, 315-333쪽.
- 이홍식(2012), 교체의 대상과 조건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 64, 언어과학회, 283-300쪽.

- 이희승(1949), 『초급국어문법』, 박문출판사.
- 임동훈(1994), 중세국어 선어말어미 ‘-시-’의 형태론, 『국어학』 24, 국어학회, 143-172쪽.
- 임홍빈(1980), 선어말 {-오/우-}와 확실성, 『한국학논총』 3,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91-135쪽.
- 장요한(2010), 중세국어 조사 ‘-드려’, ‘-더브러’, ‘-이/스손디’의 문법, 『한민족어문학』 56, 한민족어문학회, 5-43쪽.
- 장요한(2011), 중세국어 접속어미 ‘-디웃’의 문법에 대하여, 『국어학』 61, 국어학회, 389-415쪽.
-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 장윤희(2015), 중세국어 피.사동사 파생법 연구의 성과와 쟁점, 『국어사연구』 21, 국어사학회, 33-68쪽.
- 전정예 엮음(2015), 『선어말어미 ‘-오-’ 연구론』, 박이정.
- 정경재(2015), 한국어 용언 활용 체계의 통시적 변화,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정수현(2011), 선어말어미 ‘-오-’의 기능과 변천,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 정수현(2013), 선어말어미 ‘-오-’의 이형태 고찰, 『겨레어문학』 50, 겨레어문학회, 317-339쪽.
- 조세용(1994), 『중세국어문법론』, 건국대학교출판부.
- 최범훈(1980), 『중세한국어문법론』, 이우출판사.
- 최대희(2010), 17세기 국어의 이름마디 구조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 허 응(1958), 삽입모음고: 15세기 국어의 일인칭 활용과 대상 활용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논문집』 7, 서울대학교, 83-152쪽.
- 허 응(1975),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 문화사.
- Song, J.(ed.)(2011),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Typ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토 론

“중세국어 문법 연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문

김양진(경희대)

※ 별 지

제4부 <제4 분과 발표>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문항 분석

- 한국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

장준영(건국대)

1. 서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교수.학습 향상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말에는 학생을 잘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 교사의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교수.학습에 있어서 교사가 큰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 교사가 한국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어느 정도나 필요할까?²⁾ 그리고 교실 현장에서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한국어 교사가 사용하는 지식은 무엇일까? 이런 맥락에서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 교사³⁾를 선발해야 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⁴⁾의 역할⁵⁾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사가 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학위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비학위과정이 있다. 학위과정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하여 45학점의 필수이수학점⁶⁾ 및 이수시간을 충족한 후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외국어로서의 한국

- 1) 윤희원(2000)은 교사의 기본적인 역할로 수업 기능, 평가 기능, 사회화를 돕는 기능, 생활지도 및 상담기능을 제시하였고, 민현식(2002)은 교실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요구 분석가, 학습 내용을 제공하는 사람, 동기를 유발하는 사람, 학습자들의 행동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사람, 정확한 언어의 시범을 보이는 사람, 교재 개발자, 학습자들의 학습을 모니터하는 사람, 상담자 겸 친구로 제시하였다.
- 2)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사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식은 순수한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수업 현장에서 한국어 교사가 가르치는 데에 사용하는 실용적인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 3)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와 제14조는 ‘한국어교원’을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교사’로 지칭하겠다.
- 4)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시험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교사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한 사람은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국가 자격인 한국어 교원 3급을 취득할 수 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실시가 되었다가 2005년 국어기본법에 의한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으로 개명되었다.
- 5)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중요한 역할은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질을 측정하고, 이러한 전문 지식과 자질이 한국어 교사의 수업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시험 문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 6)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제13조 제1항 관련)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 ~ 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21학점의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을 충족하여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서 18학점의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을 충족한 후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면 된다. 비학위과정으로는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120시간의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해서 수료한 후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면 3급 한국어 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⁷⁾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재외 동포나 외국인 등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의 목적은 한국어 교육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한국어 교사 양성 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한국어 국외 보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김선정:2011) 또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⁹⁾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시험으로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여하는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전문적인 자질이 있는 한국어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문항이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한국 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강의참관, 모의수업, 강의실습 등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7) 본고에서 다루게 될 대상은 비학위과정을 수료하고 3급 한국어 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다.

8) 국어기본법 제19조(한국어 보급 등)

제1항 :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 동포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 문화관광부 장관은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자격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 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평균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비영리법인일 것

⑧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것

⑨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것

한국어교육능력이라는 심리적인 구인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셈이다. 따라서 시험 문항들은 한국어교육능력이라는 구인을 재기 위한 충분한 내용요소를 포함해야 하고, 그 문항들은 한국어교육능력의 개념에 근거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송향근(2012)도 비학위 단기 양성과정 이수자가 3급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합격하여야 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수험자가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의 출제여야 한다고 하였다.

3급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통해서 평가하게 되므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타당성¹⁰⁾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문항이 과연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 교사를 선발하는 데에 적합한가에 대한 분석도 요구된다. 그렇지만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지금까지 10회를 치르는 동안 시험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검증¹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시험 문항이 출제되고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문항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자질과 지적인 능력을 평가해서 3급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으로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1회부터 9회까지의 한국문화 영역 시험의 출제비중과 시험 문항이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타당성이 높은 시험 문항인가를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1.2. 선행 연구 검토

지금까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미비한 수준이다. 학술지에 몇 편의 논문만 실린 정도이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의 영역을 정해서 문항을 분석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내용적인 측면과 국어기본법에 기초한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의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분석한 것들이 대다수다.

먼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한 강현화(2013)의 논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강현화(2013)에서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문법 영역의 문항 내용을 분석하였다. 강현화(2013)에서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제1회부터 7회까지 문법교육 관련 영역 240문항을 추출해서 세부영역별 출제 비중을 살펴보았다. 또한 강현화(2013)에서는 문항의 난이도뿐만 아니라 출제 목표와 출제 문항 간의 비교 분석, 문항 내용의 타당도 검증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문항의 내용에 있어서는 평가 목표에 따른 문항의 다양성과 한국어교수에 필요한 타당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0)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타당성'이라 함은 한국어교육능력의 개념 정의 및 하위 내용 구성이 그 검사의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묻는 것을 말한다.

11)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타당성에 대한 학위논문은 한 편도 없는 실정이고, 학술지로는 강현화(2013)와 김선정(2011)이 있다. 강현화(2013)에서는 1회부터 7회까지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문법영역을 분석하였다. 총 240문항을 세부 영역별로 출제비중을 살펴보아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가 있다. 김선정(2011)에서는 5회 한국어능력검정시험 문제를 분석하였다. 문제의 형식, 문항 수, 시험의 난이도, 문제 유형을 살펴보았다.

김선정(2011)에서는 제5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필기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평가 영역 및 하위 교과목별 평가 비중과 시험의 난이도 및 문제 유형을 파악하였다. 김선정(2011)에서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발전 방안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좀 더 다양한 유형의 문제 유형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평가 영역을 재분류하여 하위 교과목을 설정하고, 교실 상황을 반영한 좀 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과목 간의 통합 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역 간의 난이도의 불균형을 가급적 줄이고,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영역이나 한국 문화 영역의 경우 수험자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송향근.양순임(2015)에서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필기시험의 영역 구분과 각 영역 내 과목 분류의 타당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 방안으로 1) 모든 영역과 과목은 한국어교육학으로 통합되고, 2) 하위 영역은 ① 교육과정, ② 기능교육, ③ 지식교육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3) 교육과정 영역에는 '외국어습득론, 외국어교수법, 교재론, 평가론' 4과목, 기능교육 영역에는 '말하기교육론, 쓰기교육론, 듣기교육론, 읽기교육론, 화용론, 사회언어학, 문화교육론' 7과목, 지식교육 영역에는 '발음교육론, 어휘교육론, 문법교육론, 어문규범' 4과목으로 총 15과목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1) 영역별 배점, 2) 영역 내 과목별 문항 비중, 3) 과목 내 주제 선정, 4) 분리 평가 문항, 영역 및 과목 간 통합 평가 문항의 비중, 5) 한국어문화교육 내용 한정 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권성미(2015)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발음.발음교수 능력 평가 항목의 내용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제1회~9회까지 출제된 문항들 가운데 발음 및 발음 교수 관련 문항을 추출하고 영역별 출제 비중과 평가 내용을 분석하였다. 권성미(2015)는 한국어발음교육론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 평가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출제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박인선(2009)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1회부터 4회까지의 한국문화 영역만을 분석하여 한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을 살펴보았다. 박인선(2009)은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시험 '한국문화' 영역의 문제점으로 '①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출제비율이 일정치 않다. ② 현대 문화에 대한 문제의 대부분이 지금의 모습만을 강조하고 있다. ③ 전통문화에 대한 문제가 일반적이지 않다. ④ 성취문화에만 집중되어 있다. ⑤ 답이 두 개인 문항이 많다.'라고 지적하였다.

박선옥(2011)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1회~5회의 한국문화 영역 각 20개씩 100개의 문항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한국문화 영역 문항을 분석한 결과 성취문화에 대한 지식 점검이 가장 많았으며 정신문화에 대한 문항은 거의 없었고,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이 있으며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특수한 부분을 묻는 문항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박선옥(2011)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개선 방안을 6가지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한국문화 영역 하위 범주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문화 영역에 합당한 문항 구성을 하여야 한다. 셋째,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화 교육 내용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한국문화 지식 검사를 하여야 한다. 넷째, 한국어 교원으로서 한국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유형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다섯째, 문항의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 여섯째,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문항 개발에 좀 더 치밀한 노력을 하도록 한다.

정선주(2009)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과 영어교사평가시험(TKT)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어교육능

력검정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문제점으로는 한국어교사양성과정 후 3급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의 진로 문제, 120시간의 짧은 양성과정에 비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평가 영역, 학문적 지식으로 합의된 교육 내용의 부재, 검정 시험 준비를 위한 자료나 지침서의 부재 등을 꼽았다.

박재현(2005)은 기존의 '한국어교육능력 인증시험'¹²⁾의 평가 체계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적합한 평가 점수 환산 체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박재현(2005)은 한국어교육능력 인증시험에서 실시했던 원점수 이용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는 표준점수 방식과 문항반응이론을 이용한 진점수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병규(2006)는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 제도의 개선점을 13가지 제시하였다. ① 국어기본법 제19조 제2항은 “문화관광부 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제도 시행을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한국어 교원능력 검정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의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국어기본법이나 기본법 시행령에서 유격자의 우대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③ 현재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좀 더 정교화해야 한다. ④ 한국어 교육 능력에 대한 개념 또한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⑤ 승급을 위한 '한국어 교육 경력 3년', '한국어 교육 경력 5년'에 대한 범위도 더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⑥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졌거나 민간 기관에서 시행한 인증 시험에 합격하여 3급을 취득한 자들에 대한 승급 규정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 할 것이다. ⑦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은 주간 50분, 야간 45분을 1시간으로 규정하고, 대학, 대학원, 양성 과정에 각 영역별로 개선해야 할 최소한의 과목수도 명시적으로 밝혀 주어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 ⑧ '한국 문화'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의 범위, 한국어 교육 실습에 대해서도 실습의 형식, 실습 기관, 실습 방법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⑨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의 신뢰성과 객관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⑩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이 단순 지식 평가에서 탈피하여 영역 간 통합적인 문항을 출제하여 실질적인 한국어 교육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⑪ 평가 내용, 평가 수준, 영역별 예시 문항 등을 공개하여 응시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⑫ 한국어 교사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새로운 교수·학습 이론을 수업 현장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사의 재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⑬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보완을 통한 제도 정비와 함께 교원들의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하며 교원 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 지속적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문화 평가 영역 문항 분석

한국문화 영역은 일상문화, 예술문화, 한국문학, 한국역사로 나뉘는데 그 각각에 대한 비율, 문항 수(객관식, 주관식), 배점은 다음과 같다.

12) '한국어교육능력 인증시험'은 한국어세계화재단의 주관으로 2002년 11월에 1회를 시작으로 4회까지 실시되었다가 2005년 7월 28일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표1> 한국문화 출제 비율 및 배점¹³⁾

영역	과목	비율(%)	문항 수(배점)	
			객관식(배점)	주관식(배점)
한국문화	일상문화	30	6(9점)	.
	예술문화	30	6(9점)	.
	한국문학	20	4(6점)	.
	한국역사	20	4(6점)	.
	총계	100%	20개(30점)	.

다음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1회부터 9회까지의 한국 문화 영역 출제 비중이다.

<표2> 한국문화 출제 비중

과목	비율 (%)	배정 문항 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총계
일상문화	30	6	5	6	5	6	2	6	11	9	4	54
예술문화	30	6	7	6	6	9	13	9	5	4	5	64
한국문학	20	4	4	4	3	4	2	4	4	5	5	35
한국역사	20	4	4	4	6	1	3	0	0	2	6	26
총계	100%	20개 (30점)	20	20	20	20	20	20	20	20	20	179

2.1. 일상 문화

일상문화 시험의 목표는 한국 일상문화의 독자성, 지역성과 세계성을 이해하며 한국 일상문화의 역사적 의의 및 현대적 의의를 파악하며 아울러 언어교육 현장에서 문화이해 방식이 학습자 문화 내 이해와 목표 문화 내 이해가 있음을 알고 다문화 이해, 다문화 비교, 다문화 소통의 시각에서 한국 일상문화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일상 문화는 한국 전통사회, 현대한국사회로 이루어져 있다. (박동호 외, 2006: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모형 개발 사업 최종 보고서 참조)

<표3> 일상문화 영역별 평가 내용 및 평가 항목

영역	내용	항목	출제 횟수
가) 한국 전통 사회	(가) 전통사회의 의·식·주 생활	① 전통사회의 의생활 ② 전통사회의 식생활 ③ 전통사회의 주생활	2

13) 박동호 외(2006)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모형 개발 사업 최종 보고서 참조.

	(나) 전통사회의 경제, 기술 체계	① 전통사회의 생산 풍습 ② 전통사회의 기술 ③ 전통사회의 직업	0
	(다) 전통사회의 친족 관계	① 전통사회의 가족 ② 친족 정체성 ③ 국가 및 민족 정체성	0
	(라) 전통사회의 교육 체계	① 전통사회의 교육	0
	(마) 전통사회의 정치 체계	① 전통사회의 정치 ② 전통사회의 계급제도 및 계급관	1
	(바) 전통사회의 일상 생활 관련 의식체계	① 전통사회의 관혼상제 ② 전통사회의 무속 ③ 전통사회의 민간금기 ④ 전통사회의 민속놀이와 세시풍속	8
	(사) 전통사회의 의사소통 체계	① 전통사회의 의사소통 방식 ② 전통사회의 매체	0
	(아) 전통사회의 교통 체계	① 전통사회의 교통 ② 전통사회의 이동	0
나) 현대 한국 사회	(가) 현대사회의 의·식·주 생활	① 현대사회의 의생활 ② 현대사회의 식생활 ③ 현대사회의 주생활	1
	(나) 현대사회의 경제, 기술 체계	① 현대사회의 생산 체계 : 기업, 노동, 재벌 등 ② 현대사회의 기술 및 과학 ③ 현대사회의 직업	14
	(다) 현대사회의 친족 관계	① 현대사회의 가족 ② 현대사회의 친족 정체성 ③ 현대사회의 민족 정체성	5
	(라) 현대사회의 교육 체계	① 현대사회의 교육제도 ② 현대사회의 교육관 및 교육열	0
	(마) 현대사회의 정치 체계	① 현대사회의 정치 ② 현대사회의 계층	1
	(바) 현대사회의 일상 생활 관련 의식체계	① 현대사회의 관혼상제 ② 현대사회의 무속지향성 ③ 현대사회의 민간금기 ④ 현대사회의 명절, 기념일, 국경 일 등 휴일과 놀이문화, 스포츠 문 화, 여행 등	6
	(사) 현대사회의 의사소통 체계	① 현대사회의 의사소통 방식 ② 현대사회의 대중매체 소통 ③ 사이버 공간의 소통	1
	(아) 현대사회의 교통 체계	① 현대사회의 교통수단 ② 현대사회의 이동	0

일상문화의 경우에는 두 하위 영역 중 한국 전통사회에 대한 것이 11개 문항,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한 것이 28개 문항이 출제되었다. 한국 전통사회보다는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한 출제 비중이 더 높다.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전통사회의 일상생활 관련 의식 체계에서 8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그리고 전통사회의 경제, 기술 체계, 전통사회의 친족관계, 전통사회의 교육체계, 전통사회의 의사소통체계, 전통사회의 교통체계에서는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현대사회의 경제, 기술 체계가 14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교육체계와 현대사회의 교통체계는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출제가 되지 않은 영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일상문화에 대한 시험 문항이다. 수업 현장에 꼭 필요한 지식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문항이다.

95. 한국에는 수많은 ‘방’들이 존재한다. 출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① PC방 - 노래방 - 찜질방 ② PC방 - 찜질방 - 노래방
 ③ 노래방 - PC방 - 찜질방 ④ 노래방 - 찜질방 - PC방
 제1회 2교시 95번 문항, 정답 ③번

2.2. 예술 문화

예술문화 시험의 목표는 한국문화의 독자성, 그리고 지역성과 세계성을 이해하며 한국문화의 역사적 의의 및 현대적 의의를 파악하며 아울러 언어교육 현장에서 문화 이해 방식이 학습자 문화 내 이해와 목표 문화 내 이해가 있음을 알고 다문화 이해, 다문화 비교, 다문화 소통의 시각에서 한국 예술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예술 문화는 전통 예술문화, 현대 예술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박동호 외, 2006: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모형 개발 사업 최종 보고서 참조)

<표4> 예술문화 영역별 평가 내용 및 평가 항목

영역	내용	항목	출제 횟수
가) 전통 예술 문화	(가) 전통 예술 개괄	① 전통 예술의 종류 ② 전통 예술의 내용	5
	(나) 전통 사상 및 종교	① 전통 사상 및 종교의 종류 ② 전통 사상 및 종교의 내용	7
	(다) 전통 음악(국악)	① 전통 음악의 종류 ② 전통 음악의 내용	9
	(라) 전통 미술	① 전통 미술의 종류 ② 전통 미술의 내용	3
	(마) 전통 무용	① 전통 무용의 종류 ② 전통 무용의 내용	2
	(바) 전통 건축	① 전통 건축의 종류 ② 전통 건축의 내용	4
	(사) 전통 공예	① 전통 공예의 종류	1

		② 전통 공예의 내용	
나) 현대 예술문화	(가) 현대 예술 개괄	① 현대 예술의 종류 ② 현대 예술의 내용	8
	(나) 현대 사상 및 종교	① 현대 사상 및 종교의 종류 ② 현대 사상 및 종교의 내용	0
	(다) 현대 음악	① 현대 한국 음악 ② 현대 한국 대중음악	2
	(라) 현대 미술	① 현대 한국 미술의 종류 ② 현대 한국 미술의 내용	0
	(마) 현대 무용	① 현대 한국 무용의 종류 ② 현대 한국 무용의 내용	1
	(바) 현대 건축	① 현대 한국 건축물	0
	(사) 현대 공예	① 현대 한국 공예	0
	(아) 매체 문화	① 한국 영상 문화 ② 한국 사이버 문화	2

예술문화의 경우에는 두 하위 영역 중 전통 예술 문화에 대한 것이 31문항, 현대 예술 문화에 대한 것이 13문항 출제되었다. 일상문화와는 달리 예술 문화에서는 전통문화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었다. 전통예술 문화에서는 각 내용이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 그렇지만 현대예술 문화에서는 현대예술 개괄이 8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 현대사상 및 종교, 현대 미술, 현대 건축, 현대 공예는 한 문항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 현대 예술 문화에서는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예술 문화에 대한 시험 문항이다. 외국에서 정기적으로 공연된 작품을 묻는 질문인데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지식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105. 다음 중 외국에서 정기적으로 공연된 작품이 아닌 것은?
 ① 난타 ② 점프 ③ 명성황후 ④ 뮤지컬 대장금
 제2회 2교시 105번 문항, 정답 ④번

2.3. 한국 문학

한국문학 시험의 목표는 한국문학의 독자성, 지역성과 세계성을 이해하며 한국문학의 역사적 의의 및 현대적 의의를 파악하며 아울러 언어교육 현장에서 문화 이해 방식이 학습자 문화 내 이해와 목표 문화 내 이해가 있음을 알고 다문화 이해, 다문화 비교, 다문화 소통의 시각에서 한국예술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한국 문학은 한국문학 개론, 한국문학의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박동호 외, 2006: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모형 개발 사업 최종 보고서 참조)

<표5> 한국문학 영역별 평가 내용 및 평가 항목

영역	내용	항목	출제 횟수
가) 한국문학 개론	(가) 한국문학사	① 한국문학의 시대구분 ② 한국문학통사	2
	(나) 시대별 문학의 흐름	① 고전문학 ② 근대문학 ③ 현대문학	10
	(다) 장르별 문학의 흐름	①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의 흐름 ② 서사, 서정, 교술, 극 문학 또는 시, 소설, 수필, 희곡의 흐름 ③ 한문학과 국문학의 흐름	6
나) 한국문학의 이해	(가) 한국문학의 장르	① 시 ② 소설 ③ 수필 ④ 희곡	0
	(나) 한국문학의 주제	① 주제의 종류 ② 주제의 의의	1
	(다) 한국문학의 정체성	① 한국문학의 정체성 ② 한국문학의 독자성과 보편성	0
	(라) 한국문학의 작품 및 작가	① 한국문학 작품 논의 ② 한국작가 논의	8

한국문학의 경우는 두 하위 영역 중 한국문학 개론에 대한 것이 18문항, 한국문학의 이해에 대한 것이 9문항 출제가 되었다. 한국문학 개론이 한국문학의 이해보다 더 많이 치중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 한국문학 개론에서는 시대별 문학의 흐름이 10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한국문학의 이해에서는 한국문학의 작품 및 작가가 8문항으로 가장 출제되었고, 한국문학의 장르와 한국문학의 정체성은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한국문학의 장르는 장르 교육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이다. 앞으로 이 영역에서 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한국문학에 관한 문항이다. 장르에 대한 문제인데,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응용될 수 있는 문항이 되려면 교육과정지식과 통합된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p>1. 다음 작품 중 장르가 다른 것은?</p> <p>① 동동 ② 처용가 ③ 정석가 ④ 가시리</p> <p style="text-align: right;">제9회 2교시 1번 문항, 정답 ②번</p>
--

2.4. 한국 역사

한국역사 시험의 목표는 한국역사의 독자성, 지역성과 세계성을 이해하며 한국역사의 시대적 의의 및 가치를 파악하며 아울러 언어교육 현장에서 문화 이해 방식이 학습자 문화 내 이해와 목표 문화 내 이해가 있음을 알고 다문화 이해, 다문화 비교, 다문화 소통의 시각에서 한국예술을 이해하고 있

능가를 평가한다. (박동호 외, 2006: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모형 개발 사업 최종 보고서 참조)

<표6> 한국역사 영역별 평가 내용 평가 항목

영역	내용	항목	출제 횟수
가) 한국역사 개론	(가) 한국 통사	① 한국사의 시대구분 ② 한국 통사	0
	(나) 시대사	① 고대사 ② 중세사 ③ 근대사 ④ 현대사	8
	(다) 지역 및 집단별 역사	① 지역의 생성과 변천 ② 집단 및 계층의 생성과 변천	0
나) 한국역사의 이해	(가) 사건	① 사건의 역사적인 내용 ② 사건의 역사적 의의	1
	(나) 시기 및 시대	① 시기의 역사적인 내용 ② 시기의 역사적 의의	6
	(다) 인물 및 단체	① 인물의 역사적 의의 ② 단체의 역사적 의의	1
	(라) 특성 및 정체성	① 한국사의 특성 ② 한국사의 독자성과 보편성	0

한국 역사의 경우에는 두 하위 영역 중 한국역사개론 8문항, 한국역사의 이해 8문항으로 비슷하게 출제되었다. 한국 역사 개론에서는 시대사가 8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한국 통사, 지역 및 집단별 역사는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한국역사의 이해에서는 시기 및 시대가 6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특성 및 정체성은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다음은 한국 역사와 관련된 문항이다. 드라마 이름과 등장인물의 연결문제인데 한국어 교육 현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문항이다.

95. 역사 드라마와 주요 등장인물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서동요 - 무왕 ② 해신 - 장보고
③ 자명고 - 평강공주 ④ 이산 - 정조

제4회 2교시 95번 문항, 정답 ③번

3.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한국문화 영역 문항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이론적인 지식이 많았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였다. 또한 각 영역별로 골고루 출제되지 않고 편중돼서 출제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각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학문적 지식보다는 한국어 교사가 교실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강현화(2013),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문법 영역 문항 분석 연구', 『문법 교육』제19호, 한국문법 교육학회.
- 김선정(2011),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문제분석」, 『새국어생활』 21권 3호, 국립국어원, 99~118쪽.
- 박동호 외(2006),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문항 개발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 박선옥(2011), 한국어 교원에 대한 한국문화 능력 평가 현황과 개선 방안, <인문과학연구> 30,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61쪽~85쪽.
- 박인선(2006), 한국어교사에게 요구되는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1-4회 '한국 문화' 영역분석을 통하여-, 한국어문학연구 제30집, 99~119쪽.
- 송향근.양순임(2015),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 타당도 연구, 『이중언어학』 제59호, 이중언어학회 83~109쪽.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

■ 토 론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문항 분석 -한국문화 영역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정대현(협성대)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서 출제된 문항의 타당성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즉,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서 출제된 문제가 한국어교사의 전문성을 적절하게 측정하였는지를 문항 분석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국가 자격 시험의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피험자가 한국어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측정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실질적 국가 자격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타당도가 높은 문항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 연구 논문이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첫째,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제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 지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한국어 교사가 교실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어야 한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이 견해는 한국어 교사가 알아야 하는 지식이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이란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한 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문항 분석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당도 분석의 목적은 이 시험이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타당성이 높은 시험 문항인가를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당도 검사를 할 때는 문항 정답률(item facility), 문항 변별도(item discrimination), 선택지 매력도(distractor efficiency) 분석, 난이도 분석, 고전검사이론, 문항반응이론 등과 같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 시험의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문화에서 출제되지 않은 세부 항목을 살펴볼 때 전통사회의 경제, 기술 체계, 전통사회의 친족관계, 전통사회의 교육체계, 전통사회의 의사소통체계, 전통사회의 교통체계, 현대사상 및 종교, 현대 미술, 현대 건축, 현대 공예 등이었는데, 이 분야에서 문제를 출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한국 미술의 내용이라든지 현대 한국 공예 등이 한국어교사의 전문적 지식에 해당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통일성과 응집성’ 관련 성취 기준에 대한 검토

- 2011 개정 <독서와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

주세형(서강대)

-차례-

- I. 서론
- II. 현실태: 교육과정 및 교과서
- III. 네 가지 쟁점
 - 1. 쟁점1.
 - 2. 쟁점2.
 - 3. 쟁점3.
 - 4. 쟁점4.
- IV. 결론

I. 서론

‘통일성과 응집성’이 무엇인지 안다.
담화 및 텍스트 내에서 대용, 지시, 접속 표현을 익힌다.

위 성취 기준¹⁾은 읽기, 쓰기, 문법 중 어느 영역에라도 제안될 수 있다. ‘문법’ 영역의 입장에서 보면 ‘담화’ 단원에서 본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언어적 요소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읽기나 쓰기’ 영역에서는 텍스트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며, 독자나 필자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언어적 지식’을 제공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독서와 문법> 과목에서 위 성취 기준은 통합의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 내용이고, 나름대로 교과서별로 통합의 논리를 마련하여 단원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검정 체제에서의 한계에서인지 각 교과서에서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성취 기준이 너무 근본적이어서인지 읽기나 쓰기 영역에서는 ‘텍스트성’ 개념 자체를 도입했던

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내용이 ‘성취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시, 대용, 접속 표현’이 언급되어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렇게 명명하고자 한다. 현재로서는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이 너무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문서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 내용에 대한 본질적 논의를 전개하기 어렵다. 2015 개정에는 성취 기준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본 연구의 목적에는 부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성취 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는 남민우·최숙기(2012)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취 기준’이라는 개념은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문법 교육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탐색하기 위한 본질적 논의’를 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이다.

초기 논의 이래 심화된 논의는 없으며, 문법 영역에서는 대응, 지시, 접속 표현 각각에 대한 개별적 설명의 정확성에만 초점을 두어서인지, 각 표현들이 텍스트성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충분히 기술되지 않아 왔다.

이 성취 기준은 역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꾸준히 다루어져 왔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작업이 큰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여러 영역을 거쳐 핵심 성취 기준으로 삼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사실 이는 ‘어느 영역’의 문제인지 여부를 떠나, 교육과정 문서가 어떻게 바뀌든지 본질적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탐색하여 여러 가능성(특정 영역과 관련되는 횡적구조)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2015년 9월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관련 내용이 더욱 소략하며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오히려 더욱 본격적으로 연구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현행 <독서와 문법> 교과서 6종을 중심으로, 해당 성취 기준이 실현된 단원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성취 기준 설정의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이를 실현하고자 했던 교육 내용들을 심화, 상세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교육과정에서 해당 성취 기준 및 관련 성취 기준을 검토하고,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해당 단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학습자가 텍스트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법 교육 내용이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검토 기준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기술된 현실태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네 가지 쟁점을 III장에서 풀어낸다.²⁾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분리된 현 시점에서, ‘독서’와 ‘문법’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또한 (당분간은) 분리되어 있지만 ‘독서 및 문법의 본질’을 구현하는 이 성취 기준의 교육 내용 요소들은 변함없이 교과서 어디에서든 실현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국어교육학’적으로 기본이 되는 개념이면서도 언어적 분석이 필요한 작업’들에 대하여, 그 교육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탐색하기 위한 본질적 논리를 마련하는 연구가 대안이 되며, 국어 문법교육학이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을 촉구하고자 한다.

II. 현실태: 교육과정과 교과서

1. ‘통일성과 응집성’ 관련 성취 기준: 2015/2007/2011/국어과 교육과정 비교

* 2011은 <독서와 문법> 중심으로 살펴봄

1.1. 2015 개정 교육과정

1) ‘쓰기’에서 통일성 개념 등장하고 ‘응집성’ 개념은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기의 구성 요소 필자·글·맥락 쓰기의 과정 쓰기의 전략 과정별 전략 상위 인지 전략 	<p>필자는 다양한 쓰기 맥락에서 쓰기 과정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자 쓰기 문장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단 쓰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직 독자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주제를 고려한 내용과 매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의 통일성 표현의 다양성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설명 고쳐쓰기[일반 원리]
--	--	--	---	--	---

2) 물론 그 문제점은 교과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검정 체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서 분석의 목적은 교육과정 분석 및 문제점 제시를 좀 더 구체성을 띠고 진행하기 위함이다.

<표 IV-2-35>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쓰기 영역 성취기준 중 해당 학년이 바뀐 성취기준

2009 개정 교육과정(고시 제2012-14호)		2015 개정 교육과정	
학년	성취기준	학년	성취기준
5-6 학년군	(7) 자신이 쓴 글을 내용과 표현을 중심으로 고쳐쓴다.	중학교 1~3 학년	[09국03-09]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쓴다.
고등학교 1 학년	I-(9) 여러 가지 표현 기법과 적절한 문체를 사용하여 글을 쓰고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하며 고쳐 쓴다.		
고등학교 1 학년	I-(8)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문 상황에 맞게 조직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쓴다.	중학교 1~3 학년	[09국03-06]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쓴다.

2) '독서'에서 응집성, 통일성 개념이 삭제

[독서와 문법] (15) 글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글의 담화적 특성을 판단하며 읽는 능력을 기른다.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1]은 [독서와 문법] (15), [독서와 문법] (16), [독서와 문법] (17)이 통합 -'문장, 문단 등 담화의 구성요소들의 관계와 작용' 및 '응집성, 통일성'이 '문단 내용들 사이의 관계 파악'으로 교체(성취기준 해설)
[독서와 문법] (16) 글의 기본 구조와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 전개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며 읽는다.		
[독서와 문법] (17) 글의 구성단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3) '문법'에서 '의미 구성'이 '표현 효과'로 기술이 대체됨. 그리고 [2009-독문-14]는 삭제됨.

[독서와 문법] (11) 문장의 짜임을 탐구하여 이해하고 정확한 문장을 사용한다.	[12언매02-05]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 '문장의 짜임'에 대한 탐구의 결과를 정확한 사용에서 '상황에 맞는 문장'의 사용으로까지 구체화 -'흐름문장이나 겹문장,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을 '문맥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고, '적절성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는 맥락 중심 활동 및 담화 이해의 능력 신장으로 구체화(성취기준 해설)
[독서와 문법] (12)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문법 요소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한다.	[12언매02-06] 문법 요소들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실제 국어생활에 활용한다.	- '문법 요소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하는 것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구체화 -'실제 국어생활'이라는 언어 사용의 조건을 추가하여 활동의 실제성과 수행성을 강조
[독서와 문법] (13)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어생활을 하도록 한다.	[12언매02-07]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탐구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어생활을 한다.	-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탐구하는 것으로 구체화 -담화의 개념과 구성요소,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생산과 수용 능력 신장(성취기준 해설)

소결: 2015 개정에서의 ‘통일성, 응집성’ 개념에 대한 이해를 ‘문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다.

1.2. 2007 개정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이유는 성취 기준 도입 의도를 가장 상세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일성 및 응집성과 관련된 성취 기준은 국민 공통에서는 총 4개이다.

2007	국민 공통	2007-7-쓰-(1)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 있게 설명문을 쓴다. ³⁾
		2007- 7-문법-(5) 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⁴⁾
		2007-8-읽(1) 설명하는 글과 설득하는 글을 읽고 글의 짜임을 비교한다. ⁵⁾
		2007-9-문법-(4) 담화 또는 글 구성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⁶⁾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통일성 및 응집성’ 관련 성취 기준>

3) 내용 요소의 예

- 설명문의 특성, 통일성의 개념 이해하기
- 통일성 있게 내용 정리하고 표현하기
- 통일성을 고려하여 고쳐 쓰기

이 성취 기준은 통일성 있게 글을 써야 글의 주제를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점과 설명문 쓰기를 통해 글이 소통의 중요한 도구임을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필자와 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문을 쓰게 된다. 설명문 쓰기를 통한 정보의 소통은 특정 주제나 집단의 정보 독점을 지양하고 모든 구성원이 질 높고 풍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보의 민주성과 관계가 있다. 설명문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생성하는 활동, 통일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설명문은 어떤 대상의 특성이나 필자가 알고 있는 사실, 지식,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글을 말한다. 설명문은 글을 쓰는 목적이나 글이 게재되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머리말, 본문, 맺음말’의 짜임을 갖는다. 머리말에는 글쓰기의 배경, 동기, 목적, 방법 등이, 본문에는 설명할 내용이 제시된다. 그리고 맺음말에는 본문의 내용 요약, 평가, 의견 제시 등이 포함된다. 설명문은 다른 글과 달리 사실성, 객관성, 명료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문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다양한 매체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특히 선정한 내용을 통일성 있게 조직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통일성(coherence)은 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간의 ‘의미적인’ 연결 관계를 말한다. 통일성은 문단의 구성, 문단의 전개, 글 전체의 구성 등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다. 설명문을 쓴 다음에는 통일성의 관점에서 문단의 전개, 글의 구성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고쳐쓰도록 한다.

4) 내용 요소의 예

- 지시어의 개념 이해하기
- 담화 또는 글에서 지시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기
- 지시어가 담화 또는 글 전체 구조에 끼치는 의미 관계 파악하기

이 성취 기준은 지시어가 담화 또는 글 전체 구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지시어에 유의하여 담화 또는 글의 의미를 꼼꼼하게 이해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지시어의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지시어와 담화 또는 글의 구조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시어에는 ‘이, 그, 저,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지시어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이 전제되어야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담화나 글의 통일성(coherence)과 응집성(cohesion)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담화나 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명료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글에서는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섬세하게 분석해 내어야만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시어의 개념을 구체적인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시어가 다수 사용된 담화 또는 글 한 편을 꼼꼼하게 분석활동을 통해 지시어가 담화 또는 글 전체 구조와 의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구해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5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4) 말하는 이, 듣는 이, 상황, 매체 등에 따라 언어 사용 방식이 달라짐을 안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1.3. 2011 개정 교육과정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일성·응집성’ 관련 성취 기준은 중1~3학년군까지는 명시화되어 있는 것이 없다. 고등학교 <국어Ⅱ> ‘문법’ 영역과, <독서와 문법>에 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 개정 국어Ⅱ[문법]

(10)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기본적인 문장 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문장은 완전한 사고 표현의 단위이며 올바른 문장 표현은 문장 성분이 잘 선택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담화의 효과적인 표현은 어떤 것인지 탐구하도록 한다. 담화의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지시, 대용, 접속 표현 등의 효과를 알아보고 속담과 같은 관용 표현이 주는 효과를 알아볼 수도 있다. 아울러 교양 있는 국어 생활을 위하여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이 지녀야 하는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5) 내용 요소의 예

- 문단 요약 및 문단 간 관계 파악의 원리 이해하기
- 문단 간 관계 분석을 통해 글의 짜임 파악하기
- 글의 의도와 맥락을 고려하면서 글의 짜임을 비교, 분석하기
- 글의 짜임의 효과 및 적절성 평가하기

이 성취 기준은 글 전체의 짜임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 읽기 능력 향상에 중요하다는 점을 중시하여 설정하였다. 글의 짜임이란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글쓴이가 글을 적절한 방법으로 구조화한 것을 말한다. 독자는 글의 짜임을 파악함으로써 글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글 전체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을 학습할 때에는 글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표지, 문단 등 글의 짜임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유의하여 글을 읽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글의 짜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글에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글쓴이의 생각은 주로 하나의 문단에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집약되어 있다. 이러한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고,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표지에 유의하면서 각 문단의 성격이나 기능 등을 분석하면 글 전체의 짜임을 알 수 있다. 각 글의 짜임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는 글마다 목적과 맥락에 비추어 그 글의 짜임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설명하는 글과 설득하는 글을 중심으로 하여 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글의 짜임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글의 구성 방식과 서구의 글의 구성 방식을 비교하여 문화적인 배경에 따른 글의 짜임을 비교해 보는 등의 심화 활동도 할 수 있다.

6) 내용 요소의 예

- 통일성과 응집성의 개념 이해하기
- 담화 또는 글에서 통일성과 응집성 판단하기

이 성취 기준은 담화 또는 글 구성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여 담화 또는 글을 표현 의도에 맞게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비판적, 성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설정하였다. 통일성과 응집성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되, 담화 또는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비판적, 성찰적으로 점검하고 담화 또는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 있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통일성이 담화 또는 글의 심층적 연결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라면 응집성은 표면적 연결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통일성은 주로 의미적 연결 관계에 의해 드러나므로 글에 담긴 내용의 논리성이나 일사불란함을 따지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데 비해 응집성은 주로 지시 대명사나 인칭 대명사와 같은 통사적인 장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혀지기 쉽다. 그런데 통일성과 응집성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상호의존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둘을 명확하게 선으로 그어 구분하기는 어렵다.

2009 독서와 문법 - 담화 -

(13)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하도록 한다.

담화는 실제 언어생활의 생생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교수·학습의 가치가 있다. 담화 해석을 위해서는 화자, 청자, 맥락, 발화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담화의 의미 해석에는 언어적 맥락을 비롯하여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과 같은 비언어적 맥락이 관여한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실제 국어 자료를 통해 깨달도록 한다.

(14) 담화에서 지시·대용·접속 표현의 기능과 효과를 이해한다.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은 담화의 응집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독서와 관련지어 구체적인 담화 자료를 바탕으로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탐구함으로써 이들 표현이 하나의 담화에서 갖는 기능을 이해하고 담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국어 II>에서는 ‘통일성과 응집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하지 않으며, ‘지시, 대용, 접속 표현’이 담화에서 지니는 ‘효과’를 살펴보도록 되어 있다⁷⁾. 여기에서는 문법 영역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성취 기준이기 때문에, 교수 학습의 초점은 ‘지시, 대용, 접속 표현’ 그 자체를 담화 속의 효과를 중심으로 다루는 데에 있으며, 글을 글답게 만드는 요소로서 문법 지식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문법 영역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국어 II>에서 ‘담화’ 관련 성취 기준이 하나였다가, 선택 교육과정인 <독서와 문법>에서는 위처럼 (13), (14) 두 개로 분리되어 제시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2009-독문 - (14)] 성취 기준은 [국어II-문법(10)]과 비교해 볼 때 질적으로도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 - 독문 - (14)]에서는 ‘지시, 대용, 접속 표현’을 ‘통일성과 응집성’과 관련되도록 진술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는 ‘지시, 대용, 접속 표현’이라는 문법 요소가 하는 역할이 <국어II>와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⁸⁾.

논리적으로 본다면 텍스트 언어학의 개념 구조상, [2009 - 독문 -(14)]에서 ‘지시, 대용, 접속 표현’이 교육 내용이 되려면, ‘통일성, 응집성’은 좀 ‘학습 목표’로서 작동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독서’에서 가르쳐야 하는 몇 개의 성취 기준들과 자연스럽게 관련성을 지니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독서와 문법>이라는 과목 설정 취지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성취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9 - 독문 -(14)]에서는 ‘통일성 응집성’이 성취 기준을 해설하는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과서라면 어쩔 수 없이 국어 II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지시, 대용, 접속’ 표현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가르치도록 구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독서’에서 관련 성취 기준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이에 근거하여 소단원 구성에서든, 구체적인 본문 기술에서든 충분히 통합하여 기술할 수 있다. [2009 - 독문 - (14)]와 관련되는 ‘독서’ 성취 기준은 아래와 같다⁹⁾.

[2009-독문-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

- 글의 구성 원리 -

(15) 글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글의 담화적 특성을 판단하며 읽는 능력을 기른다.

한 편의 글 속에서 단어와 문장, 문단 등 담화의 구성 요소들의 관계와 작용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글이 사고를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과 진술들을 통해 점차 필자의 사고를 확장·전개해

7) 그런데 이때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점은, ‘기본 문장 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라는 구절이다. 사실 ‘지시, 대용, 접속 표현’과 ‘기본 문장 유형에 대한 이해’는 그다지 깊은 관련성을 지니지 않는다.

8) 문법 교육의 역할 4가지

9) 밑줄은 연구자.

나가는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한다. 특히 글에는 응집성, 통일성 등 다양한 담화적 특성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16) 글의 기본 구조와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 전개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며 읽는다.

글의 형식적 특징인 전개 방식과 구조를 이해하고, 이러한 전개 방식이 필자의 사고 전개의 특징과 표현 전략을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글은 종류와 목적에 따라 구조적인 특징과 관습적인 전개 방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설명적인 글은 원인과 결과, 비교·대조, 문제·해결 등의 다양한 구조를 사용한다. 이러한 글의 구조적 지식이 독해에 효과적임을 알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독서의 방법 -

(17) 글의 구성단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글을 구성하는 소단위의 내용을 대상으로 글에 나타난 정보의 확인, 그들 사이의 의미 관계와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사실적 독해 학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핵심어로서의 화제 파악, 화제와 관련하여 중심이 되는 진술 내용,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문장의 중요도 파악, 문단 간의 관계 등을 통해 사실적 독해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며 읽을 수 있도록 한다.

(18)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다.

추론적 독해를 위해서는 글의 표면적 단서인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문맥을 파악해 나가면서 독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 광고문이나 정치 담화문, 시사평론(시평, 칼럼) 등에는 필자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글의 의도나 목적, 주제 등을 숨겨 놓을 수 있다. 같은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도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표제, 기사의 위치, 관련 사진이나 도표의 제시 방법 등을 달리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 추론적 독해 능력을 길러 글에 담긴 의도나 숨겨진 주제, 필자의 가치관이나 관점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인용된 부분 중 주로 ‘글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되는 부분이 바로 [2009 - 독문-(14)], 더 나아가 [2009 - 독문 (13)]과의 통합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성취 기준이다.

그 요소만 추려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글의 구성 단위

- 글의 구성 단위와 ‘통일성, 응집성’

-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

독서의 방법

- 담화 표지

소결:

-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기준이 도출되었다. <독서와 문법> 담화 성취 기준 (1), (2)의 관련성, 그리고 (2)와 ‘글의 구성 요소’와의 관련성, (2)와 ‘담화 표지’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독서와 문법> 교과서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는 실제 교과서에서 소단위간의 연계성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 2011에서 ‘통일성, 응집성’은 ‘문법’과 ‘독서’ 모두에 유용한 ‘관련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동시에 ‘문법’ 및 ‘독서’ 모두에서 ‘그 자체로서 목표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교과서 집필자가 ‘통일성, 응집성’에 대하여 상세화 작업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자칫 ‘텍스트성’에 대한 종합적 이해는 어려운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2. <독서와 문법> 교과서¹⁰⁾.

1절에서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통일성, 응집성’ 및 ‘응집성 장치들’에 대한 교육 내용들이 어떤 영역을 중심으로 선정, 구조화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교육 내용들의 현실태를 교과서 수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독서와 문법> 교과서 6종을 살펴본다. ① 윤여탁 외(2013), ② 이삼형 외(2013) ③ 이관규 외(2013) ④ 이도영 외(2013) ⑤ 한철우 외(2013) ⑥ 박영목 외(2013)의 내용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교과서 모두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순서와 거의 비슷한데, 이삼형 외(2013)만 ‘순서’가 다르다. [2009-독문-(13)]과 [2009-독문-(14)]는 모든 교과서에서 서로 다른 소단원으로 구현되었다.

	‘문법’ 성취 기준 두 개 실현된 단원	‘독서’에서 ‘글의 구성과 전개’ 관련 + 담화 표지 언급된 그 외의 부분
① 윤여탁 외 (2013),	II. 국어의 구조와 국어 생활 4. 담화의 세계 (1) 담화와 국어 생활 (2) 담화의 특성	III.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 1. 글의 구성 원리 (1) 글의 구성 요소 (2) 글의 기본 구조와 전개 방식 2. 독서의 방법 (1) 사실적 독해 (2) 추론적 독해 (3) 비판적 독해 (4) 감상적 독해 (5) 창의적 독해
② 이삼형 외 (2013)	III. 국어의 이해와 탐구 4. 담화 (1) 담화의 의미와 맥락 (2) 담화의 통일성과 응집성	II. 독서의 원리 1. 글의 구성 원리 (1) 글의 특성 (2) 글의 구조 2. 독서의 방법 (1) 사실적 읽기 (2) 추론적 읽기 (3) 비판적 읽기 (4) 감상적 읽기 (5) 창의적 읽기
③ 이관규 외 (2013)	II. 우리말의 구조 4. 담화 (1) 담화의 개념 (2) 담화의 표현	III. 독서와 생활 1. 글의 전개와 독서 (1) 글의 담화적 특성 글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며 글을 읽는다. 글의 담화적 특성을 판단하며 글을 읽는다. (2) 글의 구조와 독서

10) <독서와 문법>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고의 목적이 통일성과 응집성 실현을 위한 교육 내용 요소를 ‘구조화, 심화, 구체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독서와 문법>은 2011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중, 문법교육 내용이 가장 상세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p>글을 읽고 글의 기본 구조와 전개 방식을 이해한다.</p> <p>글의 전개 방식을 통해 글쓴이의 사고 전개 과정과 표현 전략을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p> <p>2. 독서의 방법</p>
④ 이도영 외 (2013)	<p>II. 국어 구조의 이해</p> <p>4. 담화</p> <p>(1) 담화의 의미 해석</p> <p>(2) 지시·대용·접속 표현</p>	<p>III.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p> <p>1. 글의 구성 원리</p> <p>(1) 글의 구성 요소와 담화적 특성</p> <p>(2)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p> <p>2. 독서의 방법</p> <p>(1) 사실적 독해</p> <p>(2) 추론적 독해</p> <p>(3) 비판적 독해</p> <p>(4) 감상적 독해</p> <p>(5) 창의적 독해</p>
⑤ 한철우 외 (2013)	<p>II. 국어 구조의 이해</p> <p>4. 담화</p> <p>(1) 담화의 개념과 특성</p> <p>(2) 담화의 구조와 표현</p>	<p>III. 글의 구성 원리와 독서의 방법</p> <p>1. 글의 구성 원리</p> <p>(1) 조선 왕릉의 조영 원리</p> <p>(2) 지하철을 움직인 힘</p> <p>2. 독서의 방법</p> <p>(1) 독도는 왜 우리나라 땅인가?</p> <p>(2)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p> <p>(3) 패놉티콘</p> <p>(4) 조승문</p> <p>(5) 다윈은 약육강식을 말하지 않았다</p>
⑥ 박영목 외 (2013)	<p>II. 국어 구조의 이해</p> <p>4. 담화</p> <p>(1) 담화의 특성</p> <p>(2) 담화의 표현</p>	<p>III. 글의 구성과 독서의 방법</p> <p>1. 글의 구성 원리</p> <p>(1) 글의 구성 요소와 담화적 특성</p> <p>(2)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p> <p>2. 독서의 방법</p> <p>(1) 사실적 독해</p> <p>(2) 추론적 독해</p> <p>(3) 비판적 독해</p> <p>(4) 감상적 독해</p> <p>(5) 창의적 독해</p>

III. 네 가지 쟁점

6종의 교과서를 반복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네 가지 쟁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풀고자 한다.

텍스트성의 일환으로서 모든 문법 장치가 기여하도록 하려면??

위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2009-독문-(13)]과 [2009-독문-(14)], 그리고 그와 관련된 독서 단원을 살펴본 결과, 네 가지 쟁점이 도출되었다.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풀어가도록 하겠다.

1. 쟁점1.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자 할 때(2009-독문-13), ‘구어로서의 담화’와 ‘문어로서의 텍스트’의 차이점을 적절히 풀어냄으로써 이후 텍스트성을 이해하는 데에 바탕이 되도록 하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문법교육사에서 [2009-독문-(13)]의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주요 성취 기준으로 설정하게 된 배경은, 화용론 개념을 주로 강조하여 ‘실제 의사소통 맥락’을 강조하고 해당 장면을 중심으로 관련 개념을 인식하는 데에 있었다. 해당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 역시 이를 강조하고 있다.

“담화는 실제 언어생활의 생생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교수·학습의 가치가 있다. 담화 해석을 위해서는 화자, 청자, 맥락, 발화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담화의 의미 해석에는 언어적 맥락을 비롯하여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과 같은 비언어적 맥락이 관여한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실제 국어 자료를 통해 깨닫도록 한다.”

성취 기준 개설 취지가 위와 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과서는 구어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즉, ‘담화, 발화, 문장’ 등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구어성’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문장은 사고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의 문장만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둘 이상의 말이 엮인 단위를 사용한다. 이러한 말의 연속체를 담화(談話)라고 한다. 넓은 의미에서 담화는 둘 이상의 말이 모여 이루어진 단위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의도를 가진 완결된 의미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담화의 개념

구성 요소: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화자와 청자, 발화, 맥락의 세 가지가 있다. 즉, 담화를 통한 의사소통은 담화에 참여하는 주체인 화자와 청자, 담화에 사용된 언어 표현인 발화, 담화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심리적 시·공간인 맥락으로 이루어진다.

담화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발화에 의해 형성되나, 실제 의사소통에서는 발화만으로는 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담화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려면 담화의 구성 요소인 화자와 청자, 발화, 맥락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한철우 외, 2013:149~150)

인용된 교과서에서는 철저히 ‘구어적 의사소통’ 상황을 전제로 한 담화 개념만을 설명하고 있으며, 연달아 제시되는 개념들 역시 ‘발화, 발화의 종류, 화자와 청자, 맥락’ 등으로, 모두 구어적 상황을 전제로 한 개념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2009-독문-(13)]가 실현된 첫 번째 소단원 전체를 이렇게 구어성을 기본으로 하여 담화 개념을 익히게 되면, 이어지는 (2) 소단원에서 학습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2) 소단원에서는 (1) 소단원에서 배웠던 ‘담화’ 개념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나 통일성과 응집성과 같은 ‘텍스트성’을 염두에 두는 가운데 ‘지시, 대응, 접속’ 표현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1) 소단원에서 배웠던 개념 의미역이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2) 소단원의 연

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소단원은 [2009-독문-(14)]의 다음과 같은 취지를 실현한 것이라고 볼 때, 이 역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충실도 관점에서 실행하고자 한다면 두 개 소단원의 연계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은 담화의 응집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독서와 관련지어 구체적인 담화 자료를 바탕으로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탐구함으로써 이들 표현이 하나의 담화에서 갖는 기능을 이해하고 담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같은 책의 (2) 소단원 시작 부분을 보자.

담화의 구조

담화는 발화가 모여서 이루어진 유기적인 통일체이다. 따라서 담화는 그 안에 일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발화가 모여 담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용 구조인 통일성과 형식 구조인 응집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중략)

다음 두 담화 중에서 어떤 담화가 자연스러운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적어 보자.

ㄱ. 구보는 □□ 커피숍을 좋아한다. □□ 커피숍은 늘 사람이 많고 불편했다. □□ 커피숍에는 구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다. 구보는 매일 □□ 커피숍을 방문했다.

ㄴ. 구보는 □□ 커피숍을 좋아한다. 그곳은 늘 사람이 많고 불편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거기를 방문했다.

담화는 내용적인 일관성 외에도 명시적인 언어 표현을 통해 형식적인 면에서도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담화의 형식 구조를 응집성(凝集性)이라고 한다. 담화에서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 표현에는 지시 표현, 대용표현, 접속 표현 등이 있다. [탐구]에서는 ‘그, 그곳, 거기’ 등의 지시 혹은 대용표현과 ‘그러나’, ‘그래서’와 같은 접속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 표현은 담화의 형식적 구조를 단단히 엮어 주어 발화의 집합을 좀 더 담화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한철우 외(2013: 159-160)

응집성은 텍스트성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이기 때문에 문어 텍스트를 예시로 드는 것은 당연하며, 성취 기준 해설에서도 ‘독서를 중심으로’라는 구절이 있으므로 더더욱 위와 같이 기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1) 소단원에서 배운 ‘담화’ 개념 그대로 (2) 소단원에서 유지된다는 점이다. 앞 소단원에서는 ‘발화’, ‘상황 맥락’, ‘화자와 청자’ 등의 하위 개념으로써 담화 개념을 익혔기에, ‘전형적인 구어 텍스트’의 특성만을 상기한 채 (2) 소단원을 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1) 소단원에서 [2009-독문-(13)]을 구현할 때부터 ‘구어성’과 ‘문어성’, ‘발화’와 ‘문장’, ‘담화’와 ‘텍스트’, ‘언어적 맥락’과 ‘상황 맥락’ 개념간의 고민을 잘 풀어내고, ‘텍스트성’을 이해할 수 있게 연계되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 소단원에서 배우게 될 텍스트성에 대하여, 학습자가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도영 외(2013)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2) 소단원 시작부분에서부터 ‘발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통일성과 응집성이 ‘텍스트성’이니, 사실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피정의항에는 ‘문장’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옳으며,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도 그러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피정의항의 정확성만 따진다면, (1) 소단원과의 연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을 알고서도, 연계성은 포기하고 개념 설명의 정확성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p>Ⅱ단원 (2) 소단원</p>	<p>담화의 통일성과 응집성</p> <p>담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장들이 하나의 주제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여러 문장이 모여 있다고 해서 모두 담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의 두 글을 비교하며 읽어 보자.</p> <p>①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하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이 때문에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면 섬이나 해안에 사는 사람들이 살 곳을 잃는다. 또한 북극곰이나 펭귄 등 빙하 지대에 사는 동물들이 멸종할 수도 있다.</p> <p>② 지구 온난화는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 북극에는 북극곰이 사는데, 북극곰은 영하 40도의 추위를 견딜 수 있다. 동물원에 있는 곰은 북극곰이 아니다.</p> <p>(중략)</p> <p>①은 하나의 주제로 내용이 모이는 반면에 ②는 너무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다. 그리고 ①은 ‘이 때문에’, ‘또한’ 등의 말로 각 문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②는 그렇지 못하다. 이처럼 담화는 모든 문장들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주제로 향하는 성질을 통일성,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성질을 응집성이라 한다.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는 데는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이 주로 쓰인다.</p> <p>(이도영 외, 2013:164-165)</p>
<p>Ⅲ단원 (1) 소단원</p>	<p>담화로서의 글의 특성</p> <p>응집성</p> <p>글을 구성하는 요소들(단어, 문장, 문단)은 여러 가지 문법적 장치들에 의해 긴밀히 연결되어 한 편의 글을 이룬다. 이때 글의 구성 요소들이 문법적으로 긴밀히 결속되어 있는 성질을 응집성이라고 한다. 응집성은 통일성과는 달리 표면적으로 드러난다.</p> <p>응집성을 높이는 장치에는 지시, 접속, 대용, 생략, 반복과 유의어나 반의어 등을 사용하는 어휘적 결속 방식이 있다. 또한 문단과 문단을 연결하여 글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 주는 담화의 구조 표지가 있다.</p> <p>지시는 지시어의 사용을, 접속은 접속어의 사용을 뜻하며, 대용은 지시할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는 것을 뜻한다. 또한 생략은 앞에 나온 것과 동일한 부분을 삭제하여 그 부분이 앞서 나온 말과 관련되어 있음, 즉 결속되어 있음을 역으로 드러낸다. 반면 반복은 앞에 나온 부분을 다시 사용하여 그 부분이 앞서 나온 말과 관련되어 있음, 즉 결속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비해 담화의 구조 표지는 ‘요컨대, 한편, 첫째, 결론적으로’ 등을 통해 문단 간의 결속 관계를 보여 준다.</p> <p>(이도영 외, 2013:182)</p>

이삼형 외(2013)에서는 같은 고민을 다르게 해결하였다. ‘구어성’과 ‘문어성’, ‘발화’와 ‘문장’, ‘담화’와 ‘텍스트’ 간의 고민을 다음과 같이 ‘학습자 입장에서, 단계별로’ 풀어냈다.

둘 이상의 발화가 모였다고 해서 항상 적절한 담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발화들이 모여서 담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담화를 이루는 발화들은 우선 내용 면에서 하나의 통일된 주제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형식면에서 각 발화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는 표현들이 있어야 한다. 전자를 통일성, 후자를 응집성이라고 한다.

① 통일성

다가서기

- 다음 발화들이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상황을 만들어 보자.

철수: 나는 매일 한 시간씩 축구를 해.

영희: 난 일주일에 한 번 영화 보러 가.

민호: 나는 틈날 때마다 게임하는 게 좋아.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담화가 되기 위해서는 담화 내의 발화들이 하나의 주제 아래 유기적으로 모여 있어야 한다. 즉, 화자와 청자가 하나의 주제를 공유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만 발화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담화 내의 발화들이 담화의 주제를 향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성질을 담화의 통일성이라고 한다. 통일성은 담화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친해지기

- 다음 세 발화가 통일성 있는 하나의 담화를 구성할 수 있는지 말해 보자.

·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다.

· 갈릴레이는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다.

·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흐르는 속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했다.

② 응집성

다가서기

- 다음 과정 전체가 하나의 담화가 되도록 빈칸에 적절한 표현을 써 보자.

[하마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는?] () 냉장고 문을 연다. → ()

하마를 넣는다. → () 냉장고 문을 닫는다.

담화의 응집성이란 발화들이 서로 긴밀하게 묶여 하나의 담화를 구성하도록 해 주는 형식적 요건이다. 담화의 응집성은 주로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 등에 의해 실현된다. 이러한 표현들은 앞에 나온 어휘, 문장, 상황 전체를 대신하거나 상황들 사이의 시간적 순서 또는 논리적 흐름 등을 드러내어 발화들의 응집성을 높인다. 그밖에 '먼저, 다음으로'와 같이 순서나 과정을 드러내는 어휘를 쓰거나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응집성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삼형 외, 2013:236-7)

'통일성'에서 다가서기: '발화'로 출발하여 구어상황에서 통일성부터 생각하도록 하여 앞 소단원과의 연계성을 유도하였다. 무작정 '글'로 만들어내는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어 '상황'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발화 하나하나에 대하여 통일성을 '기준'으로 해당 대화쌍들이 가능한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한 것 역시, 억지스럽지 않으면서도 앞 소단원과 연계가 잘 되는 구성이다.

'통일성'에서 친해지기: 본격적으로 '글'을 쓰려는 필자의 입장을 상정하도록 학습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각기 다른 명제 내용을 제시하고, 과연 각 명제 '내용'이 통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¹¹⁾.

11) 그러나 이 사례는 쟁점2에 따르면 적절하지 못하다. 통일성과 응집성 개념을 '변별'하는 데에는 성공적이지만, '관련성'을 기술하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는 쟁점2에서 다루고자 한다.

결국 소단원 (1)과 (2)가 연계되지 않는 것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 두 개가 애초에 연계가 어렵도록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실도 관점에서 따르다면 연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저렇게 되어 있을까?

주지하다시피 ‘통일성과 응집성’은 보그란데-드레슬러(1981)의 ‘텍스트성 7가지 규정’에서 비롯된다. 7가지 텍스트성 중에서 ‘통일성과 응집성’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하여 국어과 교육 내용에 도입되었다¹²⁾. 반면, 소단원(1)에 제시된 ‘담화의 구성 요소’는 화용론에서 비롯된 개념이 많다. 즉, 화용론 연구와 텍스트언어학 연구 성과들이 각기 융합되지 않고 독립적 성취 기준으로 기술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해결해야 할 논리가 필요하고, 각 교과서마다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발화나 문장이냐’라는, 피정의향에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통일성, 응집성’이 ‘텍스트성’에서 유래한 개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했는가이다. 이에 대해 윤여탁 외(2013)는 핵심을 꿰고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답구]

■ 담화를 짜임새 있게 이루는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구해 보자.

아, ○○○요? 영화관 말하시는 거죠? 그 영화관이 어디 있냐면, 이 길로 쪽 가세요, 쪽 가시면 사거리가 나와요. 그리고 건널목이 있고요. 건널목을 건넌 다음에 망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사람 모양의 건축물이 보일 텐데, 엄청 커요. 거기 건물 지하에 있어요.

응집성은 담화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형식 면에서 결속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응집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과 같은 여러 가지 결속 장치들이 사용된다. 위의 담화에서 ‘이 길’의 ‘이’, ‘거기 건물’의 ‘거기’, ‘그리고’와 같은 표현들은 위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윤여탁 외(2013:154)

‘글답다’라는 ‘텍스트성’을 이해할 때 핵심은 ‘짜임새’이다. 짜임새를 이해시키려면 응집성 장치를 예로 들어야 하는데, ‘잘 짜여 있는’ 문어 텍스트를 사례로 드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지만, 동시에 (1)소단원과 연계도 해야 하니 위 부분에서는 구어 담화를 예로 들었다. 만약 위 사례 대신, ‘구어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담화의 상황 맥락적 직시적 요소’가 강조되거나 ‘대화적 속성’이 강조되는 사례를 들었다면 부적절하다. 어쩌면 구어 담화의 전형은 아니지만, ‘짜임새’라는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짜임새가 부재한’ 구어 담화를 예로 들은 것이다.

2. 쟁점2. 통일성과 응집성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통일성과 응집성을 개념을 적절하게 ‘변별이 되면서도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는가? 그로써 궁극적으로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¹³⁾의 관계를 학습자가 적절히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가?

앞서 교육과정 문서에서 보았듯이, 국어과 각 영역별로 통일성과 응집성 중 각기 다른 면에 주목

12) 응집성(cohesion) 장치 역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복, 대용형, 생략, 논항 부여, 접속 표현, 기능적 문장 투시법 등을 제안하였다. 아마 해당 문헌에서 제시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13) 단, 여기에서의 ‘내용’이란, 범박하게 말하여 필자가 나타내려고 하는 ‘표현 의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범박하게 말하여’라고 언급한 것은, 기존 연구에서 ‘스키마’, ‘배경 지식’이라 일컬었던 내용과, 전문 분야가 독자적으로 지니고 있는 ‘지식 구조’를 제외함을 의미한다. 텍스트에서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논의할 경우 ‘스키마 또는 지식 구조’는 별도의 연구 문제를 구성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았다. 이는 사실 영역의 특성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충분히 수궁이 된다. 쓰기 영역에서는 통일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읽기에서는 사실적 독해 수준에서는 ‘응집성’이, 추론적 및 비판적 독해 수준에서는 ‘통일성’이 좀 더 강조될 것이다. 문법 입장에서는 ‘통일성’은 부가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응집성’ 그 자체의 개념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응집성 장치’들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통일성과 응집성은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기본 성찰을 가능하게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각 영역별로 각기 분리되어 강조되고 있어서, 당초에 학습자들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이에 교과서 각 단원에서는 재구성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할 것이다.

통일성과 응집성에 대해 학습자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일단 학습자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매 순간 언어 자원을 선택해야 하는 학습자 입장을 설정하고 이라고 하자¹⁴⁾. 한 편의 글을 작성하고자 하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절 단위의 응집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지속하다보면 글 전체의 통일성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통일성’은 ‘응집성’을 지키는 결과물로 얻어지는 성격이다.

교육과정을 어찌되었든 실행해야 한다는 면에서 우선적으로 중요시되는 것은 ‘통일성’과 ‘응집성’이 제대로 변별되도록 설명하는 것이다. 윤여탁 외(2013)에서는 두 개념을 구분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통일성’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연설문 덕에, ‘응집성’과 명확히 구분이 된다. 해당 자료에서는 어휘적 의미로만 의미가 연결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 통일성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의 담화가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요건은 통일성과 응집성이다. 이들 각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탐구]

● 다음 연설문의 각 문단에서는 어떤 의미가 통일되게 드러나 있는지 탐구해 보자.

- ㉠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 ㉡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 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 과학만 가지고도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 김구,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통일성은 하나의 담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로서의 발화가 하나의 의미를 지향하여 유기적으로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 담화의 각 문단에 드러난 내용을 살펴보면, ㉠문단에서는 ‘가장 부강한 나라’보다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이 ‘문화의 힘’으로 가능한 것임을 주장한다. ㉡문단에서는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인의와 자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문단의 ‘문화’와 연결한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그 원동력은 문화에 있다.’는 의미를 지향하여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담화는 통일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4) 이를 주세형(2005)에서는 ‘학습자 중심성’이라고 하였는데, 교육 내용은 공급자 입장의 ‘논리적 순서’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교육적 순서(양미경, 2008:199)에 따라 기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개념의 차별성만 강조되면 안 되는데, 같은 책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그 관련성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탐구]

- 담화를 짜임새 있게 이루는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구해 보자.

아, ○○○요? 영화관 말하시는 거죠? 그 영화관이 어디 있냐면, 이 길로 쪽 가세요, 쪽 가시면 사거리가 나와요. 그리고 건널목이 있고요. 건널목을 건넌 다음에 망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사람 모양의 건축물이 보일 텐데, 엄청 커요. 거기 건물 지하에 있어요.

응집성은 담화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형식면에서 결속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응집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과 같은 여러 가지 결속 장치들이 사용된다. 위의 담화에서 ‘이 길’의 ‘이’, ‘거기 건물’의 ‘거기’, ‘그리고’와 같은 표현들은 위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담화 구성 요소들이 내용적 측면에서 하나의 의미를 지향하여 유기성을 갖는 것이 통일성이고 형식적 측면에서 결속되어 있는 것이 응집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담화의 응집성은 담화의 통일성 형성에 기여한다.

누구나 어떤 집단에 처음 속하게 되면, (㉠)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 (㉡) 집단의 문화와 규칙 등을 익히고 흡수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 과정에서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다른 것이 있으면 마음 안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 자신과 새로운 집단 사이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평소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질적인 집단과 맞닥뜨릴수록 (㉤) 경계선은 선명하고 강력해진다. 소외감이란, 개인과 집단 사이의 경계선 위에서 ‘나’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내적 경험’이자 일종의 ‘방어 작용’이다. (㉥) (㉦) 소외감은 시간이 흘러 ‘지킬 것’과 ‘받아들일 것’을 구분하여 내적인 교통정리를 끝내고 나면 자연스럽게 수그러들게 된다.

-하지현, ‘내 손으로 짓는 소외의 성(城) - 소외감 중독’에서

위 담화의 ㉠, ㉡, ㉢, ㉣에는 ‘그’가, ㉤에는 ‘그러면서’가, ㉥에는 ‘따라서’가, ㉦에는 ‘이러한’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이 쓰이기 전과 후의 글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형식적 측면의 응집성이 내용적 측면의 통일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윤여탁 외(2014:154), 독서와 문법

특히 문법 소단원(2)에서는 이를 더욱 유의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응집성 장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교육 내용을 다루면서 응집성 향상에 기여하는 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자칫 ‘명시적 언어 장치 자체’에만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학습자는 ‘통일성’과 ‘응집성’과의 관련성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 인용된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윤여탁 외(2013)에서는 통일성과 응집성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사례마다 강조하여 기술하고 있다. 반면 앞서 ‘쟁점1’에서 언급했던 이삼형 외(2013:237)의 경우, 두 개념의 관련성은 의미 있게 기술해 놓은 부분이 없다. 통일성과 응집성의 관계를 긴밀하게 다루는 문제는 ‘형식’과 ‘내용’이 얼마나 긴밀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서 집필자의 철학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문법 소단원(2)에서 ‘형식’과 ‘내용’을 긴밀하게 다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법 영역에 특화된 소단원이기 때문에 ‘지시, 대용, 접속’ 세 종류의 문법 장치는 ‘응집성’에 기여하는 것으로만 기술되면 충분히 교육과정 의도를 실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해당 소단원에서 충분히 기술하기가 어려우면, 독서 단원에서라도 ‘통일성’과 ‘응집성’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윤여탁 외(2013:168)는 독서 단원에서 발견한 것이다.

통일성과 응집성은 자연스럽게 좋은 글을 이루기 위해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다.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을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이어 주면 결국에는 내용적으로 통일된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고인들은 우리의 고대 문화를 밝히는 유력한 증거이자,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는 점에 그 가치가 있다. (㉡) 고인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고대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강력한 뇌관을 지닌 유산이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는 고인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무려 600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스톤헨지나 카르나트·열석과 비슷한 시기인 기원전 3000~4000년 전후가 된다.

- 이종호, “세계 최고의 우리 문화유산”에서

이 글의 각 문장에서는 ㉠‘고인들’이라는 어휘가 반복되면서 문장과 문장을 형식적으로 결속시키고 있다. 또 ㉡에는 ‘더 나아가’가 들어가게 되면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하여 논리적 관계를 표시하고 두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 수 있다. ㉢의 ‘이’는 앞 문장의 내용을 지시하면서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장치로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이 문장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응집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하나의 문단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어 통일성을 갖게 된다.

요컨대, 통일성과 응집성은 ‘동전의 양면’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장치가 어디에서든 조금씩은 있어야만, 학습자가 ‘텍스트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특히 문법 소단원에서 응집성 장치가 핵심 교육 내용이 될 경우 이에 대해 더 유의하여 다루어야 한다.

3. 쟁점3. ‘지시, 대용, 접속’ 표현에 대한 기술 내용이 ‘응집성’을 이해하는 데에 유의미한가?

문법 영역에 특화된 쟁점에 해당한다. 쟁점2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서부터 쟁점3이 도출된다. 쟁점2에서는 결국 ‘통일성, 응집성, 응집성 장치’ 간의 관계를 논의한 셈인데,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문법 영역에서는 ‘응집성 장치’를 교육 내용으로 제시함으로써 ‘응집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 문법 영역에서는 ‘응집성’이 목표이며, ‘응집성 장치’가 교육 내용에 해당함.

- 본질적으로 ‘응집성’을 유지하려는 가장 큰 틀은 ‘통일성’이 제공해 준다. 즉,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필자는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표현 의도에 따라(즉,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 따라) 매 순간 응집성 장치를 선택한다. ☞ ‘통일성’이 목표가 되는 단원에서는 ‘응집성’은 교육 내용이며 ‘응집성 장치’는 교육 내용 요소에 해당함. 즉, 기능 영역에서는 ‘통일성’은 성취 기준, ‘응집성’은 교육 내용, 문법 장치들은 ‘교육 내용 요소’이다.

위와 같은 전망 하에서 본다면, 문법 소단원(2)에 등장하는 ‘지시, 대용, 접속’과 같은 응집성 장치들이 과연 유의미하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문법 소단원 (2)가 다른 단원에도 유의미한 교육 내용 요소로서 인식이 될 것이다. 결국 통일성 있는 글을 작성하는 노력이란, 매 순간 대면하여 써야 하는 한 문장 한 문장에서 이루어지는 선택 행위와 다름없음을 알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선행 정보’에 해당하는 언어 표현을 ‘구정보로’ 받음으로써 텍스트를 전개해나가는 것이다. 즉, 응집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어떤 장치로 대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구, 절, 문장을 쓸 때마다 결정함으로써 글을 만들어나가는 과업으로 재규정할 수 있다. 쟁점3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기존 교과서에서 ‘지시, 대용, 접속’ 기술 내용이 그

에 부합하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2009-독문-담화-(14)]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성과 응집성에 기여하는’ 기제로서 위 세 표현을 가르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상위 기제로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대용’이다. 김광희(2011:384)는 대용 현상은 특정 범주에 국한된 문법 현상이 아니라 여러 범주에 걸쳐 나타나는 원리적 현상이라고 하였고, 또한 신지연(2008)에서도 대용 표현은 문법 현상이라기보다는 텍스트 언어학에서 사용될 경우, 텍스트를 이루는 데에 기여하는 주요 기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2009-독문-담화-(14)]에서는 통일성과 응집성에 ‘기여하는’ 기제로서 가르치도록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용’은 ‘지시’, ‘접속’과는 층위가 다른 현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지시, 대용, 접속’ 표현을 동등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층위가 다른 현상으로 놓기는 어렵다(검정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이삼형 외(2013)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였다.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을 ‘같은 층위’에 놓고 설명하되 다음과 같이 그 기능을 최대한 구분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이처럼 담화에서 앞에 나온 어휘나 발화 전체를 다시 가리키는 것을 대용 표현이라고 한다. 대용 표현에는 지시 표현에 사용되는 대명사 가운데 주로 ‘이’와 ‘그’ 계통의 것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잘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용은 화자 또는 청자의 말에서 언급된 것을 다시 가리킬 때 쓰인다는 점에서 화자와 청자로부터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과 구별된다.
(이삼형 외, 2013:238)

다음과 같이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¹⁵⁾을 같이 묶어서 제시한 경우는 다소 아쉽다. 자칫하면 학습자가 둘의 차이점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인용된 부분을 보면, 형식상 대명사를 활용하는 부분만이 같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을 뿐, 구어적 상황/문어적 상황에 따라 달리 쓰인다는 차이점과 상황맥락 의존적인지 여부도 달라진다는 점 등, 차이점을 주로 기술하고 있다.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

우리는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담화에서 자주 반복되는 대상을 대신 가리키고 싶을 때나 대상의 정확한 이름을 떠올릴 수 없을 때에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을 사용한다.

지시 표현은 구체적인 상황 맥락 속에 존재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언어 표현으로, 그 특성상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 주로 쓰인다. 지시 표현은 대상을 직접 가리키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 맥락이 주어질 때에는 지시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지만, 상황 맥락을 벗어나게 되면 지시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중략)

대용 표현은 담화 속에 이미 언급했거나 앞으로 언급할 언어 표현을 가리키는 언어 표현이다. 구체적인 상황 맥락이 주어져야 하는 지시 표현과는 달리, 대용 표현은 상황 맥락 없이 언어적 맥락만 주어져도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 (하략)

(한철우 외, 2013:160-161)

이처럼 ‘지시’와의 공통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는 경우, 대용의 본질을 익히는 이유가 바로 응집성 장치의 중핵임을 제대로 익히지 못할 수 있다. 대용은 사실, 대명사나 대용언 등의 대용어는

15) 물론 이는 텍스트에서의 기능을 생각할 경우에 한해서이다. 문장론에서 ‘지시’의 의미를 생각할 경우에는 ‘대용 표현’과 ‘지시 표현’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을뿐더러 개념상으로도 그 의미역을 공유하는 면이 많다. 지시, 대용, 조응의 세 용어는 동일 현상에 대한 이칭으로 생각되기도 할 정도이다(김광희, 2011).

물론이고 대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언어 표현이 대용의 기능을 갖는다. 이기갑(2006:134~5)에 의하면, 두 문장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명사일 경우, 후행 문장은 세 가지 방식에 의해 선행 문장의 명사를 지시하게 되는데, 원래의 명사가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완형), 원래의 명사를 대명사로 지시하는 경우(대용어), 그리고 명사나 대명사 등 명사적 표현 없이 무표적인 지시를 사용함으로써 표면에서는 명사가 생략되어 나타나게 하는 경우(무형)가 그것이다. 즉, 텍스트에서의 ‘대용 현상’이란 ‘완형(이른바 반복)’과 ‘무형(이른바 생략)’을 사용한 경우까지 더 포함하여 제시하여야만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잘 살려서, 응집성을 유지하기 위해 문법 장치가 쓰임을 명확히 언급하고, ‘지시, 접속, 대용’과 함께 ‘반복’까지 언급하고 있는 교과서가 있다.

응집성은 각각의 문장이나 문단이 다양한 문법적인 장치에 의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이때 사용되는 문법적인 장치에는 지시어, 연결어, 동일한 어휘의 반복, 대용어 등이 있다.

윤여탁 외(2013:168)

이렇게 보면, 결국 ‘지시’ 표현을 어떻게 기술하느냐도 관건이다. 지시 표현 기술 과정에서 ‘대용적 기능’과 ‘화시’적 기능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만¹⁶⁾ 텍스트성 일환으로서 학습자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명사’를 설명할 때는 ‘화시성’부터 설명해야만 하겠지만¹⁷⁾ 화시성은 엄밀히 말해 ‘텍스트성’을 유지하기 위한 응집성 장치가 아니므로, 이를 혼용하여 기술하면 안 될 것이다¹⁸⁾.

(의자를 가리켜) 어서 앉. ㉠ <u>거기</u> 앉아.	오내깁깁이야. 잘 지냈어?	지난주에 해남으로 여행 다녀온 거야? ㉡ <u>거기</u> 는 똥씨가 어땠어?	여기보다 따뜻하더라.
---------------------------------------	-------------------	---	----------------

위의 대화에서 ㉠의 ‘거기’는 상황 맥락 속에서 청자에게 가까운 곳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고, ㉡의 ‘거기’는 앞에서 언급된 언어적 맥락 속의 ‘해남’을 가리키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시 및 대용 표현은 담화의 상황 맥락이나 언어적 맥락¹⁹⁾ 속에 있는 요소를 대신하여 나타냄으로써 담화의 응집성을 드러내는 유용한 표현이다.

박영목 외(2013, 129)

16) 사실 ‘지시’라는 번역어 자체에도 모호함을 내포하고 있다. 신지연(2008:41)에 의하면 ‘지시’는 우리 문법에서 전통적으로 reference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demonstrative를 번역한 것이다. 그는 Lyons(1977:646)를 인용하면서, demonstrative는 그리스의 deixis에 대응하는 것으로 화시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국어의 지시관형사, 지시부사, 지시형용사, 지시동사도 화시적인 ‘이, 그, 저’에 기대고 있다고 하였다.

17) 화시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지시 표현에는 대표적으로 우리말의 지시 표현은 화자와 청자로부터의 물리적 거리에 따라 ‘이’, ‘그’, ‘저’ 세 가지로 분류된다.”라는 식의 기술을 의미한다.

18) 김광희(1992, 1994), 신지연(2008), 김광희(2011)에서는 대용과 관련되는 용어의 개념적 구분 참고.

19) 신지연(1993)에서는 Halliday & Hasan(1976:33)을 인용하여, 지시 표현을 크게 상황 지시와 문맥 지시로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에 의하면 상황 지시는 의식 속의 것을 지시하거나 상황에 실재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고 문맥 지시는 선행 지시-후행 지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교과서에서 이렇게 혼용하여 기술하는 것은 교육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접속 표현 역시, 본질적으로 연결 표지가 ‘대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지시 표현과도 관련성²⁰⁾을 지닌다. 그러므로 ‘의미 관계성’을 강조해야만 한다²¹⁾. 접속은 명제 내용의 의미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사실은 ‘구-절-문장’ 단위를 ‘의미 기능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²²⁾ 단순히 ‘접속어류’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자체만을 가르치게 되면, 접속 표현의 기술 내용이 다양한 양상을 포괄하지 못 하게 된다.

요컨대, ‘통일성’, ‘응집성’과 관련지어 ‘텍스트 운용 원리’로서 ‘대용’을 우선적으로 설명해야만 한다. 텍스트성과 관련하여 볼 때 ‘대용’은 ‘지시’, ‘접속’과는 층위가 다른 현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물론 ‘대용’이 ‘지시, 접속’과 비슷한 층위에서 설명될 수 있는 맥락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문장 문법이나 화용론 차원에서이며, 또한 ‘접속 표현의 일부’가 ‘대용 용언’에서 기인한다는 설명을 할 경우에는 비슷한 층위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성’의 일환으로서 대용 장치는 분명 가장 상위 층위의 개념이다.

쟁점3에서 논의한 바대로, 가장 상위의 응집 장치는 ‘대용’이며, 이를 중심으로 ‘지시, (생략), 접속’을 ‘의미 구성력’에 주목하여 재구조화하여 다룰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독서에서의 ‘담화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철학까지 수립할 수 있다. 담화의 모든 ‘의미의 덩어리’를 인식하면서 다루게 되면, ‘구성 요소’를 ‘형식적인 요건’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의미를 드러내는 단위로 보게 되는 것이다. 산발적으로 다루어 온 담화 표지 개념을 재구성, 조직할 필요가 있다.²³⁾ 그러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형적인 장치가 ‘중핵’이라는 것이다. 여전히 ‘대용, 지시, 접속’이 제일 중요하다. 이들이 어떻게 응집성을 보여주는지 훨씬 치밀하게 학습하도록 기술할 필요가 있다. 각 교과서에서는 ‘지시, 대용, 접속’에 대하여, ‘텍스트성’을 이해하는 데에 적절하도록 항목화하고, 그에 따라 재기술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2015[언어와 매체]에서도 [2009-독문-14]는 삭제되었는데, 성취 기준에서 삭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성은 충분히 부각되어 기술되었으면 한다.

4. 쟁점4. 문장과 담화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문법의 의미 구성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수 학습 하고 있는가?²⁴⁾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를 통일성을 지니고 형성한다는 것의 의미란 하위 단위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쟁점1~쟁점3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문법 영역에서 ‘모든 하위 단위’가 충분히 ‘의미와 관련하여’ 제대로 기술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사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지금까지 문법 영역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그 흐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여,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지금까지 문법 교육과정에서는 첫째, 담화에 대한 두 개의 관점이 공존하고 있고, 둘째, 문장 문법의 변화가 ‘관점으로서의 담화’와 동일한 언어관을 지니고 있다. 그에 따

20) 주경희(2001)에 의하면 ‘이와 달리, 이에 앞서’와 같은 대명사를 포함하는 언어 표현은 대용적 기능을 거의 갖지 않으며 접속사적으로 쓰임을 보이면서 기능 전환이 잘 일어난다.

21) 국어교육학 초기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들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연구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접속 현상의 ‘의미 관계성’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이은희(1993), 김호정(2000). 이와 같은 연구는 신지연(2005) 이후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절연속체’에서는 설명이 되나, 그 이상의 단위, 즉 문단 간의 의미 관계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더 나아가 연결어미 - 종결어미 - 접속 표현과의 관계성이 제대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다행히도 서종훈(2007), 서종훈(2009)에서는 ‘담화 연결표지’라는 용어로 ‘문단과 문단, 문단을 넘어서는’ 의미 연결성을 보여주는 방법론을 수립하려고 하나, 이러한 연구들이 극히 소수라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22) 이에 대한 논의는 주세형(2007), 제민경(2007), 조진수(2015) 참고.

23) ‘담화 표지’라는 개념을 비판하고 ‘텍스트 표지’ 개념으로 재정립하여 문법교육 내용으로써 심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연구는 조진수 외(2015) 참고.

24) ‘쟁점4’는 상당 부분 주세형(2014)에서 논의의 근거를 가져왔음을 밝힌다.

라 학습자는 ‘부문으로서의 담화’에 대해서는 표현 효과를 살펴보게 되고(주로 화용론적 개념 익히게) ‘관점으로서의 담화’는 ‘문장 문법의 교육 내용이 의미 구성력이 강화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다음 두 가지 성취 기준을 비교해 보자.

<2009 개정 -중1-3학년군- 문법>

(9)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문법적 의미를 실현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문법 요소들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정확한 문장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높임, 시간, 피동·사동, 부정 표현 등 국어의 주요 문법 요소들의 형태와 의미 기능을 실제 담화 상황 속의 다양한 문장 자료를 통해 탐구한다. 이러한 탐구의 결과가 정확하고 효과적인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과 습관을 기르는 쪽으로 이어지도록 지도한다.

(10)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적합한 국어 생활을 한다.

담화 자체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국어 생활을 반성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올바르게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담화의 기본 개념을 맥락(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이해시킨다.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하여 지역, 세대, 성별, 다문화 등에 따른 언어 변이 현상을 다룬다. 언어의 구체적인 의미는 실제 의사소통의 상황 속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알고 언어 표현을 화자·청자의 의도나 처지, 맥락 등과 관련지어 분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차별적 표현을 줄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표현을 익히는 등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키고 자신의 국어 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위 두 가지 성취 기준은 담화에 대한 두 관점이 대비되고 있다. 중1-3학년군 성취 기준 (10)은 ‘부문으로서의 견해’인 반면, 성취 기준 (9)는 ‘관점으로서의 견해’가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ey(1993, 이성범 역, 1996:52-53)에서는 화용론이 담화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견해로 나뉜다고 소개하고 있다. 해당 논저에서는 언어학의 한 ‘부문’으로 보는 견해, 하나의 언어학적 ‘관점’으로 보는 견해, 이렇게 두 견해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화용론을 부문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각각의 ‘모듈’이 고유하게 정해진 영역 안에서 잘 정의된 고유한 대상에 대해 고유하게 설정된 구체적 방법들에 의해 작동한다. 반면 관점론자의 견해는 언어학의 제 분야에 대한 화용론적 양상을 강조하여 언어학의 여러 부문들에 대해 심지어 ‘우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아래의 성취 기준 (12)는 문장 문법의 관점을 담화 쪽으로 더 강화한 것이다.

<2009 개정 -독서와 문법- 문장>

(12)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문법 요소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한다.

문장의 성분과 짜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문법 요소가 문장이나 글 전체에 미치는 표현의 의미 효과를 탐구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결 표현, 피동·사동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부정 표현, 인용 표현 등 주요 문법 요소들이 사용되는 양상을 이해하고 특히 독서와 관련지어 그것들이 문장과 글 전체에 미치는 표현의 효과를 탐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사문, 광고문, 시, 소설 등 실제 국어 자료를 통하여 학습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국어교육학계에서는 기존 구조주의 언어학 연구 성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황 맥락에 주목하였고 그러한 의도에서 담화 및 텍스트 단위에 주목한 것이므로, 화용론을 ‘부문’으로 보는 견해에 해당한다. 일찍이 이용주(1992:1)에서는 문장 구조를 설명하는 기존 학자들의 기술 방식을 비판하면서, ‘수신자가 담화를 이해하는 처지에서, 언어학자들이 표현된 담화를 분석 검토하는 기술적 처지에서’만 유효하다고 하였다. 이는 한 시대 이상을 앞서간 심오한 통찰이었으나, 그 철학만 남고 구체적인 기술 방법론이나 내용이 뒤따르지 않았다. 이성영(1995)에서 국어교육의 내용을 연구하기 위한 관점을 정립, 이용주의 언어철학을 받아들여 표현 의도를 중심으로 국어교육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그것이 화용론적, 담화 텍스트 차원에서만 도

출되어, '문장 이하의 문법'과는 거리가 있었다.

반면, 통합적 문법교육에서는 모든 언어 단위를 기능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관점으로서의 담화'를 취하였다. 텍스트를 언어 단위들의 조합이 아니라 '의미의 조합'(Halliday, 2003:355)이라고 보면, 통합적 문법 교육이 지향하는 체계 기능 중심성에서는 담화를 '또 하나의 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 대신, 끊임없이 이어지는 '절 연속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문장을 기능적으로 인식하는 과제'로써 '문장 및 담화'에 대한 체계 기능적 관점을 획득하게 할 수 있다. 문장을 정보 구조로 보거나, 문장 이하의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해 '의미 구성력'에 주목을 하는 것은 담화를 관점으로 보는 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2007 개정 문법 교육과정에서 '피동 및 사동 표현'은 해당 문법 요소로만 성취 기준이 구성된 유일한 경우이다. 다른 문법 요소들은 단독으로 성취 기준을 구성하지 않았으나 피사동 표현만 단독 성취 기준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2011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성취 기준 문면에서는 피사동 표현이 언급되지 않고 '문법 요소'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다.

2007 개정 7학년 문법 (4)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

내용 요소의 예

- 사동·피동 표현의 개념 이해하기
- 사동·피동 표현에 따라 의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기
- 사동·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심리적·사회적 특성 이해하기

2011년 개정 [중 1-3학년군] 문법 (9)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문법적 의미를 실현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문법 요소들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정확한 문장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높임, 시간, 피동, 사동, 부정 표현 등 국어의 주요 문법 요소들의 형태와 의미 기능을 실제 담화 상황 속의 다양한 문장 자료를 통해 탐구한다. 이러한 탐구의 결과가 정확하고 효과적인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과 습관을 기르는 쪽으로 이어지도록 지도한다.

2015 개정 [10국04-03] 문법 요소의 특징을 탐구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이 성취기준은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등의 문법 요소를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하여 원활하게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는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을 다루되, 문법 요소들의 형식적인 특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용되는 높임 표현과 번역 투로 잘못 사용되는 피동 표현 사례를 다루면서 실제 담화에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

2007 개정에서 피사동 표현만 별도로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많았지만, 문법교육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 이전에는 사동·피동 표현에 대한 구조적, 형태적 특징만을 이해하도록 했지만, 같은 사태를 두고 다른 문법 범주를 선택했을 경우 화자 또는 필자의 표현 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사건을 접한 다섯 명의 화자가,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발화했다고 해 보자. 각자가 무엇에 초점을 두어 표현하고자 하였는지 해석해 보는 것이다. '행위자', '피행위자', '사건의 원인', '사건의 결과' 등과 관련하여 서술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소를 우선 분석해 보고, 의미 차이를 분석해 보자. 특히, 피동이나 사동 표현 양쪽 다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큰 사건이 일어났다.

큰 사건이 저질러졌다.

도둑이 큰 사건을 저질렀다.

과연 어떠한 동기가 그 도둑이 큰 사건을 저지르게 하였는가?

피해자는 그 사건으로 인해 도둑에게 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처럼,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은 그 표현 자체가 의미와 긴밀히 관련지어 탐색할 수밖에 없는 문법 범주이다. 그리하여 국어학계에서는 심지어 피동 표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미 범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일기까지도 했다. 그러므로 2007 개정에서는 최초로, 피동 및 사동 표현을 시작으로 하여, 문법이 의미 구성력을 지니는 점에 초점을 두도록 하는 성취 기준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에는 피사동 표현뿐만이 아니라 인용 표현, 부정 표현, 시간 표현 등 다른 문법 요소들에 대해서도 의미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탐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텍스트성 이해를 위한 문법교육 내용은 향후 더 심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문장 문법’ 교육 내용도 ‘의미 구성력’에 주목하여, 모두 텍스트성에 기여하는 부분을 제대로 기술해 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의미 구성’이라는 기술이 모두 사라지고 ‘표현 효과’로 일제히 바뀐 것은, 혹시 문장 문법의 의미 구성력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을까 하여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독서와 문법>이라는 과목이 과연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큰 쟁점이었다. ‘독서’라는 ‘과목’과 ‘문법’이라는 ‘과목’ 양쪽 모두 전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구 영역 역시 분리되어 있어, 이를 통합할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이다. 정책적으로 ‘결합하라는 강압’에 의해서 새삼스럽게 결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다. 그러나 ‘문법’의 본질에 입각하여 생각해 보면 사실 ‘문법’은 ‘독서’든 ‘작문’이든 ‘화법’이든, 심지어는 ‘문학’과도 얼마든지 통합하여 교수 학습할 수 있다. 단, 어느 경우에도 진정한 통합적 문법 교육이란 학습자의 언어 수행 ‘과정’을 ‘언어’로써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주세형(2005,2013,2014). 독서에 초점을 맞춘다면, ‘언어화’ 과정(제민경, 2015)이며 주세형·조진수(2014)에서의 독서의 언어학, 교수 학습 패러다임을 ‘언어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독서와 문법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 제공될 만한 ‘언어적 요소’가 풍부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해당 언어적 요소가 ‘독서’와 어떤 관련성을 맺는지 성취 기준상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현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 통합의 취지를 잘 살리려고 한다면, 앞서 ‘문법’ 성취 기준에 제시된 ‘지시, 대응, 접속 표현’을 어떻게 독서 행위와 긴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독서와 문법>에 존재했던 ‘통일성, 응집성’ 관련 성취 기준 하나만을 검토해 보아도, 통합을 위한 노력은 문법교육학에서 더욱 정진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분리되는 ‘독서’와 ‘문법’, 그래도 계속 ‘통합’을 생각하는 이유는, ‘독서와 문법’의 통합이란 바로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관계이므로, 과목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뀌든지 이 관계는 근본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매체와 언어라는 과목이 생김으로써 더 근본적인 통합이 필요한 시기이다. 다음 개정에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문법’이 무엇과 결합하든, ‘문법’이라는 명명으로써 명시화가 되든 안 되든, 확장된 문법관에 의거하여 다양한 국어 활동 과정에 문법 영역이 타 영역에 어떻게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지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Mey, J.L.(1993), *Pragmatics*, /이성범 역(1996), 『화용론』, 한신문화사.
- 김광희(2011), 대용표현, 국어학60: 360-388.
- 김은성·남가영·박재현·김호정(2009). 고등학교 <문법> ‘이야기’ 단원의 내용 구성
- 김호정(2000), 담화 내의 ‘역접 관계’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11:135-157.
- 박영민(2004), 국어과 교육과정 용어의 진술과 개념 - 통일성, 응집성, 일관성을 중심으로-, 독서연구11: 181-206.
- 서종훈(2007), 담화연결표지 사용을 통한 문단 인식 양상 : 고등학교 1학년의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123: 375-404.
- 서종훈(2009), 문단 인식 방법론에 대한 시론, 한말연구 24: 115-140.
- 신지연(1993), 구어에서의 지시어의 용법에 대하여, 어학연구 29,3('93.9) pp.363-381
- 신지연(2005), 단락 경계에서의 '그러나'의 의미 기능, 텍스트언어학19:83-107.
- 신지연(2008), 국어 대명사의 품사론, 한국어학 38: 33-56.
- 양미경(2008),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교육과학사.
- 이기갑(2006), 국어 담화의 연결 표지-완형 표현의 반복, 담화와 인지13-2:133-158
- 이성영(1995), 『국어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용주(1992), 「발신자의 ‘선택’에 대하여」, 『선청어문』2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p.1-13.
- 이용주(1993), 「‘표현’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선청어문』2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p.1-7.
- 이은희(1993), 접속관계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제민경(2007), 언어 단위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진수(2015), ‘문장 확대’ 교육 내용의 다층성 연구, 국어교육학연구50-3: 268-295.
- 조진수·노유경·주세형(2015a), ‘텍스트 표지’ 교육 내용에 대한 문법교육적 고찰, 국어교육150:1-31.
- 조진수·노유경·주세형(2015b), 학습자의 논증 텍스트에 나타난 ‘것 같다’에 대한 문법교육적 고찰,
- 주경희(2001), 대명사의 특성, 한국어 의미학8: 83-108.
- 주세형(2007a), 「텍스트 속 문장 쓰기와 문법」, 『한국초등국어교육』34.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pp.409-443.
- 주세형(2007b), 「쓰기 교육을 위한 대안적 문장 개념」, 『어문연구』 33-4, 어문연구학회, pp.475-501.
- 주세형(2014). 통합적 문법 교육의 전제와 학문론적 의의. 국어교육연구 34, .57-86.
- 주세형·조진수(2014). 독서의 언어학. 청람어문교육 52, 197-232.

■ 토 론

“통일성과 응집성 관련 성취 기준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토론문

오현아(강원대)

선생님께서 “‘국어교육학적으로 기본이 되는 개념이면서도 언어적 분석이 필요한 작업’들에 대해 그 교육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탐색하기 위한 본질적 논리를 마련하는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발표문 2쪽)”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통일성과 응집성’ 관련 성취 기준이 역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꾸준히 다루어져 왔으며 여러 영역을 거쳐 핵심 성취 기준으로 삼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현행 독서와 문법 교과서 6종을 중심으로 해당 성취 기준이 실현된 단원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심화, 상세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을 밝히고 계십니다.

‘화행론, 담화 분석, 텍스트언어학의 연구 성과가 국어교육 혹은 문법 교육에서 교육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고, 다루어져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평소 관심이 있던 제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학회 측과 발표자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한참 어린 후배 연구자인 제가 과연 토론을 잘해낼 수 있을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선생님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후학의 입장에서 제가 잘 알지 못하여 설명을 청해 듣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크게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담화’라는 용어의 개념과 그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는 것이 국어교육 혹은 문법교육적으로 유의미할 것인가?”이며, 이 내용은 다시

- 1) ‘담화’와 ‘글 혹은 텍스트’의 개념을 구분할 것인가? (쟁점 1,2 관련)
- 2) ‘담화’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한다면, 화용론적 관점에서 기술된 것과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에서 기술된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쟁점 3,4 관련)
- 3) “‘화시성’은 엄밀히 말해 ‘텍스트성’을 유지하기 위한 응집성 장치가 아니므로, 이를 혼용하여 기술하면 안 된다(발표문, 20쪽)는 기술은 ‘텍스트’를 ‘담화’와 구분 짓고 ‘텍스트성’과 ‘담화성’을 구분하는 논의인가?(쟁점 1-4 관련)
- 4) 담화 및 텍스트 언어 단위에 대한 주목이 화용론을 ‘부문’으로 보는 관점에만 해당되는가? (쟁점 4 관련)
- 5) 결국 ‘담화-텍스트, 발화-문장, 담화성, 텍스트성’ 이들 용어들은 국어교육 혹은 문법교육에서 어떠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가?(쟁점 1-4 관련)

하는 다섯 가지 의문으로 상세화됩니다.

- 1) ‘담화’와 ‘글 혹은 텍스트’의 개념을 구분할 것인가?(쟁점 1, 2와 관련)

(1) 선생님께서 2011 개정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 (13), (14)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현행 <독서와 문법> 6종의 교과서를 검토하시면서, “화용론 연구와 텍스트언어학 연구 성과들이 각기 융합되지 않고 독립적 성취 기준으로 기술되어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해결해야 할 논리가 필요하고, 각 교과서마다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발표문, 14쪽)”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분석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담화’와 ‘글 혹은 텍스트’ 개념은 구분해야 할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이는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개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에

서는 ‘담화 또는 글, 말과 글’이 나란히 언급되다가 실제 성취기준에서는, 특히 문법 영역에서 ‘담화’라는 용어 하나로 통일되어 쓰이면서 개념 상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아 여쭙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2012 개정 교육과정
목표	. ‘국어’ 교과에서 학습자는 국어 활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u>담화 또는 글의</u> 내용을 정확하고비판적으로 이해하고...	. ‘국어’ 교과에서 학습자는 국어 활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u>담화 또는 글의</u> 내용을 정확하고비판적으로 이해하고...
	. 나. 다양한 유형의 <u>담화와 글</u> 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 나. 다양한 유형의 <u>담화와 글</u> 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내용	[중1-3문법](9)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u>담화 상황</u> 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중1-3문법](10) <u>담화</u> 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u>담화 상황</u> 에 적합한 국어 생활을 한다.	[중1-3문법](9)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u>담화 상황</u> 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중1-3문법](10) <u>담화</u> 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u>담화 상황</u> 에 적합한 국어 생활을 한다.

<표1>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12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담화’ 용어 기술 양상 일부

2) ‘담화’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한다면, 화용론적 관점에서 기술된 것과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에서 기술된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쟁점 3.4 관련)

국어교육 관련 연구자들은 <표1>과 같이 ‘담화’라는 용어가 그 범위가 다르게 쓰인다고 해도, 맥락에 따라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해의 여지는 여전히 있으며, 교육과정 문서 혹은 성취 기준 기술에서의 ‘담화’와 ‘글 혹은 텍스트’는 어떤 용어로 통일되어야, 국어교육 관련 종사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는 용어 구분이 가능할까요? 혹은 ‘담화와 글’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3) “‘화시성’은 엄밀히 말해 ‘텍스트성’을 유지하기 위한 응집성 장치가 아니므로, 이를 혼용하여 기술하면 안 된다(발표문, 20쪽)는 기술은 ‘텍스트’를 ‘담화’와 구분 짓고 ‘텍스트성’과 ‘담화성’을 구분하는 논의인가?(쟁점 1-4 관련)

첫번째 독자로서 토론자인 저는 선생님을 글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기술들을 통해 선생님께서 ‘담화’를 ‘구어성’과 ‘문어성’의 양 극성의 성격으로 기존의 화용론적 관점의 ‘담화’라는 용어와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의 ‘텍스트’라는 용어를 ‘담화’라는 하나의 용어 안에 담아 사용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시 표현’의 ‘대용적 기능’은 문어성 차원으로, ‘화시적 기능’은 구어성 차원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발표문 20쪽에서는 그러한 제 이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여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텍스트’와 ‘담화’를 ‘문어 차원’과 ‘구어 차원’으로 구분하고 계시다면, ‘텍스트성’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통일성과 응집성’을 기술해 주고 계신데, ‘담화성’에 기여하는 개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청해 듣고 싶습니다.

쟁점1.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자 할 때(2009-독문-13), ‘구어로서의 담화’와 ‘문어로서의 텍스트’의 차이점을 적절히 풀어냄으로써 이후 텍스트성을 이해하는 데에 바탕이 되도록 하고 있는가?(발표문, 10쪽)

그러므로 (1) 소단원에서 [2009-독문-(13)]을 구현할 때부터 ‘구어성’과 ‘문어성’, ‘발화’와 ‘문장’, ‘담화’와 ‘텍스트’, ‘언어적 맥락’과 ‘상황 맥락’ 개념간의 고민을 잘 풀어내고, ‘텍스트성’을 이해할 수 있게 연계되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 소단원에서 배우게 될 텍스트성에 대하여, 학습자가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다.(발표문, 12쪽)

4) 담화 및 텍스트 언어 단위에 대한 주목이 화용론을 ‘부문’으로 보는 관점에만 해당되는가? (쟁점 4 관련)

선생님께서 “문장 문법의 변화가 ‘관점으로서의 담화’와 동일한 언어관을 지니고 있다. 그에 따라 학습자는 ‘부문으로서의 담화’에 대해서는 표현 효과를 살펴보게 되고(주로 화용론적 개념 익히게) ‘관점으로서의 담화’는 ‘문장 문법’의 교육 내용이 의미 구성력이 강화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발표문, 21쪽)”고 언급하고 계신데, ‘부문으로서의 담화’와 ‘관점으로서의 담화’ 구분이 명확하게 가능할지요?

‘문장 문법’에서의 변화가 ‘관점으로서의 담화’와 동일한 언어관인 것은 언어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문장을 대상으로 문장 문법이 기술되고 있는 문법 기술의 변화에 주목한 것일 텐데, 문장 이상의 층위인 ‘부문으로서의 담화’에서도 실제 언어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담화를 대상으로 문법이 기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둘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것은 아닌지 여쭙습니다.

다음 인용에서도 전반부는 ‘관점으로서의 담화’로, 후반부는 ‘부문으로서의 담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기존 구조주의언어학의 연구 성과가 ‘통사론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어 보여 여쭙습니다.

국어교육학계에서는 기존 구조주의 언어학 연구 성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황 맥락에 주목하였고 //그러한 의도에서 담화 및 텍스트 단위에 주목한 것이므로, 화용론을 ‘부문’으로 보는 견해에 해당한다.(발표문, 22쪽)

5) 결국 ‘담화-텍스트, 발화-문장, 담화성, 텍스트성’ 이들 용어들은 국어교육 혹은 문법교육에서 어떠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가?(쟁점 1-4 관련)

결국은 이상의 의문들을 하나로 통합해 다시 여쭙습니다. 평소 거시적인 안목으로 새로운 연구 주제에 대한 안목을 넓혀 주시는 발표자 선생님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인 고견을 청해 듣고 싶은 제 사심이라 죄송스럽습니다.

끝으로, “‘통일성과 응집성’ 관련 성취 기준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신 발표자 선생님의 고견을 먼저 접할 수 있었던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의 짧은 소견으로 이 연구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오독한 부분은 없는지 염려하면서 이상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어 교과서에서 매체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1)

신 호 철(청주대)

< 차 례 >

1. 서론
2. 국어 교과서와 매체
3. 국어 교과서 속 매체별 활용 유형 분석
4. 국어 교과서에서 매체 활용 방안
5. 결론

1. 서론

다양성이 강조되는 시대 속에서 다양성을 더욱 다양성 있게 특징지어 주는 것이 매체(Media)가 아닌가 한다. 동일한 현상이나 사태(事態)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현상이나 사태로 변모시켜 주는 까닭이다. 어찌보면 매체란 것이 본래 복합 양식(Multi-mode)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모습으로 변환시켜주는 양상을 띠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스펙트럼과 같이 다채로운 색으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속성에 매료될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모습을 면밀히 관찰한 다음에 우리 국어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안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실행하여 국어교육의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어교육 내에서 매체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 다수의 연구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어교육적 실행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국어교육의 한 영역으로, 매체의 본질적 속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매체를 통한 국어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으로, 교육과정의 한 과목으로 등 다양한 관심거리로 국어교육 분야에서 매체를 다루어 왔다.

본고에서는 매체와 국어 교과서의 관계를 다룬다. 즉 국어 교과서 중 문법 과목의 교과서에 매체가 어떠한 양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고찰하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논의에서 보면 국어교육 내 매체 교육의 변화에 대한 논의(정진석:2010, 이영창·오현아:2015)나 국어교육 내 매체의 수용 방안에 대한 논의(정현선:2005, 최미숙:2007, 엄해영:2013, 조재윤·엄해영:2015, 백혜선·김지연:2015, 심유나:2015)나 등이 있었다.

이들은 국어교육에서 매체에 대한 교육 내용이 어떠한지 교육과정 시기별로 구분하여 매체 교육 내용의 특징적 변화를 고찰하는 논의나 국어 교과서에 어떠한 모습으로 매체를 담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들이었다. 특히 매체 수용 양상에 대한 논의들은 국어과 교육과정 내에 매체가 어떠한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나 교과서에 매체에 대한 교육과정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한 논의였다.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고 교과서에 제시된 텍스트의 주제에 맞게 적용하였는가에 대한 분석으로 마무리하였다. 곧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과서의 실현 내용을 비교·검토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 이 논문은 2014학년도에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는 매체가 국어교육의 본질인 텍스트에 대한 수용과 생산적 능력을 신장하는데 어떠한 역할과 기능으로 일조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국어 교과서에 매체가 개재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교수·학습하기 위함으로 수단이나 도구적인 성격이 강하다.¹⁾ 이러한 경우 매체가 과연 어떠한 수단이나 도구적인 성격으로 활용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단순히 흥미와 동기 유발을 위한 수단만으로 매체의 기능을 폄하하기에는 매체의 역할과 기능이 지대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먼저 국어 교과서-특히 문법 교과서-와 매체와의 관계에 대하여 사적(史的) 고찰을 약술(略述)하고, 최근 국어과의 문법 과목 교과서에서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2015 개정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개발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매체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2. 국어 교과서와 매체

국어과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라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과이다. 기본 대상이 언어라는 텍스트이다보니 교과서의 기본 구성물은 문자 텍스트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다 과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 생활에 필수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국어과 내에서도 매체의 기능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국어과 교육 내용으로서 매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정진석(2010:300~308)에서는 초기 매체 교육 환경을 ‘계몽’ 차원의 담론으로 정의하였다. 곧 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다수의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곧 방송, 영화, 라디오, 전화, 신문, 잡지, 희곡, 시나리오 등 생활 관련 매체들이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등장하면서 매체 교육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교육과정의 시기와 사회적 특성에 따라 국어과 내에서 매체 교육은 다양하게 변모하였다. 이영창·오현아(2015:332~333)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매체 교육을 5단계로 구분하였다.

(1)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매체 교육 변화 양상

- 가. 1-2차 교육과정기 : 매체 인식 태동 단계
- 나. 3-4차 교육과정기 : 매체 교육 침체 단계
- 다. 5-6차 교육과정기 : 매체 자료 읽기 관심 단계
- 라. 7차 교육과정기 : 매체 자료 활용 관심 단계
- 마. 2007-2011 개정 교육과정기 : 매체의 언어적 속성 중요성 인식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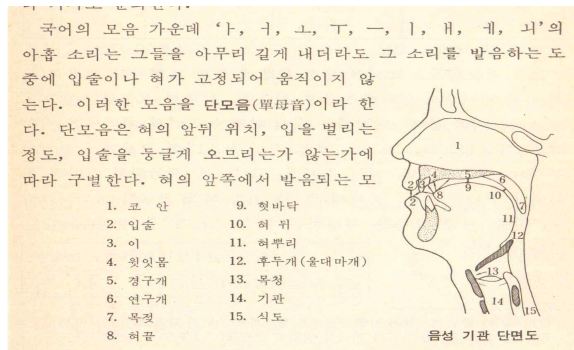
매체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한 매체 교육은 전통적 가치관과의 충돌을 일으키며 부정적 인식을 가져오며 매체 교육의 침체기를 겪다가(이영창·오현아, 2015:338), 다시금 사회적으로 매체의 사회적 기능의 확대로 오늘날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보통 매체는 교과서 내에서 대단원 표지나 도입, 본문 등 관련 학습 내용에 사진, 그림 자료 등의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매체를 통해 텍스트를 재생산하는 경우, 매체의 텍스트를 교수·학습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 교육과정 시기의 문법 교과서를 살펴보면 타 과목의 매체 적용과 현격히 다를 수 있다.

초기 검인정 시기는 물론이고, 국정 시기였던 4차 이후 문법 교과서에서도 매체 관련 자료는 교과서 내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4차, 5차 교육과정 시기 문법 교과서(1985, 1991)에서 단 한

1) 본고에서 ‘매체’를 ‘매체 언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곧 ‘매체’는 ‘교육 수단’으로, ‘매체 언어’는 ‘교육 내용’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국어교육에서 다루는 교육 내용은 ‘매체 언어’로서의 ‘매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매체’를 국어교육을 실행하는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적인 것으로 간주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까닭이다.

군데, 음운 단원에서 음성 기관 단면도를 제시한 그림 하나뿐이다. 타 과목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그림이나 사진 자료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 음성 기관 단면도(4차 문법 교과서, 1985, 153쪽)



이러한 양상은 6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정 문법 교과서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 2002년에 발행된 7차 문법 교과서에서 매체를 대량 수용하여 반영하였다. 따라서 (1)에서 구분된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매체 교육 변화 양상은 그것이 실현된 교과서, 특히 문법 교과서에서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²⁾

이러한 사정은 문법이라는 과목의 언어 재료적 특성, 교수법적 특성, 문법 연구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우선 문법 과목은 타 과목과 달리 한국어라는 언어를 대상으로 학습한다는 데 있다. 문학이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과목에서는 텍스트(음성 언어.문자 언어)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이야기(Story)가 있고 그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구성(Plot)을 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문법 과목은 언어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 재료로서 이야기(Story)나 이야기의 구성(Plot)을 대상으로 할 필요성은 없었다. 또한 이전에는 문법은 단편적인 암기 중심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문법 교과서는 암기 대상이었던 문법적 지식에 대한 설명으로 전체를 구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 암기에 굳이 매체를 활용할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이전 시기에 문법 연구에 등장하는 언어 재료는 일상 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 재료가 아닌 문법적 지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공된 단편적인 언어 재료였다. 따라서 매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법적 지식을 설명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그러던 것이 문법의 지식 주입식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교수법의 변화 등으로 타 과목과 마찬가지로 매체가 문법 교과서에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현재와 같이 대량의 매체를 적용.활용하게 되었다.

3. 국어 교과서 속 매체별 활용 유형 분석

본고에서는 2007년 김인정 문법 교과서를 대상으로 매체별 활용 기능에 대하여 고찰한다.³⁾ 즉 사진, 그림, 영화, TV, 라디오, 컴퓨터, 인터넷, 애니메이션, 신문, 잡지, 광고, 문학 작품 등의 매체 종류에 따라 교과서에서의 어떠한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유형화하여 정리한다.

2) 문법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시기별 매체 교육 변화 양상은 극단적으로 ‘무(無) 매체기’와 ‘매체기’의 두 시기로 양분할 수 있을 것이다.

3) 2013년에 간행된 6개의 문법 교과서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각각 출판사명을 사용하여 해당 문법 교과서를 지칭한다.

3.1. 사진 매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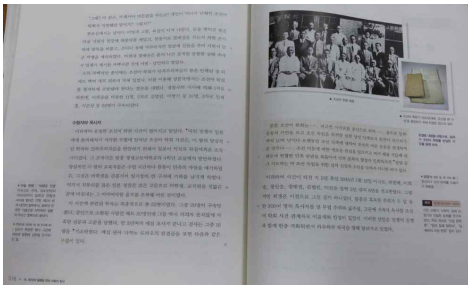
사진 매체류는 카메라를 통하여 어떤 대상을 실사화한 매체를 가리킨다. 대표적인 매체는 사진, 신문,잡지의 이미지 사진 광고, 영화 등의 포스터 사진 등이다. 사진 매체류는 대체로 단원의 표지, 들어가기, 본문이나 학습 활동의 제재 글 부분, 학습 활동, 학습 관련 참고 자료 안내 등 교과서 전체에 골고루 등장한다.

(3) 사진 매체류의 예시

가. 대단원 표지(천재교육, 42~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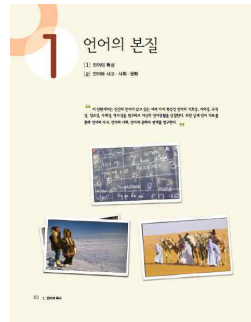
다. 제재 글 부분(미래엔, 319쪽)



마. 학습 관련 참고 자료 안내(비상, 45쪽)



나. 들어가기(비상, 10쪽)



라. 학습 활동(비상, 77쪽)



사진 매체류는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과서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다. (3가)는 대단원 표지에 사용된 사진 매체이다. 그러나 이 사진 자료는 ‘국어 구조의 이해’라는 대단원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그림으로 한글 자모를 도안하지 않았다면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사진이 될 수 있다. 이 사진 자료는 단지 표지 디자인적인 성격이 강하다. 6개의 문법 교과서 중 사진 자료만으로 구성하고 있는 교과서는 없고, 사진과 그림을 혼합한 것이 두 개(비상, 미래엔)이고, 네 개 교과서는 모두 그림 자료를 이용하여 대단원 표지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대단원 표지가 단원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거나 이해시키는 기능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나)에 제시된 사진 자료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지만 중소단원 제목과 본문 설명을 읽어 보면 사진 자료와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곧 언어가 다양하며, 각 사회와 문화에 따라 언어의 특성이 달라짐을 유추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다)에 제시된 사진 자료는 조선어 학회 회원 사진이다. 이 사진 자료는 글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글의 내용 이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글의 내용 이해를 보조할 수 있는 실증적인 사진 자료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와 같이 주요 문법 내용을 다루는 단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추상적인 실재인 언어의 구조를 다루기 때문에 이를 실사화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3라)는 학습 활동에 제시된 사진 자료이다. 이 사진 자료는 학습 활동에 제시된 문장을 사진으로 병렬적으로 나열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이 사진 자료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곧 부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는 사진 자료라 할 수 있다.

(3마)는 학습 관련 참고 자료를 제시하는 사진 자료이다. 학습 관련 자료로 실증적인 사진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제시 자료의 실제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대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의 매체 자료는 사진 자료가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사진 매체는 문법 교과서 내에서 디자인적 기능, 추론적 기능, 이해적 기능, 부수적 기능, 실증적 기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3.2. 그림 매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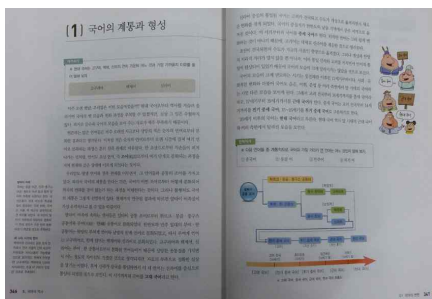
그림 매체류는 그림을 통하여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이미지화 매체를 가리킨다. 대표적인 매체는 그림으로 디자인, 도식화한 그림 등이다. 그림 매체류는 대체로 단원의 표지, 들어가기, 본문이나 학습 활동의 제재 글 부분, 학습 활동 등으로 교과서에 사용되고 있다.

(4) 그림 매체류의 예시

가. 단원 표지(지학사, 132~133쪽)



다. 제재 글 부분(지학사, 347쪽)



나. 들어가기(미래엔, 166쪽)



라. 학습 활동(지학사, 18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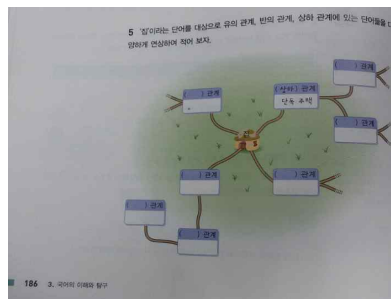


그림 매체류는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법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선 (4가)는 대단원 표지

부분에 제시된 자료이다. 이 자료 역시 매체 자료의 디자인적인 성격이 강하다. 곧 교과서의 주요 내용인 ‘국어의 이해와 탐구’ 부분에 ‘나팔꽃’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인데,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사진 매체가 대단원 표지 부분에 사용되었던 것과 동귀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4나)는 들어가기 부분에 제시된 그림 매체이다. ‘글의 구성 요소’란 단원을 퍼즐을 짜맞추는 그림으로 제시하여 마치 글이 퍼즐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매체 자료이다.

(4다)는 글의 본문 속에 사용된 그림 매체이다. 이는 국어의 변천 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낸 그림 자료이다. 곧 본문에서 내용을 설명한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내용 전개 과정을 그림을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글의 이해를 돕는 이해적 기능의 그림 자료라 할 수 있다.

(4라)는 학습 활동에 제시된 그림 자료이다. 이 학습 활동은 단어 ‘집’에서 의미 관계에 따라 연상되어지는 단어들을 나열하는 학습 활동으로, 그림 자료는 학습자들이 학습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시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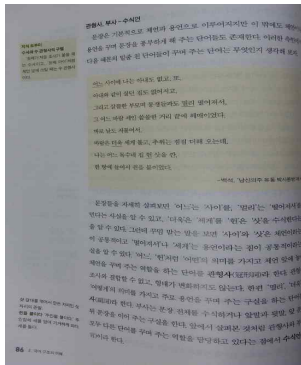
이와 같이 그림 매체는 문법 교과서에서 디자인적 기능, 추론적 기능, 이해적 기능, 시각적 기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3.3. 텍스트 매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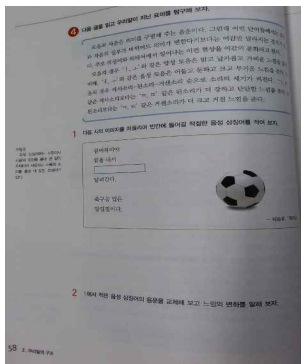
텍스트 매체류는 문자 언어를 통하여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표현하는 매체를 가리킨다. 대표적인 매체는 글 자료로 문학 작품, 신문 기사, 잡지 기사, 저서, 노래 가사 등이다. 텍스트 매체류는 대체로 본문이나 학습 활동의 제재 글 부분, 학습 활동 등으로 교과서에 사용되고 있다.

(5) 텍스트 매체류의 예시

가. 글 제제 부분(창비, 8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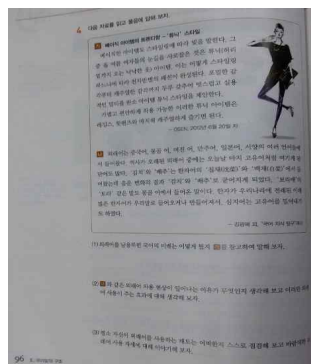
다. 학습 활동(비상, 58쪽)



나. 학습 활동(창비, 150쪽)



라. 학습 활동(비상, 96쪽)



텍스트 매체류는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로 글 제제 부분과 학습 활동 부분에 사용되었다. (5가)는 백석의 작품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서 발췌해 온 자료이다. 이 자료는 관형사와 부사를 설명하기 위하여 실생활 속에서 사용된 실제 언어 자료를 제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곧 실제적인 자료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5나~라)는 학습 활동에 제시된 텍스트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은 신문 기사(5나), 시 작품(5다), 잡지 기사(5라 上), 저술 내용(5라 下) 등이다. (5나)는 제시된 학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된 신문 기사 자료이다. 그러나 신문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주제를 찾는 학습 활동이 아닌 신문 기사에 있는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앞에서 학습한 문법 내용을 분석하여 적용해 보는 학습 활동이다. (5가)와 마찬가지로 신문 기사가 자료적인 요소로 사용되었다. (5다)에 제시된 시 작품 속에서도 시어로 사용될 수 있는 음성 상징어를 적어 보는 학습 활동이다. 시 내용이나 주제와는 관련성이 적다.

그러나 (5라)에 제시된 잡지 기사나 저서 내용에서는 자료적 기능보다는 제시된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해 보는 기능을 엿볼 수 있다. 외래어 남용의 실상과 외래어 차용 현상을 자료로 보여주고 이와 관련하여 외래어 사용에 대한 인식에 대한 학습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텍스트 자료가 자료적 기능에서 추론적 기능으로 확산되는 확산적 사고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텍스트 매체는 주로 본문이나 학습 활동의 자료적 기능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고의 확산 기능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3.4. 애니메이션 매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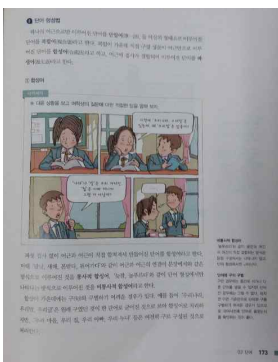
애니메이션 매체류는 주로 그림과 문자 언어를 사용하여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만화 형식으로 표현하는 매체를 가리킨다. 대표적인 매체는 만화가 있다. 애니메이션 매체류는 대체로 들어가기, 본문이나 학습 활동의 제제 글 부분, 학습 활동 등으로 교과서에 사용되고 있다.

(6) 애니메이션 매체류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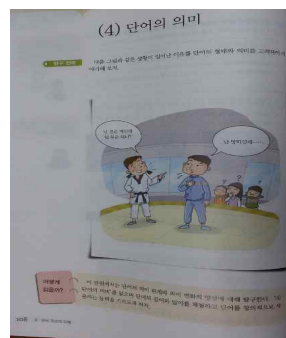
가. 중단원 들어가기(교학사, 34~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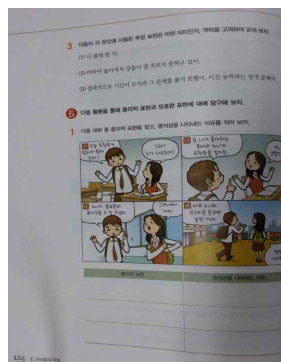
다. 글 본문(지학사, 173쪽)



나. 소단원 들어가기(교학사, 108쪽)



라. 학습 활동(비상, 124쪽)



애니메이션 매체류는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과서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문법 교과서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매체 자료가 애니메이션 자료이다. (6가)의 경우는 중단원 들어가기 내용을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들어가기 부분에 글로 설명 자료를 제시하는 데 비해 (6가)는 글 자료를 대신하여 상대적으로 긴 분량의 만화를 이용하여 설명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가미한 해설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6나)도 중단원의 들어가기에 제시된 애니메이션 자료이다. 그러나 (6가)와 달리 해설적 기능을 한 다기보다는 상황 제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법 교과서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일정한 담화 장면을 제시하는 경우가 다수 보인다. 곧 담화 장면에서 등장하는 어휘나 문장들을 제시하는 것인데, 주로 담화 장면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화를 제시한다. 그리고 제시된 대화 내용을 보고 학습자들에게 이해나, 추론을 통한 탐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6다)는 글 본문 속에 제시된 애니메이션 자료이다. 이는 본문에 기술된 문법 내용 설명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만화를 사용한 것이다. 캐릭터를 등장시켜 마치 교실에서 학습하는 문법 내용이 실생활에 살아있는 언어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는 애니메이션 자료가 해설적 기능 외에도 추가적으로 생동감을 부여하는 만화적 기능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라)는 학습 활동에 제시된 애니메이션 자료이다. (6라)에서는 학습 활동의 주요 내용을 만화로 제시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해당 학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내용의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 자료는 주 내용 재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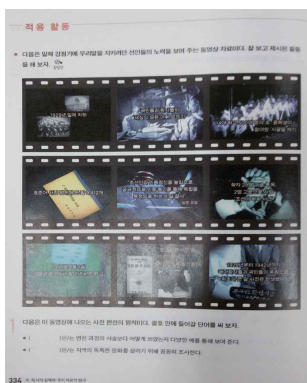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 매체는 기본적으로 유희적 기능을 가지며, 해설적 기능, 탐구적 기능, 만화적 기능, 내용적 기능 등으로 문법 교과서에서 활용되고 있다.

3.5. 영상 매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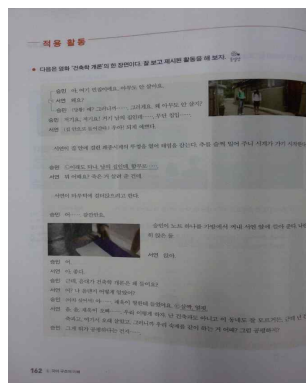
영상 매체류는 주로 어떤 이야기나 현상 등을 영상화하여 모니터, 브라운관, 스크린 등을 통하여 표현하는 매체를 가리킨다. 대표적인 매체는 영화,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 TV 등이 있다. 영상 매체류는 대체로 학습 활동의 제재 글 부분 등으로 교과서에 사용되고 있다.⁴⁾

(7) 영상 매체류의 예시

가. 글 제재(창비, 3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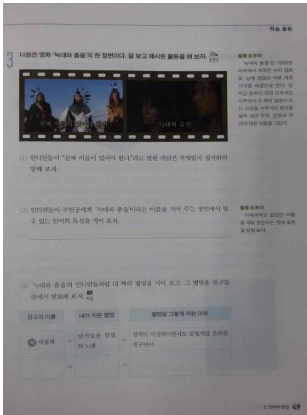


나. 학습 활동(창비, 1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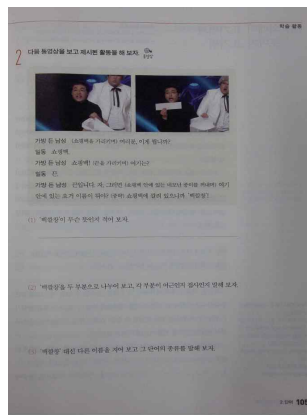


4) 참고로 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스타일즈, 바이센테니얼 맨, 터미네이터, A.I, 가위손, 공각기동대’ 등의 영화 매체의 한 장면들이 ‘단원을 배우기 전에’ 부분에 사용되었다.([고등학교 문법], 2002, 51쪽)

다. 학습 활동(창비, 49쪽)



라. 학습 활동(창비, 105쪽)



(7)에 제시된 영상 매체류는 주로 영화의 한 장면이나 TV의 한 장면을 담아 제시한 것이다. 교과서에는 동영상 제재로 표시되어 있어 CD롬이나 저장 매체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교과서에서는 영상 자료도 제재로 제시되고 있는데, 글로만 제재보다 학습자들에게 더욱 흥미적인 요소를가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텍스트 매체와 다른 영상 매체의 특성도 이해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학습을 기대할 수 있다.

(7가)의 경우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여야만 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영상의 내용이 일제 강점기에 우리말을 지키려던 선인들의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어 수난과 발전’이란 단원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는 영상 매체의 흥미 요소보다 주요 내용을 제시하는 기능이 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제재의 내용 제시적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나)의 경우는 영화의 한 장면 제시하고 그 속에 사용된 대화 내용에서 담화적 특성을 찾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학습 활동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텍스트 매체류의 실제 언어 자료를 제시하는 자료적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

(7다)의 경우는 제시된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언어의 특성을 찾는 학습 활동이다. 이는 영상 내용을 이해하고 주어진 학습 활동에 맞게 수행하는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 곧 영상 자료의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추론해 내는 추론적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라)는 제시된 영상 자료에 등장하는 한 단어의 의미와 구조 분석을 학습하는 자료이다. 그래서 영상 자료뿐 아니라 텍스트 자료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학습 활동을 이해시키기 위해 텍스트 자료만으로 충분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실증적 자료 제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상 매체류는 내용적 기능, 자료적 기능, 추론적 기능, 실증적 기능으로 문법 교과서에서 활용되고 있다.

3.6. 기타 혼성 매체류

기타 혼성 매체류는 두 매체 이상이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나, 사진, 그림, 텍스트, 애니메이션, 영상 이외의 매체를 통하여 표현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표적인 매체는 신문 기사에 텍스트와 사진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나, SNS 매체 등이 있다.⁵⁾ 기타 혼성 매체류는 대체로 교과서 전반에 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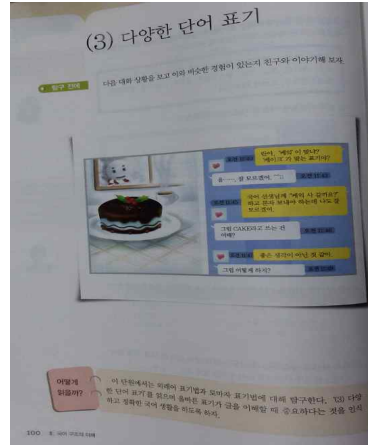
5) 이러한 매체류를 한 유형으로 묶은 이유는 SNS 매체에서 보이는 특성이 다른 매체들이 섞여 혼합되어 나타나는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SNS가 문법 교과서에서 나타내는 특징적인 것은 뉴미디어라는 사실 외에는 언어적으로 특별한 기능을 나타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이전 인터넷 통신 언어의 기능과 유사한 특성을 그대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용되고 있다.

(8) 기타 혼성 매체류의 예시
가. 혼성 매체(비상, 99쪽)



나. SNS 매체(교학사, 100쪽)



(8가)는 신문 기사 내용 중 '김유정'을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어 한문 각자의 표기법에 따른 것이므로, 국어 한문 각자의 표기법에 따라 표기된 것을 찾아보고 이러한 문맥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를 찾아보라.

(8나)는 SNS에 사용되고 있는 대화 상황을 제시하여 들어가기 부분에 제시한 자료이다. 그런데 (8나)의 경우에 SNS 매체는 언어 자료를 담는 외형적 틀에 지나지 않는다. 곧 대화 내용 중에서 외래어 표기법을 잘못 사용하는 예를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이 SNS에 초점을 두고 제시한 것이 아니다.

4. 국어 교과서에서 매체 활용 방안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매체들을 6가지로 유형화하여 그 매체류들이 문법 교과서에서 활용되는 기능적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유형화 분석을 통하여 향후 문법 교과서에서 매체를 사용하여 문법 교수·학습에 적용할 때의 매체 활용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우선 앞 장에서 분석한 각 매체류의 주요 기능들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매체 유형별 주요 기능

번호	매체 유형	주요 기능
1	사진 매체류	디자인적 기능, 추론적 기능, 이해적 기능, 부수적 기능, 실증적 기능
2	그림 매체류	디자인적 기능, 추론적 기능, 이해적 기능, 시각적 기능
3	텍스트 매체류	자료적 기능, 확산적 사고 기능
4	애니메이션 매체류	유희적 기능, 해설적 기능, 탐구적 기능, 만화적 기능, 내용적 기능
5	영상 매체류	내용적 기능, 자료적 기능, 추론적 기능, 실증적 기능
6	기타 혼성 매체류	혼합적 기능

문법 교과서에서 활용되고 있는 매체별 기능을 (9)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6개의 매체류에서 나타

나는 기능은 모두 13가지 기능으로 나타났다. 각 매체는 그 매체 속성에 따라 특성과 기능을 달리 한다. 매체가 그 기능과 특성에 맞게 자료로서, 또는 도구로서 문법 교과서에 적용되고 활용될 때에 만 매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으며, 제3의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법 교과서에서 해당 매체의 어떠한 기능도 기대할 수 없는 자료들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문자 언어만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진이나 그림 매체들을 제시하는 불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는 학습에도 방해가 될 뿐아니라 지면도 낭비하게 되는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법 교과서에 사용된 매체 자료들이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는 현시대의 가장 젊은 세대인 학습자 계층과 중간 층에 자리하고 있는 교과서 집필자 세대 사이에서 오는 사고 방식이나 생활 습관, 관심 대상의 차이 등에서 오는 거리감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과서에 나타나는 매체 사용시의 문제점들을 고려하고 각 매체들의 기능적 특징들을 고려한다면 더욱 흥미있고 학습에 효율적인 교과서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다.

5. 결론

■ 참고 문헌

- 김규훈(2010), 인터넷 광고의 국어교육적 활용 -인터넷 문맥광고의 수용과 생산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38, 국어교육학회.
- 김대행(1998), 매체언어 교육론 서설, 국어교육97, 한국어교육학회.
- 김동환 외(2000), 매체언어와 국어교육-매체언어의 소통원리와 교육적 대상화의 방법,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 김동환(2013), 매체교육과 언어인식, 국어교육학연구 46, 국어교육학회.
- 김은성(2010), 문법교육과 매체 언어 문화, 국어교육학연구 37, 국어교육학회.
- 김정우(2000), 이미지를 중심으로 본 매체교육의 방향 - 사진과 시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선청어문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김정자(2002), 국어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의 수용 - 미디어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15, 국어교육학회, 235-272
- 김정자(2007), 국어 교육과정의 매체 언어 교육 내용,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 박기범(2010), 국어 교과서의 영화 수용 양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42, 청람어문교육학회
- 박영목 외(2013),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천재교육.
- 박인기(2010), 국어교육과 매체언어문화, 국어교육학연구 37, 국어교육학회.
- 백혜선.김지연(2015) 중등 국어 교과서의 매체 반영 양상 연구, 한국어문교육17,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6), 고등학교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 고등학교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 서유경(2009), 매체언어교육의 실행 방안 연구, 국어교육128, 한국어교육학회
- 서유경(2012), 매체와 국어교육, 우리말연구30, 우리말학회
- 서유경(2013), 융복합 시대의 매체언어교육 방향 탐색, 새국어교육95, 한국국어교육학회
- 서유경(2014), 스마트교육 시대의 국어교육연구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49-2, 국어교육학회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85), 고등학교 문법, 문교부.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91), 고등학교 문법, 교육부.
- 신호철(2014), 매체, 언어, 매체언어 개념의 국어교육학적 분석, 어문논집 60, 중앙어문학회.
- 심유나(2015), 초등 국어과 교과서에 반영된 매체언어 교육 -복합양식 문식성의 관점에서-, 한국어문교육18,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 엄해영(2013), 초등 문학 교육에서 매체 언어의 수용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새국어교육94, 한국국어교육학회
- 엄해영(2013), 초등 문학 교육에서 매체 언어의 수용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새국어교육94, 한국국어교육학회.
- 윤여탁 외(2007), 매체언어교육의본질에대한연구, 국어교육연구19, 국어교육학회.
- 윤여탁 외(2013),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주)미래엔.
- 이관규 외(2013),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 이도영 외(2013),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창비.
- 이미숙(2011),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의 실천적 원리 탐색 -애니메이션 교수,학습 재구성 사례를 토대로, 국어교육학연구41, 국어교육학회.
- 이삼형 외(2013),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주)지학사.
- 이영창.오현아(2014), 국어교육 내 매체 교육 변화 양상 탐색, 새국어교육101,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지영(2011), 인쇄 광고 표제 표현의 형식과 기능 연구 -교육 광고 표제 표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35,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채연(2001), 인터넷의 매체 언어성과 국어 교재화 탐색, 국어교육104, 한국어교육학회.
- 임천택(2001), 국어교육을 위한 매체와 매체언어 탐구, 새국어교육61, 한국국어교육학회
- 장은섭(2014), 스마트 환경에서 매체활용 국어수업실태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연구 : 쓰기 수업 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54, 국어교육학회

- 정진석(2010), 국어교육계의 초기 매체교육 연구, 국어교육133, 한국어교육학회
- 정현선(2005), 언어 텍스트 매체 문화 범주와 복합문식성 개념을 통한 미디어 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28.
- 정현선(2012), 매체언어 교육 단원 개발과 수업 실행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48.
- 조재윤·엄해영(2015), 2009 개정 초등 국어과 교과서의 매체 수용 양상 연구, 한국초등교육26,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 최미숙(2007), 매체 환경에 따른 국어교육의 변화, 한말연구 20, 한말연구학회.
- 최미숙(2010), 고등학교 국어 선택과목과 매체언어 교육, 국어교육131, 한국어교육학회.
- 한철우 외(2013),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주)교학사.

■ 토 론

“국어교과서에서 매체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박보현(목원대)

바야흐로 21세기는 매체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매체가 출현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매체의 영향력은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교육의 내용에서부터 방법까지 큰 변화를 가져왔고 국어 교육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으로 그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어 교과서에서 매체가 어떠한 양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체’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구자께서는 본고에서 ‘매체’를 국어교육을 실행하는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간주(각주 1)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어과 내에서의 매체를 검토하시면서 특히 문법 교과서에 대해 ‘극단적으로 무(無)매체기와 매체기의 두 시기로 양분할 수 있을 것(각주 2)’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자’ 자체가 매체이며 전통적 교육 수단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술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매체’는 문자 매체 이외의 매체인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문자 매체를 포함한 논의라면 문법 교과서에 대해서도 ‘무(無)매체기와 매체기’ 대신 ‘문자 매체 전용기와 다(多)매체기’ 정도의 기술이 어떨지 조심스레 제안해 보는 바입니다.

둘째,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매체의 유형에 대한 의문입니다. 본고에서는 매체 유형을 ‘사진 매체류, 그림 매체류, 텍스트 매체류, 애니메이션 매체류, 영상 매체류, 기타 혼성 매체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의 이유와 적절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체로 매체의 유형은 매체 언어의 표현 방식 즉 상징 체계(문자, 음성, 이미지)에 따라 나뉘며, ‘인쇄 매체, 방송 매체, 통신 매체’ 또는 ‘시각 매체, 청각 매체, 시청각 매체, 상호작용 매체’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이보다 하위에서 더 구체적으로 매체를 유형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사진 매체류와 그림 매체류의 매체적 차이와 두 매체의 교육적 활용 의의가 어떻게 다른지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체 유형 중 ‘애니메이션 매체류’는 본고의 내용상 ‘만화 매체류’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엄밀히 구분하자면 애니메이션은 만화 영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시청각 매체(영상 매체)이고 만화(카툰 혹은 코믹)는 시각 매체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본고에서 구분한 ‘영상 매체류’에 해당합니다.

셋째, 4장 ‘국어 교과서에서 매체 활용 방안’이 구체적인 매체 활용 방안이라기보다는 매체 활용 시의 유의점에 대한 논의로 보입니다. 4장이 본고의 핵심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매체 활용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4장에서 연구자께서 정리하신 ‘매체 유형별 주요 기능’

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령 매체 유형별로 기능이 다른 것인지(혹은 달라야 하는지), 각 매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기능이 있다면 무엇인지, 현재 각 매체가 활용되고 있는 양상은 교육적으로 적절한지, 좀 더 교육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이 부가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연구자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의 토론이 토론자의 무지와 오독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무척 염려됩니다. 지나치게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문제 제기로 본고의 논의를 흐렸더라도 연구자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체의 시대에 매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해 주신 연구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제4부 <제5 분과 발표>

‘형식적 인용구조’를 기반으로 한 도움토씨 ‘-이란’의 문법화 과정 고찰

-20세기 초중반까지의 문헌을 중심으로-

윤혜영(한라대)

1. 머리말

이 논문은 20세기 초중반까지의 문헌에 나타난 ‘형식적 인용구조’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그 통사적 구조를 분석하여 현대 도움토씨 ‘-이란’의 문법화 과정을 고찰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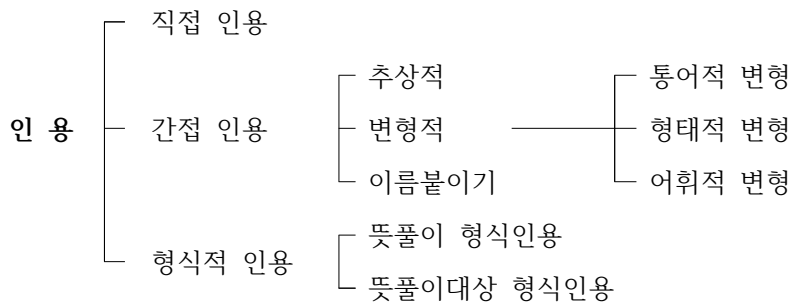
인용이란 실제 하는 말이나 글, 혹은 누군가의 생각을 따와서 직·간접 인용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언급하는 ‘형식적 인용’이란 실제 발화나 표현, 내지는 생각을 따온 것이 아니라 그 인용의 형식만을 빌려와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형식적 인용’은 ‘뜻풀이 형식인용’과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으로 나뉜다. 본고에서 다루는 ‘형식적 인용’은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으로, 뜻풀이 대상 ‘A’를 강조하기 위하여 인용의 형식을 빌려와 ‘[A이라] 하는 것’과 같은 구조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2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18세기 전기 문헌에 나타난 인용구조를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 과정에서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의 용례 중 ‘[A이라] 하는 것은’의 줄임 형태인 ‘A이란’이 나타남을 확인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란’은 허용(1995:1420)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현대국어에서 ‘-은/는’과 동일한 뜻을 가진 도움토씨로 ‘-이라 하는 것은’의 줄임이다. 이에 18세기 소수의 문헌에서 나아가 20세기까지 전체를 고찰한다면 현대국어 도움토씨 ‘-이란’의 문법화 과정을 명백히 설명할 수 있으리란 기대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 연구대상은 17세기(27개 문헌), 18세기(34개 문헌), 19세기(21개 문헌), 20세기(914개 논설, 106개 별보, 147개 기사)에 나타난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의 통어적 구조이다.¹⁾ 추출한 구조는 17세기(28개), 18세기(35개), 19세기(56개), 20세기 초(147개)²⁾, 20세기 초중반(62개)³⁾까지 총 330여 개의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이다.⁴⁾

17세기 문헌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용구조 연구에서 정리하였던 전체 인용구조의 하위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20세기를 다시 ‘20세기 초’와 ‘20세기 초중반’으로 나누어 분석한 이유는 불과 20년 간격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용례에 그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 2) 20세기 초 고찰자료로 삼은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발행된 신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소장한 원문을 기본자료로 사용하여 1904~1907년, 1910년에 발행된 기사 중 논설(417개)과 기사(54개), 그리고 별보(43개), 사설(2개)에서 추출한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의 통어적 구조를 구체적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기본자료로 쓰인 원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미디어가온: www.mediagaon.or.kr)를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 3) 1929년6월12일~1942년1월1일까지 발행된 잡지인 「삼천리」에 실린 글 중에서 1929년부터 1930년까지 발행된 잡지 내의 36개의 ‘논설’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절대적 시간부족과 연구자의 게으름으로 1931년~1942년까지의 ‘논설’은 미처 고찰하지 못하였다. 이후 20세기 중후반의 문헌들을 고찰하여 완벽한 문법화 과정을 밝혀내는 것은 후속 작업으로 하고자 한다.
- 4) 중세국어 인용구조를 분석한 허원옥(2008:464)에서는 본고에서 지칭하는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의 구조에 대하여 “17세기부터는 그 예가 많이 나타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문법화 과정을 살피는 데 있어 15세기와 16세기의 문헌에서도 추출함이 당연할 것이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삼아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구조가 나타나는 17세기 문헌부터 고찰하였음을 밝힌다.



2. 형식적 인용

‘형식적 인용’이란 실제 발화나 표현, 혹은 생각을 따온 것이 아니라 그 형식만을 빌려와 인용구조로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본 장에서는 문법화 과정을 고찰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으로 한 ‘형식적 인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형식적 인용’은 ‘뜻풀이 형식인용’과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으로 나뉜다.

2.1. 뜻풀이 형식인용

‘뜻풀이 형식인용’이란 어떤 낱말이나 문장의 뜻풀이 내용을 인용의 형식을 빌려와 인용말로 나타낸 것으로, ‘이름붙이기 간접인용’의 구조와 유사하다. 이는 ‘이름붙이기 간접인용’ 구조에서 변형된 형식을 빌려와 나타내기 때문이다. 윤혜영(2011:203,204)에서 설명한 그 변형의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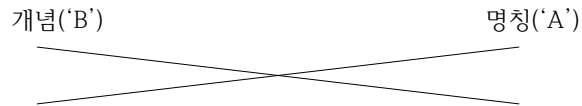
이름붙이기 간접인용 :	B를 (닐오디) [A이라] ᄃ-
뜻풀이 형식인용 :	A는 (닐은) [B이라](ᄃ)C A는 (닐은) [B이라](ᄃ)C 말이라
A : 이름=뜻풀이 대상 B : 이름붙이기 대상=뜻풀이 내용 C : 뜻풀이 형식인용은 ‘A는 C이다’ 구조임. C는 ‘[[뜻풀이 형식인용]C]매김마다 + 말(뜻)’	

위의 과정에서 ‘A’는 명칭이고 ‘B’는 개념이다. ‘이름붙이기 간접인용’은 어떠한 개념을 구체적 명칭으로 발화하는 것이므로 ‘간접인용’이나, ‘뜻풀이 형식인용’은 명칭의 개념을 인용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형식적 인용’이다.⁵⁾

5) 허원옥(2008)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말풀이 인용구조’를 변형적 간접인용으로 분류하였던 것을 ‘형식적 인용’으로 개칭하여 설정하고, ‘이름붙이기 형식인용’과 ‘이름붙이기대상 형식인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 설명하고 있는 ‘뜻풀이 형식인용’을 동일한 개념으로 허원옥(2008)에서는 ‘이름붙이기대상 형식인용’이라 명칭하였다. 그러나 ‘이름붙이기 형식인용’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뜻풀이대상 형식인용’과 함께 ‘이름붙이기 간접인용’도 포함하여 본고의 하위분류와는 그 차이를 보인다.

17세기 국어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⁶⁾

(1)ㄱ. 이름붙이기 간접인용 : 안즉안즉하고 그른 일도 고티디 아니흠을 [姑息이라] ㅎ-



ㄴ. 뜻풀이 형식인용 : 姑息은 [안즉안즉하고 그른 일도 고티디 아니타]ㄴ 말이라

위 예문에서 '안즉안즉하고 그른 일도 고티디 아니흠'('B')은 개념이고 '姑息'('A')은 명칭이다. 여기에서 명칭('A')은 구체적 발화가 있는 것이므로 인용말로 표현되면 (1ㄱ)과 같이 '이름붙이기 간접인용'이 되지만, 개념('B')은 실제 발화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용의 형식만 빌려와 나타내어 (1ㄴ)과 같이 '뜻풀이 형식인용'이 된다.

2.2. 뜻풀이대상 형식인용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이란 '뜻풀이 형식인용'인 'A는 [뜻풀이](ㅎ)ㄴ 말이라'에서 뜻풀이 대상인 'A'를 강조하기 위하여 인용의 형식을 빌려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뜻풀이 대상인 'A'는 낱말이나 문장 모두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이름붙이기 간접인용'과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을 달리 분류한다. 현대말에서는 '~을 ~이라 하다'의 구조를 '이름붙이기' 구조라 하고, '~이라 하는 것(은)'의 구조를 '뜻풀이대상 형식인용' 구조라 할 수 있다.

인용구조가 '이름붙이기'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 그 속구조를 허원욱(1994:217)에서는 다음의 (2)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2) (임) A를 낱오디 [A이 B이라] ㅎ-

17세기 인용구조에서는 (2)와 같은 직접인용의 구조는 나타나지 않고, 다음의 (3ㄱ)과 같은 간접인용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17세기 국어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ㄱ. 이름붙이기 간접인용 : 일흠을 곱오디 [家禮라] ㅎ야 (가례1:序4b)

ㄴ. 뜻풀이대상 형식인용 : [저시라] ㅎ는 거순 아히 식줄이니 (계축:하19a)

17세기를 기준으로 보면 (3ㄱ)은 'A를 낱오디 [B이라] ㅎ-' 구조로 '이름붙이기 간접인용'의 기본 유형이다. 이 기본 유형에서 인용마디를 이끄는 말('낱오디/곱오디' 따위)이 생략된 'A를 [B이라] ㅎ-' 유형과 이름붙이기 대상인 'A'가 매김마디의 머리말로 빠져나간 '[B이라] ㅎ/흠 A' 유형 등으로 변형되어 다양한 구조로 나타나게 된다.⁸⁾

6) 본고에서는 보이는 용례에 마디는 '[']'으로 표시하고 '뜻풀이대상 형식인용' 구조에는 밑줄을 그어 내용 이해를 돕고자 한다.

7) 여기에서 구체적 발화란 이름으로 정하여 말이나 글로 나타남을 뜻한다.

8) 특히 '[B이라] ㅎ/흠 A' 유형의 경우, '뜻풀이대상 형식인용'과 구조의 유사성으로 동일하게 보일 수도 있으

법 때매김씨끝 ‘-느’가 함께 생략된 것이고, (4ㄷ)은 안은마디의 풀이말이 ‘-닐-’로 대체된 경우이다. (4ㄷ)과 같이 생략이 많은 형태가 [1] 유형 전체에서 58%를 차지하고, 본 형에 가까운 형태는 42%에 그쳐, 생략이 많은 형태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4ㄱ)은 ‘뜻풀이 대상’과 ‘뜻풀이 부분’이 모두 형식적 인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뜻풀이 부분’은 ‘닐은 [각별히 뵈 헛 자 여섯 치로 써서 前後의 關中을 막다] 흠이라’에서 ‘뜻풀이 형식인용’의 마침법 씨끝 ‘-다’와 안은마디의 풀이말 ‘-ㅎ-’가 생략된 용례이다. 또한 이 (4ㄱ)은 17세기 용례 중 [1] 유형으로는 유일하게 ‘뜻풀이 대상’ 부분에 문장이 자리한 경우이다. (4ㄴ)은 이어지는 ‘뜻풀이 형식인용’(‘[뜻풀이] 헛는 말’)과의 구조적 통일을 위해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에서 ‘이라’를 생략하여 ‘[A] 헛는 말’로 나타난 용례이다.

[2] ‘[A이라] 흠’ 유형

뜻풀이 대상 ‘A’를 ‘[A이라] 흠’ 구조로 바꾼 유형으로, 이어지는 ‘뜻풀이 형식인용’이 ‘닐은 [뜻풀이] 흠이라’와 같은 구조인 경우에 앞선 (4ㄴ)과 같이 구조를 통일하기 위함이다. 이 유형은 ‘뜻풀이 대상’과 ‘뜻풀이 부분’이 모두 형식적 인용으로 나타나며, [1] 유형보다 ‘뜻풀이 대상’ 부분에 문장이 자리하는 빈도가 높다. 또한, [1] 유형에 비해 [2] 유형은 1/3 수준의 용례만 확인된다.

(5)ㄱ. 그 [妾이라] 호문 [接ㅎ다] 호미니 君子를 接見호미라 (여훈하:12a)

ㄴ. 병에논 그 근심을 닐위다 흠은 닐은 [父母] 병이 겨시거든 맛당이 그 근심과 녀녀를 극진히 ㅎ다] 흠이니 (경민중:35a)

ㄷ. [스랑ㅎ다] 호문 [온 사름이 써 아래 사름을 예엿비 녀기다]ㄴ 마리니 (여훈하:18a)

ㄹ. [봉양흠애논 그 즐거움을 닐위다] 흠은 닐은 [조식이 아버지 봉양ㅎ기를 맛당히 내 그 뜻을 순히 맞게 흠미 이셔 히여곰 즐기게 흠]이니 (경민중:34a)

ㅁ. [改葬이라] 닐오문 [棺物이 毀敗ㅎ엇거든 고터 說호믈 葬時 긋게 흠을 벌김]이라 (家禮 6:29a)

(5ㄱ~ㄹ)은 모두 ‘[A이라] 흠’으로 나타나는데 (5ㅁ)은 안은마디의 풀이말 줄기 ‘-ㅎ-’가 ‘-닐-’로 대체된 것이다. (5ㄱ)과 (5ㅁ)은 ‘뜻풀이 대상’ 부분이 ‘임자씨+-이라’의 형식적 인용말인데 반해, (5ㄴ~ㄹ)은 ‘움직씨’ 내지는 ‘문장’의 형식적 인용말이다. (5ㄷ)은 ‘뜻풀이 부분’의 안은마디의 풀이말이 ‘흠이라’로 나타나지 않고 ‘-ㅎ-’와 때매김씨끝 ‘-느-’가 모두 생략된 용례이다. (5ㄹ)은 ‘뜻풀이 형식인용’에 있어서 ‘닐은 [조식이 아버지 봉양ㅎ기를 맛당히 내 그 뜻을 순히 맞게 흠미 이셔 히여곰 즐기게 ㅎ다] ㅎ-옴이니’에서 마침법 씨끝 ‘-다’와 안은마디의 풀이말 ‘-ㅎ-’가 생략된 경우이다.

[2] 유형에 대한 앞으로의 기술에 있어서, [2] 유형은 17세기와 시대적으로 별다른 특징 차이가 없음과 동시에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법화 실현과는 별개이므로 용례를 보이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3.2. 18세기

[1] ‘[A이라](헛느)ㄴ 것(말)’ 유형

뜻풀이 대상 ‘A’를 ‘[A이라] 헛는 것(말)’ 구조로 바꾼 유형이며, 17세기와 마찬가지로 안은마디의 풀이말줄기 ‘-ㅎ-’가 생략될 때는 현실법 때매김씨끝 ‘-느-’가 함께 생략된다. 18세기 용례를 보이면

다음 (6)과 같다.

- (6)ㄱ. [비라] 흐는 거슨 물에 둔닐 썩힘이오 (몽노7:12a)
ㄴ. [불감이라] 흐는 두 글지 뜻이 쏘흔 이시니 비록 능히 춤디 못흐나 쏘흔 감히 방즈티 못흐
미니 (경문44a)
ㄷ. [어디디 못흠이라] 나 거슨凶흠을 날옴인 줄을 아를씨니라 (내중1:19b)
ㄹ. [長其理라] 나 말은 [男子의 ㄱ르침을 順히 흐야 그 義理를 길우다] 나 말이라 (여사3:69a)
ㅁ. 子 | 엇디 [梓匠輪輿] 라] 나 尊흐고 仁義흐는 者를 가비아이 녀기느뇨 (맹울3:52b)
ㅂ. 推量흐거니와 [분스림이라] 나 모로는 체흐고 날마다 여긔 와서 말슴이나 흐시면 (개첩 9:21b)

(6ㄱ)은 전형적인 '[A이라] 흐는 것(말)' 구조이며, (6ㄴ)은 매김마디의 머리말 자리에 매인이름씨 '것' 대신 '두 글지 뜻'이 온 용례이다. (6ㄴ~ㄹ)은 안은마디의 풀이말줄기 '흐'와 현실법 때매김씨끝 '느'가 함께 생략된 것이고, (6ㄹ)은 매김마디의 머리말 자리에 매인이름씨 '것' 대신 이어지는 '뜻풀이 형식인용'과의 구조 통일을 위해 '말'이 온 용례이다. 또한, (6ㄹ)은 '뜻풀이 대상'과 '뜻풀이 부분'이 모두 형식적 인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뜻풀이 형식인용'의 안은마디의 풀이말 '흐-'와 때매김씨끝 '-느-'가 모두 생략되었다. (6ㄱ~ㄴ)과 같이 생략이 없는 형태는 [1] 유형 전체에서 33.3%에 불과하고, (6ㄴ~ㄹ)처럼 생략이 많은 형태가 59.3%를 차지한다.

(6ㅁ~ㅂ)은 처음으로 '[A이라] 흐는 것(말)' 구조에서 '흐-'와 '느'와 함께 매김마디의 머리말('것/말/者' 따위)까지 생략된 용례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6ㅁ~ㅂ)의 'A이란'이 '뜻풀이 대상'으로 쓰이지 않아 (6ㅁ)에서는 '목수와 수레를 만드는 장인'을 뜻풀이 한 것이 아니고, (6ㅂ)에서는 '부끄러움'을 뜻풀이 한 것이 아님이다. 이 용례에서 '-이란'은 17세기의 용례 (4ㄷ)과 18세기의 용례 (6ㄷ)과 같은 'A이란 거슨' 구조가 문법화 된 하나의 문법형태소로 보인다. 그러나 18세기 문헌에서 단 두 개의 용례만 확인이 되며, 다음 시기인 19세기 문헌에서 이와 같은 용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또한, 18세기까지 생산적으로 쓰인 도움토씨 '-오란'의 오기¹¹⁾이거나 단순한 탈자¹²⁾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밖의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는 다음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2] '[A이라] 흠' 유형

뜻풀이 대상 'A'를 '[A이라] 흠' 구조로 바꾼 유형으로, 이어지는 '뜻풀이 형식인용'이 '[뜻풀이] 흠이라'와 같은 구조인 경우는 앞선 (6ㄹ)과 같이 구조를 통일하기 위함이다. 17세기와 마찬가지로 [1]

11) <첩해신어> 초간본에서는 '推量흐거니와 분스림오란 모로는 테흐고 날마다 여긔 와서 말슴이나 흐시면(첩해초9:15a)'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도움토씨 '-오란'으로 적고 있다. 도움토씨 '-오란'은 18세기까지 임자씨와 결합하여 생산적으로 쓰였으나, 19세기에는 <가곡원류>와 <성경직해>에만 나타나 고찰한 20세기 문헌부터는 그 쓰임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18세기 문헌은 모두 '21세기 세종계획 1차년도 말뭉치'만을 고찰자료로 삼아 원문과의 일치도를 본고에서는 확인을 못 한 상태이므로 더군다나 단정을 내리기 어려운 시점임을 밝힌다. 옛말 도움토씨 '-오란'의 쓰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 잔오란 부디 다 자옵소 (개첩 3:7b)', '사름의 어디름오란 듣고 띄여흐며 (내중1:26b)

12) 16세기 <맹자언해>에서는 '子 | 엇디 梓와 匠과 輪과 輿를 尊흐고 仁義흐는 者를 경히 녀기느뇨 (맹자 6:12b)'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이어지는 '仁義흐는 者를'과 대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보면, '子 | 엇디 [梓匠輪輿] 라] 나 尊흐고 仁義흐는 者를 가비아이 녀기느뇨 (맹울3:52b)'에서 밑줄 친 것과 대등하기 위해서는 '[梓匠輪輿] 라] 나' 뒤에 '者를'이 위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바로 이어지므로 매김마디의 꾸밈을 받는 말이 동일하여 의도적으로 뺏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유형보다 ‘뜻풀이 대상’ 부분에 문장이 자리하는 빈도가 높다. 또한, [1] 유형에 비해 [2] 유형은 1/4 수준의 용례만 확인된다. 18세기의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7)ㄱ. [경신록이라] 흠은 엇지 날음고 (경신85a)

ㄴ. [훈변 흐며 두번 흐야 반드시 담멸코져 한다] 흠은 신응현의 상셔를 니름이라 (명의존현각 일기:55b)

ㄷ. [오래 가지다] 흠은 못한다 止할 줄을 알오미오 (여사1:9b)

3.3. 19세기

[1] ‘[A이라](흐ㄴ)ㄴ 것(말)’ 유형

뜻풀이 대상 ‘A’를 ‘[A이라] 흐ㄴ 것(말)’ 구조로 바꾼 유형이며, 18세기와 마찬가지로 안은마디의 풀이말줄기 ‘흐-’가 생략될 때는 현실법 때매김씨끝 ‘-ㄴ-

(8)ㄱ. [회기라] 흐ㄴ 거손 은혜 맞는 문이라 (턴로35b)

ㄴ. [첫 비두에 내라] 흐 쫓슨 변연 씨가 조그를 7르친 쫓시오 (턴로서:4a)

ㄷ. [능이라]ㄴ 거손 지조를 니르미오 (이언2:50b)

ㄹ. [두찬이라]ㄴ 말은 [출처 업시 제 의스로 한다]ㄴ 말이라 (감응3:11a)

ㅁ. [청렴이라]ㄴ 자는 덕을 니르미라 (이언2:50b)

ㅂ. [義라]ㄴ 者는 事物 上에 잇는 거시니 (독본09b)¹³⁾

ㅅ. [오시다] 말은 강심 흐심시오 (성경1:75b)

(8ㄱ)은 전형적인 ‘[A이라] 흐ㄴ 것(말)’ 구조이며, (8ㄴ)은 현실법 때매김씨끝 ‘-ㄴ-것’ 대신 ‘쫓’을 넣어 ‘뜻풀이 부분’과 구조적 통일을 맞춘 용례이다. (8ㄱ~ㄴ)과 같이 생략이 거의 없는 형태는 [1] 유형 전체에서 27.3%를 차지한다. (8ㄷ~ㅂ)은 안은마디의 풀이말줄기 ‘흐-’와 현실법 때매김씨끝 ‘-ㄴ-것’ 대신 이어지는 ‘뜻풀이 부분’과의 구조 통일을 위해 ‘말’이 온 용례이다. (8ㅁ~ㅂ)은 매김마디의 머리말 자리에 ‘자/者’가 매인이름씨 ‘것’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8ㄷ~ㅂ)과 같이 생략이 많이 된 형태가 [1] 유형 전체에서 72.7%를 차지하여, 17세기부터 꾸준히 생략 형태의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8ㅅ)은 매김마디의 머리말 자리에 ‘말’이 오는데, 다른 용례와는 달리 매김법씨끝 ‘-ㄴ’마저 생략된 특이한 경우로 이와 같은 용례는 <성경직히> 한 문헌에서만 나타난다.

13) 매김마디의 머리말 자리에 오는 ‘者’는 이 용례에서는 매인이름씨 ‘것’과 같은 의미로 ‘의란 것은’이 되어 ‘의’가 ‘뜻풀이 대상’이므로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이 된다. 그러나 ‘議論이 未決이어닐 [顯理라] 흐ㄴ 者 | 厲聲흐야 (국민53a)’에서의 ‘者’는 ‘사람’을 나타내어 ‘현리라 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현리’임을 나타내는 ‘이름붙이기 간접인용’이다. 이와 같이 ‘뜻풀이대상 형식인용’과 ‘이름붙이기 간접인용’은 유사한 것 같으나 전체 통사구조 안에서 의미를 살피면 그 차이가 보다 분명해진다.

[2] '[A이라] 흠' 유형

뜻풀이 대상 'A'를 '[A이라] 흠' 구조로 바꾼 유형으로, 고찰한 21개의 19세기 문헌에서 [2] 유형은 <성경직히> 한 문헌에서만 나타난다. 18세기와 마찬가지로 [1] 유형에 비해 [2] 유형은 1/5 수준의 용례만 확인된다. 19세기의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9)ㄱ. [잔치라] 흠은 이 텃당의 비홀디 업는 즐거움을 그르치심이라 (성경2:35a)
 - ㄴ. [웁죽인다] 흠은 일월 성신의 도는 츠레 덧덧흠을 일허 일식과 월식이 불시에 되고 지속이 상반하고 어두어 빗치 업슴이오 (성경1:11b)
 - ㄷ. [요셉이라] 흠은 [더ㅎ다] 뜻이니 (성경8:96a)
 - ㄹ. [덕이라] 닐음은 하늘이 텃신을 자뢰ㅎ야써 운전ㅎ야 그덕을 나타냄이오 (성경1:11b)

17~18세기에 보이지 않았던 형태는 (9ㄷ)의 '뜻풀이 형식인용'에서 매김법씨끝 '-ㄴ'마저 생략된 경우인데, 이는 (8ㄴ)에서 본 바와 같이 <성경직히>라는 문헌의 특징으로 보인다.

3.4. 20세기 초

[1] '[A이라](ㅎㄴ)ㄴ 것(말)' 유형

뜻풀이 대상 'A'를 '[A이라] ㅎㄴ 것(말)' 구조로 바꾼 유형이며, 19세기와 마찬가지로 안은마디의 풀이말줄기 'ㅎ-'가 생략될 때는 현실법 때매김씨끝 '-ㄴ-'가 함께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20세기 초에는 안은마디의 풀이말줄기 'ㅎ-'만 생략된 형태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형태가 [1] 유형 전체의 10%에 이른다. 20세기 초 용례를 보이면 다음 (10)과 같다.

- (10)ㄱ. 대덕 [실업이라] ㅎㄴ 거슨 국가 부강의 근본이라 (1907.12.4. 154호 기사)
 - ㄴ. [인이라] ㅎㄴ 자는 늬도 나에게 리롭게 ㅎㄴ 자 | 오 (1910.7.3. 902호 논설)
 - ㄷ. [선비라] ㅎㄴ 거슨 나라의 원괴라 ㅎ고 (1910.5.27. 873호 논설)
 - ㄹ. [민족이라] ㄴ 거슨 다만 곱흔 조상의 즈손에 미인 자 | 며 (1908.7.30. 346호 논설)
 - ㅁ. [스그라] ㄴ 자는 당시에 그일을 괴록ㅎ여 후세에 밋개 ㅎㄴ 자 | 라 (1909.8.21. 655호 기사)

(10ㄱ)은 전형적인 '[A이라] ㅎㄴ 것(말)' 구조이며, (10ㄴ)은 매김마디의 머리말 자리에 매인어름씨 '것' 대신 '자'가 쓰여 '뜻풀이 부분'과 구조를 맞춘 용례이다. (10ㄱ~ㄴ)과 같이 생략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형태가 [1] 유형 전체의 66.7%를 차지하는데, 이는 19세기까지 꾸준히 원형적 구조는 줄어들고 생략 형태가 늘어나던 상황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다른 시기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20세기 초 자료로 선택한 문헌이 「대한매일신보」 한 종류이므로 단순히 신문이란 매체로서 줄임말을 최대한 지양하려던 문헌적 특징으로 보인다.¹⁴⁾ (10ㄷ)은 이전 시기에 보이지 않던 형태로 안은마디의 풀이말줄기 'ㅎ-'만 생략되어 현대국어의 매김법 '-이라는'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¹⁵⁾ (10ㄹ~ㅁ)은 안은마디의 풀이말줄기 'ㅎ-'와 현실법 때매김씨끝 '-ㄴ-'가 함께 생략된 것인데, (10ㅁ)은 매김마디의 머리말 자리에 매인어름씨 '것' 대신 이어지는 '뜻풀이 부분'과 동일하게 '자'가 온 용례이다.

14) 보다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동일 시기의 다른 문헌을 검토하고자 한다.

15) 허웅(1995:1009~10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김법 씨끝 '-는'이 잡음씨에서 '-(이)라는'으로 실현되는 것은 20세기에 '-(이)라(고) 하는'의 줄임이 잘 발달되었음을 뜻한다.

[2] '[A이라] 흠' 유형

뜻풀이 대상 'A'를 '[A이라] 흠' 구조로 바꾼 유형으로 이전 시기와 별다른 차이는 보이지 않으며, [1] 유형에 비해 [2] 유형은 1/10 수준의 용례만 확인된다. 20세기 초의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1)ㄱ. 대개 [선비라] 흠은 문학이 잇는 자를 닐옵시오 (1910.5.27. 873호 논설)

ㄴ. [권이라] 흠은 무겁고 가비아온거시 덕중하고 더하고 덜흔거시 평균흔거슬 닐옵이니 (1907.12.13. 162호 논설)

ㄷ. [합병이라] 흠은 세력이 디치되고 리익이 상등흔 연후에야 가히 흘지니 (1910.1.15. 766호 논설)

3.5. 20세기 초중반

[1] '[A이라] 하는 것' 유형

뜻풀이 대상 'A'를 '[A이라] 하는 것' 구조로 바꾼 유형이며, 20세기 초와 마찬가지로 안은마디의 풀이말줄기 '하-'만 생략된 형태가 활성화되어 [1] 유형 전체의 22%에 이른다. 또한 이전 시기에 거의 보이지 않던 매김마디의 꾸밈을 받는 말('것/말/者' 따위)까지 생략된 형태가 [1] 유형 전체의 45%에 이른다. 20세기 초중반 용례를 보이면 다음 (12)와 같다.

(12)ㄱ. [실력파라] 하는 것은 朝三暮四하야 節介라구는 한分어치 업는 야심덩어리 馮玉祥和 優柔不斷의 閻錫山 등의 지방무력단체로 된 일파를 가르켜 하는 말이다 (삼천리9:36)

ㄴ. [教導團이라]는 것은 軍官學校 1기 2기생 중에서 실전에 경험이 잇는 사관들을 뽑아서 재 훈련을 시키는 데다 (삼천리10:7)

ㄷ. [피할 길이라]ㄴ 것은 오직 전실 자녀를 別居식히는 도리 외에 업다고 생각한다 (삼천리3:25)

ㄹ. [君臣有義라]ㄴ 이 도덕률은 결코 인류의 원시생활시대로부터 이와 가튼 사상이 존재하였든가 (삼천리9:20)

ㅁ. 그러나 사실에 잇서 民族單一黨이란 이루어질 수 잇을가 (삼천리7:17)

ㅂ. 매(鷹)란 動作이 極히 敏捷하고 精力이 無限함이 鳥類 中の 第一이며 (삼천리8:42)

ㅅ. 그러면 그 저항력이란 무엇이뇨 (삼천리2:41)

(12ㄱ)은 전형적인 '[A이라] 하는 것' 구조인데 고찰한 문헌에서는 단 하나의 용례만 보인다. (12ㄴ)과 같이 20세기 초에 등장한 안은마디의 풀이말줄기 '하-'가 생략된 용례는 [1] 유형 전체의 22%에 이른다. (12ㄷ~ㄹ)은 17세기부터 나타난 형태로 매김법씨끝 '-ㄴ'만 남아 이어지는 매인이름씨 내지는 이름씨를 꾸민다. (12ㄹ)은 매김마디의 머리말 자리에 매인이름씨 '것' 대신 '도덕률'이란 이름씨가 온 용례이다. (12ㄷ~ㄹ)과 같은 형태도 [1] 유형 전체의 31%에 이른다. 이는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의 '[A이라] 하는 것' 구조의 줄임 형태가 보다 보편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12ㄱ~ㄹ)은 모두 매김법씨끝 '-ㄴ'이 흔적으로 남아 이어지는 매인이름씨 내지는 이름씨를 꾸미는 본분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12ㅁ~ㅅ)은 이전 시기에 거의 보이지 않던 매김마디의 머리말까지 생략된 형태인데, 매김마디의 머리말이 없다면 여기에 흔적으로 남은 '-ㄴ'은 매김법씨끝일 수 없다. 결국 '-ㄴ'은 이전 시

기부터 꾸준히 나타난 줄임 형태('A이란 거슨' 구조)의 도움토씨 '-은'이 문법화 되면서 남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용례는 [1] 유형 전체의 45%에 이른다.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은 그 특성상 '[A이라] ᄃ는 것' 구조와 도움토씨 '-은/은'이 함께 쓰이고, 점차 'A이란 것은'과 같은 줄임 형태가 보편화되어, 결국 현대국어 도움토씨 '-이란'으로 문법화 된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2] '[A이라] ᄃ' 유형

뜻풀이 대상 'A'를 '[A이라] ᄃ' 구조로 바꾼 유형으로 이전 시기와 별다른 차이는 보이지 않으며, [1] 유형에 비해 [2] 유형은 1/10 수준의 용례만 확인된다. 20세기 초중반의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3)ㄱ. 이 [덕구라] ᄃ은 인도말로 원래 속여먹는다는 뜻이라 (삼천리5:19)

ㄴ. [사형이라] ᄃ은 一個의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그 국민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일을 필요로 하고 또 유익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할 것으로 되었다 (삼천리6:42)

ㄷ. 그 [위자료라] ᄃ은 이혼을 당하기 때문에 정신상에 무한한 고통을 (삼천리2:39)

4. 맺음말

이 논문은 20세기 초중반까지의 문헌에 나타난 '형식적 인용구조'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그 통사적 구조를 분석하여 현대 도움토씨 '-이란'의 문법화 과정을 고찰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 연구의 구체적 연구대상은 17세기(27개 문헌), 18세기(34개 문헌), 19세기(21개 문헌), 20세기(914개 논설, 106개 별보, 147개 기사)에 나타난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의 통어적 구조이다. 추출한 구조는 17세기(28개), 18세기(35개), 19세기(56개), 20세기 초(147개), 20세기 초중반(62개)까지 총 330여 개의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이다. 그 대상 예문은 모두 수록할 수 없으므로 유형에 따라 대표 예문만을 수록하고, 그 분포는 간단한 수치로 나타내었다.

② '형식적 인용'이란 실제 발화나 표현, 혹은 생각을 따온 것이 아니라 그 형식만을 빌려와 인용 구조로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형식적 인용'은 '뜻풀이 형식인용'과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이란'의 문법화 과정을 살피기 위해 고찰한 것은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이다.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이란 뜻풀이 대상인 'A'를 강조하기 위하여 인용의 형식을 빌려 나타내는 것으로, 문법화와 밀접한 구조인 [1] '[A이라] (ᄃ는)ㄴ 것' 유형을 중심되게 살펴보았다.

③ 17세기 연구대상에서는 '[A이라]ㄴ 것'과 같이 생략이 많은 형태가 [1] 유형 전체에서 58%를 차지하고, 생략이 거의 없는 형태는 42%에 그쳐, 생략이 많은 형태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연구대상에서도 '[A이라] ᄃ는 것'과 같이 생략이 없는 형태는 [1] 유형 전체에서 33.3%에 불과하고, 생략이 많은 형태가 59.3%를 차지한다. 19세기 연구대상에서도 생략이 많이 된 형태가 [1] 유형 전체에서 72.7%를 차지하여, 17세기부터 꾸준히 생략 형태의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반면, 20세기 초 연구대상에서는 생략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형태가 [1] 유형 전체의 66.7%를 차지하는데, 이는 19세기까지 꾸준히 생략 형태가 늘어나던 것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전 시기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20세기 초 자료로 선택한 문헌이 「대한매일신보」 한 종류이므로, 단순히 신문이란 매체로서 줄임말을 최대한 지양하려던 문헌적 특징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 시기에

보이지 않던 형태로 안은마디의 풀이말줄기 ‘ㅎ-’만 생략되어 ‘[A이라]는 것’과 같은 형태가 [1] 유형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⑤ 20세기 초중반 연구대상에서는 전형적인 ‘[A이라] 하는 것’ 구조는 단 하나의 용례만 보이는데 반해, 이전 시기에 거의 보이지 않던 매김마디의 꾸밈을 받는 말(‘것/말’ 따위)까지 생략된 형태가 [1] 유형 전체의 45%에 이른다. 20세기 초부터 나타난 ‘[A이라]는 것’ 형태가 활성화되어 [1] 유형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또한 ‘[A이라]는 것’ 형태도 [1] 유형 전체의 31%에 이른다. 이는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의 ‘[A이라] 하는 것’ 구조의 줄임 형태가 보다 보편화되었음을 시사한다.

⑥ 매김마디의 머리말까지 생략된 ‘A이란’ 형태는 18세기 연구대상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A이란 거슨’ 구조가 문법화 된 하나의 문법형태소로 보였으나 18세기 문헌에서 단 두 개의 용례만 확인이 되며, 다음 시기인 19세기 문헌에서 이와 같은 용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판단을 유보하였다. 이후 20세기 초중반 연구대상에서 매김마디의 머리말까지 생략된 ‘A이란’ 형태의 많은 용례를 통하여 ‘-이란’이 ‘뜻풀이대상 형식인용’ 구조에서 문법화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⑦ ‘뜻풀이대상 형식인용’은 그 특성상 ‘[A이라] 하는 것’ 구조와 도움토씨 ‘-은/은’이 함께 쓰여 ‘[A이라] 하는 거슨’과 같이 나타난다. 17세기부터 이미 생략 구조가 활발히 쓰이고, 점차 ‘A이란 것은’과 같은 줄임 형태가 보편화되어, 결국 현대국어 도움토씨 ‘-이란’으로 문법화 된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이상에서 ‘뜻풀이대상 형식인용’ 구조를 기반으로 현대국어 도움토씨 ‘-이란’의 문법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15세기, 16세기부터 꼼꼼하게 고찰하지 못한 점과 다양한 20세기 문헌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점이다. 이 논문을 보다 다듬고 아쉬운 점을 보완하여 ‘문법화 과정’을 보다 면밀히 고찰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윤혜영(2008), 『17세기 국어의 인용구조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혜영(2011), 『근대국어의 인용구조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윤혜영(2015), 18세기 전기 외국어 학습서에 나타난 인용구조 연구, 『한말연구』 36, 한말연구학회. 105-137쪽.

이필영(1995),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허 응(1989), 『국어학』, 샘문화사.

허 응(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허 응(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허원옥(1994), 15세기 국어의 인용마디, 『한글』 226호, 한글학회. 203-220쪽.

허원옥(2005), 『15세기 국어 통어론』, 한국학술정보(주).

허원옥(2008), 중세국어 말풀이 인용구조 연구, 『한말연구』 23, 한말연구학회. 453-472쪽.

■ 고찰한 문헌

<17세기>

문헌이름	펴낸 연대	줄임
서적		
家禮諺解	1632	가례
警民編諺解(奎章閣本)	1658	경민중
勸念要錄	1637	권념
新刊救荒撮要	1660	신구황
老乞大諺解	1670	노걸
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	동신
馬經抄集諺解	1682	마경
朴通事諺解	1677	박통
詩經諺解	17세기	시경
語錄解 初刊本	1657	어록초
語錄解 重刊本	1669	어록중
女訓諺解	1658	여훈
譯語類解	1690	역어
新傳煮硝方諺解	1698	자초
捷解新語 初刊本	1676	첩해초
일기, 간찰		
병자일기(남평조씨부인)	1636~1640	병자
산성일기	17세기	산성
서궁일기	17세기	서궁
진주하씨묘출토간찰	17세기	하간찰

<18세기>

문헌이름	펴낸 연대	줄임
加髭申禁事目	1746	가체
改修捷解新語	1748	개첩
警世問答續錄諺解	1763	경세
敬信錄諺釋 佛嚴寺版	1796	경신
論語栗谷先生諺解	1749	논을
大學栗谷先生諺解	1749	대을
孟子栗谷先生諺解	1749	맹을
明義錄諺解	1777	명의
蒙語老乞大	1741	몽노
蒙語類解補	1768	몽유
武藝圖譜通志諺解	1790	무예
朴通事新釋諺解	1765	박신
方言類釋	1778	방유
兵學指南 壯營藏板本	1787	병학
三譯總解	1703	삼역
先朝行狀	18세기	선조
禪宗永嘉集諺解	1745	영가
續明義錄諺解	1778	속명
御製警世問答諺解	1761	경문
御製戒酒論音	1757	계주
御製內訓諺解	1737	내중
御製百行願	1765	백행

御製自省編諺解	1746	자성편
女四書諺解	1736	여사
念佛普勸文 海印寺版 일사본	1776	염해
伍倫全備諺解	1721	오비
五倫行實圖	1797	오륜
應眞經諺解	18세기	응진
隣語大方	1790	인어
種德新編諺解	1758	종덕
重刊老乞大諺解	1795	중노
中庸栗谷先生諺解	1749	중을
地藏經諺解	1752	지장
闡義昭鑑諺解	1756	천의

<19세기>

문헌이름	펴낸 연대	줄임
歌曲源流(國樂院本)	1876	가곡
敬惜字紙文	1882	경석
過化存神	1880	과화
國民小學讀本	1895	국민
君靈蹟誌	1881	군영
南宮桂籍	1876	남궁
明聖經諺解	1883	명성
성경직히	1892-1897	성경
성교빅문답	1884	성교
小學讀本	1895	독본
쌍주기연	19세기	쌍주
易言諺解	1884	이언
趙雄傳	19세기	조웅
쥬년첨례광익(권이)	1899	첨례
淸語老乞大	19세기	청노
초한전	19세기	초한
치명일기	1895	치명
太上感應篇圖說諺解	1852	감응
태평광기언해	19세기	태평
턴료력녕	1894	턴로
華容道	19세기	화용

<20세기 초>

문헌이름	펴낸 연대	줄임
대한매일신보	1904~1910	발행일자
1904~1907년, 1910년 발행 신문 중 논설(417개), 기사(54개), 별보(43개), 사설(2개)		

<20세기 초중반>

문헌이름	펴낸 연대	줄임
삼천리	1929~1942	삼천리/호/쪽수
1929~1910년 발행된 잡지 내 논설(36개)		

■ 토 론

“형식적 인용구조’를 기반으로 한 도움토씨 ‘-이란’의 문법화 과정 고찰 -20세기 초중반까지의 문헌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병건(건국대)

‘[저시라] ᄃᆞᆫ 거슨 ~’과 같은 구조에서 ‘[저시라]ᆞ 거슨 ~’을 거쳐 ‘[저시라]ᆞ ~’과 같이 문법화했음을 밝힌 이 논문은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화제로 삼을 때 쓰는 보조사인 ‘~이란’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이란’의 ‘ᆞ’이 보조사 ‘은/는’에서 온 것임을 밝히는 의미 있는 논문이다.

토론자의 짧은 지식이 발표자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읽으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3.4. 20세기 초’의 설명에서 ‘풀이말줄기 ‘ᄃ-’가 생략될 때는 현실법 때매김씨끝 ‘-ᆞ-’가 함께 생략된다’라고 하였는데, 이 설명을 보면 ‘ᄃᆞᆫ’의 ‘ᆞ’를 ‘ᆞ’와 ‘ᆞ’으로 나눈 듯 보인다. 하지만 아래의 예들에서 ‘ᆞ’의 ‘ᆞ’는 현실법 때매김씨끝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적어도) 20세기 초 이후의 예의 ‘ᆞ’는 현대어에서처럼 때매김법이 분리되지 않는 ‘ᆞ’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0) ᆞ. [선비라]ᆞ 거슨 나라의 원기라 ᄃ고 (1910.5.27. 873호 논설)

(12) ᆞ. [敎導團이라]ᆞ 거슨 軍官學校 1기 2기생 중에서 실전에 경험이 잇는 사관들을 뽑아서 재훈련을 시키는 데다 (삼천리10:7)

2) ‘[저시라]ᆞ 거슨 ~’에서 ‘~ᆞ 거슨(것)’이 생략된 것으로 보았는데, ‘거슨(것은)’이 생략된 것으로 볼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다. 다른 문법화한 형태들 중 ‘~ᆞ 것’이 생략된 경우가 생각이 나지 않고, 보통 생략이란 기제는 하나의 덩어리(어절·음절 혹은 단어·형태소 등)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이)라 하는 것은’이란 말이 현대에도 여전히 쓰이고 있는 듯한데(‘광고라 하는 것은 ~~’), ‘~이란’과 이 우연적구성이 서로 의미·기능상 일치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즉, 이 우연적구성에서 ‘~이란’이 왔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관형사와 접두사 경계의 모호성에 대한 연구 -일 음절 한자어를 대상으로-

정수현(건국대학교)

1. 서론
 2. 선행 연구
 3. 관형사와 접두사의 모호성
 - 3.1. 관형사 접두사 통용의 예
 - 3.2. '구(舊)' 구문
 4. '신(新)', '현(現)' 구문 비교
 - 4.1. '신(新)' 구문 비교
 - 4.2. '현(現)' 구문 비교
 5.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언어 요소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품사라는 범주 안에 묶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범주 안에만 묶어 놓을 수 없는 요소들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관형사와 접두사일 것이다. 이 발표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일 음절 한자어 중 관형사와 접두사로 모두 설정되어 있는 표제어를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구(舊)'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신(新)', '현(現)'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관형사와 접두사 범주의 모호성과 그 사전적 처리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관형사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형태를 바꾸지 않아야 하는 것, 접두사는 독립성이 없고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로 볼 수 있다.¹⁾ 관형사와 접두사의 관계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지만 일 음절 한자어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표준에서 접두사로 처리한 일 음절 한자어의 수는 126개 표제어이다. 반면에 관형사로 처리한 일 음절 한자어의 수는 수 관형사를 제외하고 26개 표제어이다.²⁾ 이 중 8개만이 관형사 목록과 접두사 목록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관형사 처리와 접두사 처리는 띄어쓰기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기기에는 조금 불편한 구석이 있다.

언어는 변화하기 마련이다. 많이 쓰이는 형태, 요소는 변화를 더 입을 수도 있기도 하고 반면에 변화로부터 확고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도 한다. 반의 관계나 계열 관계에 있는 형태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정도로 또 일정한 방향으로 언어가 변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전에서 일관된 처리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사전이 규범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지금에서 언어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사전 처리는 실제로 언어를 쓰고 있는 언중들에게 불편한 기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그 처리가 타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이 발표를 구상하게 되었다.

1) 접두사는 보통 관형사성 접두사와 부사성 접두사로 분류가 된다.

2) 관형사 접두사 모두 있는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관형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2. 선행 연구

한영목(1985) 연구는 체언 접두사에 관한 논의였다. 관형사와 접두사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단어의 자격, 직능, 형태소간의 어근의 개재, 휴지, 맞춤법 등의 개별적 논거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구체적인 접근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모든 낱말들은 사전적 의미 외에도 함축적 의미와 정서적 연상에 따른 의미와 화용론적 의미의 다양성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의 관형사와 체언 접두사의 관계 논의는 그 낱말이 지니는 형태·직능·의미의 총체적 파악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어휘적 의미와 통사적 의미를 고려해야만 그 애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하였다. 수 관형사는 수사의 관형어의 쓰임으로 처리하면서 정상 관형사와 접두사의 구별이 어려움을 말하였다. 또한 “새”의 예시를 들어 ‘새 희망’은 관형사로 ‘새’는 접두사로 문법서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맞춤법에 따른 문제와도 상관되며 이승녕(1967, 고등국어문법)에서 말하는 ‘복합어로서의 굳어진 정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국어 표기법상 띄어쓰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휴지를 통해 접두사와 관형사를 구별하려는 견해는 식별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필자의 견해도 이와 같다. 복합어로 굳어진 정도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그렇지만 띄어쓰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만하다. 사전은 규범이기도 하지만 언어 현실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학자들의 이론적인 바탕만이 사전을 꾸리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립국어원 질문에 올라 있는 수많은 질문이 띄어쓰기와 관련한 것임을 봤을 때, 언중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혼란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관규(1989) 연구에서는 국어에서 접두사는 접사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이기 때문에 접두사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깊은 재고가 요청된다고 하였다. 이의 근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종래 국어에서 접두사를 인정한 근거로는 의미의 약화, 비자립성, 형태의 변이, 분포의 한정성 들 수 있는데 이는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①의미의 약화라는 것은 의미 변화와 관련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언어의 역사성에 기댄 의미의 약화는 어휘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어근이 접사로 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②“아름답다”에서 어근이 ‘아름-’ 자립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여 비자립성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③비자립성의 특성도 형태 변이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의미는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④분포의 한정성도 기준이 되지 못하는데 한 형태소, 또는 어휘가 얼마나 널리 쓰이느냐

표제어	품사	뜻풀이
각(各)	관형사	낱낱의.
고(故)	관형사	이미 세상을 떠난.
근(近)	관형사	그 수량에 거의 가까움을 나타내는 말.
당(當)	관형사	그, '바로 그', '이', '지금의'의 뜻을 나타내는 말.
당(當)	관형사	당시의 나이를 나타내는 말.
동(同)	관형사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같은'으로 순화.
매(每)	관형사	하나하나의 모든. 또는 각각의.
별(別)	관형사	보통과 다르게 두드러지거나 특별한.
순(純)	관형사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여 순수하고 온전한.
약(約)	관형사	대강', '대략'의 뜻으로, 그 수량에 가까운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양(兩)	관형사	'둘' 또는 '두 쪽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말.
작(昨)	관형사	그 날짜가 이미 지나갔거나 어제였음을 나타내는 말.
전(全)	관형사	'모든' 또는 '전체'의 뜻을 나타내는 말.
전(前)	관형사	이전의 경력을 나타내는 말.
전(前)	관형사	이전 또는 '앞', '전반기'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말.
제(諸)	관형사	'여러'의 뜻을 나타내는 말.
주(主)	관형사	'주요한', '일차적인'의 뜻을 나타내는 말.
현(現)	관형사	현재의. 또는 지금의.

에 따라 어근인지 접두사인지 말할 수 없고, 이는 생산성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자어는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관규(1989)는 접두사로 제시되는 순수 고유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한자어는 접두사로 설정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한자어가 접두사로의 쓰임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서정미(1994) 연구에서는 접두사와 관형사의 형태소 처리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관형사 역시 하나의 낱말이기는 하지만 뒤에 따르는 체언을 한정할 때만 관형사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에서 찾았다. 그래서 접두사와의 구별이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관형사와 접두사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관형사는 체언만을 꾸미고, 관형사를 수식할 수 없다. ②관형사는 대부분 형식명사와 결합할 수 있으며 뒤따르는 체언과의 분포상 제약 관계가 적으면 두루 붙을 수 있지만 접두사는 명사를 포함하는 체언과 용언에 두루 붙는다. ③접두사는 어근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비자립적 요소이다. ④접두사는 뒤에 어근과 결합하여 하나의 낱말을 만들므로 이들 사이에 휴지가 불가능하며, 또한 다른 요소가 들어갈 수 없다. 사실 이러한 기준들은 기존의 논의되어 왔던 기준들이기는 하지만 접두사 뒤에 휴지가 불가능하다는 기준은 다시 고려되어야 할 듯하다. 특히 한자어 접두사의 경우에는 휴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가 상당히 모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유현경(1999) 연구에서는 접두사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접두사는 대부분 실사가 문법화 과정을 거쳐 허사화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의 투명성과 조어의 생산성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여기에서 접두사의 주조건인 “의미의 투명성”과 관련한 접두사는 주로 한자어 접두사라고 하였다. 한자어는 글자 하나마다 뜻이 있어서 글자 하나가 한 형태소로 취급받는데 한자어 접두사는 접두사로 쓰일 때에도 뜻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예를 들어 山과 親. ‘친(親)-’은 의미의 투명성을 가지고 있음.) 더불어 접사와 파생어의 관계는 사전의 기술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접사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사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전에서의 접사는 그 접사로 인해 파생된 파생어에 대한 설명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접사로 올라 있는 표제어와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파생어는 서로 의미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기술되어야 하고 특히 그 파생어가 표제어로 사전에 등재되었을 경우 그 접두사는 될 수 있는 대로 표제어로 처리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현경의 연구대로 접사와 파생어의 관계는 사전 기술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관형사로 처리가 되어 있느냐 접두사로 처리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발표의 연구 대상인 구(舊), 신(新), 현(現)의 사전적 처리를 살펴보는 일은 지금 처리의 타당성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듯하다.

장영희(2001) 연구에서는 관형사와 변별이 어려운 것은 명사화 결합하는 관형사성 접두사임을 확인하고 관형사가 통합된 형태를 단어로 볼 것인지 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접두사로도 관형사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³⁾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은 “첫”인데, “첫아들, 첫사랑 첫눈, 첫날”은 복합 명사 구조(합성어)로 보고 붙여 쓰는 것이며, 이때 “첫”을 접두사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접두사와 관형사 목록에 중복이 생겨 혼란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한자어계 관형사도 접두사와 구별이 어렵다고 하였다. ‘첫’의 경우 접두사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관용적 빈도가 커지면서 단어의 숨이 사라진 것이고 이것이 ‘관형사+명사’ 구조로 된 복합어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첫’의 경우 그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접두사와 관형사 목록에 중복이 생겨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과 의미의 정도의 차이에 따른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단어의 숨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굳어진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관형사+명사”의 구조된 복합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타당한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단어의 쓰임이 변화를 입는 과정에서 관형사로만 쓰이던 것이 굳어진 표현에서 쓰이다 보면

3) 장영희(2001:214)에서는 “접속사로도 관형사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로 되어 있으나 필자의 해석으로는 접두사의 오기로 보아 이를 반영하였다.

접두사적 쓰임으로 점차 변화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다만 여기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바로 접두사가 관형사보다 정말로 한정적인 쓰임이냐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신(新)-’의 경우 접두사로만 처리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정적인 쓰임을 갖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 발표에서는 ‘구(舊)’의 처리와 맥락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하지만 이 표제어들은 쓰임이 워낙 많기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인지하되 다른 말에 쉽게 붙는 것으로 인지하기 쉽다.

한용운(2004)은 같은 특징을 갖는 부류를 여러 개의 범주로 분류하거나 다른 특징을 갖는 부류에 같은 범주 명칭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접두사와 다른 범주의 통용으로 기술된 형식을 검토한 연구인데, 관형사와 접두사의 통용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다.⁴⁾ 각(各), 귀(貴), 단(單), 순(純), 옛, 전(全), 첫, 총(總)은 모두 관형사 범주로만 보았다. 접두사라면 후행 성분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문장에 나타날 수 없어야 하는데 이들은 모두 명사 앞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의미 면에서도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본(本)’의 경우에 기본 의미에서 기능에 따른 의미 분화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이의어로 본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미의 분화가 가장 큰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범주가 이동하면서 의미의 분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며 의미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범주가 이동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미가 관형사와 접두사를 가르는 데에 차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현희(2009) 연구에서는 고유어 중 관형사와 접두사, 두 가지 성격을 모두 보이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두 범주의 인접성에 대해 논하였다. 두 범주를 명확하게 나눌 수 없다면 그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도 기술의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궁극적으로 두 범주 중 어느 범주에 무리하게 포함하기보다는 언어 요소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게 언어 현상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현희의 연구에서 관형사와 접두사 두 범주를 가르는 기준은 후행 성분의 범주, 분포 한정성, 자립성을 들었다. 접두사는 제한적이고 관형사는 자유로운 분포를 가지며, 관형사와 접두사의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고 관형사의 전형적 기능은 후행하는 명사에 대한 수식이므로 핵 명사의 개체가 변화하지는 않는 자립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관형사의 의미는 어휘적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어 변화가 없지만 접두사일 경우 의미의 추상화를 거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접두사의 의미가 가변적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한자의 경우에는 다른 요소에 쉽게 결합하는 성격 때문에 오히려 접사다운 성격을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현희(2009)의 연구는 이 발표와 맥락적 부분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일 음절 한자어 관형사 중 사전적 처리에 의심을 품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범주의 이동 양상에 대한 연구와는 조금 다를 것이다. 실제로 쓰이는 양상들을 살펴보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일 음절 한자 ‘구(舊)’ 구문을 중심으로 관형사로 처리하고 있는 요소와 관형사, 접두사로 처리, 또 접두사로만 처리 사이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고 얼마만큼 같은 것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사전 처리에 빈틈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접두사와 관형사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6개로 들고 있다.

- 가. 접두사는 형태적으로 의존 형식인 반면, 관형사는 자립 형식이다.
- 나. 복합어의 선행 성분인 형식이 다른 복합어에서 후행 성분으로도 쓰인다면 그 형식은 접두사가 아니다.
- 다. 접두사는 실질 형태소에 결합된다.
- 라. 접두사는 어휘고도제약을 지킨다.
- 마. 접두사는 관형사에 비해 분포 제약이 심하다.
- 바. 관형사가 합성어의 구성 성분이 되었을 때, 관형사의 본래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더해질 수 있다. 관형사로 기능할 때의 의미와 합성어의 구성 성분이 된 뒤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라면 접두사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의미가 유사하고 형태의 변화가 없다면 관형사로 처리해야 한다.

3. 관형사와 접두사의 모호성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둘의 경계의 모호성은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위의 선행 연구들에서 관형사와 접두사에 관한 견해는 이 둘의 범주가 모호하다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관형사와 접두사의 통용에 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그렇지만 어떤 견해이든 일면의 타당성은 있다. 그만큼 이 두 범주의 모호성이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연구 대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예시들을 통해 진행해 보려고 한다.

3.1. 관형사 접두사 통용의 예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관형사와 접두사를 모두 설정하고 있는 일 음절 한자어는 다음과 같다

표제어	품사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구(舊)	관형사		지난날의. 지금은 없는.	구 시민 회관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묵은’ 또는 ‘낡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구시가/구세대
귀(貴)	관형사	일부 한자어 명사 앞에 쓰여	상대편이나 그 소속체를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말.	귀 신문사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존귀한’이나 ‘희귀한’ 또는 ‘값비싼’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귀공자/귀금속
단(單)	관형사		오직 그것뿐임을 나타내는 말.	단 한 발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하나로 된’ 또는 ‘혼자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단별/단세포/단신
본(本)	관형사		어떤 대상이 말하는 이와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	본 협회/본 법정/ 본 변호인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1」‘바탕이 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애초부터 바탕이 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1」본계약/본줄기/ /본회의 「2」본뜻/본고장/ 본서방
성(聖)	관형사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의 이름 앞에 쓰는 말.	성 베드로
	접사	기독교에 관한 몇몇 명사 앞에 붙어	‘거룩한’ 또는 ‘성스러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성가정/성만찬/ 성목요일
수(數)	관형사		‘몇’, ‘여러’, ‘약간’의 뜻을 나타내는 말.	수 미터
	접사		‘몇’, ‘여러’, ‘약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수백만/수천/수만
연(延)	관형사	주로 수사 앞에 쓰여	어떤 일에 관련된 인원이나 시간, 금액 따위를 모두 합친 전체를 가리키는 말.	연 10만 명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전체를 다 합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연건평/연인원
총(總)	관형사	수사, 단위성 의존 명사 앞에 쓰여	모두 합하여 몇임을 나타내는 말.	총 3백 대/총 5천만 원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전체를 아우르는’ 또는 ‘전체를 합한’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	총감독/총결산/총 공격/총인원

<표1.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관형사와 접두사 모두 설정하고 있는 목록>

위의 표에서와 같이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만으로 관형사와 접두사를 구분해 내기란 쉽지가 않다. 특히 ‘수(數)’의 경우는 뜻풀이에 문법 정보도 주어지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다만 접미사 ‘수(數)-’의 용례를 통해 접미사 ‘수(數)-’의 용법은 수사 앞에 붙여 쓰이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관형사 ‘수(數)’는 단위 명사 앞에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귀(貴)’는 용례 “귀 신문사”, “귀금속”을 본다면 관형사로의 쓰임과 접두사로의 쓰임이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의미적인 차이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접두사로 쓰인 ‘귀(貴)-’는 관형사로 쓰인 ‘귀(貴)’와 아주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값비싼”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의미가 달리 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單)’의 경우에도 비슷한 해석이 가능하다. 관형사의 풀이로는 “오직 그것뿐임을 나타내는 말”로 “단 둘, 단 셋”과 같은 구성이 가능하다. 이것은 접두사 ‘단(單)-’의 쓰임과는 다른 것이다. 접두사의 의미로는 ‘둘, 셋’과 구성이 가능한 관형사와 비교했을 때 더욱 제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延)’, ‘총(總)’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연(延)’과 ‘총(總)’의 관형사 용례를 보면 모두 수의 합계와 관련이 있다.⁵⁾ 접사의 뜻풀이와 크게 다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용법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러한 처리는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본(本)’ 역시 기본 의미에서 기능에 따른 의미 분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구(舊)’도 그러한가? ‘구(舊)’의 뜻풀이만으로는 관형사와 접두사의 풀이가 다른 듯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품사 설정의 기준은 형태, 용법, 의미의 차이가 될 것인데 관형사와 접두사는 형태, 용법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의미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의미의 문제는 명확하게 구분해 내기란 참 어렵다. 위에서 짧게 설명해 보았듯이 관형사와 접두사 모두 올라 있는 표제어들 사이에서 다른 용법이나 의미적 차이를 알 수 있었기에 일부는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도 명확하게 두 범주로 가를 수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구(舊)’의 두 의미의 차이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3.2. ‘구(舊)’ 구문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구(舊)’는 관형사와 접두사로 풀이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둘의 뜻풀이가 아주 명확하게 다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

표제어	품사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구(舊)	관형사		지난날의. 지금은 없는.	구 시민 회관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묵은’ 또는 ‘낡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구시가/구세대

<표2. ‘구(舊)’의 뜻풀이>

구의 관형사와 접사의 뜻풀이가 확연히 다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관형사로의 쓰임을 예를 들어 보자면, 예전에 어떤 건물이 있던 자리에 그 건물이 불에 타 없어졌다면 “구 ○○ 자리”로 써야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관형사의 뜻풀이 “지금은 없는”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난날의”라는 뜻풀이는 모호한 데가 있다. 사실 이 풀이는 접사 풀이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인지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든다면 표준에서 표제어로 삼고 있는 “구러시아 공사관”이 그러하다. 이곳은 한국전쟁 때 공사관의 본체가 파괴된 후 탑 부분과 빈터만 남았다. 그렇다면 “구√러시아 공사관”일까? “구러시아 공사관”일까? 다음은 “구러시아 공사관”의 쓰임은 네이버에서 확인한 것이다.

5) ‘총(總)’의 관형사의 문법 정보인 “단위성 의존 명사 앞에 쓰여”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다. ‘연(延)’의 문법 정보와 같이 “주로 수사 앞에 쓰여”가 맞아 보인다.

예시	비고	검색 건수
구 러시아 공사관	표준 표제어 '구러시아^공사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193
구러시아 공사관	표준 표제어 '구러시아^공사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35

<표3. '구러시아 공사관'의 실제 쓰임>

현재 구러시아 공사관 자리에는 기념비와 비슷한 건축물이 세워져 있다. 본래의 실체는 없어지고 다른 것(탑)이 대체하고 있다.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구 러시아 공사관 탑”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은 해당 실체가 없으니 “구√”가 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고, 예전에 러시아 공사관 자리이기 때문에 “구러시아 공사관”도 맞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표3>의 실제 쓰임으로는 “구러시아 공사관”이 더 많이 나타난다. 여기에는 사실 배제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다. ‘구(舊)’에 후행하는 요소가 명사구이기 때문이 띄어 쓰고자 하는 의식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후행하는 요소가 명사구일 때 수식어가 관형사라면 단어 구성에 타당성은 확보될 수 있지만 접두사로만 처리한다면 자칫 명사구 전체를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구러시아 공사관”은 “옛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전의 러시아공사관”과 다른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구러시아공사관”과 같이 모두 붙여 쓰면 수식의 모호성은 없어진다. 이처럼 관형사와 접두사의 처리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다음은 ‘구(舊)’와 관련된 구성들을 살펴본 결과이다.

예시	비고	검색 건수
구 세대	표준 표제어 '구-세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10
구세대	표준 표제어 '구-세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5823
구 소련	표준 표제어 '구-소련'.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10365
구소련	표준 표제어 '구-소련'.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16376
구 시가지	표준 표제어는 '구-시가지'이지만 '신-시가지'와 맞춘 형태.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1207
구시가지	표준 표제어는 '구-시가지'이지만 '신-시가지'와 맞춘 형태.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8368
구 제도	표준 표제어 '구-제도'.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49
구제도	표준 표제어 '구-제도'.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214
구 시민 회관	표준 용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161
구시민회관	표준 용례. '구시민 회관' 꼴도 포함.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0
구 도로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395
구도로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6
구 서울역사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1671
구서울역사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0
구 정권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1085

예시	비고	검색 건수
구정권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948
구 정문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205
구정문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737
구 화폐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202
구화폐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382
구 도읍지	작성례. 2016.01.15.까지 통합검색 건수.	13
구도읍지	작성례. 2016.01.15.까지 통합검색 건수.	5

<표4. ‘구(舊)’의 쓰임 검색 결과>

“구 도로”는 지금 없어진 길을 이르지는 않는다. 따라서 “구도로”로 써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실제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구 도로”이다. “구 화폐”의 경우는 예전 화폐, 이미 없어진 화폐로 해석도 되겠지만 남은 화폐를 뜻하게 된다면 “구화폐”가 될 것이다. 이것이 구분이 되는 것이고 또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사실 ‘구(舊)’의 의미를 고려해 볼 때, ‘현재에 실체물의 유무’나, ‘본래 용도의 변경’이라든가의 문제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구 정권”의 경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자. 관형사로, 접두사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표제어로 처리하고 있는 “구소련”은 어떠한가? 뜻풀이대로라면 오히려 “구 소련”이 더 맞아 보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한 단어로 처리했을 때에는 아마도 쓰이는 빈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두 꼴이 모두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볼 때, ‘구(舊)’의 의미는 관형사, 접두사가 상당히 모호한 경계에 있거나 의미적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쩌면 관형사의 접두사의 꼴이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두 표현 모두 완벽히 틀린 것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⁶⁾

4. ‘신(新)’, ‘현(現)’ 구문 비교

4.1. ‘신(新)’ 구문 비교

<표준국어대사전>에 ‘신(新)-’은 접두사로만 있다. 따라서 띄어쓰기를 하는 일은 오류가 된다. 다음은 ‘신(新)-’의 뜻풀이이다.

표제어	품사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신(新)-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새로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신세대/신경제/신기록 /신세계

<표5. ‘신(新)-’의 뜻풀이>

관형사의 의미는 어휘적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어 변화가 없지만 접두사일 경우 의미의 추상화를 거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접두사의 의미가 가변적일 수 있다고 본다면 ‘신(新)’ 또한 제한적인가, 가변적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新)’ 제한적이지도 가변적이지도 않아 보인다. 설령 제한적인지 가변적인지와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舊)’와 쓰임이 같아 보인다. 다음

6) 어쩌면 이렇게 처리하는 편이 오류인 경우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은 ‘신(新)-’이 쓰인 다른 구성들을 네이버를 통해 검색해 본 결과이다.

예시	비고	검색 건수
신 시가지	표준 표제어 '신-시가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155
신시가지	표준 표제어 '신-시가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21870
신 제도	표준 표제어 '신-제도'.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24
신제도	표준 표제어 '신-제도'.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742
신 화폐	표준 표제어 '신-화폐'.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51
신화폐	표준 표제어 '신-화폐'.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313
신 메뉴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5824
신메뉴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28708
신 문물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51
신문물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1563
신 소재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232
신소재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111385
신 재생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2091
신재생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190603
신 정문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9
신정문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68
신 정부청사	작성례. '신 정부 청사' 꼴도 포함.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5
신정부청사	작성례. '신정부 청사' 꼴도 포함.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143
신 정책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74
신정책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716
신 교육과정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10
신교육과정	작성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41
신 도읍지	작성례. 2016.01.15.까지 통합 검색 건수.	52
신도읍지	작성례. 2016.01.15.까지 통합 검색 건수.	426

<표6. ‘신(新)-’의 쓰임 검색 결과>

<표6>의 이러한 예시들은 앞의 <표4>의 예시들과 대응하는 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구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위의 ‘신(新)’의 쓰임을 보면 명사 붙여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는 하다. ‘신도읍지’와 ‘구도읍지’를 비교해 보면 각각 ‘구 도읍지’와 ‘신도읍지’의 꼴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다고 해서 ‘신(新)’을 접두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만은 없다. “신√” 꼴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문 구성적인 면에서 따졌을 때, 대립하는 ‘구(舊)’ 구문과

구성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구(舊)’와 ‘신(新)’의 처리가 일치되는 것이 사용자들에게 설득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4.2. ‘현(現)’ 구문 비교

‘구(舊)’와 대립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현(現)’일 것이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 ‘현(現)’은 관형사로만 처리되어 있다.

표제어	품사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현(現)	관형사		현재의. 또는 지금의.	현 시각/ 현 정권/ 현 상태

<표7. ‘현(現)’의 뜻풀이>

한편 ‘현세대’, ‘현시대’, ‘현시점’, ‘현주소’는 한 단어로 올려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는 ‘첫’의 처리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장영희의 연구에서와 같이 이것은 “관형사+명사”가 굳어진 형태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현-’을 접두사적 쓰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다음은 ‘현-’의 쓰임을 네이버를 통해 검색해 본 결과이다.

예시	비고	검색 건수
현 세대	표준 표제어 '현-세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5270
현세대	표준 표제어 '현-세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2500
현 시대	표준 표제어 '현-시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11351
현시대	표준 표제어 '현-시대'.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7185
현 시점	표준 표제어 '현-시점'.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98850
현시점	표준 표제어 '현-시점'.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28791
현 주소	표준 표제어 '현-주소'. 비유적 표현.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10116
현주소	표준 표제어 '현-주소'. 비유적 표현.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70538
현 상태	표준 용례 '현 상태'.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22276
현상태	표준 용례 '현 상태'.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3133
현 시각	표준 용례 '현 시각'.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212
현시각	표준 용례 '현 시각'.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83
현 정권	표준 용례 '현 정권'.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63,152
현정권	표준 용례 '현 정권'. 2016.01.15.까지 뉴스 검색.	9,077

<표 8. ‘현(現)-’의 쓰임 검색 결과>

사전을 따르자면 붙여서 써야 하는 것이 맞는 표기이지만 ‘현주소’를 제외한 ‘현세대’, ‘현시대’, ‘현시점’의 경우에는 띄어서 쓰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언중들 직관에 비유적인 표현인 ‘현주소’ 이외의 구성에서는 “현재의”라는 의미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

다. 그렇다면 현재 한 단어로 처리가 되어 있는 ‘현재대’, ‘현시대’, ‘현시점’을 굳어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現)’의 기본적인 의미인 “현재의”라는 의미가 달리 분화한 것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현(現)’은 의미적으로 하나로만 쓰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現)’ 역시 “현-” 꼴이 나타나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인식은 하지만 후행하는 말에 밀접하게 붙여 쓰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일 음절 한자 관형사 목록을 보면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다. 각주 3번의 목록을 참고하면 관형사만으로 처리하고 있는 일 음절 한자어는 18개이다. 이 목록에서 ‘순(純)’은 “순금속, 순매도, 순맥반, 순면직물, 순물질, 순백색” 따위가 있다. 앞부분에서도 설명했듯이 접두사가 없는 꼴의 이러한 처리는 “관형사+명사”의 굳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처리된 표제어의 수는 “순(純)”의 경우에 ‘현(現)’보다 상당히 많다. 의미상 접두사와 관형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접두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적 처리가 어색할 수 있다. 정말 굳어진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접두사로 처리되는 것이 기술을 더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3. 관형사와 접두사의 처리의 검토

언중의 직관에 하나의 품사로 자리 잡고 있는 단어가 두 가지 범주로 설정되어 있다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법적 기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주의 단어가 있다면 그 설명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접두사 가운데 관형사성을 띠는 일 음절 한자어의 경우와 일 음절 한자어 관형사의 경우에는 이 모두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본 대로 이를 정확하게 갈라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新)’의 경우에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서 관형사처럼 띄어서 쓰는 일이 있다. 관형사보다 접두사의 쓰임이 더 제한적이라서 붙여서 쓴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옛것과 새로운 것은 언제나 순환적으로 존재해 왔는데 따라서 구와 신의 대립적 의미가 우리의 생활과 보다 더 밀접했을 것이다. 항상 새로운 것은 나오기 마련이고 따라서 옛것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생활 안에서 ‘구’와 ‘신’은 그 의미가 다른 것들과 중복되는 일이 없이 확고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접두사가 관형사처럼 쓰이는 것인지 관형사가 접두사처럼 쓰이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기도 하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신(新)’이 접두사로만 쓰이지 않음은 ‘구(舊)’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우리가 검토한 ‘구(舊)’, ‘신(新)’은 이현희(2009:236)에서 “온”에 관한 설명에서와 같이 “관형사이던 것이 후행 성분이 다양해지면서 접두사로 범주를 분화하여 이동하게 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둘의 처리는 달랐다. 적어도 이 둘의 처리는 용법상, 의미상 다를 이유가 없어 보인다. 범주를 분화하여 이동하고 있는 과정에 안에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러한 설명은 이론적 설명일 뿐이다. 언어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필요한 정보는 아닐 수 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전을 규범으로 인식하는 언중들에게는 사전적 처리가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 어떤 형태소가 구를 형성하는가, 단어를 형성할 수 있는가는 일 음절 한자어 범위 안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다. 한자어가 접사다운 성격을 보이기도 하면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분리해 내려는 경향이 있음을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관형사와 접두사 사이의 경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형태, 용법, 의미적 차이가 있어야 두 범주를 가릴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는 의미가 될 것이다. 관형사로만 처리할 경우 굳어진 표현으로 보고 복합어로 사전에 등재해야 하며, 접두사로만 처리할 경우 띄어 쓰게 될 때 오류가 된다. 이런 불편함으로만 봤을 때(사용자의 입장에서), 두 범주를 가릴 만한 의미적 차이나 통사적 차이가 없다면 관형사, 접두사로 모두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또한 의미상 접두사와 관형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접두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적 처리가 힘들다.

5. 결론

지금까지 관형사와 접두사의 경계의 모호성에 대해 ‘구(舊)’ 구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발표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구(舊)’는 관형사와 접두사로 처리되어 있지만 그 뜻풀이에서 차이를 알기는 힘들다.

② ‘구(舊)’에 대응하는 ‘신(新)’은 접두사로만 처리되어 있다. 현(現)’은 관형사로만 처리되어 있다.

③ 그러나 이들의 쓰임을 살펴본다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띄어쓰기도 하고 붙여쓰기도 한다. 하지만 언중들의 띄어 쓰고 붙여 쓰는 현상을 놓고서 관형사로 쓰인다든지 접두사로 쓰인다든지 판단할 수는 없다.

④ 일 음절 한자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식어의 기능을 할 때 명확한 표현을 위해 뒷말 사이에 휴지를 줄 수도 있기도 하지만 뒷말에 밀접하게 붙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질적인 두 가지의 성격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따라서 두 범주의 차이는 형태, 용법, 의미가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용법만 다르다고, 의미만 다르다고 두 범주를 가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때 용법에 따른 의미 차이가 중요한 것이다.

⑥ 용법이 다르고 의미가 같거나, 의미가 유사하고 용법이 다르다면 두 범주의 혼동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舊)’ 쓰임의 혼동이 있는 것이다.

⑦ ‘신(新)’의 쓰임은 ‘구(舊)’가 쓰이는 구문과 구조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둘의 풀이나 처리는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서정미(1994), 「현대 한국어 접두 파생어」,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현경(1999), 「접두사의 사전적 처리」, 『언어정보와 사전편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pp.183-203.
- 이관규(1989), 「국어 접두사 재고-그 존재에 대한 부정적 견해」, 『어문논집』제28집, 민족어문학회, pp.339-350.
- 이성하(1998), 『문법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현희(2009), 「관형사의 접두사 범주로의 이동 양상 연구」, 『국어국문학』152, pp.219-254.
- 장영희(2001), 「국어 관형사의 범주와 기능」, 『한국어의미학』8, 한국어의미학회, pp. 201-220.
- 한영목(1985), 「관형사와 접두사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 논문집』제8집, pp.105-127.
- 한용운(2004), 「접두사와 관형사의 상관관계」, 『불교어문논집』제9집, pp.161-178.

▣ 토 론

“관형사와 접두사 경계의 모호성에 대한 연구

-일 음절 한자어를 대상으로-”에 대한 토론문

안신혜(건국대)

이 논문은 관형사와 접두사의 범주의 모호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의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전의 논문들에서 접두사와 관형사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그 둘을 구별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관형사와 접두사를 분류하는 기존의 기준으로는 의미의 약화, 비자립성, 형태의 변이, 분포의 한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들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준에 따라 접두사와 관형사를 분류하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용례를 통해 논의하였습니다. 관형사와 접두사는 형태나 용법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이 논문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관형사와 접두사 양쪽으로 설정되어 있는 단어들의 경우 뜻풀이만으로 관형사와 접두사를 구분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그 범주의 모호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舊)’의 경우는 뜻풀이에서도 관형사와 접두사의 풀이에 큰 차이가 없고, 용법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는 관형사로 쓰일 때는 ‘지난날의 혹은 지금은 없는’의 의미로, 접사로 쓰일 때는 ‘묵은 혹은 낡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쓰임에 있어서는 그 둘의 의미에 명확한 차이가 보이지 않고 양쪽의 의미로 다 해석될 수 있는 경우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자가 뉴스 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언중들은 그 ‘구’를 관형사와 접사로 쓸 때 각각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이나 ‘구시가지’의 경우 ‘구 소련’이나 ‘구 시가지’의 형태도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 논문에서는 ‘구’와 대립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현(現)’이나 ‘신(新)’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 접사로만 설정되어 있고 후자의 경우는 관형사로만 설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관형사와 접사의 범주 구분이 비합리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논란이 되어 왔던 한국어의 관형사와 접사의 범주 설정의 합리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실제 용례를 통해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중들이 가장 많이 혼동을 겪는 것이 띄어쓰기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언중들의 실제 언어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법 기술의 일관성과 사전 처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논문을 읽으며 궁금했던 점들을 발표자님께 질문하려 합니다. ‘구(舊)’와 관련된 구성들을 뉴스에서 검색한 결과 ‘구정권’이나 ‘구화폐’의 경우 ‘구 정권’이나 ‘구 화폐’와 비슷한 빈도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시민 회관’이나 ‘구 서울역사’의 경우 ‘구시민회관’과 ‘구서울역사’는 빈도가 0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결과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관형사와 접두사가 통용되고 있는 다른 일 음절 한자어의 경우 혹시 다른 조사를 해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귀(貴)’, ‘단(單)’, ‘본(本)’, ‘성(聖)’, ‘수(數)’, ‘연(延)’, ‘총(總)’의 실제 사용 양상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위의 관형사 접사 통용어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으신지요. ‘구’나 ‘신’, ‘현’ 등의 실현 양상이 다른 통용어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각각의 경우마다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현희(2009)에서는 관형사와 접두사의 통용에 대해 범주의 연속성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1차 범주인 체언이나 용언이었던

것들이 제2차인 관형사 범주로 이동하고 다시 제3차인 접두사 범주로 이동하게 되는데 관형사와 접두사 통용어는 이 2차와 3차 범주의 경계에 걸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논문의 경우는 고유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이 연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 음절 한 자어도 이렇게 범주의 경계에 걸쳐 있는 연속성의 위에 있다고 볼 경우 관형사와 접두사 통용어의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에 미숙한 글로 폐가 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좋은 논문을 누구보다 먼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발표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문 규정의 어원 설명 검토

이동석(한국교원대)

1. 서론

우리말은 교착어로서 조사, 어미, 접사 등의 형식 형태소가 발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형태소 결합이 빈번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문자적으로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 쓰는 모아쓰기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표기법이 비교적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형태소가 결합할 때는 각 형태소의 형태론적인 특성과 음운론적인 특성에 따라 표기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들을 모두 구별하여 설명하다 보니 한글 맞춤법의 조항 수도 많고 이에 대한 예외도 적은 편이 아니다.

특히 한글 맞춤법의 해설에서는 형태론적인 구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용례에 대한 형태론적인 분석이나 어원 분석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들을 검토해 보면, 몇몇 어원 분석에서 오류가 발견된다.

이러한 오류는 한글 맞춤법의 적절한 적용과 해석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어원론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해설은 현재 인쇄된 책과 국립국어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제공되고 있으며, 한글 맞춤법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으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규정의 내용이나 해설에 오류가 있다면 그만큼 공신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원론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글에서 잘못된 어원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대중적으로 널리 배포된 글에서 어원 분석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잘못된 어원 정보가 대중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해진다. 설령 어원 분석이 왜곡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원 분석에서 정교하지 못한 세밀한 오류가 발견된다면, 어원론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한글 맞춤법의 해설을 읽어 보면 크고 작은 어원 분석 오류가 다수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지적하고 논의를 전개한 연구 성과는 거의 없었다. 단편적으로는 있었을지 몰라도 어원 분석에 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 연구는 전혀 없었다.

이에 본고는 한글 맞춤법 규정 및 해설의 어원 분석 중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비록 한글 맞춤법이 학문적으로 심도 있게 어원 분석을 다루는 성격의 내용은 아니지만, 규정 및 이에 대한 해설이 대중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이 규범으로서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2. 한글 맞춤법의 어원 설명 오류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한글 맞춤법 규정 및 해설에서는 많은 단어들의 어원을 다루고 있다. 어원 분석의 오류를 다루기 이전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워낙 다양한 차원에서 많은 어원들이 다루어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형태소 분석과 어원 분석의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고, 본고의 지면이 넉넉하지 못한 점도 있어 전체적인 정리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고, 본고에서는 어원 분석에 오류가 있는 예들만을 바로 다루도록 하겠다.

어원 분석의 예 중에는 단순한 형태소 분석 차원으로 언급된 것들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도 통시적인 어원과의 관련성이 포착될 경우 광범위하게 어원 분석으로 포함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먼저 관련 조항 및 해설을 제시한 후 이와 관련된 어원 분석을 다루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해쓱하다	가끔
거꾸로	부쩍	어찌	이따금	

<표 1> 한글 맞춤법 제5항

한글 맞춤법 제5항은 된소리 표기와 관련된 것으로,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거나 ‘ㄴ, ㄹ,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날 경우에 이를 된소리로 표기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 대한 해설에서 몇몇 단어의 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단어의 어원을 다룬 대목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해설에서 ‘소쩍’은 의성어로 보았고 ‘숫제’는 어근 ‘숫’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숫제’는 ‘거짓이 아니라 참말로, 무엇을 하기 전에 차라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해설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숫되다, 숫접다, 숫지다’의 ‘숫’과 통한다고 본 듯하다.

이 ‘숫제’와 관련하여 해설에서는 구체적인 변화 과정을 ‘숫접-이→숫저비→숫저이→숫제’로 보았다¹⁾. 그런데 옛 문헌에는 ‘숫접이, 숫저비, 숫저이’ 등의 표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숫접다’라는 단어가 18세기 문헌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날 뿐이다.

(1) 왕지 푸즈 안히셔 기드리느니 그 모양을 첫 번 보니 극히 허위하고 숫저온 사름이라 필연 반겨홀 거시로디 다만 진개 널오디 도션 사름이 네법이 전혀 업고 사람을 업슈로이 녀이느니 만일 궁지 교만하야 만일 왕즈를 만홀이 녀이고 말을 삼가지 아니하면 내게 도로혀 무식홀 거시니 이를 넘어 흐노라 <을병연행록 8:11-12>

형태면에서 볼 때 ‘숫제’가 ‘숫접다’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숫접이, 숫저비, 숫저이’ 등이 문증되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옛 문헌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숫접다’와 유사한 의미로 ‘숫지다’가 있는데, 혹시 이 ‘숫지다’의 활용형 ‘숫지어’가 ‘숫저’로 축약된 후 ‘ㄱ > ㄱ’의 변화를 거쳐 ‘숫제’가 된 것은 아니지 추정해 볼 수도 있다.

현대국어에서 방언과 표준어의 관계에 있는 ‘되려~되레’가 이에 대한 참고가 될 만하다. 사전에서는 ‘되레’를 ‘도리어’의 준말로, ‘되려’를 ‘도리어’의 방언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리어’가 축약된 결과는 ‘레’가 아닌 ‘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언인 ‘되려’가 원형에 가깝고 ‘되레’는 ‘되려’의 ‘ㄱ’가 ‘ㄱ’로 변화를 입은 어형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숫지어’의 축약형인 ‘숫저’가 ‘숫제’가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²⁾.

물론 ‘숫제’가 ‘숫접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 반드시 중간 단계로 ‘숫저비’를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숫저비’가 문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

1) 일반적으로 공시적인 변화를 설명할 때는 ‘→’를, 통시적인 변화를 설명할 때는 ‘>’를 사용하는데, 한글 맞춤법 해설에서는 통시적인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를 사용하였다.

2) ‘ㄱ > ㄱ’의 변화는 ‘벼개 > 베개, 며주 > 메주’ 등의 통시적인 어형 변화에 흔히 반영되어 있으며, 남부 방언을 중심으로 ‘결혼’을 ‘겔혼’, ‘며느리’를 ‘메느리’라 하는 다양한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안녕하시어요’를 ‘안녕하세요’라 하지 않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ㄱ’과 ‘ㄱ’의 교체를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라 18세기에 등장한 접미사 ‘-스럽-’의 부사파생형이 ‘-스레’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어간 말의 ‘ㅂ’이 받드시 ‘빙’을 거친 후에야 탈락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숫제’에 대한 어원 설명은 오류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정교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글 맞춤법의 해설이 학문적으로 어원을 심도 있게 고찰하는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어원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에는 불확실한 ‘숫저비’를 제외하고 ‘숫접- + -이’가 ‘숫저이’를 거쳐 ‘숫제’가 되는 정도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물론 이러한 설명은 ‘숫제’가 ‘숫지다’보다는 ‘숫접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하다.

제5항의 해설에서는 ‘기쁘다, 나쁘다, 미쁘다, 바쁘다’에 대해서도 어원적인 분석을 언급하였다. 해설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들의 어원적인 형태를 ‘깃-브다, 낫-브다, 민-브다, 밧-브다’로 보았다. 어원적으로는 이렇게 분석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원형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된소리로 적는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해설에서 제시한 어원적인 형태를 보면 표기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들에 대한 해설의 어원 분석과 중세 문헌 표기는 각각 다음과 같다.

현대어	중세 문헌 표기	일반적 어원 분석	해설의 어원 분석
기쁘다	깃브다/기쁘다	깃- + -브- + -다	깃-브다
나쁘다	날브다	*날- + -브- + -다	낫-브다
미쁘다	민브다	민- + -브- + -다	민-브다
바쁘다	밧브다/밧브다	밧- + -브- + -다	밧-브다

<표 2> ‘X쁘다’류 용언에 대한 어원 분석 및 중세 표기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의 표기법 등을 고려해 볼 때 현대국어의 ‘기쁘다, 미쁘다, 바쁘다’는 위의 표에 제시된 것처럼 각각 ‘깃- + -브- + -다’, ‘민- + -브- + -다’, ‘밧- + -브- + -다’로 분석된다³⁾. 그런데 해설의 어원 분석을 보면 ‘미쁘다’와 ‘바쁘다’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인 학계의 어원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기쁘다’에 대해서는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⁴⁾.

비록 문헌 표기상으로는 ‘깃브다’이지만, 어원적으로는 ‘깃-’과 ‘-브-’가 결합한 것이므로 ‘깃브다’가 어원적인 표기가 되어야 한다. 혹시 해설에서 기저형 중심의 형태소보다 표기 중심의 이형태를 분석에 반영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기 중심의 이형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라면 ‘바쁘다’의 어원 분석을 ‘밧-브다’가 아닌 ‘밧-브다(밧-브다)’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든 문제가 발생한다.

해설에서는 ‘깃-브다, 민-브다, 밧-브다’를 어원적인 형태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상은 ‘민브다’와 ‘밧브다’만 어원적인 형태를 보여줄 뿐 ‘깃브다’는 어원적인 형태보다는 중세 문헌의 표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어원적인 형태로 통일을 한다면 ‘깃브다, 민브다, 밧브다’가 되어야 할 것이고, 문헌 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깃브다, 민브다, 밧브다’가 되어야 할 테지만, 해설

3) ‘나쁘다’의 어원 분석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4) 해설에서 ‘밧- + -브- + -다’를 ‘밧-브다’로 분석한 점에서 ‘ㆍ’와 ‘ㅡ’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중세 문헌에서 ‘밧브다’와 같이 모음조화를 어긴 표기가 이미 발견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중세국어 시기가 모음조화가 매우 강력했던 시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밧-브다’와 같이 모음을 ‘ㅡ’가 아닌 ‘ㆍ’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에 더 가깝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에서는 이 두 표기를 뒤섞어 놓고서 이를 어원적인 형태라고 설명하였다5).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나쁘다’의 어원적인 형태를 ‘낫-브다’라고 한 점이다. ‘나쁘다’의 어원적인 어근을 ‘낫-[底]’으로 보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단어의 중세 문헌 표기가 ‘날쁘다’인 점을 고려할 때 어근을 ‘낫-’으로 보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6).

현대국어의 ‘낫다’에 해당하는 중세국어의 단어는 ‘놋다’인데, 이 시기에 종성의 ‘ㅈ’은 팔종성 표기법에 따라 ‘ㅅ’으로 적었기 때문에 ‘놋’이 ‘낫’으로 표기될 수 없으며, 모음이 ‘ㆍ’와 ‘ㅏ’로 차이를 보이는 점을 보더라도 ‘날쁘다’의 어근을 ‘놋-’으로 보기가 어렵다(김무림, 2012:213).

강길운(1992:585)는 ‘날쁘다’를 ‘놋쁘다’로 표기한 예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낫-’의 어원을 만주어 ‘niyeče-(보충하다)’에서 찾았다. 국립국어원(2007)과 김무림(2012:212) 역시 ‘낫-(놋-)’을 ‘나쁘다(날쁘다)’의 어근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각 ‘*날다’와 ‘날/날[不善]’을 관련 어휘 및 어근으로 재구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한글 맞춤법 해설에서 ‘나쁘다’의 어원 분석을 ‘낫-브다’로 본 것은 학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내용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물론 ‘나쁘다’의 어원적인 어근을 ‘낫-[底]’에서 찾는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나, 본고는 앞서 언급한 음운론적인 불일치 현상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형태론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나쁘다’의 어원적인 어근이 ‘낫-[底]’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형태론적인 문제의 핵심은 접미사 ‘-브-/브-’가 동사 어간 뒤에 결합하여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깊다, 민다, 밝다’가 모두 동사인 것처럼 ‘날쁘다’의 어근이 ‘놋-’이라면 이때의 ‘놋다’는 동사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국어의 ‘낫다’는 물론 중세국어의 ‘놋다’ 역시 품사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브-/브-’가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제5항의 해설에서 ‘나쁘다’의 어원적인 형태를 ‘낫-브다’라고 한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나쁘다’의 어원은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나쁘다’를 제외하고 ‘기쁘다, 미쁘다, 바쁘다’에 대해서만 어원적인 형태를 ‘깊브다, 민브다, 밝브다’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덧저고리 돛자리 엇셈 웃어른 핫웃 무릇
사뭇 얼핏 자칫하면 못[衆] 옛 첫 헛

<표 3> 한글 맞춤법 제7항

한글 맞춤법 제7항은 ‘ㅅ’ 받침 표기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설에서 ‘밭쪽’의 어원을 다루고 있는데, 해설에서는 ‘밭사둔, 밭상제’를 ‘밭사둔, 밭상제’로 적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밭’이 ‘바깥’의 뜻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밭’이 아닌 ‘밭’으로 적기로 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 ‘바깥쪽’이 변하여 ‘밭쪽’이 되었다고 보았다.7) 이는 ‘밭’을 ‘바깥’의 준말처럼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미쁘다, 기쁘다, 나쁘다, 바쁘다’에 대한 어원적인 형태는 한글 맞춤법 제22항 [붙임]의 해설에 다시 등장한다. 여기에서는 ‘고프다’와 ‘슬프다’에 대한 어원적인 형태 표기가 추가적으로 기술되었는데, 그 표기가 실제 문헌 표기와는 다르게 ‘끓쁘다, 슬쁘다’로 되어 있다. 이로 보건대 해설의 기본 입장은 문헌 표기가 아닌 어원적인 형태소 표기인 듯하다. 그렇다면 ‘기쁘다’는 당연히 그 어원 표기가 ‘깃쁘다’가 아닌 ‘깊쁘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어원적으로 ‘나쁘다’의 어근을 ‘낫-(놋-)’으로 본 논의로는 조동탁(1964), 이남덕(1986:18), 안옥규(1989:80), 김민수 편(1997:176), 백문식(1998:81), 서정범(2000:129) 등이 있다.
7) 명시적으로 이렇게 기술한 것은 아니지만, 설명 중에 ‘(바깥쪽→)밭쪽’이라고 기술함으로써 ‘바깥’이 줄어 ‘밭’이 된 것으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바깥’의 어원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파생어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합성어로 보는 것이다. 파생어로 보는 견해로는 안옥규(1989:180)가 있고, 합성어로 보는 견해로는 유창돈(1957:363), 유창돈(1971:31), 김민수 편(1997:176), 국립국어원(2007) 등이 있다.

‘바깥’을 파생어로 본 안옥규(1989:180)는 ‘밖’에 접미사 ‘-알’이 결합하여 ‘바깥’이 되었다고 보고, 다시 ‘밖’은 ‘밖’이, ‘(-)알’은 ‘알’이 변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는 달리 유창돈(1957:363)은 ‘바깥’을 ‘밖[外]’과 ‘악[所]’이 결합한 것으로 보았으나, 유창돈(1971:31)은 이를 수정하여 ‘바깥’을 ‘밖[外]+’겉[表, 皮]’이 결합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한글마춤법통일안(29)에서 ‘밖’에 접미사 ‘-알’이 결합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김민수 편(1997:176) 역시 ‘바깥’을 ‘밖[外]’과 ‘겉/겉[表皮]’의 결합으로 보았으며, 국립국어원(2007)은 ‘바깥’을 ‘밖[外]’과 ‘악[所]’이 결합한 것으로 보면 ‘밖갓’의 형태에 대하여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전 시기에 등장하는 ‘밖갓’이나 ‘밖겉’의 형태를 설명해 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바깥’은 다음과 같이 17세기 문헌에서 ‘밖겉’으로 나타난다.

- (2) 小斂은 도헌 者 | 안희 인논 고로 버거 散衣를 펴고 後에 祭服을 펴고 大斂은 도헌 者 | 밖갓티 인논 고로 버거 祭服을 펴고 後에 散衣를 펼 디니라 <家禮諺解 5:25b>
진실로 안해 비록 곶을 사랑하나 밖갓트로는 恩養을 뵈고 안흐론 뵈여흐는 뵈음을 곶초아 두어 (苟妻雖愛妾 | 나 外示恩養內臟嫉心 곶야 <女訓諺解 下:14b>
만일 신령이 이실 작시면 병의 경곶며 등곶을 의논티 말고 밖갓티서 곶는 이를 곶기 다 알씨시여 놀 (若有神無論輕重皆可明言外間事) <痘瘡經驗方諺解 10a>

중세국어의 ‘밖’은 현대국어에 와서 ‘밖’이 되었고, 근대국어 시기에 처음 출현한 ‘밖겉’은 현대국어에 와서 ‘바깥’이 되었다. 해설에서는 ‘밭마당, 밭주인, 밭사돈, 밭어버이’ 등에서 분석되는 ‘밭’을 ‘바깥’의 준말인 것처럼 보았지만, 아직은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 참고로 20세기 전후 자료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밖갓마당, 밭갓주인’ 등의 어휘가 보이기는 하지만, ‘밭사돈, 밭어버이’ 등의 어휘에서는 ‘밭’ 대신 ‘밭갓’이 사용된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밭’ 또는 ‘밖’을 ‘바깥’이나 ‘밖갓/밭갓’의 준말로 보아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⁸⁾.

- (3) ㄱ. 솔기동니논 녀편네 천지런지 늘은 여편네 절문 여편네가 안마당 밖갓마당에 곶득 모혀서 <귀의성 上:15>
밭갓주인의 디답을 곶며 탁자에 가 병 하곶를 니여들더니 <고목화 上:54>
ㄴ. 천만천만 몽미 밭사돈 상스 말숨은 지극 경달곶온 바 질필을 디곶여 곶마 무슨 말숨을 곶스오 리잇가 <1886정보연간독,21a>
가히 은덕이 곶이 아닌 사람이면 밭어버이곶 청곶고 아니 알곶는 이 곶차 내여 가니<16xx계축 일기下:46a>

국어사전에서도 ‘바깥’과 ‘밖’을 본말과 준말의 관계로 보지는 않는다. ‘바깥(밖갓)’이 ‘밖(밖)’과 ‘겉’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만큼 ‘바깥’과 ‘밖’은 본말과 준말의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단어에서 발음되는 [받]은 ‘바깥’의 준말이라기보다는 고어 ‘밖(밖)’의 발음이 흔적으로 남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밖’의 발음이 지금은 [박]이어서 중세국어 ‘밖’에서 단순히 /ㅍ/가 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세국어 ‘밖’의 실제 발음은 [박]이 아닌 [받]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이 이 당시의 일반적인 표기가 ‘ㄱ’이 탈락한 ‘밖’이었기 때문이다⁹⁾.

8) 국어 사전에 ‘바깥사돈’과 ‘바깥어버이’가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밭’과 ‘바깥’의 교체가 축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의미 전달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어휘 교체가 일어난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 (4) 이 後 널위에 城 밧 흰흔 짜해 가 沙門과 ㅎ야 지조 것구오리라 <釋譜詳節 6:27b>
계지비 밧 이를 니르디 아니 ㅎ며 (女不言外 ㅎ며) <翻譯小學 3:18b>
권당이며 손이 성 밧 길 7의 幄츠를 設 ㅎ야 樞를 駐 ㅎ고 奠 ㅎ라 (親賓이 設幄於郭外道旁 ㅎ야 駐
樞而奠 ㅎ라) <家禮諺解 8:10a>
內外 곳을 각각 ㅎ고 男女 무리를 달니 ㅎ야 밧 ㅍ람을 엿보디 말며 밧 ㅍ히 나가디 말올지니
(內外各處 ㅎ고 男女異群 ㅎ야 莫窺外壁 ㅎ며 莫出外庭이니) <女四書 2:2a>

이렇게 보면 [바싸돈], [바쌍제]를 ‘발사돈, 발상제’로 적어야 할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¹⁰⁾. 해설에서는 ‘바깥’이 줄어 ‘밭’이 된 것으로 보았으나 어원적으로 이렇게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까’가 탈락하여 ‘밭’이 되는 것도 음운론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한 해설에서는 ‘밧’이 ‘바깥’의 뜻으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밭벽, 밧부모, 밧사돈, 밧상제, 밧아버이, 밧쪽’과 같이 적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이때의 ‘밭’이 과연 ‘바깥’을 연상시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밭[田]’이라는 고빈도 단어의 영향으로 의미 파악에 혼란이 일 수도 있다.

이를 알아 보기 위해 기사문에서 씨름 용어인 ‘밭다리’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조사해 보았다. ‘밭다리 걸기’와 ‘안다리 걸기’는 대표적인 씨름 기술에 속하며 ‘안다리’와 ‘밭다리’가 의미 대립을 이루고 있으므로, 씨름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밭다리’가 바깥쪽 다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본고에서 조사한 기사문은 대부분 전문적인 스포츠 지식을 가진 기자들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밭다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¹¹⁾.

표기	기사 건수	비율
밭다리	276건	57.5%
밧다리	183건	38.1%
반다리	21건	4.4%
총계	480건	100%

<표 4> ‘밭다리’의 기사문 표기 양상

그런데 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바깥’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밭’으로 적기로 했다는 해설이 무색할 정도로 ‘밧다리’ 및 ‘반다리’의 표기 비율의 50%에 육박한다. 이러한 결과는 제7항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제7항의 예시로 삼을 만하다. 제7항은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ㅍ’으로 적는다는 내용인데, 해설의 설명과는 달리 [반따리]를 ‘밭다리’로 적을 근거

9) 중세국어의 음절 말 ‘ㅍ’에 대해서는 [s]로 외파되었다는 설이 주류를 이루나, [t]로 불파되었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외파설을 주장하는 이들도 16세기 정도에는 [t]로 불파되었다고 보기 때문인데,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현대국어 이전의 어느 시기부터 [t]로 불파된 발음 [ㅍ]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저형 /ㅍ/이 새롭게 출현하게 된 것 역시 사실이라면, 15세기에 음절 말 ‘ㅍ’의 외파 여부는 본고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10) 사전에는 ‘밭사돈, 밧상제’의 발음이 [반싸돈], [반쌍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발음을 해 보면 된소리 [ㅍ] 앞에서 폐쇄 구간이 느껴지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발음은 [바싸돈], [바쌍제]라 할 수 있으며, 이 소리를 한글 맞춤법에서 ‘밭사돈’과 ‘밭상제’로 적도록 한 것이다.

11) 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구축한 홈페이지인 미디어가온(www.mediagaon.or.kr)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뉴스, 기사, 카페, 블로그 글 등이 중복 집계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통계치를 내기가 힘든데, 이 홈페이지에는 기사문이 중복되지 않고 하나씩 등록되어 있어서 정확한 통계치를 얻을 수 있다.

가 없고 전문 지식을 가진 기자들조차도 ‘밧다리’로 적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며, 차라리 ‘밧다리’를 올바른 표기로 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¹²⁾.

물론 ‘밧’이라는 표기가 현대국어의 ‘뱃’을 연상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밭’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밭’과 ‘밧’이 모두 원의미를 연상시키지 못하는 동일 조건이라면 어원적으로 연관이 있는 표기를 선택하는 것이 그 다음 기준이 될 텐데, 해설에서는 잘못된 어원 분석을 통해 ‘밭’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제7항의 해설에 등장했던 ‘바깥’이 제20항의 [붙임]에 이르러서는 조항의 예시로 등장한다. 제20항의 [붙임]은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예로 ‘바깥’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바깥’은 앞서 언급한 대로 어원적으로 볼 때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이므로 해당 용례로 적절하지 않다¹³⁾.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엎어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	흩어지다
(2) 본뜻에서 멀어진 것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표 5> 한글 맞춤법 제15항

한글 맞춤법 제15항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하여 [붙임1]에서 합성 용언의 표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제15항의 [붙임1]은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않는다는 것인데, 해설에서 후자의 예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 (5)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나타나다, 바라보다, 바라지다[垢], 배라먹다[乞食], 부서지다[碎], 불거지다[凸], 부러지다[折], 자라나다[長], 자빠지다[漚]

해설에서는 위의 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원 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항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이들의 어원이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나타나다’와 ‘부서지다’는 현대국어에 ‘낳다’와 ‘붓다[碎]’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낳- +-아 + 나- + -다’나 ‘붓- +-어 + 지

12) ‘밧다리’의 표기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마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13) 물론 통시적으로 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국어사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바깥’이 합성어라는 사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국어사전에 ‘-얹’이라는 접미사가 등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깥’을 함부로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어원론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어원 분석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 -다'로 분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들을 원형을 밝혀 분철 표기하지 않고 발음 나는 대로 연철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세국어에는 다음과 같이 '날다'가 존재했었고, '부서지다'와 관련해서는 '부스다'가 존재했기 때문에 중세국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들의 어원적인 분석에 큰 문제가 없다.

(6) ㄱ. 過去는 디나건 ㅅ오 現在는 ㄴ타 ㅅ 잇는 ㅅ오 未來는 ㅅ아니 ㅅ엇는 ㅅ니라 <月印釋譜 2:21b>
 이 ㅅ밤 燈 ㅅ불고매 ㄴ타ㄴ ㅅ두려운 ㅅ光은 이 燈ㅅ ㅅ빛가 (此夜燈明에 所現圓光은 爲是燈色가) <楞嚴經諺解 2:80b>

ㄴ. 비록 塵劫이 디나ㅅ록 ㅅ모물 ㅅ부스며 ㅅ命을 ㅅㄱㄱ근히 ㅅ하야도 ㅅ得道를 ㅅ期限이 ㅅ있디 ㅅ아니ㄱ리니 (雖歷塵劫ㅅ록 ㅅ碎身粉命하야도 ㅅ未有得道之期하리니) <法華經諺解 1:222b-223a>

ㅅ내 ㅅ모물 ㅅ엇테 ㅅ드틀ㄱ티 ㅅ부스디 ㅅ물관디 ㅅ내 ㅅ아디리 ㅅ목수를 ㅅ일케 ㅅ하야노 <月印釋譜 21:219b>

그러나 '바라보다'와 '자라나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다른 예들과 같은 차원에서 본다면, 해설에서는 어원적으로 '발- + -아 + 보- + -다'나 '잘- + -아 + 나- + -다'와 같이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소리 나는 대로 연철 표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바라- + (-아) + 보- + -다'와 '자라- + (-아) + 나- + -다'로 분석되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예라 할 수 없다. 현대국어에 엄연히 '바라다'와 '자라다'가 있고, 합성어 '바라보다'와 '자라나다'에 선행 구성 요소인 '바라-'와 '자라-'의 원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두 단어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예라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제15항 [붙임1]에 대한 해설에서 '바라보다'와 '자라나다'는 제외해야 할 것이다.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닫이	별이	벼훤이	살림살이	쇠붙이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걸음	뉘음	민음	얼음	엮음	울음
웃음	졸음	죽음	얹	만듬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굳이	같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좋이	짓궂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굽도리	다리[髭]	목거리[목병]	무녀리		
코끼리	거름[비료]	고름[膿]	노름[도박]		

<표 6> 한글 맞춤법 제19항

한글 맞춤법 제19항은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는 예

외적인 설명이 덧붙여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예로 ‘다리[髮]’가 제시되었다.

‘다리[髮]’는 예전에 여자들의 머리술이 많아 보이라고 덧넣었던 판머리를 말한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아마도 이 단어의 구성을 ‘달-[縣]+-이’로 파악한 듯하다. 현대국어의 어형만을 볼 때는 그렇게 볼 만도 하다. 그러나 옛 문헌의 표기를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 (7) ㄱ. 마리를 거두오디 돌외 드리던 듯게 밀며 곳갈을 밧디 말며 (斂髮毋髻^{ᄃᆞᆫ}) <翻譯小學 4:11a>
 髮 돌외 피 髻 돌외 테 <訓蒙字會-叡山文庫本 中:15b>
 髮髮 버혀 돌외 민 털 <東醫寶鑑湯液篇 1:30b>
 ㄴ. 假髮 ㄷ리 <同文類解 上:54b>
 假髮 ㄷ리 <譯語類解補 29b>
 假髮 ㄷ리 <漢清文鑑 11:23b>
 假髮 ㄷ리 <蒙語類解 上:42a>

위의 예에서 보듯이 ‘다리[髮]’의 중세국어 표기는 ‘돌외’였으며, 근대국어 표기는 ‘ㄷ리’였다. 현대국어에 와서 ‘다리’가 되었지만, 이때의 ‘다리’는 ‘달-’에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기보다는 ‘ㄷ리’의 둘째 음절 ‘-이’가 ‘ㅣ’로 바뀌는 음운론적인 변화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후대에 와서 ‘ㄷ리’가 ‘달- + -이’로 재구조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ㄷ리 > 다리’의 통시적인 음운 변화 가능성 역시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범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단어를 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게다가 ‘다리[髮]’는 사용 빈도가 낮아 일반인에게 매우 생소한 단어이다. 따라서 이보다는 어원 면에서 논란이 없으면서도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적절한 단어를 찾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부사로 된 것
 곳곳이 낱낱이 뭉뭉이 샅샅이 앞앞이 집집이

2. 명사로 된 것
 곰배팔이 바둑이 삼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절름발이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꼬락서니	끄트머리	모가치	바가지
바깥	사타구니	싸라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짜개	

<표 7> 한글 맞춤법 제20항

한글 맞춤법 제20항은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붙임]에서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고 하며, 여러 단어를 예로 들었다.

그런데 해설에서는 ‘값어치, 벼슬아치, 반뵈아치’의 경우에는 접미사 ‘-아치, -어치’가 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형을 밝혀 적는다며 이들을 예외로 처리하였다. ‘-아치, -어치’는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들 단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모가치’의 경우에는 ‘뭉’과 ‘-아치’가 결합하였으므로 ‘목사치’가 되어야 할 텐데 ‘모가치’

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시 예외로 취급되었다. ‘값어치’의 경우에는 ‘값서치’가 되지 못한 점도 예외적이지만, ‘모가치’에 준하여 볼 때 ‘가버치’와 같이 연철 표기하지 않는 점도 예외로 지적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아치, -어치’가 결합한 단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해설에서는 예외로 처리했지만, 유독 이들 단어만이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때 이를 단지 우연의 일치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먼저 ‘벼슬아치’와 ‘반빛아치’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때의 ‘아치’는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벼슬아치, 시정아치, 장사치’ 등의 예가 있고, 직업은 아니지만 ‘동녕아치, 양아치’ 등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⁴⁾.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아치’가 접미사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한글 맞춤법 해설에서도 ‘아치’를 접미사로 보고 ‘벼슬아치, 반빛아치’를 예외적인 표기로 보고 있다. 그런데 옛 문헌의 표기를 보면 ‘아치’를 접미사보다는 명사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먼저 ‘아치’가 결합한 옛 문헌의 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8) ㄱ. 樂工 풍뉴아치 <譯語類解 上:30a>
樂工 풍류아치 <方言類釋 申 35a>
樂人 풍류아치 <漢淸文鑑 5:34a>
- ㄴ. 동녕아치 動鈴 乞人 <국한회어 83>
동량아치 乞人 <국한회어 83>
冬糧 동녕아치 <廣才物譜 1:庶流 2b>
- ㄷ. 爐頭 플무아치 <漢淸文鑑 5:31a>
- ㄹ. 買賣人 흥정아치 <漢淸文鑑 5:32a>
- ㅁ. 시정아치 市井輩 <국한회어 197>

위의 예에서 보듯이 ‘아치’는 근대국어 이후의 문헌에서만 모습을 보인다¹⁵⁾. 그렇다면 위의 단어들은 근대국어 시기에 처음 등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들 단어가 중세 문헌에는 ‘바지’ 또는 ‘바치’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 (9) 마초야 흥정바지 숨衛國으로 가리 잇더니 <釋譜詳節 6:15a-15b>
네 五百 흥정바치 바르래 드러 보비 긋다가 摩竭 부니시니라 <月印釋譜 22:32b-33a>
論語에 날오디 工匠바치 | 이를 이대코져 홀딘댄 반드기 문져 그 그르슬 놀나게 흥느니라 흥니라 <圓覺經諺解 序:80b>

14) ‘시정아치’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사치’는 ‘장사아치’의 준말이다. 표준어 규정 제14항은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사아치’와 ‘장사치’가 그 예로 제시되어 있다. 한편 김성동(1994)와 조항범(2014)는 ‘양아치’를 ‘동녕아치’에서 처음 절 ‘동’이 생략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15) 몇몇 문헌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치’가 ‘앗치’로 표기되기도 했다. 이들 예까지 포함하면 ‘아치/앗치’가 결합한 어휘가 더 풍부해진다.

바느질앗치 Couturier 벼슬앗치 Dignitaire <한불조던 10>
동량앗치 乞糧人 Mendiant <한불조던 491>
반빛앗치 飯婢 <국한회어 131>
반빛앗치 s. A female slave. See 반빛하님. <한영조던 384>
시정앗치 1. 市井輩 (져즈) (우물) (무리-*비) A market trader. See 시인. <한영조던 593>
동량앗치 1. 乞糧人 (빌-*걸)(량식-*량)(사름-*인) A beggar. See 동량군. <한영조던 674>
장스앗치 s. 商賈 (장스-*상) (장스-*고) A tradesman; a merchant. See 상고. <한영조던 717>

위의 예들은 ‘바지’가 결합한 것들이다. 근대국어의 ‘흥정아치’가 15세기 문헌에는 ‘흥정바지’로 표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바지’보다 ‘바치’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이 ‘바치’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19세기 문헌에 이르기까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 걸쳐 매우 광범위한 분포를 보인다.

- (10) 가. 흑 민므레 양의 존등과 흥수 술마 먹고 밑 툽고 번당 드리고 여러 노릇바치로 놀이거든 (或 白煮着羊腰節胸子喫了時 騎着鞍馬 引着伴僮 着幾箇幫閑的盤弄着) <翻譯老乞大 下:53b-55b>
- 나. 옥바치 훈 빈허를 프느니 7장 공교하야 모로매 돈놀 칠십만을 바도려 하느이다 (玉工이라 貨一銀하느니 奇巧이라 須七十萬錢이렇이다) <翻譯小學 10:15b>
- 다. 工 바치 공 <石峰千字文40a>, <新增類合 下:60a>, <千字文-松廣寺板 30a>
바치 工 Profession, metier, Artisan. <한불조던 308>
바치 s. 工 (*공) An artisan; a worker. See 장식. <한영조던 395>
- 라. 활바치 박남은 서울 사름이라 (弓匠朴楠京都人)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忠臣圖1:77b>
- 마. 匠人 성녕바치 <譯語類解 上:30a>
- 바. 做工的 공장바치 <廣才物譜 1:民業 2a>
- 사. 雜戲, 把戲的 노름바치 <廣才物譜 2:技戲 1a>
- 오. 갓바치 皮匠 Cordonnier, celui qui fait des souliers eu cuir. <한불조던 137>
갓바치 s. cobbler; a shoemaker. <한영조던 196>

위의 예 중 (10다)처럼 한자 학습서와 어휘집에서 ‘바치’가 독립적인 명사로 사용된 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자의 훈(訓)이 고형(古形)을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바치’가 명사로 사용되지 않지만, 이전 시기에는 ‘바치’가 명사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이 ‘바지’의 쓰임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 (11) 工匠曰把指 <鷄林類事 4b>
工 바지 공 <光州千字文 40a>
宗은 물리오 匠은 바지라 <法華經諺解 序:21b>

「법화경언해」에서는 ‘匠’을 ‘바지’라 하였고, 12세기의 고려어를 기록한 「계림유사」에서는 ‘工匠’을 ‘把指(바지)’라 하였다. 이와 함께 천자문 중 고형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광주판 천자문에서 다른 천자문들과는 달리 ‘工’을 ‘바지’라 한 점을 보면, 아무래도 ‘바지’가 가장 오래된 고형이 아닌가 한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일부 중세 문헌에서는 ‘바지’ 및 ‘와치’의 형태도 나타난다. 이는 유성음 사이에서 ‘ㅂ’이 약화된 결과로 보인다.

- (12) 네 내 옷 낚고 내 宮殿에 드러 내 풍류바치 드리고 도훈 차반 먹고 이쇼디 <釋譜詳節 24:28b>
이 구란 솔 狝와치 夏五의 매운 거시라 (是拘欄衛裏帶匠夏五廂的) <翻譯朴通事 上:18b>.
더 눈 브른 활와치 왕오를 불러 오라 (叫將那斜眼的弓匠王五來) <翻譯朴通事 上:59a>
네 빅성도 의리 네 가지니 낭반과 녀름지스리와 공장와치와 흥정와치라 (古之爲民者伊 四尼 士農工商伊 是也) <正俗諺解-初刊本 21b>

지금까지 살펴본 형태들의 시대별 분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2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바지							
바치							
와치							
아치							

<표 8> 'X아치'류 명사의 시대별 형태 분포

이처럼 현대국어의 '아치'가 명사인 '바지'와 연속선 상에 있고, '반빛아치'와 같이 '아치' 앞에 사이시옷이 첨가된 예가 있는 것을 보면, '아치'가 단어형성 과정에서 접미사가 아닌 명사로서 기능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¹⁶⁾.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반빛'을 '예전에 반찬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직책'이라고 풀이하여 '반빛' 자체를 명사로 보았다. 해설에서는 '반빛'을 '반찬 만드는 일'이라고 보아 사전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했지만, '반빛'을 명사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한불조던』(1880), 『국한회어』(1895), 『한영조던』(1987)의 내용을 보면 이때의 '반빛'을 명사로 보기가 어렵다.

(13) 반비 飯婢 Esclave cuisiniere. <한불조던 299>

반빛앗치 飯婢 <국한회어 131>

반빛하님 s. 飯婢 (밥) (종 - *비) A female slave. <한영조던 384>

반빛앗치 s. A female slave. See 반빛하님. <한영조던 384>

위의 예에서 보듯이 예전에 음식을 만드는 하녀를 '반비(飯婢)'라 하였고, 이 '반비'에 각각 '하님'과 '아치'가 결합하면서 사이시옷이 첨가되어 '반빛하님'과 '반빛아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반비'와 '아치' 사이에 사이시옷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치'가 접미사가 아니라 명사라는 점을 잘 말해 준다¹⁸⁾.

이는 이 단어의 발음이 [반비사치]가 아니라 [반비다치]라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해설에서는 접미사 '-아치'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의 발음 형태가 [반비다치]로 굳어져 있어서 '반비사치'로 적을 수 없는 것이므로 관용에 따라 '반빛아치'로 적는다고 했지만, 발음이 그렇게 난다는 것 자체가 '아치'가 접미사가 아닌 명사라는 점을 잘 말해 준다.

해설에서는 '벼슬아치(동냥아치, 장사아치)'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벼슬(동냥, 장사)'의 형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용에 따라 '벼슬아치'로 적는다고 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아치'가 명사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¹⁹⁾.

16) 김현숙(1968)은 통시적으로 '-바치 > -바치 > -와치'의 변화를, 조항범(2014)은 '-바치 > -바치 > -와치 > -아치'의 변화를 언급하였으나, '바지'와의 선후 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본고는 문헌 용례상 '바치'의 이전 형태를 '바지'로 보는 입장이지만, 'ㅈ > ㅊ'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김현숙(1968)은 '-바치'를 체언에 연결되어 직업을 나타내는 구실을 갖는 접미사로 보았으나, 조항범(2014)은 '바치'를 명사로 보고, 이 명사 '바치'가 일찍이 접미사화하여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19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반빛아치'에서 사이시옷이 사용된 것을 보면 '바치'의 명사성이 형태가 바뀐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7) 표준어 규정 제17항은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하였다. 이 예 중에 '반빛아치'와 '반비아치'도 포함되어 있는데, 규정에서는 '반빛아치'를 표준어로, '반비아치'를 비표준어로 처리하였다. 사전과 해설에서는 '반빛' 자체를 명사로 보고 있으나, '반빛아치'와 함께 '반비아치'가 존재한다는 것은 '반빛'의 'ㅅ'이 사이시옷임을 잘 말해 준다.

18) 표준어 규정 제17항의 비고란에서는 '반비'를 '밥짓는 일을 맡은 계집종'이라 하여 '반비'의 정체와 의미를 정확하게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과 한글 맞춤법 해설에서 사이시옷이 결합한 '반빛'을 명사로 해석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값어치’와 ‘모가치’에서 분석되는 ‘아치/어치’도 접미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설에서는 ‘한 푼어치, 십 원어치, 백 불(달러)어치, 천 엔어치, 만 프랑어치, 십만 마르크어치’ 등의 예를 들며 ‘어치’가 (의존) 명사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어치’가 붙는 ‘푼, 원, 값’ 등의 형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푸너치, 워너치’와 같은 표기 형태에 거부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여 관용에 따라 ‘값어치’로 적는다고 하였다.

사실 해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어치’는 의존 명사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는 다음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4) 법국속디이푸리가 일제리아라흐는 나라에서는 스즈훈마리가 일년에 잡아먹는증상이 팔천원가량
어치를 잡아먹는다하고 <데국신문 1900년 12월 15일 자 1면>
그한께에 일천오백갑식 든것인데 제비뽑히고 물건준것이 십오원이상어치식을 허비하앗다하니
<데국신문 1900년 7월 21일 자 2면>

만약 ‘어치’가 접미사라면 ‘원’과 ‘어치’ 사이에는 다른 요소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예에서는 ‘원’과 ‘어치’ 사이에 접미사 ‘-가량’이나 명사 ‘이상’이 첨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원’과 ‘어치’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때의 ‘어치’는 접미사가 아닌 의존 명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치’를 접미사로 처리했지만,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와 다르게 ‘어치’를 명사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점도 참고할 만하다.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밭 아래[바다래]	늪 앞[느밭]	젓어미[저더미]
맛없다[마덜따]	겉옷[거돋]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신타], [머신타]로도 발음할 수 있다.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넋 없다[너겍따]	닭 앞에[다가페]	값어치[가버치]
값있는[가빈는]		

<표 9> 표준 발음법 제15항

위의 조항은 표준 발음법 제15항이다. 표준 발음법 제15항은 실질 형태소가 연결될 때 선행 형태소의 종성이 연음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붙임]에서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될 때 선행 형태소의 종성이 둘일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연음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예로 ‘값어치’를 들었다. 이는 표준 발음법에서 ‘어치’를 접미사가 아닌 명사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표준 발음법 제15항에 대한 해설에서는 ‘값어치[가버치]’는 ‘10원 어치, 백 불(\$) 어치, 팔 푼 어치’ 등을 고려하여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해석한 결과라며, ‘어치’는 자립적으

19) 전문수(1938)은 ‘바느질애치, 걸애치, 벼슬애치’ 등의 예를 들면서 공부(工夫), 박사(博士), 서리(胥吏) 등을 ‘아치’라 불러 왔으며, 이 말은 小의 의미인 ‘앞’에 ‘이’가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것으로 ‘小職者’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때의 ‘아치’는 ‘바지’에서 변화된 것이므로 ‘앞’과 관련시키기가 어렵다. 한편 小倉進平(1944:165)는 ‘바지’와 ‘바치’를 만주어 ‘faksi’ 또는 몽골어 ‘baksi’의 차용어로 보았으나, 조항범(2014)는 어종의 ‘ks’가 ‘ㅈ’이나 ‘ㅊ’으로 바뀌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로 쓰이지는 않지만, 사전에서 이를 접미사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결국 표준 발음법 제15항과 한글 맞춤법 제20항의 해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표준 발음법보다는 한글 맞춤법의 해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치’가 접미사라면 ‘값어치’는 [가버치]가 아닌 [갑씨치]로 발음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이진호, 2012:290). ‘값어치’의 발음이 [가버치]로 나고 ‘값’의 원형을 밝혀 표기하게 되는 것은 결국 ‘어치’가 실질 형태 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²⁰⁾.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1. ‘ㅂ’ 소리가 덧나는 것		
덥싸리(대ㅂ싸리)	몹쌀(메ㅂ쌀)	법씨(벼ㅂ씨)
입때(이ㅂ때)	입쌀(이ㅂ쌀)	접때(저ㅂ때)
좁쌀(조ㅂ쌀)	햅쌀(해ㅂ쌀)	
2. ‘ㅎ’ 소리가 덧나는 것		
머리카락(머리ㅎ가락)	살고기(살ㅎ고기)	
수캐(수ㅎ개)	수컷(수ㅎ컷)	
수탉(수ㅎ닭)	안팎(안ㅎ팍)	
암개(암ㅎ개)	암컷(암ㅎ컷)	
암탉(암ㅎ닭)		

<표 10> 한글 맞춤법 제31항

한글 맞춤법 제31항은 ‘ㅂ’이 덧나거나 ‘ㅎ’이 덧나는 발음의 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중 ‘ㅎ’이 덧나는 경우와 관련하여 해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

(15) 옛말에서 ‘ㅎ’곡용어이었던 ‘머리[頭], 살[肌], 수[雄], 암[雌], 안[內]’ 등에 다른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 중에서, [ㅎ]음이 첨가되어 발음되는 단어는 소리나는 대로(뒤 단어의 첫소리를 거센소리로) 적는다.

위의 설명처럼 현대국어에서 ‘ㅎ’이 덧나는 예들은 중세국어 ㅎ곡용어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설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ㅎ곡용어로 언급된 단어들 중 ‘머리’는 실제로는 ㅎ곡용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16) 王이 太子스 머리에 브스시고 보비엿 印 받즈븍시고 <釋譜詳節 3:6a>
 또 菩薩이 머리와 눈과 몸과로 즐겨 布施ㅎ야 <釋譜詳節 13:19b>
 太子 | 원소노로 마리를 자븍시고 發願ㅎ샤디 <釋譜詳節 3:31a>
 부테 마리와 손톱과를 바혀 주신대 <釋譜詳節 6:44b>

현대국어의 ‘머리[頭]’는 중세국어로 ‘머리’ 또는 ‘마리’라 하였는데, 위의 예에서 보듯이 ‘ㅎ’이 전혀 덧나지 않는다. ‘머리카락’은 17세기에 이르러서야 ‘머리ㄱ락’ 또는 ‘머리카락’의 형태로 출현하며, 이 예를 제외하면 ‘머리’ 뒤에서 ‘ㅎ’이 덧나는 예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20) 「국한회어」(1895:335)에서 ‘푼’과 관련하여 ‘푼살[小鑿], 푼돈[分錢], 푼어치[分賣], 푼전[分錢], 푼침[分針], 푼총[分稱]’ 등의 어휘를 제시했는데, 이와 같이 ‘푼어치’가 합성어처럼 다루어진 점도 참고할 만하다.

(17) 살아실 제 떠러던 바 니며 머리카락이며 및 버혔던 바 손뚝 발뚝을 棺 모히 메오고<家禮諺解 5:34a>

털과 머리카락을 모롬매 맛당히 곱힐 거시니 (毛髮須當擇이니) <馬經抄集諺解 上:40b>

형태론적인 구성이 비교적 명확해 보여서인지 ‘머리카락’의 어원을 다룬 논의는 거의 찾아 보기 힘들다. 관련 논의로 국립국어원(2007) 정도를 들 수 있는데, 국립국어원(2007)은 ‘머리카락’을 ‘머리’와 ‘카락’이 결합한 합성어로 보고 ‘카락’을 ‘가락’과 같은 말미를 가진 말로 보았으나, ‘가락’이 ‘카락’이 된 까닭은 분명치 않다고 하였다. ‘가락’이 ‘카락’이 된 원인을 ‘머리’에서 찾지 않은 것은 ‘머리’가 ㅎ곡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설에서 ‘머리’를 ㅎ곡용어로 설명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머리’와 ‘가락’의 결합이 ‘머리카락’이 된 원인은 무엇일까? 흔하지는 않지만, 아마로 경음과 격음의 교체 현상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말에는 다음과 같이 일부 어휘에서 경음과 평음이 교체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 (18) ㄱ. 통째로 ~ 통채로, (깨)뜨리다 ~ (깨)트리다, 널빤지 ~ 널판지
- ㄴ. 파리 ~ 빠리, 모차르트 ~ 모짜르트
- ㄷ. 넘빴다/넘씨다 > 넘치다
- 습씨다/습기다 > 삼키다
- 빳기다 > 비키다

(18ㄱ)은 고유어, (18ㄴ)은 외래어의 예이며, (18ㄷ)처럼 통시적으로 경음이 격음으로 교체되는 현상도 발견된다²¹⁾. 만약 ‘머리’와 ‘가락’이 결합하면서 사잇소리가 들어간다면 그 발음이 [머리카락]이 될 텐데 위의 예와 같이 경음이 격음으로 바뀌어 ‘머리카락’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경우에 경음이 격음으로 교체된 이유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머리터리’와 ‘머리터럭’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머리카락’은 17세기에 처음 출현하는데, 중세국어 시기에 이미 존재했던 ‘머리터리/머리터럭’이 격음을 가지고 있는 점에 유추되어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지금까지 한글 맞춤법의 규정 및 해설에서 다루고 있는 어원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글 맞춤법 자체가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어원을 논하는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규범을 제시하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어떤 글보다도 정확하고 오류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어원론의 관점에서 볼 때 크고 작은 오류가 많이 발견되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 검토한 결과 제5항, 제7항, 제15항, 제19항, 제20항, 제31항 등에서 어원 분석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되었다. 특히 한글 맞춤법 제20항에서 ‘모가지, 값어치, 벼슬아치, 반빛아치’를 파생어로 분석한 것은 표준 발음법 제15항에서 ‘값어치’를 합성어로 분석한 것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 문제가 심각하다.

현행 한글 맞춤법이 제정된 지 20여 년이 넘었고, 이에 따라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항의 내용이 현실 언어를 충실하게 반영하면서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듬을 필요가 있겠지만, 이와 더불어 정확하지 않은 어원 설명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어원적인 부분에

21) (18ㄷ)의 ‘빳기다’는 한편으로는 ‘비끼다’로, 또 한편으로는 ‘비키다’로 이어졌다.

한정하였지만, 본 연구를 통해 한글 맞춤법이 보다 정확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지길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강길운. 1992. 「한국어계통론 -어원·어휘비교편-」 서울: 형설출판사.
- 국립국어원. 2007. 한민족 언어 정보화 통합 검색 프로그램.
- 김무림. 2012. 「한국어 어원사전」 서울: 지식과교양.
- 김민수 편. 1997. 「우리말 語源辭典」 서울: 태학사.
- 김성동. 1994. “우리말 바르게” 한겨레 1994년 9월 14일 자.
- 김현숙. 1968. “轉成名詞의 接尾辭에 對하여” 「성심어문논집」 2, 58-104.
- 리득춘. 1987. 「조선어 어휘사」 연변대학출판사
- 백문식. 1998.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 삼광출판사.
- 서정범. 2000. 「국어어원사전」 서울: 보고사.
- 안옥규. 1989. 「어원사전」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 유창돈. 1957. “平北語 散考 -文獻語와의 聯關을 中心으로-” 「一石 李熙昇 先生 頌壽 紀念 論叢」 서울 :一潮閣. 361-377.
- 유창돈. 1971. 「語彙史 研究」, 서울: 宣明文化社.
- 이남덕. 1986. 「한국어 어원 연구 IV -언어연대학적 고찰과 음운대응법칙의 정립-」,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이승녕. 1961. 「국어조어론고」서울: 을유문화사 &93
- 이진호. 2012.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서울: 아카넷.
- 전몽수. 1938. “語源攷(一)” 「한글」(한글학회) 55, 239-246.
- 조동탁. 1964. “멋의 연구-한국적 미의식의 구조를 위하여-” 「한국인과 문학사상」 서울: 일조각.
- 조항범. 2014. “‘거지’ 관련 어휘의 語源과 意味” 「우리말글」(우리말글학회) 61, 1-34.
- 小倉進平. 1944. 「朝鮮方言の研究(下)」 東京: 岩波書店.

■ 토 론

“어문 규정의 어원 설명 검토”에 대한 토론문

조태린(대구대)

이 논문은 한글 맞춤법 규정 및 해설의 어원 분석 중 문제가 되는 것들을 구체적인 문헌자료에 기반하여 살펴보면서 오류를 지적하고 개선방향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발표자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한글 맞춤법이 학문적으로 심도 있게 어원 분석을 다루는 성격의 내용은 아니지만 어문 규정으로서의 영향력이나 공신력을 고려한다면 분명한 오류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토론자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문제는 토론자가 이처럼 귀한 발표에 대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어사나 어원에 대한 지식이 일천한 토론자가 어문 규정에 관한 발표라는 말만 듣고 덜컥 토론을 하겠다고 한 것을 발표문을 미리 읽는 내내 후회했지만 다시 무를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논문의 중심 논의와는 거리가 있는 주변적인 질문 몇 가지로 토론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 발표자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

첫째, 논문에서는 ‘숫제’에 대한 어원 설명과 관련하여 오류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정교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차라리 불확실한 ‘숫저비’를 제외하고 ‘숫접-+-이’가 ‘숫저이’를 거쳐 ‘숫제’가 되는 정도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토론자로서는 ‘숫제’를 비롯하여 이후 발표에서 언급된 문제들 중 아직까지 학계의 해석이 통일되지 않아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은 어원 설명의 예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둘째, 논문에서는 ‘밭’이 ‘바깥’이 줄어서 된 것으로 볼 어원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밭’이 과연 ‘바깥’을 연상시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현대 기사문에서 씨름 용어인 ‘밭다리’를 어떻게 표기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4>와 같이 ‘밭다리’로 적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차라리 ‘밭다리’를 올바른 표기로 삼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하지만 ‘밭’이 ‘바깥’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밭다리’로 표기하는 비율이 ‘밭다리’로 표기하는 비율보다 여전히 20% 가량 더 높다는 점에서 발표자의 견해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토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발표자의 추가 설명을 바란다.

셋째, 한글 맞춤법 규정 및 해설에서 어원을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현재의 방식이 어문 규정이 지향하는 목적이나 역할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토론자로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예 제외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어원에 대한 설명도 통시적 변화 양상에 대한 기술은 생략하는 등 대폭 간소화 또는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